

30

#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커피 맥심

지금도 외제 커피를 찾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세계로 수출하는

우리커피 맥심의 우수한 품질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맥심을 비롯해 동서식품의 커피류 제품들이 97년 한해만해도

세계 곳곳으로 2,700만 달러어치나 수출되어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동서식품이 커피라고는 외제 밖에 없던 시절부터

우리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만들어 온 지 30년!

이제 맥심은 세계정상급 품질로서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세계속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류 품질만이  
세계에서 통합니다!

향이 좋아 커피다운 커피  
**맥심**

동서식품



웃자! 나라의 보자!

# feminist journal if

오숙희가 쓰는 영부인론 "그렇지 않으면은 용도제기해야 한다"  
98if여성정치선언 발동아 일어나라! 98년 6월 저자에 생계에 조율하라

## 특집 : 여자 기氣를 살려자!

조혜정 교수의 IMF바로보기 "가부장제가 말해야 나라가 산다"  
남성사회의 최후통첩, "남자없이 살 수 있어?"  
기 선 여자들이 나라를 살렸다!

동굴 그 여자의 첫경험  
남자의 성경험 빨발에서  
전통만화 색녀열전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영국 마요네즈 30% 할인권

## female gaze

년 잘랐어! -11가 뽑은 IMF시대 오작



98 봄  
8,500원



ALWAYS COCA-COLA

이동전화,  
똑같이 쓰고도  
몇 십만원을  
더 내시겠습니까?

참 억울한 일입니다.  
한 편이라도 아껴야 하는 IMF시대에  
같은 이동전화를 쓰면서도 돈을 더 낸다는 것은...

PCS 016. 쓰면 쓸수록 확실한 금액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계 표시에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소리가 보인다



## 특집 : 여자 기질을 살리자! 50

남자들이 망친 세상 52  
가부장제가 망쳐야 나라가 산다(조한혜정)  
마구잡이 여성애고, 무식한 기업논리, 경쟁력은 있는가(박혜숙)  
우리의 미래를 조심하자 63  
한국사회 보수화 물결 진단—남성사회의 최후통첩, "남자들이 살 수 있어?"(류숙영)  
미국사회 대중문화의 페미니즘 죽이기(한설아)  
여자 기를 살리자 72  
여자 기를 살려야 하는 10가지 이유  
민담을 통해 본 기센 여자들(박미라)  
IMF인생극장 : f m Fine(이순주)

페미니스트 영부인은 있는가 24  
영부인론으로 보는 한국정치의 단면(오숙희)

98여성정치선언 18  
말들이 일어나라! 98년 6월 지자체 선거에 즈음하여(김신영숙)

남자에게 96  
스캔들메이커 클린턴에게(김미경)

유지나의 영화산책 114  
자본주의, 쾌락 그리고 007시리즈—〈007 네버다이〉를 통해 '007' 다시보기

상대적이고도 절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남영) 180

남자의 성경험 100  
별장에서(강홍구)



## 리뷰 121

Entertainment HOT, 안재욱 등 연예인 팬클럽의 세력화 조짐(양성희)  
Men's studies 남성학 서적이 던지는 또다른 문제의식(박천홍)  
Talk show 요즘 한창 뜨고 있는 TV토크쇼 이모저모(김정복)  
Cartoon 이정애, 박희정, 유시진의 작품세계(한상정)  
Music 언더그라운드, 새로운 방식으로 물에 오르다(황옥주)  
Book 히스테리아가 뽑은 봄의 책

## 뉴스우먼 32

한국 최초의 여성주필 한국일보 장영수  
우즈고 성희롱 사건 승소로 이끈 최영애 소장  
300회 정신대문제 수요집회 참석한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21C여성포럼 공동대표원 지은희·조은·손숙  
제43회 현대문학상 수상 시인 찬양희  
아내의 상자 로 이상문학상 수상한 작가 은희경  
국내 최초의 일간지 여성편집국장 코리아헤럴드 이경희

## 우먼스트리트 46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부부, 여성계와 만남의 자리 가자/ 여성 부담하고 저지 위해 고용평등추진본부 출동/ 한국여성인우회 〈이디어운 동본부〉 발족/ 여성인권문제 재조명 〈여성 인권과 평화 세미나〉  
알아/ 여인 10년 운동사 책으로 본다/ 극장 〈마녀〉가 기획한 심야공포영화/  
국제단편영화제 초청받은 레즈비언 영화 〈허스토리〉/ 동성애자 잡지 BUDDY 출사표 던지다/  
한국여성영화 '연합'으로 확장

## female gaze 6

페미니스트 영부인 시대 / 남자는가라 / IMF마녀사냥 / 말들이 일어나라 / 천지창조 / 이름의 작품 세계 / if가 뽑은 오작

## 쇼킹우먼 84

"지하철 성추행도 노래에 담아요" / 언더그라운드 가수 객주림  
"말은 난무하는데 제대로된 말이 없어요" / '불타는 대지'의 작가 이혜천  
공격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수처럼 인생도 그렇게 / 국내 첫 여성국제축구심판 임은주씨



**웃자!**  
웃는다는 게 마음까지 나누는 것일까? 웃음은 우리들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죽어있는 침묵처럼, 지쳐있어오는 분수처럼 그렇게 웃고 있다 자, 웃자!

우리는 그동안 눈물과 고통에만 익숙해 왔다. 여  
로 이 세상을 건너는 것은 고통과 안고, 희생의 지  
거운 학습과정에 다름아닌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노예의 팔란을 선사한다. 이런  
것다. 즐겁고 싶다. 재미있고 싶다. 놀고 싶다. 그러하여 자들을 즐  
겁게 만끽하고 싶다.

**놀자!** 우리는 어찌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와 내  
 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하나의 욕망을 지니게 되었  
 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욕망을 지니  
 고 있으며 그 욕망이 피라미드라는 것을. 위험하고 있다. 이 세상을 한번  
 신나게 뛰놀아 버리고 싶다. 끊임없이 질문하기 어떻게 할까?

일본의 나쁜여자들/다이애나빈의 딜레마/미국 퍼스트레이디 도서관 외

\*온라인 여성모임은 왜 그렇게들 쌀쌀맞은걸까?(장여경)

제주, 그 4·3의 역사속으로(신정희진)

위대한 여신을 찾아 떠나는 그리스여행(업연수, 이현정)

당신의 행복지수는 몇점일까요?

그 여자의 첫경험(이경미)

엄마의 발레, 엄마 우린 우리 식으로 살래요

태초에 차이가 있었다(오애리)

20대. 신인류가 추구하는 이미지예술-이미지극장의 종합예술가 아름(우연)

'보다'와 '보여지다'의 그 언 사이(제미란)

배판과 위무의 드라마, 모녀에 관한 몇가지 삽화(김양선)

전통만화 색니얼전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104

광고패러디 90 · 152

악몽1.2.3/사랑의 019/여자의 필수품

안국 (마요네즈) 30%할인권 120



교실에서는 크고 붉은 잎새가 있는 복수초(*Fuchsia latifolia*)이라는 화에서 아주 섬세한 잎을 수도 있다. 그 색깔은 11월경에 이르러

특징: 이상의 목록을 주제로 한 10 가지 작업이 이제 4호를 맞았다. 임선부의 활동 시작으로 해서 첫호 남·여 동, 앞뒤로 반에 이어 작품을 찾아가는 4호, 또 다른

TABLE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 박해를 고집하고 있다. 그들은 왜 물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는가 그리고 연설이 다가가 표지 천에서 비껴가 감동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할거냐 사내에 여자가 감동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if 아직도 나오나요?"

IMF 한파가 몰아친 지 얼마 안된 지난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통의 전화가 독자들로 부터 걸려오고 있다. "혹시 폐간된 건 아닌가요?"

독자들의 눈에도 우리 잡지가 재정적으로 풍족해 보이지는 않는가 보다. 하기는 우리나라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서적총판 3개가 벌써 부도로 쓰러졌고, 문을 닫거나 출판물 포기하는 출판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으니 독자들의 생각이 지나친 노파심만은 아니다.

사실 if는 이번 IMF가 아니어도 외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웠다. 왜냐하면 if는 우리 사회의 주류가 걸어온 안전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f는 독자들과 간절히 의사소통하고 싶은 '바로 그때' 게릴라식으로 만들어졌다. 하고 싶은 말을 돌려 부드럽게 표현하는 교양(?)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광고시장과 출판시장의 매커니즘에 놀려 결국은 천편일률이 되고 마는 기존 여성지들을 달지 않았다고 굳게 마음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태어난 if가 창간 1주년을 맞기도 전에 거친 폭풍 한가운데 서 있게 됐다.

창간 때부터 부정적으로 보던 이들은 아마 예정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페미니스트 잡지라니, 그게 팔리겠어? 자본도 없고, 출판시장과 광고시장의 메카니즘도 모르는 여자들이 모여서 잡지를 만든다고? 어렵잖아! 여자들의 주머니가 얼마나 알뜰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if는 기어코 창간됐다. 여성들의 삶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주머니돈을 털어 자금을 모았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이 잡지에 담겼고 다행히도 독자는 그 기운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기대 이상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됐다. 며칠 전에는 PC통신상에 올린 if의 내용이 만 하루만에 조회건수 1,000건을 넘는 기록을 내기도 했다. if는 역사를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왜냐하면 if는 편집진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f는 여성들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이며, 애정을 가진 수많은 독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부장제사회가 잔뜩 위축돼 있는 이 때야말로 가슴을 활짝 펴야 한다는 것도 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if는 오늘도 부지런히 만들어지고 있다. 4호, 5호를 거쳐 5년, 10년 아니 영원히 독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가슴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욕망의 해방구가 되고 싶다.

그런 if를 지켜줄 이들이 바로 독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 혹독한 한파 속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끌어줄 이는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if가 펼치는 독자배가운동에 참여해 여성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f**

박미라



그림자 내조론은 용도폐기 되어 있다.  
이제는 페미니스트 영부인시대! " (산동업의 시, 24~31쪽)

朝鮮日報

i f female



남자는 가라.  
그 중에서 알맹이만 남고  
껍질은 가라

신단수 아래서  
사람되기를 기도한  
옹녀의 뜨거운 열망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하여, 다시  
남자는 가라.  
아곳에선, 환웅의 아내되기 위해  
100일을 참던 옹녀가  
굴 밖으로 뛰쳐나오고  
그의 수없는 딸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내들과  
온나라를 메울지니

남자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람을 삼킬 이들만 남고  
나라 망친 모오든 놈들은 가라. "

(산동업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패러디했다.)  
사진 조선일보 제공



KORE

female ga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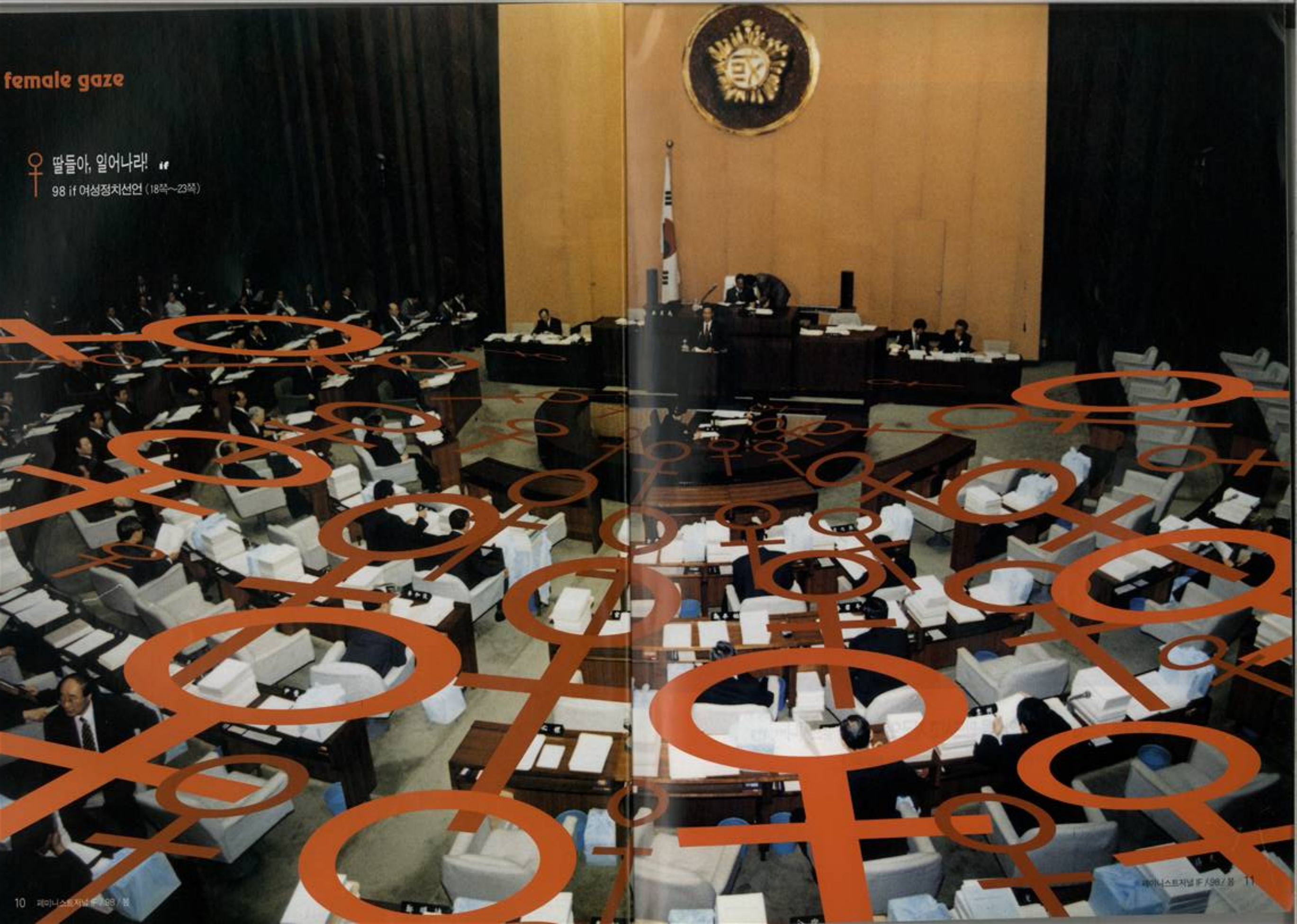
IMF마녀사냥,  
여자는 시대의 밥이된다, 고기가 된다. 16

이민호 사진 / 2017. 9



딸들아, 일어나라! “

98 if 여성정치선언 (18쪽~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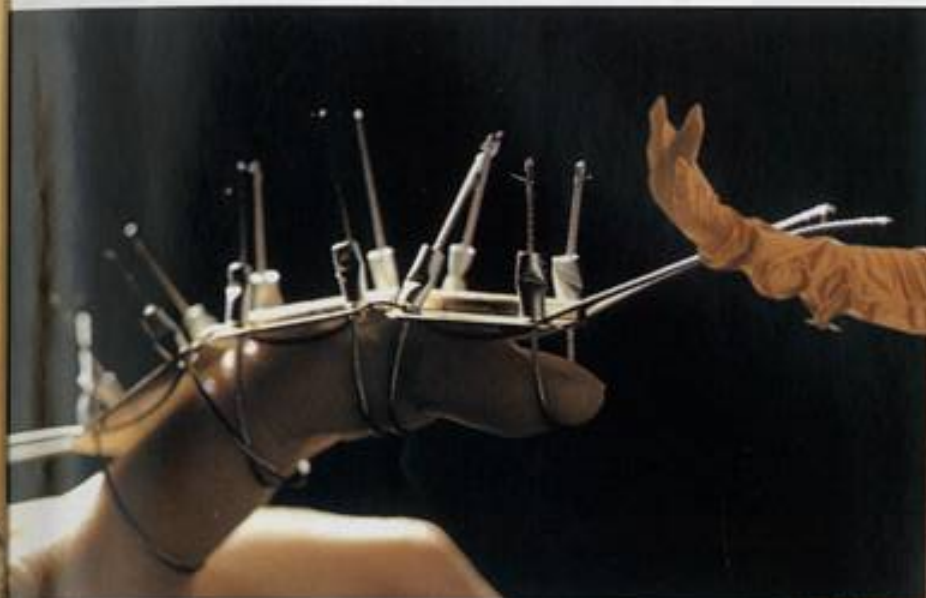


옛날 옛날에 하느님 어머니가 인간을 만드시고 자궁으로 아이를 낳으시니... 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오윤의 판화작품에 나오는 우리 나라 여성들을 합성했다.)



# 이음



◀이미지시어터의 <바디 드로잉> 중 '메우리디케와 올레우스', 1998  
 이미지시어터Image Theater의 창단공연이 1월 16일 서울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있었다. 이미지시어터단 무용가 김효진, 살아있는 조각 아홉(27), 음악조립해체가 감동십이 모여 만든 예술의 탈장르적 개성이다. 춤, 설치미술, 비디오아트, 음악, 연극, 마임 등 기존에 구분되어 온 장르들을 이미지로 통합, 시어터(극장)의 빈 공간과 시간을 채워간다는 의미이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바디 드로잉body drawing'인데 모든 표현 수단들이 몸을 매개로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해간다는 뜻이다. 라이브 공연의 형식을 통해 순수예술이 잃어버린 생동감과 에너지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이미지극장의 종합예술가 아홉의 생각이다.

▲2회 개인전 <살아있는 조각>, 아홉이 제작한 의상소품, 1996  
 아홉은 2회 개인전에서 딱딱한 재료의 의상조각과 함께 이러한 소품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작업들은 인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곤충의 세질과 사람의 손가락 관찰과의 연관성에 착안한 것이다.

▶1회 개인전 <빨간 블라우스>, 빨간 의상과 소품의 아홉, 1995  
 예술가 빨간 블라우스는 그림자 하나 없는 밝은 빨강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의 빨간색은 결코 꺾이지 않는 '희망'의 감정이다. 이 주제를 위해 소설, 퍼포먼스, 살아있는 조각, 의상 조각, 영상과 랩송 등이 동원됐다.

▶빨간 블라우스전에 출품된 알려진 빨간 통신, 1995  
 스물네살이었던 그의 감성이 '상실된 꿈과 믿음, 사랑의 회복'을 소회하는 방법 중 하나.





## if가 뽑은 한국 사회의 도적놈 다섯.

공자. 남존여비. 삼종지도. 첩거지악의 원흉.  
박정희. 군사쿠데타. 성장제일주의. 유신독재로 한국병 바이러스 살포  
재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소수가 전국토의 반을 부동산으로 소유한 년센스 산수로 경제가 이 꼴.  
정치인. 반쪽도 못되는 주제에 자기네가 전부인 양 나라를 개판으로.  
람보. 근육과 총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제국주의의 폭력적 상업주의의 꼭두각시. "

"한눈에 보는 한국 페미니즘의 지형도!"

## 한국에 페미니스트는 있는가

페미니즘이라는 화두 앞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온  
'차세대 페미니스트' 여덟 명의 생각과 실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현재 한국 페미니즘의 지형도를  
젊은 비평가들의 눈으로 들여다본다.

홍은 페미니스트는 사랑하기 위해 싸움을 건다 유숙월  
조혜정 관용과 낙관 사이에서 갈팡지 임근혜  
최윤 남성적인 것을 여성적으로 말하기 임근혜  
이계경 여성도 자신의 언론을 가져야 한다 박혜숙  
이미경 정치적 실패에 뛰어든 여성 운동가 손정미  
오숙희 입실의 퍼서비타리로 성공한 대중 여성학자 박혜숙  
공지영 소설적 칼날을 버리는 페미니스트 전사 백지연  
김소영 총무로에 터 잡은 '바리데기'의 꿈 황금희  
유지나 '적실'의 미학으로 실현하는 시네 페미니즘 황금희

유숙월 외 지음 / 신국판 / 224쪽 / 값 8,000원



## if 독자라면.....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두들겨 맞아도 싸다?"

##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

씩 갇힌 남자들은조차도 여자 앞에서 파시스트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암전히 있는 주부들에게까지 '파업'을 권유하며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라고 '선동'하는 한 남성의 '반남성주의' 선언서!

제1부/죄없는 자들을 들어 치라

죄 없는 자들을 들어 치라/ 그 남자는 페미니스트인가?/ 아무튼 내 여자는 안 돼?

제2부/사랑,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성, 그 진정한 얼굴을 찾아서/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가족이라는 이름의 권력과 폭력  
사랑, 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우리 시대의 도덕주의자들

제3부/장가나 가라구? 나는 시집 가고 싶다

고용 관동, 그 멀고 험한 길의 여귀에서/ 기사 노동,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임신의 책임은 누구에게?  
여성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여성이여, 아름다움지이다?

제4부/나는 잘알한다. 내게 허락된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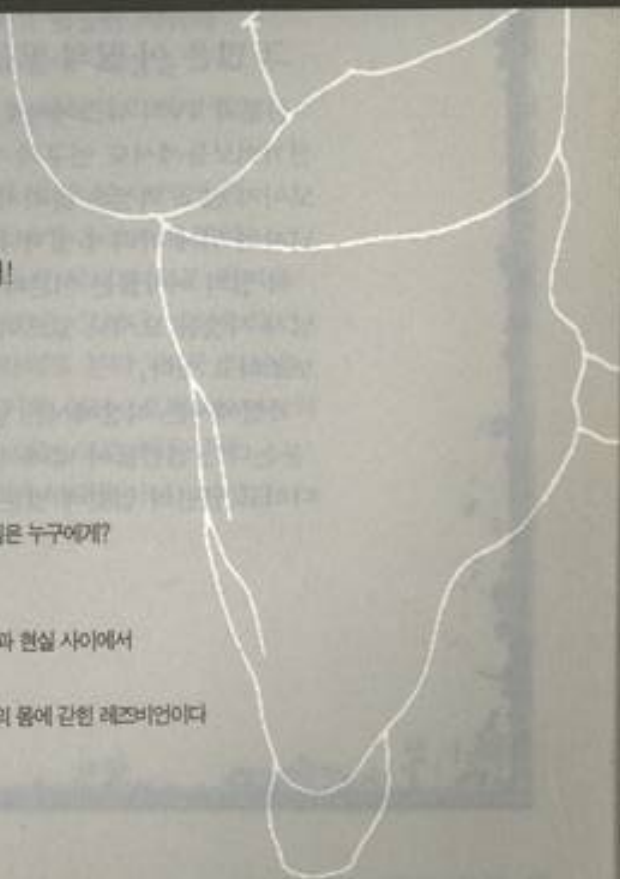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주부 파업을 위하여/ 나는 잘알한다. 내게 허락된 것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제5부/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이다

'남성성'이라는 딜레마: 백제화에 관한 고찰/ 매체 속의 여성, 그리고 남성/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이다  
반장수 지음 / 신국판 / 312쪽 / 값 7,000원

도서출판 삼인

서울 미포구 서교동 339-4번지 삼인빌딩 4층 전화 (02) 322-1845 팩스 (02) 322-1846



## 딸들아, 일어나라!

98년 6월 지자체 선거에 즈음하여



### 대한민국은 남자공화국이다.

가정과 사회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에는 오로지 남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대통령이고 국회의장이며 대법원장이고 회장이며 사장이자.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조직과 요직들은 그들에게 장악되어 있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화가, 음악가의 자리 역시 그들 몫이다. 결혼한 모든 남자들은 이른바 '가장'으로서 처자를 거느린다. 그들은 또 자신들이 설정한 '남자다움'의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가치도 독점하고 있다. 모든 중대한 것, 의미있는 것, 위대한 것, 힘있는 것, 빛나는 것은 거의 전부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 그 많은 이 땅의 딸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신문과 TV의 뉴스에서도, 각종 회의나 모임에서도, 혼해빠진 선거벽보들에서도 인구의 절반인 여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들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외침은 들리지 않으며 느낌과 생각은 전달되지 못한다. 그들은 남자의 뒤에 가려져 있거나 아래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여자들은 이른바 '주부'로서 '가장'인 남편에 종속돼 있거나 비서로서 남자 사장을 모시고 있으며 실권없는 하급직원으로서 남자 상급자를 보조하고 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남자들은 행동하면서 '말하고' 여자들은 기다리면서 '듣는다'. 남편들이 밖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내들은 집안에서 와이셔츠를 다리고 남편의 입맛에 맞는 식탁을 준비한다. 남자 사장이 해외출장을 가고 남자

부장이 간부회의에 참석할 때 여비서와 여사원은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회의 준비자료를 챙겨준다. 여성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동등한 인간이기 이전에 여성이라는 딱지로 우선 받아들여진다. 여사장, 여류작가, 주부직장인 등의 표현은 남성중심 사회의 웅달에 위치한 여성의 소외된 입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모든 가치 없는 것, 희생적인 것, 귀찮고 사소한 것, 보조적인 것, 힘없는 것은 전부 여자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 여자들은 가장 늦게 혜택을 받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의 딸들은 주어진 부당한 역할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주인은 남자였고 여자들은 무료거나 값싼 노동력의 제공자, 성적 쾌락의 대상에 불과했다. 사랑과 헌신, 혹은 윤리의 이름 아래 여자들은 남자를 위해 인간적 권리와 자유를 포기해야 했으며 그 결과 무력하고 열등한 지위에 머물러야 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왔다. 이기적이고 냉혹한 그들의 일그러진 세상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여남관계를 기초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IMF 한파로 기업의 정리해고가 실시되면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다. 최근 경제난국의 책임은 그간 가정과 직장에서 온갖 허드렛일, 저임금 노동을 담당하며 경제발전을 함께 이룩한 여성들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나라와 기업을 멋대로 주물러온 남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자들은 가장 늦게 혜택을 받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지금 직장을 가진 여자들은 남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마녀로서 쫓기고 있다. 오직 '아버지의 일자리'만 걱정하면서 '남편 기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든 언론사와 사회적 움직임들은 마녀사냥꾼들을 고무하는 막강한 박수부대들이다. 여성의

## 말들아, 일어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 이르고 젊은 여성들에게 '일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 돼버린 현실은 땅그리 무시한 채 '남자는 생계부양자, 여자는 주부'라는 전제 아래 관료와 정치인들은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며 기자들은 기사를 쓰고 PD들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남자들에게 여성의 진짜 현실은 안중에 없다. '고개 숙인 아버지'를 한탄하면서도 그것이 '가장'이라는 시대착오적 역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때로 힘겹기는 해도 가부장제가 보장하는 특권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적반하장격으로 '기센 아내'를 가장 만만한 희생양으로 선택한다.

### 가부장제가 여성을 길들이는 또 하나의 수단은 폭력이다.

이 땅의 가부장제는 아직 너무나도 공고하다.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으며 더 넓은 교육기회를 갖고 취업에서도 먼저 선택된다. 승진과 성공, 출세는 거의 모두 가장인 그들에게 '할당' 되어 있다.

반면 가부장제가 그려내는 여성의 삶은 어떤가?

태어날 때부터 낙태라는 사선을 넘어야 하고 대단치 않은 기대와 격려 속에서 성장하며 취업에서는 2류인력으로 대접받는다. 어렵사리 취업문을 통과한다 해도 각종 차별과 성적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혼이다. 음험한 여성예속장치인 결혼이라는 판문을 통과하면서 모든 여자는 주부의 위치로 전락해버린다.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에 예속된 주부로서, '아내, 엄마, 며느리'의 삼각축쇄에 묶여 일과 주체성과 자유를 상실해 간다.

가부장제가 여성을 길들이는 또 하나의 수단은 폭력이다. 일상적으로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남성지배체제하에서 여성의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 땅에서 여성들은 존엄하지도 자유롭지도

안전하지도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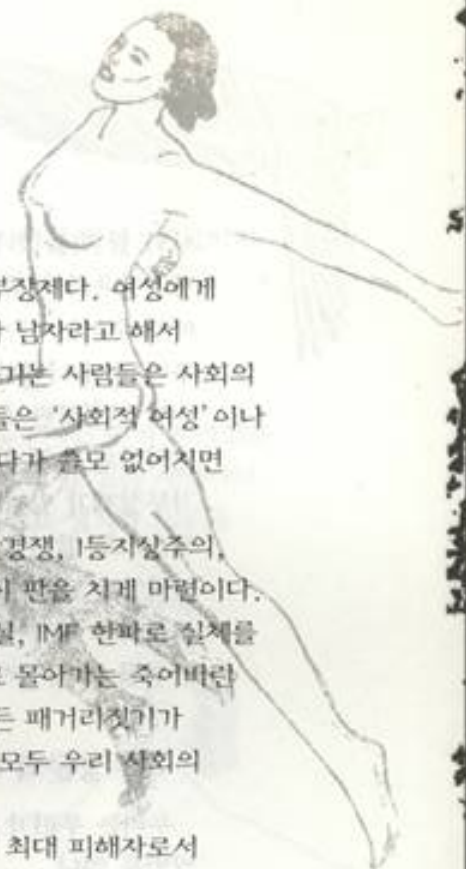
오늘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온 것은 남자들과 그들의 가부장제다. 여성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심지어 살인적인 이 사회는 그러나 남자라고 해서 모두에게 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이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즐기는 사람들은 사회의 가부장들, 소수의 강한 남자들이다. 다수의 힘 없는 남자들은 '사회적 허성'이나 진배없이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하층에서 억압받고 시달리다가 출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정리해고 대상에 올라 폐기처분되어버린다.

가부장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맹목적 권력지향, 무한경쟁, 1등지상주의, 비인간적 효율주의, 전쟁과 폭력, 권위주의, 획일주의 등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정경유착, 비민주적 정당 등으로 대표되는 파행적 정치현실, IMF 한파로 실체를 드러낸 부실하고 불투명한 거품경제, 학생들을 점수벌레로 몰아가는 죽어바란 교육, 원칙과 합리성보다 연줄과 권위가 우선되고 어디서든 패거리짓기가 만연된 사회풍토 등등 우리가 안고 있는 총체적 난제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토양에서 발생한 고질병들이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가부장적, 비민주적인 우리 사회의 최대 피해자로서 마비된 의식을 깨치고 자신과 사회의 해방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두 눈 크게 뜨고 두 주먹 꼭 쥐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이 땅의 말들이 전면에 나설 때가 된 것이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어야 한다.

절반에 불과한 남자들만이 주인이 아니라 나머지 절반도 똑같이 주인이 되는 명실상부한 민주국가로 거듭나야만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머니의 권리가 아버지와 같고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같으며 딸의 권리가 아들의 권리와 같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 남자들이 가장의 지위를 포기하고 가사와 자녀양육의 의무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리라는 전제 아래 우리는 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이로써 충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사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지위를 원한다. 여성장관 수가 남성장관 수와 같고 여성의원 수가 남성의원 수와 같으며 여사장의 수가 남사장의 수와 같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가부장제가 빚어낸 전방위에 걸친 고질병들을 치유하고 민주적이고 해방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해 만들어가는 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제도화되며 원칙과 합리가 존중되고 다양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이며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 가부장문화가 '죽이는 문화'라면 여성문화는 '살리는 문화'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 여성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권자로서 연대해 막강한 정치세력을 이루는 것이다. 여성이 정치적 파워를 가질 때만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는 해결책을 얻는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여성표의 향배가 대통령이나 총리 선출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원 비율도 팔목상대할 만큼 급신장했고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힘이 증대될수록 동등권은 더 많이 보장되고 사회는 살기 좋아진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여성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여성은 전체 유권자의

## 여성운동의 큰 흐름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도 '51%의 소수집단'으로 간단히 무시당해 왔다. 지금까지 '정치는 남자의 일'이었고 또 그렇게 밀도록 세뇌당해 온 탓이다.

### 그러나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 '정치는 여성의 일'이다.

오는 6월 초에는 전국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을 당선시켜 우리 여성의 존재를 알리고 생각과 요구를 대변하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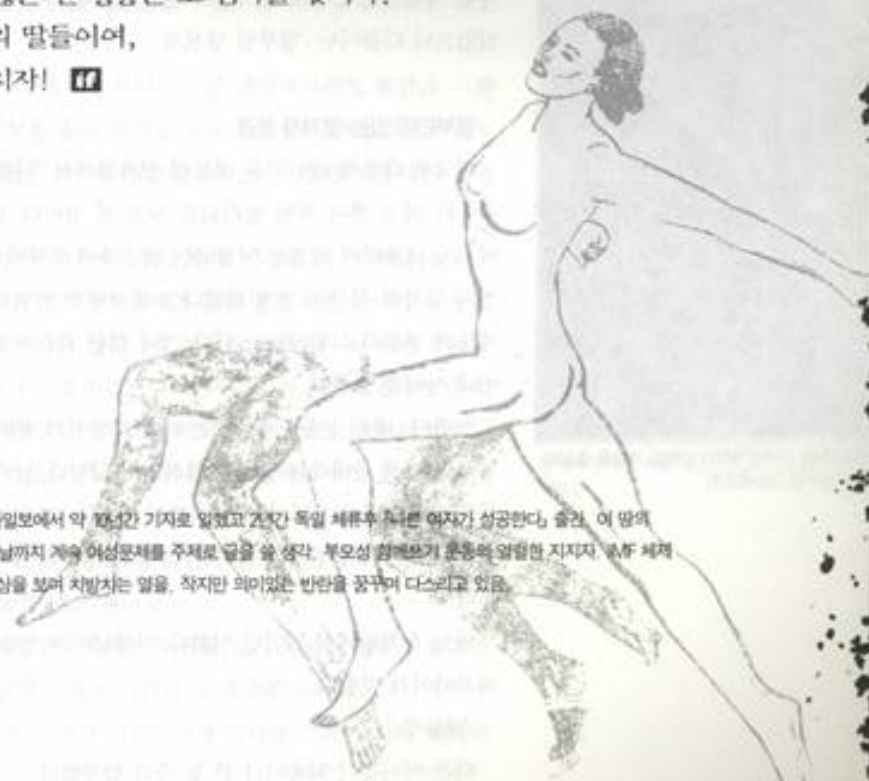
남자들은 조직으로 뭉쳐 있지만 여자들은 개인으로 흩어져 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뭉치지 않는 한 성공은 또 남자들 몫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의 딸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뭉치자! **II**

1998년 2월 25일

#### 김신명숙

여성문제 활동가, 1987년 1월 1일 창간, 동아일보에서 약 10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7년 독일 체류 후 귀국한 여자가 성공한다. 물론, 이 땅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쟁취하는 날까지 계속 여성문제를 주제로 글을 쓸 생각. 부여성 문제에 대해 운동의 열정을 지치지 않고 사회 이후 더욱 노골적이면 '여자 죽이기' 현상을 보며 치명적인 일을, 하지만 의미있는 반란을 꿈꾸며 다스리고 있음.



# 페미니스트 영부인은 있는가



그림자 내조론은 옹도폐기돼야 한다

15 대 대통령선거는 50년만에 국민의 손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끝났다. 다음날 아침 당선자가 국회의사당을 오르는 계단에 서 공식적으로 당선 소감을 밝히는 모습은 모든 방송과 신문의 틈을 장식했다. 양복을 차려입은 중견의 남자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속에 한복을 입은 여자가 한명 있었으니 다음아닌 '영부인 당선자'.

## 영부인이 있는 몇가지 풍경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나를 뽑으면 두배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했다. 부인 힐러리를 두고 한 말이다. 힐러리는 미국 사회의 여건상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영부인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피게 되었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힐러리는 의료보험과 탁아제도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능력있는 여성과 기센 아내 사이를 오간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 나오는 태종 이방원의 왕비 민씨.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 능력과 기센 아내라는 점에서 힐러리와 닮았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표독해지는 민비를 보면서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이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심리인 것 같다. 정종의 부인 김씨와 비교해 볼 때 더 그렇다.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실화다. 선생님이 원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 한 여자아이가 말했다.

"대통령."

다른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즉각 합창했다.

"여자는 영부인이야"



외국인이었지만 가부장제적인 영부인 역할을 충실히 해낸 초대 영부인 프란체스카.

최고 권력자의 아내, 영부인. 그 자리를 둘러싼 세상의 기대와 평가를 분석하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부부관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둘째 정치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 언론에 비친 영부인 후보

"...아침 5시 기상, 새벽 2시 취침의 나날이다. 지난 두달 동안 거의 절반을 외박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을 찾아 대웅전과 주지스님에게 삼배를 올렸고... 부라부라 후보 아침상부터 차려주고 얼굴을 만졌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지구당 위원장 부인들 전화만 하루 10여통이 넘는다. 부인들을 만나 도와달라고 하소연도 했다. ... 많이 도와주세요, 잘 부탁해요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상대의 손을 감싸며 인사했다. 한복 입은 0씨를 보고 '육영수 여사 닮았네' 라고 주부들이 소곤댔다..."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시장을 한바퀴 돌았다. 처음엔 부딪힌다는 말 한마디 하는데도 몇번씩 머뭇거리곤 했는데 이제는 꼭 찍어주셔야 해요, 라고 애교까지 부리게 됐다..."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매사에 긍정적이지만 좀 내성적이라고 평한다. ...한 집회에서는 인사말을 하다 눈물을 흘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존경하는 퍼스트레이디로는 바바라 부시와 육영수 여사를 꼽는다. 취미는... 잘하는 음식은... 애창곡은... 좋아하는 연예인은..."

"...00여사의 하루 일과는 남편인 00후보보다 먼저 시작돼 더 늦게 끝난다. ... 새벽 4시 50분쯤...조간신문을 챙기기 위해 0씨가 문을 열고 나온 것이다. ...오전 8시쯤 밀어닥치는 내방객을 맞이하기 위해 1층 거실로 내려왔다. ...바쁜 후보를 대신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뛰어왔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후보의 식단을 챙기는 일만큼은 0씨의 몫이다. ...후보가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자 다음날 조간신문의 가판을 챙겨주고 신문들 다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다."

"...0여사는 후보의 강한 이미지를 누그러트리면서 그늘진 곳까지 구석구석 손길을 미치는 (육영수 여사) 모습을 닮고 싶다고..."

"...0여사는 '남편이 0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표를 얻지 못하면 집에서 쫓겨난다. 제가 집에서 큰소리칠 수 있게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00여사는 세차게 내리는 비 속에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큰절을 올려서 화제..."

"...후보 부인들은 시장, 상가방문, 거리유세 등 닥치는 대로 찾아가 지지를 호



현재까지 가장 바람직한 영부인의 모델이 되고 있는 육영수



영부인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한 5대 영부인 이순자

소하면서 집안에서는 남편의 음식과 건강돌보기 등 1인 다역을 하고...

신문기사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영부인 후보들은 여성 표밭의 선봉장이며 후보의 인물됨에 대한 증인이며, 후보 이미지에 보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질은 가정주부의 역할이다. 언론에 나타난 '내조경쟁', '남편 대통령 만들기' 등의 표현은 그 역할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가정주부적 성격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9월 22일자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고의 영부인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인옥—이희호—김은숙 순서였다. 당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한인옥 여사는 늘 한복을 입고 수줍어하는 모습이 옥영수 여사를 닮았다는 평이었고

이희호 여사는 날카로운 인상이 후덕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김은숙 여사는 설치는 듯한 태도가 거부감을 주었던 게 감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 후 김은숙 여사의 이미지 변신이 보도되었다.

"경기도의 힐러라는 등 구설수가 잇따르자 이번 대선에서는 가급적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전의 양장차림을 한복으로 바꾸고 헤어스타일에도 변화를 주는 등 '조용한 내조자'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김은숙 여사는 운동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충실히 해낸 사람이었다. "유세버스를 타고도 안내석에 앉아 손을 흔들거나 기호 3번 피켓을 흔드는 등 한 시도 가만 있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적극적인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것은 '그림자 내조'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여자의 내조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라는 기대에서 벗어나 거부감을 준 것이다.

내조자에게는 정치적인 식견은 요구되지 않는다. 후보 부인들을 다룬 기사나 TV 토크쇼에서 결혼스토리, 가정에서의 후보, 자녀교육 등을 주로 다루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후보 부인에 대한 관념은 핵심적인 선거운동원이되 남편이라는 가부장적 권위 아래에 확실히 복속되어 있으면서 유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

소하여 득표에 기여하는 비정치적 존재라고 요약된다. 아내로서 어떻게 남편을 절대시하고 노력하느냐로 그 남자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능력에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한복을 선호하는 것은 유교적 전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언론이 부채질한 '그림자 내조론'

영부인 후보에 대한 이런 기대와 관념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초대 영부인 프렌체스카 여사는 외국인이었지만 한복을 입는 생활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으로 가부장제적인 영부인 자격을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다. 남편 사후 한국에서 양아들 내외와 살면서 근검절약하는 가정주부로서의 태도로 영부인다운을 지속시켰다.

3대 옥영수 여사는 현재 가장 바람직한 영부인의 모델이다. 전통적인 한국 여인상을 유지하면서도 어린이 복지와 사회봉사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고 군정연장 선언을 취소케하는 등 '청와대 내의 야당'이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루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남편보다 앞서, 그것도 비국적으로 죽음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군부독재자였다는 비난과 동떨어져 존경받고 있다. 한마디로 '박정희는 옥해도 옥영수는 옥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다.

영부인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거부감은 5대 이순자씨로부터 비롯된다. 새세대육영회등 봉사적 성격의 사회활동을 했지만 독재자의 아내로서 그 지위를 심분 활용하여 각종 비리와 권력형 부정부패를 했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의 성격을 가진 6대 김옥숙씨가 그림자 내조의 원조가 된 것은 이씨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13대 대통령 선거후에 김씨에 대한 기사를 보자.

수줍음과 미소=김옥숙 여사 노태우 13대 대통령 당선자 부인/알뜰 살림 속에 숨은 내조—보통 주부/큰키의 미인형/한복 즐겨 입어/부부가 함께 테니스 수준급/유세중 10만명 이상 직접 만나/건강 염려 보약등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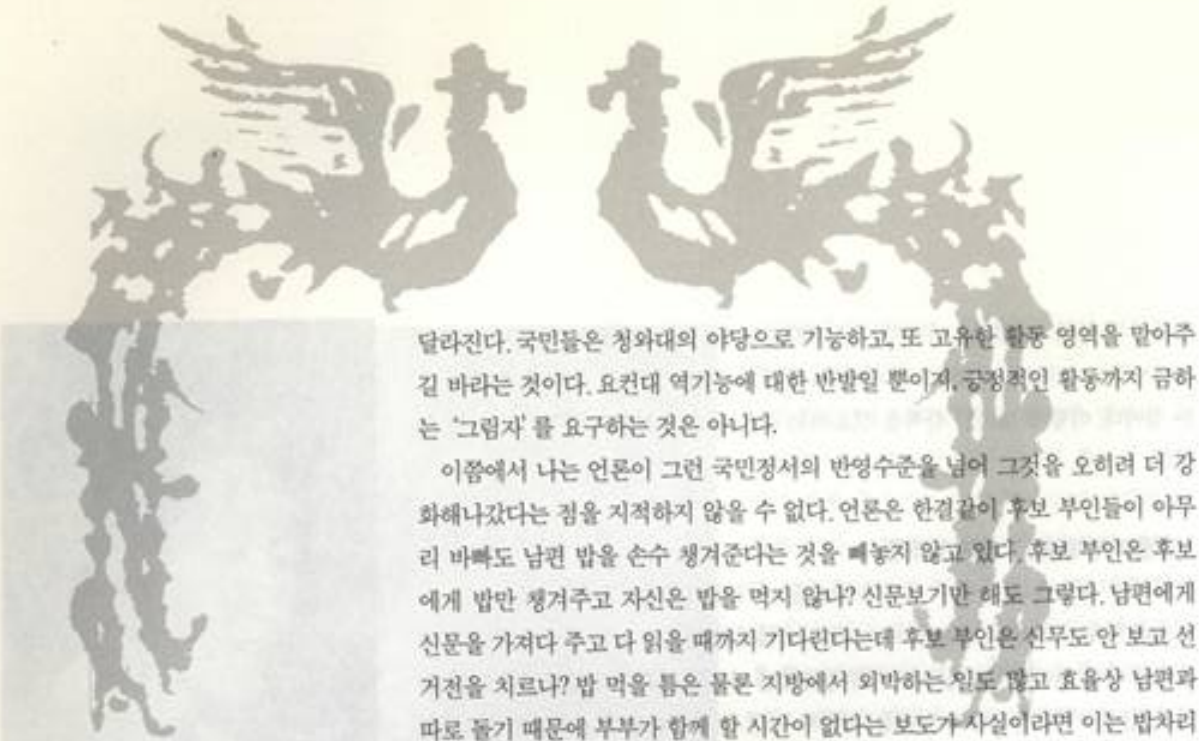
87년의 얘기지만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색하지 않을 영부인 후보에 대한 묘사의 기본구성 요소가 고루 갖추어져 있다. 이 기사는 당시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국민의 정서에 다가가기 위해 연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림자 내조론이 한국의 가부장제적 분위기에 의해 영부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후 그림자 내조의 표방자였던 김옥숙 역시 '똥 주머니를 차고' 권력형 축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부인 후보에 대한 고정관념적 여성상이 국민정서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옥영수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향수를 기억한다면 우리나라 영부인론은



그림자 내조론의 원조가 되었던 6대 영부인 김옥숙

그림자 내조의 표방자였던 김옥숙 역시 '똥 주머니를 차고' 권력형 축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부인 후보에 대한 고정관념적 여성상이 국민정서에 더 깊이 들어오게 되었다.



7대 영부인 손영순

달라진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야당으로 기능하고, 또 고유한 활동 영역을 맡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요컨대 여기농에 대한 반발일 뿐이지, 긍정적인 활동까지 금하는 '그림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쯤에서 나는 언론이 그런 국민정서의 반영수준을 넘어 그것을 오히려 더 강화해나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한결같이 후보 부인들이 아무리 바빠도 남편 밥을 손수 챙겨준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있다. 후보 부인은 후보에게 밥만 챙겨주고 자신은 밥을 먹지 않나? 신문보기만 해도 그렇다. 남편에게 신문을 가져다 주고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후보 부인은 신문도 안 보고 선거전을 치르나? 밥 먹을 틈은 물론 지방에서 외박하는 일도 많고 효율상 남편과 따로 돌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밥차리는 아내와 신문보는 남편이라는, 언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데서 비롯된 관념적 또는 계몽적 표현이다.

#### 이희호 여사의 이미지

김대중 당선자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묘사를 보자.

"당선 전: 이 여사는 '남편 짝이 주세요'는 못 하고 '정권교체와 경제난국 해결을 위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말로 대신한다.

당선 후: 이 여사는 여성운동가답게 여성의 정치참여와 법적지위향상과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녔다."

후보 부인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당선 전후가 다른 것이다. 이희호 여사의 '동지적' 이미지는 오래 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는 바였다. "이 여사는 김 후보에게 내조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정치적 동지에 가깝다"는 기사 내용도 오히려 놀라웠다.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그에 '가깝다'는 표현이나 '차라리'라는 수식어는 특이한 사례라는 느낌을 준다.

이번 대선은 미디어 선거로 특징지어지는 바 언론에 비친 이미지로 승패가 가름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한 신문기사의 말대로 '내조가 결정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영부인 후보들로서는 이런 언론의 시각에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양장을 선호하더라도 결정적인 자리에는 한복차림을 한 것도 언론을 의식해서였을 것임은 쉬 짐작이 간다.

이번 대선에서는 영부인전이 뜨거웠다고 한다. 종전에는 제대로 된 대선분위기 조성이 안 된 탓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언론의 장사숙이 단단히 한몫했다. 나가노 올림픽의 전파를 타고 전세계의 관심거리가 되면서 올림픽 마스코트나 여러가지 부대상품이 날개돋힌 듯 팔리는 것과 같이 남성중심의 대선전에 영부인 내조 경

쟁은 대선의 악세사리였다.

후보 부인 초청 토크쇼에서 중심주제는 연애, 결혼, 자녀교육, 가정에서 남편의 모습이었다. 이 토크쇼는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 대선후보 토크쇼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그 이유에 대해 방송사측은 "이 시간대 시청자 대부분이 주부여서 딱딱한 정치이야기보다 삶의 이야기를 선호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얼마디의 정치적 구호보다 한 토막의 생활이야기가 진실을 더 잘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에 서 일견 수긍이 간다. 그러나 문제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다루는 내용에 있다. 주부들도, 아니 주부들이 몰가나 교육 등 주요 정치현안에 더 관심이 많다. 후보 부인들을 통해 그런 문제를 '딱딱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는 없었을까. 신변잡기 위주로 간 것은 여성은 비정치적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혐의가 짙다. 언론의 영부인 후보 다루기가 내조경쟁이라는 가십거리 이상이 아닌 것은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를, 정치가로 대변되는 우리사회 부부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영부인 내조자본의 함정

앞서 말한대로 내조자의 개념은 정치적 동지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것이다. 내조는, 정치는 밖에서 남편이 할 일이고 부인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돕는다는 고정관념적인 남녀 역할을 전제로 한다. 이런 영부인 내조론은 함정을 가지며 동시에 국가적으로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이순자씨와 김옥숙씨가 영부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권력을 가족복지 마련에 이용했지만 사실 이 역할은 '남편 퇴임후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아내노릇, 자식들을 위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라는 내조론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림자 내조의 원조격인 김옥숙씨가 별도로 재벌부인들을 통해 부정축재를 했다는 사실은 내조론이 부패의 보호막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두환이 투옥된 다음 백담사에 가서 기도하는 이순자/ 남편이 고생하는데 쓸 수 없어/ 이순자의 울분과 항변=유죄판결 전에 죄인 취급받는 건 부당합니다..."

영부인 내조자본의 함정은 또 있다. '독재자도 알고보면 자신의 아내와 가족에게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조자'인 아내가 말하는 남편을 듣고 그를 평가하게 될 경우 독재자가 '후덕한 시아버지 인상'으로 얼마든지 이미지 조작될 여지를 남긴다.

영부인의 자리는, 대통령이 된 한 남자의 아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공적인 위치로 봐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영부인 후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내조라는 틀을 극복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식견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젊은시절의 이희호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영부인 후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내조라는 틀을 극복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식견이 있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청와대 내의 야당'을 기대한다면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8대 영부인 이희호

“여성과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해 직언하겠다.”

“시설 방문 같은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관련공약을 감시하고 정책에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대통령 취임 전 이희호 영부인 당선자가 밝힌 포부이다.

있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청와대 내의 야당’을 기대한다면 남편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외국에 나가서도 남편이 협상할 때 일정 짜주는 대로 그 나라 고아원이나 돌아보는 정도의 역할은 이제 짜증스럽다. 독자적인 관심 분야와 전문적인 활동영역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그림자여서는 안 된다.

“여성과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해 직언하겠다.”

“시설 방문 같은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관련공약을 감시하고 정책에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대통령 취임 전 이희호 영부인 당선자가 밝힌 포부이다. 여성들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역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영부인 내조론’이 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영부인이 원권을 한다거나 대통령이 치마폭에 싸였다는 비난이 기득권층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영부인의 위상이 내조자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언론으로서의 이미지를 담은, 보다 진보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세계 정치에서도 여성에 대한 보수성은 마찬가지로 여성을 최고 권력자의 사적인 내조자로 자리매김하거나 상징적인 대리인으로 보아왔다. 그래도 이들은 어느 정도의 정치 능력이 있었고 미국의 힐러리 여사는 정치적인 동반자로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있다. 맹목 같은 내조론은 이제 종결 때가 되었다. 영부인의 영향력을 무조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 대통령을 위하여

이러한 영부인론의 검토는 여성과 정치를 연관짓는 관점에서 나온 화두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진출이 회박한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볼 때 영부인의 역할은 여성의 정치적 능력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영부인의 자리에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여성들을 통해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 유권자의 의식변화가 따라줘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여성들은 이제 영부인에 대해 고정관념적인 여성적 역할이나 외모 등의 이미지에 기울어져 있는, 또는 그 쪽으로 기울게 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폭넓은 식견을 가진 정치가로서의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자들은 언제까지 내조자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중견 정치가의 아내가 “남편에 대해 모든 면에서 만족하지만 제발 정치만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조’에 드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내조’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표적 직업으로는 정치가와 목사가 꼽힌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치 참여율은 세계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고 여자에게는 목사안수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재능있는 여자들을 역사의 그늘에 가둔 ‘운명’이었다. 여자들은 언제까지 내조자로만 살아야 할까. 내조에 쏟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는다면 ‘스스로가 무엇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일본의 어떤 지역구에서는 여성이 자기의 남편 선거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나는 왜 내조자만 되어야 하나’에 회의를 품고 전격적으로 남편의 지역구에 입후보하여 경쟁자가 된 사례가 있다. 그 남편은 심정을 묻는 인터뷰에서 “주변에서는 말리라고 했지만 나는 인정한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우리 여성들의 진정한 관심과 에너지는 이제 ‘남편을 무엇으로 만들기’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이 되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여성의 사회참여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는 길이다.

여성 대통령론을 화두로 삼을 날을 고대하며 영부인론에 대한 짧은 생각을 적어보았다. [1]



#### 오한 숙희

방송인, 여성학자. 지금은 김포여성민우회 소장으로 지역여성들과 만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상식과 원칙’으로 버틴 34년의 기자생활

한국 최초의 여성주필 한국일보 장명수

여성언론인 장명수씨(56)가 1월 한국일보 주필이 됨으로써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여성주필이 탄생했다. 장주필은 이를 “여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 동안 여기자들에게 달혀 있던 또 하나의 문을 연 것”이라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82년부터 16년째 써온 칼럼으로 많은 고정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칼럼니스트다. 따뜻하면서도 엄정한 시선으로 생활 속 작은 이야기부터 권력의 핵심까지 파고드는 명료한 글 덕분에 ‘장칼’이란 별명으로 통한다.

63년 입사해 34년간 편집국을 지킨 그가 끝내 편집국장을 못 해보고 주필이 되자 그에게 한국 언론사 최초의 여성 편집국장을 기대했던 이들은 아쉬워했다. 그 자신은 “억울할 건 없고 좀 섭섭할 뿐”이라고 했다. 남자라고 다 편집국장이 되는 건 아니므로

물론 신문사 안에도 차별은 있다. 그는 남자동기보다 승진이 늦었고 여러 남자후배가 편집국장을 거치는 동안 그 밑에서 부국장으로 지내야 했다.

보수적 분위기의 편집국에서 여기자 장명수를 지탱하고 오늘날 언론인으로 우뚝 서게 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식과 원칙’으로 요약된다.

“칼럼을 시작하면서 기자는 오직 글로 승부해야 한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매달릴 기둥이라곤 상식과 원칙

뿐이라고 노선을 정했다. 어떻게 써야 할지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용감하면 용감한 대로 비겁하면 비겁한 대로 그걸 붙들고 버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거기 매달려 하루하루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없어졌다.”

언론인 지망 여학생들에게 그는 후배들을 자극하는 뛰어난 선배이자 가능성의 본보기로 비치기도 한다. 그는 성공의 모델인가.

“내 글과 직업의식, 판단력이 과연 34년 일한 기자의 것인가 자문해보면 많이 미달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자는 이 이상 못 간다’는 보이지 않는 벽 속에서 일하는 것과 열린 태도로 일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점에서 한 사회, 조직, 국가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그 모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쁜 일이다.”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그가 주는 충고는 이렇다.

“호기심과 감성을 항상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기심이 메마르지 않게 늘 물을 줘서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만 살아 있으면 취재력과 본질에 접근하는 힘으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양식과 품위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글 오이환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 “진짜 주역은 우조교, 조역은 한데 뭉친 시민연대입니다”

우조교 성희롱 사건 승소로 이끈 최영애 소장

지난 94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던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이 4년간의 기나긴 법정싸움을 끝에 하나의 '큰 매듭'을 풀게 됐다. 지난 2월 10일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첫 성희롱 판례로 기록되게 됐다. 거두절미하고 “이겼다!”는 말은 “성희롱은 유죄”이며 더구나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 언어적인 것까지 성희롱 범주에 든다는 포괄적 정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그 숨은 공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곳이 바로 한국성폭력상담소였고 이곳 최영애 소장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최소장은 “이번 승리를 일궈낸 주역은 역시 우조교”라고 했다.

“불법이 아니었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고백의 결정을 파기한 대법원의 결정은 최초의 성희롱 판례로서 그 의미가 상당한 것이죠. 대법이 성희롱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은 앞으로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지침을 내린 겁니다.”

94년 4월 1일 1심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인 우조교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 다시 95년 7월 신교수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다시 98년 2월 10일 원고 최종 승소로 성희롱 법정공방은 이제서야 일단락됐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이번엔 서울대와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희롱은 단지 개인간의 문제가 되어버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권, 인격권의 침해문제는 치외법권이 돼버립니다.”

91년 4월 성폭력상담소가 생긴 이래 7년간 최소장은 굵직한 사건 등을 통해 성폭력, 성희롱을 특수명사에서 ‘일반명사화’ 하는 데 기여했고 성폭력특별법 제정 등 법적 장치 마련과 사회의 인식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던 힘으로 상근자, 이사진, 상담원들의 ‘일심동체’를 든다. 더구나 이번 우조교 사건의 승소 역시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서울대 공대위 측이 함께 뭉쳤던 것. 게다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가세와 여성단체의 벽을 넘어선 경실련, 참여연대, 인권변호사 등 범시민연대를 통해 ‘함께 함으로써’ 일궈낸 것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자 한다. 범시민연대와 함께 가졌던 승소축하모임에서 직장내 성희롱 지침을 운영중인 금호, 데이콤, 대한항공, 현대전자 등 기업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분간 미국에 머물렀다 7월에 돌아올 그에게 재충전을 통한 힘찬 도약을 또 기대해 본다. [1]

글 박혜숙/ 사진 조여권



## “아직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300회 정신대문제 수요집회 참석한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정신대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다. 공식적인 계산으로는 7년이고 사실 그 이전부터의 몰래 작업까지 합하면 더 오랜 세월이 흘렀다. '정신대' 문제는 그간의 끈질긴 여론작업으로 국제적 이슈화에 성공했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적지만 정부보조가 이뤄지고 또 '철면피처럼' 발뺌만을 일삼던 일본으로 하여금 국민기금이라는 공여지책을 내밀도록 하는 데 결정적 힘을 발휘해왔다. 우리가 원하는 공식 사과와 배상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지만 대단한 성과를 끌어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신대문제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들이 많다. 그러나 막상 맨처음부터 정신대문제를 시작했고 조용히, 늘 뒷전에서 심신을 다 바쳐 정신대문제 공론화에 앞장서온 숨은 일꾼들 중의 한 사람이 윤정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다. 이효재 선생이 늘 그랬듯 윤정옥 선생 역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순수함을 지니고 있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단지 그 사실에 감사할 줄 아는 여성운동 1세대.

지난 2월 18일 수요일. 이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수요일 12시면 정신대할머니들과 오래 가졌던 수요특별집회 300차 모임이 있던 이 날, 만나길 고대했던 윤정옥 선생을 찾아냈다. 그는 TV 인터뷰중이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간여성들만으로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싸우기에 힘이 약해요. 새 정부가 당당히 자주국으로 외교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그는 여전히 젊었다.

“300차 집회 소감은 착잡하죠. 우리나라가 위신을 찾고 자주국으로 당당히 외교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일본은 유엔의 인권회의 고등판무관 등을 상대로 거짓말 로비를 하고 있고 이게 먹혀들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는 이 문제에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지난번 일본정부가 한국의 일간지에 기습적으로 국민기금 홍보용 전면광고를 낸 일에 크게 분개했다.

TMF로 모금도 별안간 뜰 줄 알고 우리 상황이 잔뜩 위축된 시기를 틈타 전면광고를 낸 일도 속상하고 그런 광고를 싣는 우리 언론의 처지도 화가 나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대협은 그래서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금의 기만성에 대한 전면광고를 내야 했다. 윤정옥 대표는 그 일을 못내 아쉬워했다.

우리 정부의 자주적 외교의 중요성을 수차례 지적하는 윤대표는 그러기 위해 먼저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는 일에 끝까지 동참할 뜻과, 또 오는 5월 미국에서 있을 정신대문제 폭로 전시회와 청문회의 준비 등으로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할 일이 태산 같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

글 박해숙/사진 조여진

## 파워우먼 네트워크가 뚝다!

21C 여성포럼 공동대표인 지은희·조은·손숙

**연** 극배우 손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대표, 동국대 조은 교수가 '여성의 세력화'를 위해 모였다. 지난 1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 <21C 여성포럼>의 공동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지난 해 9월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도로 준비모임을 시작하게 된 21C 여성포럼에는 전업주부를 비롯해 정미홍, 백지연 등 방송인과 국회의원 신낙균, 박주현 변호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효재 대표, 여성신문사 이계경 대표, 손덕수(효성가톨릭대) 교수, 장필화(이대 여성학과) 교수 등 여성계와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를 망라한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세명의 공동대표 역시 다양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어서 주목을 끈다.

21C 여성포럼에 거는 여성들의 기대는 지대하다. 1월 열린 창립총회 이전에 이미 20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창립총회 당일만 해도 130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해 총회장을 가득 메웠다.

그간 여성들은 각종 연줄로 얽힌 남성중심사회에서 정보와 인력의 빈약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은희

씨는 대표 인사말을 통해 "각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활발히 하기 위해 연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까지 각종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돼왔던 남자들의 폐쇄적인 연줄주의와는 다른 초계층적이고 공개적인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 이 모임의 남다른 점일 것이다.

이 날 창립총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던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이었을까. 낯선 얼굴들끼리 서로 웃음을 교환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여성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여성의 세력화를 통한 여성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여성은 누구나 21C 여성포럼 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는 273-9535(한국여성단체연합). **11**

글 김영선 / 사진 조여권



왼쪽부터 방송인 손숙, 지은희 여연 대표, 조은 교수



## “세상에는 왜 이리 고칠 것이 많은지”

제43회 현대문학상 수상 시인 천양희

## “도” “행” “평” “화” “집” “속” “집” “행” “오” “행”

김영선/사단법인 현대문학

지난 한해동안 문학적 성과가 뛰어난 작가에게 수여되는 ‘제43회 현대문학상’ 시부문에 천양희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해 각종 문예지 등의 지면을 통해 발표된 작품으로, 평론가와 문학담당 기자 등의 추천을 통해 수상해온 이 상은 김초혜, 강은교 등의 수상자를 낸 바 있다. 신인 위주가 아니라 오랜세월 시심詩心을 둔우어온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이다.

그는 대학 3학년이던 65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이후 『신이 우리에게 묻는다면』(평민사), 『사람 그리운 도시』(나남), 『하루치의 희망』(청하), 『마음의 수수밭』(창작과비평사) 등의 시집을 내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96년에는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번의 현대문학상을 통해 그간의 노작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때문인지 그의 수상소감은 신인작가들의 들뜬 목소리가 아니다. “시인으로 등단했던 현대문학을 통해 이런 상을 받게 되니 천정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진하려고 합니다.”

그는 80년대에 <또 하나의 문화> 초기 동인으로 있으며 페미니스트 학자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여성의 자의식을 표현했다. “여성이라고 또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고 부당한 억압을 당할 때 분노하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제 주장이 과격합니까?”

당시로는 드문 일이었을 이혼녀로서 그의 경험은, 여성에

대한 부당한 편견에 대해 자신을 예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과의 불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온 개인의 역사를 그는 “세상에는 왜 이리 고칠 것이 많은가 / 나도 나를 고치는 데 이십년이 걸렸다.”(『겨울 길운동』)라고 말한다.

이런 그가 페미니스트들과 만나게 된 것은 자연스런 수순이었던 것 같다. 시인 고정희, 소설가 강석경 등의 작가들과 자주 만나며 여성과 문학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 만남은 『하나보다 좋은 백의 얼굴이어라』(또 하나의 문화)라는 공동작품집으로 묶여졌고, 구심점이 되던 고정희씨가 작고하자 모임은 자연스레 흩어졌다. 지금은 그때와 같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은 없지만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이있는 시선은 거둔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 젊음의 터널을 지나 ‘제겐 시쓰기가 곧 구도의 길이에요. 이번 상도 죽을 때까지 시인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것으로 여깁니다’라며 감사한다.

올 4.5월중에는 창작과비평사에서 그의 다섯번째 작품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그의 시 『오래된 골목』의 “골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지고 있다고/ 옛집 찾다 다다른 막다른 길/ 너무 오래된 골목/에서처럼 사라지지 않고 ‘살았던’ 그의 행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글 김영선/사단법인 현대문학

## “평온한 껍질 속에 담긴 황폐함” 그려

『아내의 상자』로 이상문학상 수상한 작가 은희경

『타』인에게 맡겼기. 『새의 선물』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가 은희경씨가 제22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아내의 상자』. 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이중주」로 등단한 이래 문학동네상·동서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번이 그가 받은 세번째 문학상이 됐다. 등단해서 활동한 기간을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상을 받은 셈이다.

심사를 맡았던 소설가 오정희씨는 이번 수상작인 『아내의 상자』에 대해 “나무랄 데 없이 반듯하고 평온한 껍질 속의 황폐함, 파괴력의 끔찍한 비극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경쾌하고 천연한 문체로 발전시켜가는 솜씨가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부부지만 서로간에, 혹은 세상과 소통이 안 돼 결국 ‘불량품’으로 추방되는 아내와 작중화자인 ‘나’이다. 특별히 가해자라고 할 수 없는 ‘나’와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아내와의 단절감, 『아내의 상자』로 상징되는 감춰진 내면이 신도시의 황량한 풍경과 함께 그려진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해답을 얻고자 하지요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신중하게 건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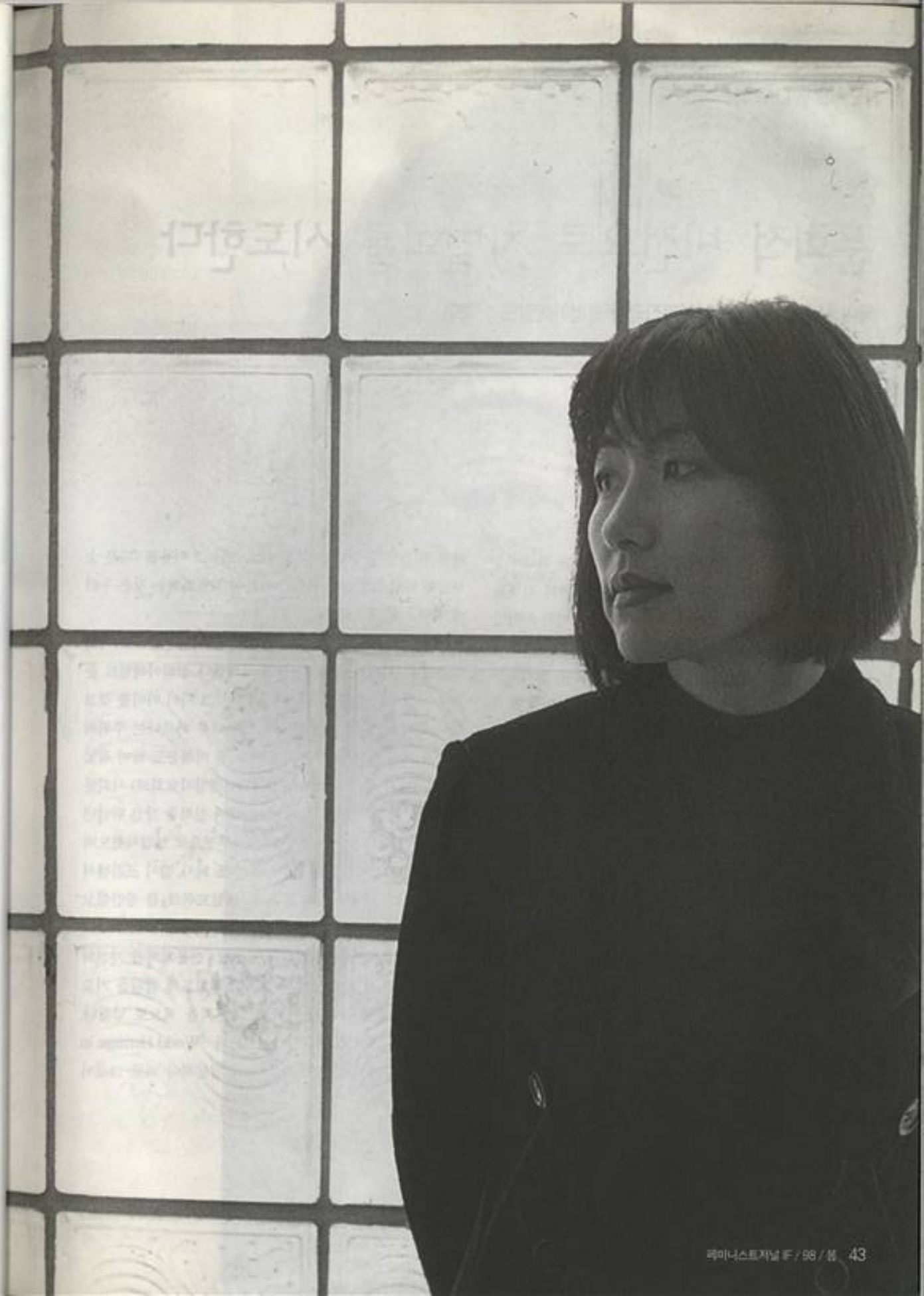
싶습니다.” 일면 사소하게 취급되는 일상을 차분한 시선으로 집요하게 관찰하는 그의 작품들은 그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젊은 시절, 직장 여성으로 생활하면서 체험한 삶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그의 작품은 일상을 중시하는 90년대의 경향과 맞물리면서 독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수상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자신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고 걱정한다. “등단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너무 빨리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때문인지 인터뷰도 지나치게 많았고... 독자들과 이제는 소설 자체로만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번의 호출후에야 통화할 수 있었던 은희경씨는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고 보니 그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꽤 많이 보았던 듯하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기존의 가치에 적응하며 살았던 20대보다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가 기자와 전화를 하는 곳은 자신의 작업실이라고 했다. [1]

글 김영선/ 사진제공 문학사상사



## 문화적 비전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국내 최초의 일간지 여성편집국장 코리아헤럴드 이경희

지난 2월 12일자로 영자지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에 이경희(52) 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이 임명되었다. 비록 직무대리이고 영자지라는 특수환경이긴 하지만 일간지의 키잡이로서 총괄책임을 지는 '선장' 격의 자리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 특히 이씨는 정치·경제·사회부 경력이 없이 문화부에서만 켜온 인물이며 코리아헤럴드 출신도 아니라 더욱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인사로 우리 신문은 편집국장—정치부장이 모두 여성인 체제로 변모되었다"는 이국장은 "위에서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해내지 않으면 여성후배들의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좋은 본보기가 되어 된다는 책임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로 전망되기 때문에 문화부 출신인 자신이 편집국장 물망에 올랐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국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영자지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한다. 신문개방에 앞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고 국문신문과는 다른 양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자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서양 중심의 사고를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국장은 정반대의 사고를 해왔다. 그의 화두는 평생 한국문화를 어떻게 외국인들

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는 그 이유를 "다른 소식들은 외신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것은 우리 얘기였다"고 말한다.

70년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한 이국장은 코리아타임즈 문화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코리아헤럴드 문화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75년. 그 사이 아이를 갖고 몸이 좋지 않아 10개월 휴직. 승진이 너무 빠르다는 주위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79년 회사 사퇴 등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퇴사시기 동안 ASPAC(아시아태평양양료회의) 사회문화센터 출판홍보 담당 보좌관을 지내며 실력을 갈고 닦았던 그는 85년 다시 코리아헤럴드 문화부장으로 재입사했으며 94년말 내외경제신문과 합쳐지면서 또 퇴사. 잠시 프리랜서 활동을 하다 95년 복직해 주간지 『헤럴드위크』를 창간했고 현재까지 논설위원으로 일해왔다.

본의 아니게 퇴사한 경험이 많지만 '신문기자가 자신의 천직'임을 잊지 않았던 그는 코리아헤럴드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그 흔적을 책으로 남겼다. 『KOREAN CULTURE(한국문화)』와 『World Heritage in Korea(한국의 세계문화유산)』 등의 영문책이 바로 그것이다. [E]

글·사진 이신희 (문화일보 생활부 기자)



## 여성계의 '페미니스트대통령 만들기' 작전

###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부부, 여성계와 만남의 자리 가져

"이 자리에 오면서 잘 못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예감이 이상하더라구요. 아나스타를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아나까지 끌어들이 신동을 해서 두고두고 나를 아내에게 압박받게 하려는 거구나 깨닫고 한국여성들이 탁월한 전략가라고 생각했습니다."

2월 13일 늦은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여성지도자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부부와의 만남' 자리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의 일성이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영희·사진 왼쪽 두번째),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지은희·사진 왼쪽 첫번째), 여성신문사(대표이사 이계경·사진 오른쪽 끝) 공동주최로 열린 이 모임은 '여성계의 페미니스트대통령 만들기 작전' 현장을 방불케 했다.

여성단체협의회 최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확실한 페미니스트로 인정받는 김대중당선자를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

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여성의 전화 신혜수 대표는 "50년만에 정권교체가 되어 이제부터 평등사회로 가나보다 하고 기대에 부풀었으나 IMF사태 이후로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고 전하며 "사회 전체적인 '남편기살리기' 바람이 여자 기를 죽이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인권의식 향상'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여성계를 '친정'으로 표현하는 이회호 여사에 대한 주문이 쏟아진 것이 이 자리의 특징. 여성신문사 박해란 편집위원은 "외국에는 활발하고 실력있고 매력적인 페스트레이디들이 많은 것을 보고 부러웠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매력적인 영부인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피력했다. 매력적인 영부인상에 대한 그의 보충설명 "소극적인 그림자 내조가 아니라 적극적인 영부인상 모델이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볼레로스타일의 하얀색 루피스에 진주목걸이(?)를 하고 나온 이회호 여사는 "여성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당선자 가까운 거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김대중은 이에 대해 "아내가 평소에는 순하다가도 여성문제가 나오면 법같이 달려들어서 나는 할 수 없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탓도 있지만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이제야말로 남자가 광둥하다고 친심으로 믿는 대통령이 나온 것"이라는 말로 한국에 페미니스트 대통령, 페미니스트 페스트레이디의 탄생을 선언했다. —유숙형



〈여성지도자와-관남의 자리〉에서 여성계 인사들과 축하를 들고 있는 대통령 부부.

### 여성 부당해고 저지 위해 고용평등추진본부 출동!

#### 여성우선해고 기업 상대 소송운동 벌여

IMF구제금융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에 접수되는 성차별적인 해고사태들은 하루에 적게는 10건, 많게는 30건에 이르고 있다. 결혼도 뒤로 미루기면서 일에 매달리고, 시댁과 남편 눈치 봐가며 회사일, 가사일 하느라 허리가 휘어진 여성노동자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IMF현파 속에 성차별적인 정리해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1월 15일 성차별적인 여성우선해고 반대운동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내고, 여성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리해고 압박화를 반대하여 기업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불가피한 정리해고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일 여성노동자 우선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적발되면 먼저 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관계법 등에 따라 고소,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본부가 처음으로 여성부당해고를 고발한 LG건설은 2명을 원상복직시켰으며 현대알루미늄등은 강력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추진본부측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당해고기업에 대한 사법처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일단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에 대해 관할 노동사무소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본부는 또 이에 발맞춰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들로 '여성우선해고 반대운동' 자원을 위한 법률인단을 구성해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에 대응한 소송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277-7883〉 —이진화

### 미디어 수용자주권시대를 연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발족



〈미디어운동본부〉 발족 기념식서 열린 토론회.

미디어 수용자에게도 권리를! '미디어 수용자들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여성단체가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2월 12일 발족시킨 〈미디어운동본부〉(대표 유재천·이경숙)가 바로 그것이다. 그간 여성단체와 사회단체들이 대중매체 비평활동을 해왔지만 대부분 'TV 모니터활동'과 같은 사후감시활동이었다. 여성민우회는 그간의 활동으로는 급속히 확대되는 미디어환경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사실에 주목하면서, 미디어 관련 각종 정책과 법제도 제·개정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용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초기의 관심사는 한창 논란중인 통합방송법의 제정문제, 이와 아울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미디어관련 심의기구에 여성들을 진출시키는 것이다. 미디어운동본부 조장국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구에 여성 30% 할당'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낱말이 심각해지는 대중매체의 여성왜곡과 관련한 모니터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음란물을 보다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교 교육 내에서 미디어교육을 제도화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오는 6월에는 각 매체의 방송심사에 관련한 문제를 놓고 포럼을 준비중이다. 현재 시행되는 방송심사는 각 방송매체별로, 장르별로 제각각인 심의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원화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문의: 269-5763〉 —박이라

### 여성인권 문제 재조명 〈여성 인권과 평화 세미나〉 열어

'여성인권 연구회'는 여성인권과 평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인권과 평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이제까지 인권문제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을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적이다. 인권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는 앞으로 3년에 걸쳐 시리즈로 나갈 계획이다. 총 7번에 걸쳐 진행될 올해 세미나의 주제는 '인권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이해'이다. 세계의 인권의 역사(1회, 2월 21일), '권력과 고문의 구조/고문의 비효율성'(2회, 3월 21일), 구조적 폭력이 일상세계의 공포와 두려움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폭력의 구조와 재현의 용기'(3회, 4월 18일), '파시즘적 폭력과 남성 판타지'(4회, 5월 16일) 등이 매달 열릴 세미나의 주제이다. 특히 4회 때는 우리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제주 4·3항쟁 당시 서북청년단의 피해사태에 나타난 파시즘적 폭력을 알아본다.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성인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감생활중인 여죄수에 대한 인권침해 고발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보고가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와 성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미나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후 4시~7시에 또 하나의 문화 사무실에서 열린다. 〈문의: 322-7946〉 —이진화

## 여연 10년 운동사 책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여성운동의 지난한 10년사가 영역별로 정리돼 한권의 책으로 출판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11주년을 기념해서 출판되는 『일민 희망-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발행)에는 여성노동자운동, 농민운동, 주부운동, 지역여성운동, 여성인권운동, 보육운동, 통일·평화운동, 환경운동, 교회여성운동 등 여연 회원 단체들의 활동이 상세하게 기록됐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활동의 기록물이 아니다. 각 운동의 내용과 특수성, 다른 운동과의 연계과정, 한계와 성과 등을 분석해 미래 운동의 참고자료가 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주부운동의 경우 여성권익과제와 생활과제 간에 나타나는 이론적 실천적 고민을 기술한 점, 그리고 대중성과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함께 아울러야 했던 과정 등을 솔직하게 기술한 점이 그것이다. 여성노동자운동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영역간의 연대, 매 시기 정책대안과 그에 맞는 활동, 노동현장의 외곽조직으로서의 역할과 단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구성원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기록됐다. 또 실천과정에서 활동가들을 짓누른 각가지 고민들과 회원들이 느꼈던 열정과 투지, 소모임 활동도 기록해 생생한 운동의 현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여연은 이 책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여연 활동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일반과제와 성차별 철폐라는 특수과제를 놓치지 않고 실현해왔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책은 여연(273-9535)과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940-4254)에 전화해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 1만원이다. —박미라

## 극장 〈마녀〉가 기획한 심야극장, '마녀의 자궁에서 밤새워 영화'

여성문화예술기획이 극장 〈마녀〉에서 이색적인 심야극장을 마련했다. "차가운 밤, 뜨거운 피, 마녀의 자궁에서 밤새워 영화"이란 부제의 공포영화상영이 그것이다. 왜 공포영화인가? 프로이드는 억압을 인간이 억압을 풀어내는 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뱀어죽이고 질라죽이고 심지어는 길아죽이는 장르인 공포영화를 본다는 것은 억압을 털어내기 위한 또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억압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심야극장 첫째 밤(1월 31일~2월 1일)에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등 현대공포영화걸작선 시리즈를, 둘째 밤(2월 28일~3월 1일)에는 '공포영화와 여성'을 주제로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등을 상영했다. 마지막 셋째 밤(3월 28~29일)에는 으스스하면서도 정겨운 우리 귀신과 만날 수 있

다. 한국 공포영화의 최고걸작으로 꼽히는 김영한 감독의 〈목없는 여신인마〉(저녁 6시)와 얼마전 작고한 한국 컬트영화의 거장 김기영 감독의 〈살인마를 쫓는 여자〉(밤 10시)가 상영된다. 또 흡혈귀 장르를 빌어와 한국인의 이민족 공포증을 적절하게 재현한 이형표 감독의 〈관속의 드러큐러〉(새벽 2시)와 『세네 21』 사나리오 공모 당선작인 98년 상반기 히트예상작

〈조용한 가족〉(새벽 4시)도 감상할 수 있다. 국내외작을 합해 총 십여편의 공포영화가 상영되는 이번 심야극장은 취지가 재미있다. 일반적인 영화보기의 틀을 깨자는 것이다. 좁고 불편한 극장작에서 움푹달라붙은 채 광고와 예고편을 볼 필요도 없고, 마지막 이 올라갈 때까지 경건한 태도로 숙종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영화를 보다가 졸거나 오징어를 씹어도 되고, 소리를 지르거나 조롱이나 야유를 퍼부어도 좋다. 관객들은 단지 신나게 즐기고 놀다갈 준비만 하면 된다. 영화상영이 끝나면 제공되는 구수한

새벽커피와 자연스레 이어지는 과담나누기도 기대해볼 만하다.

참, 소설 『마요네즈』가 마녀극장에서 연극으로 공연된다. 모녀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출판계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마요네즈를 작가인 전해성씨가 직접 각색해 4월 1일부터 무대에 올리게 된 것. 연극인 이주실과 김수기, 김진희가 주인공을 맡았다.

(문의: 324-6008, 324-6758) —이진화



## 국제단편영화제 초청받은 레즈비언 단편영화 〈히스토리HERSTORY〉



영화〈히스토리〉의 한 장면

〈히스토리〉는 민규동 감독이 95년 한겨레문화센터 영화제작학교 재학시절 찍은 영화이다.

95년 2회 금관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이 영화가 98년 지금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권위있는 클레르몽페랑 국제단편영화제에 초청되었기 때문이다. 동성애 혹은 여성문제의 담론들이 이미 진부한 소재로 취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수적인 한국사회의 동성애문제를 대담하게 그려낸 용감한 영화라는 평을 받았다.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사회의 곱지 못한 시선과 편견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던 한 레즈비언이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간다는 것. 영화에 나오는 '청미'와 '진아'의 배역은 실제 레즈비언이 연기를 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이들이 실제로 겪은 경험과 느낌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현실성 짙은 영화가 되게 했다. 그러나 고민했던 문제들을 상당부분 담지 못했다는 민규동 감독.

예를들면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아데올로기와 문화는 동성애자 사회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이것은 동성애에 던져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을 모두 담기엔 단편영화에 안고 있는 열악한 조건이 허락치않았다고 한다. 큐어영화제 출품작이기도 한 이 영화는 작년 말 일반 관객들에

게 선보일 계획이었으나 공연력에 의한 큐어영화제 자체의 무산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는 그는 앞으로 우리 사회 여성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만드는 여성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진화

## 동성애자들의 친구, 월간지 'BUDDY' 출사표 던지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동성애자들에 의한 동성애 잡지가 출판시장에 선보인다. 단짝친구, 형제, 동료, 친구라는 의미의 'BUDDY(버디)'라는 제목으로 2월 20일 창간호 월간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동성모임을 중심으로 '또 다른 세상', '또 하나의 사랑',

'친구사이' 등의 소식지가 발행됐었지만 재정이나 인력의 부족 등으로 발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 따라서 버디의 편집장 한채운씨는 "소외돼 있는 동성애자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 책을 발행하고 싶은 생각에 공식적으로 정기간행을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도 인구의 5% 즉 20만명이 동성애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을 위한 네트워크와 문화는 컴퓨터통신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 이들이 공식 출판물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또 있다. 그간 성적인 변태라는 사회적인 비난과 "조용히 살아라" 등의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담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세상에 던지겠다는 것이다. 주변부가 중심부에 던지는 일종의 화살인 셈이다. 버디는 무엇보다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잡지를 지향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의 문제들을 동성애자의 시각으로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창간호 특집은 '동성·이성, 나의 정체성 탐색 방법'으로 독자들 내면 깊은 곳의 성적 욕구와 정체성을 시험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동성애자들을 위한 외모 가꾸기, 친구찾기, 문학리뷰, 해외소식 등이 다루어진다. 물론 레즈비언들을 위해 여성문제와 관련한 내용도 실었으며, 표지모 델은 이제 막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 선정됐다.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잡지 문화에 관심을 가지자. 구독문의는 232-2379. —박미라



창간호 버디의 포스터

## 한국여성의전화 '연합'으로 확장

한국여성의전화(이하 여전)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해 문패를 바꿔 달았다. 전국적 조직이라는 위상에 맞게 2월 20일을 기점으로 〈한국여성의전화 연합〉으로 변경된 것이다. 현재 전국지부의 수는, 지난 2월 총회에서 인준받은 안양, 군산, 천안 등 6개 지부와 기존의 12개 지부를 합쳐 모두 18개. 또 여전은 전국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8개의 위원회와 사무처를 두는 등 조직개편도 했다. 정책기획·조직·교육·문화홍보·상담사업·인권사 회·국제협력·재정사업 위원회와 사무처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

특집

# 여자 기氣를 살리자!

"가족은 남편을 위해 용돈을 10만원 더 주자"라고 외친 한 여성대중강연자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보고 그만 아연해졌다. IMF시대의 궁핍한 살림살이를 떠맡게 된 여자들에게 남자 기를 더 살려내라고 아단이라니, 왜곡된 사회구조가 남자들을 남파러지로 밀어놓고는 그 뒷감당을 여자에게 미룬다. 여자들은 지금 제 코가 석자 아닌가. 취업여성들,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목이 시려워 밤잠을 못 이루는데 ...

지금 기가 살아야 하는 건 여자들이다.

나는 지금의 IMF 상황을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기로 했다. '남자들이 망친 세상'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기로에 선 여성들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본다. '미래를 조심하자'에서는 불황기의 미국사회가 보수논리를 이용해 여성을 어떻게 가정으로 돌려보냈는가를 살펴보면서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보수화 물결을 미리 점검해봤다.

또 마지막으로 '여자 기를 살리자'에서는 여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글들을 모아봤다. IMF 가상공트라고 할 수 있는 '인생극장'-'MFINE'은 사내카툰인 어떤 부부가 정리해고를 앞두고 선택한 두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IMF로 무력해진 여성들이 있다면 이번 특집에 관심을 가져보자.

남자들이 망친 세상 가부장제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조한 혜정

마구잡이 여성해고, 무식한 기업논리, 경쟁력은 있는가/ 박해숙

미래를 조심하자 남성사회의 최후통첩, "남자없이 살 수 있어?"/ 류숙렬

미국사회 대중문화의 '페미니즘 죽이기' / 한설아

여자 기를 살리자 여자 기를 살려야 하는 10가지 이유

민담을 통해 본 가센 여자들/ 박미라

IMF인생극장: 'm Fine' 이순주



# 가부장제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도대체 이 나라는 책임있는 어른이 있는 나라인지 묻고 싶어진다.  
 품잡고 다니는 불효자가  
 세상을 망쳐 놓으면 구박받던 자식이 효자/효녀가 되어  
 마무리를 하는 집안이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정치가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국민들은 기고만장했다. 고도 경제성장의 아시아적 모델을 개척했다며, '용'이 된 기쁨을 만끽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을 배우러 온 유학생들도 적지 않았고 서구의 '신교 자본주의' 못지 않게 잘 나가는 '유교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일었다. 그런데 IMF사태가 터지자 온나라가 허둥대기 시작했다. 막강하게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주체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 IMF사태를 보면 한국사회가 보인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이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여전히 피난민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닥치면 하는' 사회, '닥치는 대로 하는' 사회가 곧 우리 사회 아닌가? 이제 그 '닥치는 대로' 하는 체제와 그 체제의 주인공 '어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다. 먼저 두개의 논조가 좀 다른 일간신문—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주간지 등을 통해 3개월간의 폭풍속을 잠시 되살려본다.

사건 초기에 언론은 국가가 파산지경에 이르렀으며,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고, "금방 변하지 않으면 한국은 없다"는 식의 논의로 일관했다.

곧이어 원인과 잘못을 따지기 시작했고, "재벌, 그 요지

경의 실상"(주간 조선 1998. 1/22), "설부른 세계화가 나라 망쳤다"(조선저널 1998. 1/15)와 같은 기사에서 보듯 김영삼 정권의 무능과 재벌에 대한 성토가 시작되었다. "달러빛" 무서운 줄 모르고 칠렀던 홍성태다 파산한 한국... 세계화를 잘못 이해하고 경거망동한 데서 과국은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대외 채무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한 김영삼 정부는 살친국 사고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전방지제' 가입하더니 서부른 외교로 미국등 강대국의 비위만 건드렸다. 그 뒤 얼마 가지 않아 결국 달리는 거덜났고 통화기금과 미국등 강대국의 비참한 채무자로서 그들의 요구에 백기를 들고 항복할밖에 도리가 없었다.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렸음은 다시 이를 필요가 없다..."(정세용한겨레 데스크 칼럼 1/21) 등의 표현에서 보듯 비난과 자책조의 글들이 이어졌고, '한국 위기'의 책임은 정치인과 재벌 순이며(조선 1/16)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IMF의 주범이라는 모범답안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명한 답은 사실상 당장 불안한 서민들에게 상당히 적절한 사태 설명용이었고, 곧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민족주의' 언설이 동원되어 행동이 개시되었다. 그것은 "허리를 졸라매자", "국산품을 이용하자"였다.

공포와 격분 속에서 마음을 위로하거나 안심시키기 위한 기사 역시 자주 등장했다. "한국 3년내 IMF극복"(조선 1/16)이라는 기사가 KDI 국민경제연구소 설문지 조사를 바



취임 전인 지난 1월 13일, 김대중대통령은 재벌들과의 회동에서 구조조정에 앞장서줄 것을 강조했다.

탕으로 큼지막하게 나서 국민을 위로하는 한편, 거품을 빼려면 행정 수습부터 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나태함과 정부 기관의 낭비에 대한 비판의 기사가 부쩍 늘었다(한겨레 1/22). 1990년대 들어서서 강화된 유아독존적 태도도 상당히 수그러들어 외국 사례와 외국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노·사·정 화합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논의가 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서 김대중 차기 대통령은 경제 청문회를 반드시 열 것이라는 약속을 했고,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한 '대수술', '고통분담'을 할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민의 일상 곳곳에서는 지혜와 힘을 나누는 기특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IMF 스트레스 이렇게 이겨야 한다"면서 의사들은 운동을 게을리 말고 명상으로, 단전과 참선으로 마음을 비우라고 했고(조선 1/19) 회사에서도 명랑한 음성 메세지 남기기, 인사하기 등으로 고통을 정으로 이겨내자는 운동이 일고 있다고 한다(조선 1/19). 유명 음악인들도 나서서 IMF 극복을 위한 순회 연주회"를 열어 국채 홍보 및 판촉에 적극 나서기로 했고(조선 1/16)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출이 늘었다는 기사화와 함께 내전 타이틀은 "외화벌이

팔 걸어붙인 TV: 프로그램 수출 2배로 늘어, 케이블 325% 상승 '효자'였다(한겨레 1/16).

실로 망해가는 집안을 일으키려는 효자들이 곳곳에서 허리를 졸라매고, 금불이를 모으며 나라살리기에 앞장섰다. 금모으기에 서민대중이 보여준 대단한 열기가 잠시 서구도 구적 합리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을 감격시켜 일시적 효과를 낸 모양이지만, 역시 이런 식의 감정적 대응은 '무조건 허리 졸라매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낼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제 한파를 타고 절수형 IMF 수도꼭지, 변기 절수기 등의 판매가 활발해졌고(조선 1/19) 체육복 물려입기, 가구 재활용 등의 소식이 이어졌다. "옷차림도 거품 빼자—청바지 출근"으로 돈도 아끼고 경직된 사무실 분위기도 부드럽워졌다는 기사도 났었다(한겨레 1/20).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돌아가며 돌보는 방법을 찾는 기사라든가(한겨레 1/16), IMF 시대, 믿을 건 몸뿐"이라며 직장인들이 등산과 조깅에 열심이라는 기사가 자주 눈에 띄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 왜 진작 그러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즈음에 "직장 잃은 아저씨들 우리도 도움게요"라며 초등학교생들이 300만원 성금을 기탁했다는 기사가 났고,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은 올해 "아이엠에프 정복 교육을 할 계획"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한겨레 1/20). 아들 출세를 위해 거지가 돼 죽은 어머니의 회생을 뒤늦게 안 아들이 가슴치며 후회하는 내용의 <불효자는 울녀>라는 신파국이 관객을 끌고 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끈다. 이쯤되면 도대체 이 나라는 책임있는 어른이 있는 나라인지 묻고 싶어진다. 품잡고 다니는 불효자가 세상을 망쳐 놓으면 구박받던 자식이 효자/효녀가 되어 마무리를 하는 집안이다. 이 때쯤, 열심히 금모으기에 동참하시던 나의 어머니가 "종들만 허리 졸라매면 뭐하나, 주인이 허리를 졸라매야지" 하는 말을 하셨다. 아마도 텔레비전에서 들은 말이었을 게다.

집에 달리가 있으면 다 내놓으라시던 '오로지 나라사랑'으로 산 세대의 전형인 어머니는 요즘 좀더 당혹스러워하신다. 애국상품 논의가 "효자/효녀"들을 당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진짜 국산품인가? 국내산품은 다 국산품인가? 수입상표지만 100% 한국인 고용에 90% 한국 원료를 사용하는 물건과 한국상표지만 외국에서 만들어 오고 100% 외국 원료를 사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국산품인가? 이쯤 되면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중단하고 싶어진다. 누구의 눈음에 놀아나는 것인가?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수준의 대중매체 언론으로 위기극복이 가능할까? 착한 사람들은 많은데 분명 뭔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 남자들이 망친 세상, 여자들의 자리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독점재벌체제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주장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결국 '투명성'과 '공평성'이 살길임을 모르는 이는 드물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단이 사실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문제는 현상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주체세력과 방법론이 없다는 데 있지 않을까? 나누어 가질 떡이 있을 때는 한껏 물려들었다

가 떡이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그들'이 사라져 버리는 데 있지 않는가?

한국 위기상황의 특징은 심한 '불균형 발전'의 양상에 있다. 70,80년대에 세계금융자본이 한국이라는 땅과 그곳에 살고 있는 인력을 총애했으며, 지금은 그 자본이 이 땅을 떠나려하고 있다. 오로지 그 총애만을 믿고 숫자 놀라기에 급급하면서 '성공의 신화'에 심취해 있던 세력은 '자본'이 떠나자 갑자기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숫자 상승에 맞먹는 합리적인 노동구조라든가 사회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기형적인 상태를 방치해 두었던 한국사회는 이제 위기가 만성화된 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의 불합리성은 극에



금모으기운동에 동참한 여성들. 할머니의 금가락지와 여성들의 발자국이 물려나왔다.

달랐다. 그러한 불합리성의 가장 적나라한 단면은 이 땅에서 여자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직업 현장을 보자. 여성은 정리해고 1순위인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되어 있다고 한다. 젊은 부부는 "해고 표적이 될까" 처녀행세를 한다고 하고(조선 1/20), 기혼여성이 맞벌이에 자녀가 있으면 가장 불안해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다룬 기사는 경고가 되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때로는 여성해고를 부추기는 효과를 낼 것 같아 대중미디어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어쨌든 그 동안의 사회발전의 내용에 '능력위주체제의 확립'이라는 사항이 들어있었다면, 하루빨리 거품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시키는 등의 사태가 생길까?

다행히 이점에 관한 한 여러차례에 걸쳐 확실한 문제제기

가 일었고, 특히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에서는 공동번호인단을 꾸려 성차별적인 해고기업을 상대로 남녀 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소송운동을 벌이기로 했고, 끝이어서 노동부가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여성 부당해고 때에는 사업주를 즉시 입건하는 등의 조치를 골격으로 하는 '여성고용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평등 의식의 성장으로 이런 사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녀가 공히 깊숙이 빠져들어 있는 회로판인 '딸 가족여 아들 기 살리는' 체제는 모자가 공모한 체제이며, 이 체제의 변화없이 지금의 위기극복은 있을 수 없다.**

확실하게 문제제기되고 있음은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여성 위업의 문제는 부당해고의 문제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차원, 곧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기존 체제는 지금까지 여성 위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방해를 해온 편이며, 이는 남녀공학 대학에서 졸업생 추천을 써주는 관행에서나, 여학생을 대하는 교수의 일반적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에 여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두고 새청 일류대학교 교수 중에 "이제 학교가 망하게 됐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역시 여성인력을 길러야 한다는 당위성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사회라는 단적인 증거다.

사실상 급변하는 시대에, 특히 위기상황에서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려볼 수 있는 패턴 인식력이라든가, 유연한 사고, 탈중심적 사고를 하는 인재들이 매우 필요하며, 이런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 데 한국의 문제가 있다. 객관적으로 한국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중에 이런 사고와 태도를 가진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한국 남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한국 여자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대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바로 이런 '인지의 불일치'가 불평등과 불합리의 단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 일고 있는 논의만 보아도 남성지배층의 논리는 '고립이나 개방이나? 먹느냐, 먹히느냐?' 식의

단순이분법 논리 속에 빠져서 유연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적응력이 높고 창의적 능력을 가진 여성들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인 관련 기업이나 국제 분야에서 일하거나 중도에 포기를 하고 가정으로 들어가버리는 경향을 보여 왔다. 특히 능력있는 중간 관리자, 곧 중대장이 없다는 점이 한국 조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데, 이 역시 애초부터 여성들을 길러 적절히 인력으로 만들어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

가정으로 눈을 돌려보자. 지금 신문과 텔레비전 등을 보면 온통 '남자 기살리기'를 해야 한다는 기사들로 가득하다. 바로 여기 기풍론에서야말로 거품이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IMF사태로 위기에 처한 가족 중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밀어준 맞벌이 부부, 또는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가정에는 분명 위기가 덜하거나 위기가 왔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야말로 가정생활에 거품이 빠지는 때인 것이다. 지금은 아내 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남자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인 것이다.

#### 남의 기를 죽여야 사는 기와 남의 기를 살려야 사는 기

지금까지 이 땅의 사회생활은 다분히 남의 기를 죽여서 자기 기를 살리는 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래서 하향 평준화가 심했고, 능력발휘를 할 구조를 만들지 못했으며,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오기와 한이 맺힌 사람들을 양산했다. 지금의 위기상황은 바로 이런 문화심리메카니즘의 결과이다.

여기서 한국 남자들의 큰인물 콤플렉스, 한자리 차지하려는 심리와 재벌독재, 정경유착, 한당주의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볼 수 없다. 생각해 보면 재벌의 독점체제는 실은 이 사회 곳곳에 편재해 있는 특혜주의, 인맥과 연줄주의, 음성적 결탁체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재벌의 체질개선이 관건이라면 바로 그런 특혜주의와 인맥과 음성적 결탁을 막아야 한다. 이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연줄주의와 기회주의의 온상은 어디이며, 한국남자들의 박력이라고 가끔 미화되어 불리는 그 권력욕과 배당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그림은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지나치게 기대를 걸면서

기를 살려온 가족구조와 직결되어 있다. 남자가 공히 깊숙이 빠져들어 있는 회로판인 '딸 기죽여 아들 기 살리는' 체제는 모자가 공모한 체제이며, 이 체제의 변화없이 지금의 위기극 복은 있을 수 없다.

자금은 구한말, 또는 해방정국과 유사한 혼란기이다. 단기적 대응이 오히려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국제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동향에 따른 권력구조의 재편을 주목하면서, 특히 전지구를 누비면서 돈으로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 조지 소로스의 행보나 IMF와 같은 새로운 기구들의 부상에 주목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청문회를 통해 '높은 자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무거운 책임의 자리임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과 자본간의 관계 조정을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 이런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작업은 '남의 기를 죽임으로써 자기 기를 살리는' 이들의 시대를 마감하는 일이다—아, 우리는 얼마나 똑똑해져야 하는가?—. 독점의 시대를 나눔의 시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먹을 것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들다가 해결할 일이 생기면 달아나는 피난민적 하루살이 체제/사적 이익 결탁체를 해체하는 일이다.

이 일은 남의 기를 살림으로 자신의 기를 살려온 이들만이 할 수 있다. 국제협상 테이블에 가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유연한 사람,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줄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 정리해고제를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지만 하기보다 임금유지제도를 활용하면서 가정과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어 구조조정을 해내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추진해낼 수 있는 사람, 이 기회에 환경과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아주 새로운 사회 원리를 뿌리내릴 방안을 내는 사람,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는 사람, 결과주의에 빠지지 않고 과정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사회의 극단적 불균형 발전 상태를 불편해하며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분명 남자들 중에서 서보다 여자들 중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한겨레 1월 27일자 신문 국민기자석에 IMF 실의 빠진

아빠에 큰 힘된 어린 딸의 선물"이라는 글이 있었다.

"회사에 부도가 나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직장을 떠나고 상여금과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하나뿐인 아이 용돈은 고사하고 떨어져 사는 어머니 생활비도 보내드릴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전쟁 치르듯 하루하루 보내는 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은혜가 아빠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가 보다. 아빠 구두를 닦아 수고비로 용돈을 대신했던 은혜는 빵을 준비하고 그 위에 초를 꽂았다. 그리고 생일 축하노래를 부르고 선물이라며 포장지를 찢고 오려서 만든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다. 열어보니 메모지에 쓴 편지와 예쁜 돼지가 그려진 10장의 그림카드가 나왔다. 또박또박 쓴 글씨로 "무료이 용돈, 구두 1번 닦을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빠, 아 이엠에프 시대잖아요. 용돈 없어도 몸으로 실천하기로 했어요" 우리 부부는 마주보고 웃었다. '이런 가족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싶은 심정으로(김동혜/인천 서구 가좌 2동)."

이 지혜로운 딸아이는 커서 무엇이 될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회의의 협상테이블에 앉아 어릴 때 부모의 기를 살렸듯 세상을 덜 망치기 위한 일에 몰두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남편의 기를 살리기 위해 여전히 구두를 닦고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이 아이의 기가 꺾이지 않게 하는 것, 이 아이가 계속 자기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여존남존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7]



조한혜정

도하나의 문화 동인, 연세대 문과대 교수, 문화인류학자.

## 마구잡이 여성해고, 무식한 기업논리, 경쟁력은 있는가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해고의 실상과 양태는 마녀사냥식으로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강력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직장장과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예외없이 몰아치고 있는 정리해고 바람에서 '여성'이 그 첫 희생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도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해고시키는 '여성우선해고'에 여성계는 지독히도 '성차별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없고, 가부장제 '주먹'은 가깝다

사실 하루아침에 날벼락 떨어지듯 돌입한 IMF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논제가 되고 있다. 생각만 해도 암울하다.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선 남녀고용평등법도 우습다. 여성우선해고는 들에 질려진 들불처럼 끝간 데 없이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선 법도 휴지조각이요, 무용지물이다. 누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했던가. 여성우선해고는 공공연히 모든 기업과 직장장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을 막론하고 일방통행의 가부장적 주먹의 논리로 거짓말 안 보태서 '폭력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에 접수된 해고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된 해고 근거는 한마디로 '여자니까'다.

"가장인 남자에게 여자가 양보하라"는 것이 지금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사회와 기업, 경영자의 논리이며, 때론 일부 몰지각한 남자들까지 합세해 '처방된' 여자죽이



기 마취용 주사요, 지고지순의 처방이다. 어느새 그리 접하게 '합의'를 이뤄냈는지 여자잡기 처방전은 모든 기업에서 사용되는 것도 가히 공통적이다. 이게 여성우선해고의 진실 하나다.

업체마다 내세우는 '기준 아닌 기준'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여자자르기라는 대전제 아래 '눈가리고 아웅식'의 놀이마당이 한판 벌어진다. 여자는 무조건 '해고 도마'에 올려지고 어떤 부류의 여자를 먼저 자를까, 누굴 먼저 잘라줄까 하는 순번정하기는 칼자루를 권 기업들, 때론 저도 잘릴 줄 아는지 모르는지 미리 알아서 가는 뒷줄에 앉아 있는 남자들의 '마음'에 달려 있을 뿐. 그러나 사실 그 근본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점이 두번째 진실이다. 여성우선훈고라는 마녀사냥식 정리해고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는 어떤 여자들일까. A랜드에서 접수된 사례 하나를 들여다 보자. 이곳에서는 우선 인사부에서 개별면담을 통해 4개월치 월급을 주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유도' 하자 상당수의 여직원들이 지레 겁먹고

로 정한 기준으로 가급적 여성만 몰라서 '선별해고' 하는 식이다. "기혼여성들을 권고사직 형식으로 해고를 시키고 있다"는 게 총서비스사에서 들어온 고발내용이었다. "일괄 사표를 내라고 해놓고 극소수 간부급을 포함해 여직원 중심으로 선별수리를 했다. 회사측은 근태, 명령불복종, 능력을 기



알아서, 또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만두었고 해고순번은 기혼 여성, 장기근속여성, 사내커플 여성이 모두 우선순위에 해당했다.

또 다른 방법은 강압적 권고사직형이다. "회사 사정이 이런데 어쩌나. 말린 식구 많고 가장인 남자가 팔리는 것보다 말린 식구 없는 여자가 낫지. 그래 안그래?" 2년마다 계약되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한 여성은 "공식적"으로는 근무평정이 나빠서, '개인 의견'으로는 미안하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만 나오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 또 모 설계감리회사에서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퇴직 강요에다 이유를 달길 "사회 전체 분위기, 회사 분위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는 남녀 할 것 없이, 위아래 할 것 없이 일괄사표를 받아놓고 회사 멋대

본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근태에 문제가 있는 남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 회사 편의대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무직 여성들이 대부분인 학생용 교재출판사인 7사의 사례다.

#### "여자는 된장국이나 끓여라"

여성우선훈고 사례나 해고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원칙은 하나같이 똑같다. 이들 사례에서 보여지는 여성우선훈고의 숨겨진 논리는 '강력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그 뿌리다. 지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마구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민우회가 여성 우선훈고 피해사례를 한창 접수받는 와중에 걸려온 전화내용을 들어보자. "여자는 된장국이나 끓여라", "신이 부여한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라" 등 PC통

신 대화방에 오르는 내용과도 비슷하지만 한 중년남자 왈 "이 미친년들아! 여자가 먼저 해고되는 게 당연하지. 왜 세상 시끄럽게 떠들어대냐"고 했단다.

이 남자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막말로 내친 김에 쉬어가자고 오랜만에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게만 해준다면야 여자들도 좋다. 그러나 언제 된장국만 끓이게 했는가 말이다. 어린 노동자들을 70년대는 산업역군으로 부러먹더니 80년대는 씌맛에, 역순이처럼 일 잘하는 아줌마들을 다시 끌어내기 바빴다. 이제 실직당했거나 명예퇴직, 감원바람에 밀려난 남편을 둔 여성들은 파출부든 뛰든 파트타임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언제나 여성들은 사회의 모순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로 사용됐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맞벌이하라는 아내를 둔 남자를 부러워하고, 자기 마누라에게 '돈도 못 버냐'며 스트레스 팍팍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정리해고 바람이 분다니까 남자가 우선 살아남아야 한단다.

오랜만에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게만 해준다면야 여자들도 좋다.

그러나 언제 된장국만 끓이게 했는가.

어린 노동자들을 70년대는 산업역군으로 부러먹더니 80년대는 씌맛에, 역순이처럼 일 잘하는 아줌마들을 다시 끌어내기 바빴다.

이제 실직당한 남편을 둔 여성들은 파출부라도 나서야 할 판이다.

남자들은 알아야 한다. 이 논리가 얼마나 남녀노동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 남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알고 아웅다웅하는 것이 얼마나 자본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인지. 자본이 남자 우선권을 내세우는 것은 그들이 남자편이어서가 아닌데도 남자들은 항상 여자를 동등한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남성 위주의 노동운동을 폈다.

그 남자들, 여자가 나가면 자기는 안 잘릴 것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다. 지금은 자본이 "남자노동력이 여자보다 그래도 낫다"는 논리로 남자를 먼저 보호하는 양 행세하지만 그

것 역시 안전판은 아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왔는데도 여전히 "남자=생계부양자"라는 자기 멋에 갇혀있는 꼴이라니. 직종이나 분야에 따라서는 임금이 싼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 효용가치가 높을 수 있고 이 경우 남자들도 마구잡이로 잘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른다는 말인가.

#### "남편을 버리고 직업을 택하겠다"

이처럼 아내나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폭력은 가정뿐 아니라 기업과 언론, 그리고 사회전반에서 집단으로 행해진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상황은 아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70~80%에 달하고 남녀임금 격차도 상당히 좁혀진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여성들은 여전히 남자노동력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 미국여성들 역시 1930년대 대공황시절과 2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남자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다. 물론 그들은 그 이후 수십년 동안 당시의 남편있는 여자들을 먼저 자르는 법에 대해 "남편을 버리고 직업을 택하겠다"는 굳은 맹세와 투쟁으로 반여성법을 철폐해왔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은 이 땅에서 그같은 일이 지금 현재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 하나 차이점이라면 우리네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홍콩 조류독감만큼 강력한 '치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의 여성 우선훈고가, 세계시장의 논리 속에서 경쟁력을 통해 살아남겠다는 자본의 논리를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합리를 내세운 구조조정 구호가 참으로 우습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제철의 계열사인 한 광고대행사에서 지난 해 12월 말 단행된 정리해고는 한마디로 '여자 우선'이라는 대전제 아래 '낙하산 인맥은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이 지켜졌다. 1차로 잘려나간 100명 정도의 해고자 가운데는 제철 총수의 친인척, 광고주 또는 임직원의 자녀 등 '백'으로 취업했던 낙하산 인맥들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다. 해고 1순위는 "피해가 적다"는 여자였고, 해고 2순위는 팀장한테 '책권' 사람이었다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무려 1억원을 들여 외주로 개발한 인사고과제도

프로그램이 있었다지만 이에 대한 교육도 없었고 적용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식의 여성이 우선해고되고 뒷선에 찍힌 사람들이 해고되는 풍토는 어떤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가. 여성 먼저 해고하듯 찍힌 사람, 밑보인 사람을 이 기회에 다 해고한 기업은 망하지 못해 몸부림을 치는 것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기업이 많을수록 나라 경제력도 요원한 것이다.

#### 해고 1순위 '여자', 2순위 '찍힌' 사람

찍힌 사람이 해고 1순위라는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학생들의 교재를 50년간 만들어온 모 출판사는 1월 초 느닷없는 정리해고에서 해고사유로 근태, 명령불복종, 업무능력을 의견상 제시했지만 해고된 다수의 여성들의 반박은 해고의 무정을 열고 보니 이사 1인체제하에서 "늘상 면박받던 남자와장 3명을 포함해 이사의 눈에 난 사람(어쨌든 다수가 여자였다고 한다)은 잘렸고 근태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예쁘게 보인 사람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도 사업체는 인사고과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개인 감정대로 이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2,3차 계속 진행될 정리해고 바람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상황이란 생리휴가나 월차를 모두 반납하고 순종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자본의 논리에도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족벌체제의 기업운영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우선 정리해고되는 사람들 중에는 남녀 할 것 없이 근태등 인사고과에서 점수가 낮았던 이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선해고자 중에 능력있는 이들도 '생애장되듯' 잘려나간 것은 참으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해 말 정리해고를 단행한 한 케이블TV의 경우 전체 직원의 40%를 잘랐다. 이중 해고된 여성의 절반 가량은 일안 하고 매번 토폴책만을 봤거나 수십차례 지각으로 체크당했거나 출퇴근근과에서 엉망이었던 여성들(물론 남자도 포함)이 1차 대상이 됐다. 한 남자PD는 "절반가량은 물론

단지 여자란 이유였고 나머지 절반은 인사고과였다고 봐야 한다. 여자였기 때문에 자른 것은 말도 안 되지만 그나마 회사에서 준비한 근태등 크로스체크 방법의 인사고과로 해고된 동료들은 누구도 편들어줄 수 없었다"고 했다. TV 프로그램 제작하는 D프로덕션의 경우 상사를 비롯해 직원 누구나 실력을 인정하는 여자PD가 해고된 사례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 여자PD는 실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인정받았었지만 방송이라는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도 너무나 자유분방한 출퇴근으로 인사고과에서 해고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두 곳은 그나마 순전히 여자만을 제물로 삼지 않았던 취재선상에서의 유일한 사례였다. 정리해고 입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고과를 가지고 해고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부분적이거나 '근태만'을 해고사유로 적용했던 사례였기 때문이다.

#### 가부장제의 마녀사냥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사고과에 따라 해고된 여성이 있다면 '여성이란 이유로' 해고됐다고 옹호할 수 없는 노릇이고, 여성이 해고됐다고 무조건 '여성 우선해고의 부당 사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해고의 실상과 양태는 마녀사냥식으로,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강력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아주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업에서, 크거나 작거나 할 것 없이 해고나 감원 1순위는 맞벌이 여성, 2순위는 두자녀 여성이며, 3순위는 한 자녀를 둔 여성, 4순위 임신여성, 5순위 기혼여성이 기준의 전부라는 점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장기근속 여성이 포함되고 인수합병된 경우 흡수된 업체의 여직원이 먼저 잘려나가고 있고 산전산후휴가중에도 해고당하는 실정이다.

여성이 우선해고 대상에 오르는 또 다른 이유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경쟁력이 낮다'는 자본의 논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개개 노동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단순히 '그럴 것이다'라는 심정적인 논리로 대응해가는 우리 기업

의 무지한 성차별적 발상은 경쟁력 제고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인사고과나 노동력의 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고를 단행한다는 기업은 어떤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리해고와 여성해고 0순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동자와 여성들의 저항은 전무한 상태다. 물론 여성우선해고 반대운동을 벌이는 여성계의 노력이 없지 않지만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논리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해고 사례는 술하게 많지만 그 부당성을 고발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미약하다. 특히 여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민우회에 접수되는 사례라야 수십건에 불과하고 노총이나 지역,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는 건수 역시 폭발적이지 못하다.

취재대상에 올랐던 많은 여성들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조직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촉탁직이나 계약직 등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사무·전문직 등 화이트컬러 직종의 경우 노조결성이 거의 전무했기에 정리해고 바람에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형편없는 의식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결과 너무 어처구니없는 해고사유나 해고방식에 대해서도 "나만은 예외겠거니" 하며 방심하다가 해고를 당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한 출판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 재도약의 호기로 삼아

여성우선해고의 부당성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권성희씨(46, 7출판사 근무)는 "처음에는 남자들은 오죽하겠느냐 싶어 받아들였지만 이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해고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록이라도 남겨놓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똑똑해졌다"고 털어놓는다. 참으로 뒤늦고 아쉬운 고백이지만 이 또한 대다수 여성들의 현실인식 수준이다.

어쨌든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여자들 스스로

가부장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순순히 그만두고도 아무 말 못한 채 주저앉기보다 사례를 기록으로 남기는 행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장은 여성우선해고에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여성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 차별에 맞서는 '조직적 대항'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제 여성단체를 '자기 절박할 때만' 찾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 여성단체나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를 이 기회에 깨달아야 한다.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연계를 맺으면서, 여성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조직'으로 뭉치고 힘을 합쳐가는 의식의 전환과 '활동'이 절대적이다.

동시에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력이 남성에 비해 뒤지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능력 계발을 위한 '피나는 노력'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여성들은 호·불황기마다 불려나왔다 쫓겨나가기를 반복하는 산업예비군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저임금·단순하위직종에 머무르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대대적인 여성 부당해고가, 여성들이 노동자로서 여성차별적인 자본의 힘에 대항해 새롭게 도약할 호기"라고

#### 박혜숙

글을 쓰는 이들이 늘 겪는 '종교개혁'을 이번에도 겪어야 했다. 여성 우선해고의 사례를 취재하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어떻게 글을 풀어써야 하는지는 데드라인과dead line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두렵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했다. 여전히 여성일반은 남성일반에 비해 노동가치가 일한 집안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확인해야 했던 것도 스트레스였다. 그러나 '남편은 버려도라도 직업을 택하겠다'는 무지로 조직적 싸움을 벌여왔던 미국 여성들의 그 결연한 의지가 이 땅의 여성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정리해고는 우리가 잊고 있던 처절한 아픔이지만 결코 피해야 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 글은 정리해고를 반대하거나, 단지 여자를 왜 자르냐는 감정싸움의 단순한 항변이 아니다. 단 여성 '우선' 해고 논리에 숨겨진 기막힌 허구를 지적하고 싶었다.



# 남성사회의 최후통첩, 남자없이 살수있어?

“페미니스트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단 하나 남자를 잃어버린다”

“남자들은 말한다.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세상 참 좋아졌어’라고. ‘여자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안 된다던 시절이 언제였더라’ 되짚어보는 듯 여운을 남기며 슬쩍 되묻는 그들의 어조에는 교묘한 독의가 묻어났다. 모든 여자들은 그녀가 페미니스트이건 아니건 간에 남자에게 행복을 의존한다. 돈도 좋고 일도 좋고 독립도 좋지만 여자의 행복은 남자하나 잘 만나는 데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최후통첩처럼 묻는다. ‘남자 없이 살 수 있어?’

코맹맹이소리로 ‘사랑밖엔 난 몰라’ 하고 노래한 여자가 심수봉이었던가? 아 그녀는 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노래하며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운명을 노래했지. 남자는 세상을 떠돌아다닐 수 있지만 여자는 불박이로 제자리에 앉아서 남자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그래 여자가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차갑고 외로운 침실을 택할 것인가, 남자의 따뜻한 품속을 택할 것인가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누군가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했다면 그녀는 사랑이여 안녕, 남자에 안녕을 우선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페미니스트는 남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

여성의 권리도 좋지만 보라구, 이혼율은 높아가지. 애들은 문제가 되지, 성폭력은 문란해지지, 그게 다 평등의 산물이라니까. 자유와 독립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과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라는 얘기야. 여자에게 사랑과 독립은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구. 자유와 독립은 당신에게 고통

을 선사할 뿐이지만 남자는 당신에게 사랑과 행복을 선사한다구. 두가지 다 가질 수는 없어, 오직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지. ‘남자는 어쩌냐’고 묻지마. 모든 것을 남자하고 비교하는 버릇 좀 버리라니까. 그건 신에게 도전하는 행위야. 모두 다 똑같이 할려면 신이 한 종류의 인간만 만들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겠어? 그런 걸 섭리라고 하지.”

## 투쟁으로 얻은 참정권과 가져 얻은 미인대회

페미니즘 또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독립에 대한 남성사회의 공격이 어떤 일관된 체계나 조직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 곳곳에서 불쑥불쑥 심지어 집안의 가족 사이에도 이웃집에서도 TV에서도 대중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강연장에서도 수위와 방법과 형태를 달리해 속삭이기도 하고 과학적 이론을 들이대기도 하며 여자의 마음속에 갈등과 회의, 불안을 심어놓는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자의 마음에 일으키는 메시지는 하나의 방향으로 흐른다. “요즘 여자들이 괴로운 것은 모두 여자들 자신의 탓이야. 제자리로 돌아가면 돼. 최소한 옛날 여자들은 불행하지도 않았고 갈등도 없었어.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행복했다구”라고, 결국 그들이 내리고 싶은 결론은 하나다. 여성의 독립은 여성에게 고통을 선사한다. 행복하고 싶으면 남자에게 안주하라. 그곳이 여자의 자리다. 그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정

말로 남자 잘 만나 그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현대에 들어 여성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진출하고 있고 여성을 차별하는 법제도적인 장벽도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여성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왜 남성들은 불안한 것일까? 사실상 오늘날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는 투표권의 획득과 캐를 같이 한다. 미국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한 것은 1920년, 여성의 투표권을 요



미국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운동가들 한 자리에 모아놓은 포스터.

구하는 최초의 여성권리대회(1848, 세네카폴스컨벤션)를 가진 이래 72년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투표권만은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선사하는 동시에 ‘미스아메리카대회’도 선사했다. 최초의 미스아메리카대회가 열린 해가 바로 1920년이었던 것이다.

여성참정권 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1917년 한해 동안 미국의 26개주에서 218명의 여성들이 이와 관련돼 체포, 투옥되었다. 피터지게 싸우며 요구한 투표권은 72년만에 주어졌지만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미인대회는 저절로(?)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성들에게 번화할 매기고 몸매 사이즈를

물으며 누가 1등으로 예쁜 여자이고 누가 탈락되는 여자인지를 가리는 미인대회의 이태올로기는 이후 전세계 여성들을 지배하게 되며 전국가적, 전지구적 사업으로 확대된다.

여성의 투표권 획득을 정점으로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는 하락했다. 공황이 닥치자 여성들은 우선적으로 일터에서 집으로 보내졌으며 남녀의 임금 차이가 법안으로 제정되어 여성의 저임금을 합법화시켰다. 그러나 세계대전이 터지고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자 여성들이 군수산업에 투입됐다. 그리고 여성은 일도 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생활도 할 수 있다는 노동여성에 대한 찬미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남자들이 돌아오자 얘기는 다시 달라졌다.

## 누에고치 회귀 현상과 가정으로 돌아가기 운동

전쟁이 끝난 1945년 이후 1년 동안 미국에서 325만명의 근로여성들이 집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그러나 그녀들 중 275만명이 다시 더 낮은 임금이나 남자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채워야 했다. 결국 전사회적인 보수화와 남성들의 공격이 여자들을 ‘행복한 가정주부’로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더 싼 값에 기피직종에까지 쓸 수 있게 했을 뿐이었다. 종전후 50년대에 여성이 대학을 가는 이유는 좋은 신랑감을 만나기 위한 자격증따기였고 졸업할 때까지 약혼반지를 못 건 여학생은 열등감과 초조감으로 날을 지새야 했다. 육아박사로 유명한 벤자민 스포크 박사도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며 대학에서도 여성들에게 주부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후 미국사회에서 여성들을 향해 대대적으로 벌인 ‘가정으로 돌아가기 운동back-to-the-home movement’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여성들에게 살림살이와 아이키우기를 가르쳤던 여성잡지 ‘굿하우스키핑Good House-keeping’은 직장을 다니던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누에고치 회귀(cocooning)’라 이름붙이고 이들에게 ‘신전통주의자(New Traditionalist)’라는 타이틀을 선사하였다. 누에고치 현상은 남녀를 불문한 가정회귀현상이 아니라 사무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고치 속에 안주하는 작은 벌레, 그것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던 여성들(중년에 접어드는 나이)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미국 사회가 생각했던 비유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성인여성들을 애벌레시절의 고치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비교한 '누에 고치 회귀'는 섬뜩할 정도로 상징적이다. 유충은 미성숙단계의 의미를 지닌다. 나방도 번데기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하물며 성숙한 인간이 어떻게 번데기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여성잡지, 출판사, TV드라마, 의류, 미용업체, 가전제품까지 모두가 합심이라도 한 듯이 가정으로 돌아가 고치 속에 안주한 행복한 주부상을 떠돌아다녔다.

#### ‘보이스카웃’ 운동과 남성성의 위기

그러면 온 사회가 떠돌고 있는 ‘행복한 주부’가 되지 못한 직업을 가진 여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 등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여성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삶을 지탱하는 것이 힘들 수 밖에 없다. 버지니아 울프는 일찍이 ‘상식을 깨는 것은 용기있는 영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의내리고 자신은 ‘그럴 용기가 없다’고 고백했다. 여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사는 행위 자체가 영웅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온 세상이 합창하면서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는 데 견뎌낼 여성이 어디 흔한가? 그것은 영웅이 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결국 그들의 상당수는 사회에 맞추기 위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을 감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맞춰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속으로는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행복하다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에게 허위의식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

부표권 획득을 목표로 진행된 여성참정권운동 이후 두 번째 여성운동이라는 의미에서 세컨드웨이브 페미니즘이라고 불리우는 현대 미국여성운동은 보수화 바람이 불던 1966년 전국여성기구(NOW) 발족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여성의 신비」로 전미국에 여성운동의 불꽃을 올린 베티 프리단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이후 페미니즘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대중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계기는 1968년에 있었던 여

성들의 격렬한 ‘미스아메리카 반대시위’였다. 여성의 정치 참여나 정책관련 문제는 언론의 조명을 받기 어렵지만 미인대회를 반대하는 여자들의 투쟁은 남성언론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유엔이 1975년 미인대회 폐지 촉구



1967년도에 있었던 미스아메리카 선발대회의 모습

를 결의한 이후 법으로 금지된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50년대 후반부터 국제대회에 나갈 미인을 뽑는 행사를 시작했으며 60년대에는 정부에서 ‘국위선양

세계대전이 터지고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가자 여성들이 군수산업에 투입됐다. 그리고 여성은 일도 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생활도 할 수 있다는 노동여성에 대한 찬미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2차대전 당시 미국에서 군수산업에 투입하기 위한 여성들을 모집하는 포스터.

과 민간외교를 위한 미의 사절’이라는 명목으로 메스컴과 국가가 지원하는 대회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미스코리아는 물론이고 미스 고추, 미스 춘향, 미스 도자기 등등 수도 없는 미인대회가 열린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신장되는 기색이 보이면 남성사회는 그것을 참지 못했으며 그것은 유구한 전통을 지닌다. 기원전 195년에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여성들에게 마자를 타지 못하게 하고 색깔있는 옷을 입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 여성들이 항의하자 “여성들이 너무 강해져서 남자들이 집에서 자유도 없어지고 밖에서도 밟히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한탄을 했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전, 기원전에 말이다.

1920년 미스아메리카대회와 함께 의미심장한 또 다른 운동이 태동된다. 1920년 창설된 보이스카웃운동이 그것으로 이 운동은 창설 목적을 미국남성들의 여성화를 우려해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소년들에게 야성을 훈련시키고 ‘마미즘’(과보호엄마)의 독소를 해소시키고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것을 명문화시켜서 강조한 것이다. 매세기 보수화의 물결이 일 때마다 ‘남성성의 위기’가 거론된다. 그리고 남성성의 위기를 걱정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언제나 여성성으로의 회귀가 강조된다. 남성들이여, 야성을 회복하라. 그리고 여자들이여, 여자의 본분을 지켜라.

#### 한국적 가부장제 결혼의 아이러니: ‘사랑 끝, 한별 시작’

우리 나라에서도 몇년 전부터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하고 남성들의 야성을 그리워하는 복고드라마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 임궽정, 모래시계, 첫사랑, 용의 눈물 등의 인기가 이를 증명한다. 터프가이 최민수는 아이들의 영웅이 되고 강패는 남자아이들의 장래희망이 되었다.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유행한 대부분의 사회문화적 현상은 남녀의 대결구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그 모든 현상은 변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사회의 공격과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위대한 소설가’라는 칭송을 듣고 있는 작가 이문열은 한국사회의 부권수호를 위한 전사를 자임하고 3백년 전 조선시대 정부인 장서를 내세워 현대의 페미니스트여성들과 한 판 전쟁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바닥난 그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상업주의적 의도에서 선정적인 전쟁을 선포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쨌든 이제 그는 그의 약삭빠른 계산이 작가생명을 단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바로 그의 적개조상인 정부인 장서의 저주로 인해 좋은 작품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인간에 대한 깊



2차 대전 당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남성과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일도, 행락한 가정생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노동여성성에 대한 찬미가 일었다.

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통찰력을 상실한 작가는 용도폐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차원에서 그의 부권수호 의지는 잘 팔려 나갔다. 한 전직 경찰관이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하는 등 아버지들이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게 불만이라서 썼다”는 소설 ‘아버지’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부상하고 온 사회와 가정을 강타한 아버지신드롬은 때마침 불어온 명퇴바람과 함께 ‘남편 기살리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아버지의 기를 살리고 남자를 제왕같이 섬기라는 ‘간 큰 남편 만들기 작전’은 가정주부, 기업체, 사회단체 할 것 없이 구제금융한파가 몰아닥친 지금까지도 기세등등하게 우리 사회를 휘몰아치고 있다.

물론 아버지신드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기혼여성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 <애인>, <신데렐라> 등과 지난 96년 당시 45세의 델런트 김자옥이 일으킨 공주병신드롬은 모두 여성

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방영 당시 국정감사장에까지 올라 ‘폐놀보다 더 심각한 공해’라는 판정을 받은 드라마 <애인>은 갑자기 수많은 남편들을 의치증환자로 만들면서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시 여성, 특히 주부들이 <애인>을 보고 열광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사랑받는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던 기혼여성들에게 ‘연애’의 가능성과 대리만족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한국의 남편들은 집에 있는 아내에 대해 절대 안심하고 있었고 아내들은 결혼과 함께 남편의 사랑도 끝났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남자가 일렬한 연애크에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사랑 끝, 환멸 시작’이 되는 한국의 결혼현실은 한국적 가부장제 사랑법의 아이러니이기도 한 것이다.

드라마 <애인>에서 싸구려 도덕률에 의한 남성들의 반발과 이중잣대에 혼술이 난 방송관계자들은 이번에는 드라마 <신데렐라>를 만들어낸다. 착한 신데렐라(이승연)와 나쁜 신데렐라(황신혜)를 만들어낸 그들은 나쁜 신데렐라를 처벌하면서 여성들에게 신데렐라컴플렉스를 가중시키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 여성들의 호응을 더 얻은 쪽은 나쁜 신데렐라였다.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읽는 것, 그것이 요즘 여성들이 터득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교란작전일지도 모른다.

공주병신드롬도 같은 맥락이다. 혼수라고 비웃으면 어쩌나, 나이가 오십줄에 들어섰거나 호박꽃처럼 못 생겼거나 어렸든 ‘미안해 나 공주야’ 하며 스스로에게 환상을 부여하고 도취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녀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안다. ‘현실도피’라는 진단을 내리며 근엄한 외사의 표정 따위는 제발 짓지 말라. 그저 잠시 즐겁게 웃고 싶은 것뿐이니. 아무려면 당신이 나의 현실을 책임지겠느냐.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런 심리인 것이다.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공화당)은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제랄딘 페라로 여사와의 논쟁이 끝난 다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페라로 여사의 “조그만 엉덩이를 차렸다

(kicking a little ass)”고 뻘뻘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모든 언론이 그의 ‘호물호물함(whimpiess: 남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의 의미가 담겨 있다)’을 떠들자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고 싶어졌는지 그는 재임 2년만에 걸프전을 일으켰다. 미국방성의 관리들도 여성이 미국 군대의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하위직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펜타곤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점령당했다’고 엄살을 떨었다.

#### 페미니스트의 얼굴을 한 남성사회의 적

미국의 80년대는 많은 공장들의 자동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불루칼라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직 시기였다. 수백만명의 남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그 중의 60%만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재취업한 사람들도 대부분 저임금직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30세 이하의 남성들은 전 세대보다 25~30%를 적게 벌었으며 이들은 바로 70년대에 활발해진 여성운동에 대해서 가장 적개심을 갖고 있는 그룹이었다. 전체적으로 미국 남성인구의 20%가 여성의 변화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며 그들의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젊은 불루칼라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실업자가 된 캐나다의 공장노동자 마크 레핀(몬트리올대학 구내에 들어와 16명의 여대생들을 무차별하게 총으로 쏘아죽였고 그가 총을 쏘대며 한 말은 ‘쫄 같은 페미니스트녀들’이었다) 같은 유형이다. 그들은 경제불황의 첫 희생자이며 자신들이 희생된 원인이 페미니스트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80년대는 사회 곳곳에서 남녀간의 균형이 바뀌던 시기였다. 처음으로 여대생이 대학 입학생의 반을 넘어섰고 사상 최초로 여성의 50% 이상이 노동을 하고 그 중 50% 이상이 기혼여성으로 드러났다. 또한 1980년은 미국 인구통계국이 처음으로 가장(세대주)을 남편으로 규정하기를 그만 둔 해이기도 하다. 명확한 적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적의 얼굴을 만들고 규정한다. 80년대에 일어난 많은 사회불안과 가정해체, 경제불안 등에 대한 불안감은 모두 여성에게 집중되어 터져나왔다.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불안과 사회불안, 가정해체 현상을 겪으며 여성우선해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곧 개인은 물론 기업, 광고, 문화계 등 사회 각 부문이 답합하여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다시 생계해결을 위해 집 밖으로 나서야 하는 모순 구조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그 결과는 변하다. ‘여성의 빈곤화’가 가속화될 뿐이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언제 남자한테 아기키우는 법을 배우고 키웠던가? 산부인과도 그렇다. 여자 조산원들이 아기를 받았던 때가 언제든 어느 틈엔가 모조리 남자의사들로 바뀌어버렸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여자들은 모든 것을 남자들한테 의존하게 되어버렸다. 아기 낳는 것에서 아기 키우는 것, 그리고 그녀가 먹고 사는 생계해결은 물론 그녀의 행복마저 남자에게 의존하게 된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다.

남성사회는 여성의 독립을 부추기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여자들에게 남자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터프가이는 독립적인 여자, 강한 여자, 자유로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터프가이는 그런 여자들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고 싶다. 행복과 사랑을 담보로 한 남자들의 성적 사보타지인 것이다. ‘달 잘 들고 기다릴래요’라고 노래한 여자는 전미령이었던가? 의존적인 여자, 행복을 위해 남자에게 투항하는 여자가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말하며 최후통첩을 던진다. ‘남자없이 살수있어?’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11

#### 류숙림

“몸에 차여 못 살겠다”는 것이 남성조직 언론사에서 십수년 동안 살아남은 나의 요즘 심정이다.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못난 놈은 못난 놈대로 아기자들을 차여가 만든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거나 포기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남성사회의 엄청난 오산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신있는 여자들이다.”



## 미국사회 대중문화의 '페미니즘 죽이기'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성폭력은 여성운동에 의해 하나의 분명한 정치적 이슈로 여성들에게 공유되었고, 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피고인>이라는 영화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여성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아마도 IMF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의 하나는 사회의 구조조정이라는 지상과제 속에서 이제껏 어렵게 확보되어왔던 소수집단, 소외집단의 '작은' 권리들이 손쉽게 거둬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재벌들의 엄청난 사회적 특혜를 포기시키기는 그렇게 힘들어도, 없는 사람들이 몸바쳐서 따낸 얼마 안 되는 권리들을 회수하는 것은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게다가 양지에 있던 사람이 움지로 오면 더 춥다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손상당하면 더욱 엄살을 부리고 언론과 지식 생산을 통해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들은 온갖 도구를 동원하여 없이 사는 사람들의 권리요구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로 정의하고 유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막강한, '문화'와 '담론 형성'의 반격 앞에서 '사회적' 진보는 몇십년쯤, 아니 몇백년쯤 후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퇴보를 그냥 용인해야만 하는가. 경제가 나아지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순진한 낙관론에 기대어?

### 여성에 대한 반격, 그 선례를 찾아서

그러나 역사는 그러한 낙관이 하나의 희망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유례없는 것이라 해도 전세계 자본주의국가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생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도 없

다. 그들의 선례를 우리가 그대로 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당위적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만 한다. 특히 소수집단 아닌 소수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이 아주 어렵게 획득해온 그나마 얼마되지 않는 권리와, 앞으로의 평등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가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글에서는 서구가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았던 역사적 시기에, 여성들에게 가해진 반격(Backlash), 특히 '문화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철저한 반격을 통해 어떻게 여성의 지위가 하락하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여성운동마저 심각한 후퇴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에서 본격적인 자본축적의 시기, 곧 경제적 호황의 시기는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을 배태시키는 기간이었다.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소외 집단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평등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팽배해지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서구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환기, 그리고 양차세계 대전 후의 호황기를 지난 1960년대 후반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서 이 시기에 각 나라에서 진보적 사회운동이 강력하게 발생하여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노동자, 흑인, 동성애 집단 등과 함께 여성운동이 본격적인 '물결'을 이루면서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도 바로 이 시

기였다. 당시 여성들에게 팽배한 진보와 해방 그리고 평등에 대한 욕구로 인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상승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고 대중매체를 포함한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해방된 여성'은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 70년대 미국의 사회적 배경

그러나 1973년을 기점으로 하여 서서히 진행된 자본축적의 위기는 진보적 물결에 제기를 가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움직임은 1970년대에서 시작되어 80년대까지 계속된 자본



(위험한 정사), 좋은 엄마는 승리하고, 독립적인 여성은 발을 받든다는 도덕주의적인 불꽃을 가진 영화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소위 사회경제적 토대의 '유연적 축적 체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본격화된다. 정리하고, 임시직, 용역직의 증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연적 축적 체제를 통해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과 유동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정된 가치체계를 그리워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종교나 가족, 민족과 같은 기초 제도들의 가치와 권위가 크게 상승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정책이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자유시장경제와 대대적인 사회복지 삭감을 골자로 하는 신보수주의정책은 결국 '가장'의 권리를 옹호하는 반면, 여성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을 삭감했고, '신우익New Right'의 공격이 노골화되면서 '진보적 여성'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성별분업에 기반한 가족이데올로기가 강조되면서 격렬한 낙태반대운동이 등장했고, 이런 분위기에서 가족을 이루지 않고 사는, 일하는 여성은 더 이상 해방의 상징이 아니라 비참한 사회악의 상징이 되었다.

### 할리우드 영화가 드러낸 보수성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고 불만족도가 높아진 현상의 책임을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들이 지금 불행한 것은 '제자리'를 벗어나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야망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며, 그렇게 많은 욕구를 여성들에게 불어넣은 원흉은 다름 아닌 페미니즘'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에서 이런 담론이 형성되자 불안정한 사회에서 기득권을 상실하게 된 남성들은 자신들의 불행이 여성들, 그 중에서도 '잘난' 여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책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남성들은 자신들이 장악해온 사회문화적 도구를 이용해 대대적인 '여성과 페미니즘 죽이기'를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발행된 신문, 잡지나 방송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같은 가장 대중적인 장르를 살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70,8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반격, 즉 백래시 Backlash를 매우 철저하고 깊이있게 취재한 수간 팔루디 Susan Faludi 기자에 의하면 대중문화에서의 반격은 크게 세가지 모순된 흐름으로 진행되는 데 여기서는 '완벽한 모성

과 아내노릇이 여성의 행복'이라는 도덕적이고도 이데올로기적인 뉘앙스가 풍긴다. 첫째는 모든 매체에서 이기적이고 지쳐버린 슈퍼우먼(과 페미니스트)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홀통한' 엄마 노릇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둘째는 정을 갖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노처녀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결혼이 마치 대대적인 유행인 것처럼 그리는 것, 셋째 나이를 너무 먹어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여성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아기를 갖길 원하는 여성들로 인해 새로운 '베이비붐'이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 등이다.



영화 <프리티 우먼>.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로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영화다.

이러한 모순된 경향은 신문잡지의, 증거가 빈약한 여론조사와 트렌드 기사로부터 시작되어 영화와 드라마의 여성캐릭터에까지 반영되어 그것이 마치 현실세계의 모습인 양 제

시되기에 이르렀다.

일례로 1980년대 이후 제작된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들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었던 할리우드 흥행작들, 즉 <위험한 정사>, <나인하프 워크>, <워킹 걸>, <브로드캐스트 뉴스>, <베이비붐>, <뉴욕, 세 남자와 아기바구니>, <귀여운 여인>, <마이키 이야기>, <요람을 흔드는 손>, <장미의 전쟁> 그리고 일명 터프가이 영화로 불리는 <다이하드> 시리즈, <리셀 웨폰> 시리즈 등이 대표적인 백래시 영화들로 꼽히고 있다. 특히 80년대에는 영화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영상매체들이 등장해 영화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그 전망이 흐려짐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 흥행을 보장받으려는 영화들이 크게 증대했던 맥락도 존재한다.

이런 배경에서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여성상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즉, 여성과 여성이 대립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요람을 흔드는 손), 사회에 대한 여성의 분노를 탈정치화시키면서 여성 개인의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브로드캐스트 뉴스), 좋은 엄마는 승리하고 독립적인 여성은 벌을 받는다는 식의 도덕주의적인 틀(위험한 정사)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여성캐릭터의 직업도 70년대 이전에는 소설가, 가수, 기자, 사회운동가 등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싸우는' 인물들이 많았는데 비해, 80년대에는 경영자문가, 투자자문가, 회사법률가 등등 남성 중심적인 체제를 지지하는 캐릭터가 부쩍 많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전통적인 결혼이나 연애관계로 복귀하거나(베이비붐) 남성의 도움을 받아 다른 여성들을 누르고 혼자만의 성공을 누리는 식(워킹걸)이 되고 만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 가면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임을 확인시켜주는 수동적이고(프리티 우먼, 나인하프 워크) 겁이 많으며 희생자 역할을 하는 여성 캐릭터가 더욱 많아지는 한편으로 아예 여성들이 주요한 캐릭터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터프가이 영화들이다. 폭력과 남성들 사이의 연대가 주된 줄거리인 이 영화들 속에서 여성들은 강간과 폭력의 대상일 뿐이

사회는 여성들에게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왔다. 쫓아내기 전에, 죽이기 전에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 여성이 주인공인 액션영화라 할지라도 그 여성의 힘은 궁극적으로 모성의 힘(에일리언)으로 제한된다.

#### 영화 <피고인>의 아카데미상 수상이 슬픈 이유

여기서 수잔 팔루디는 이러한 문화적 반격의 결과에 대해서 한 영화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페미니즘 영화로 잘 알려진 <피고인>이 1988년 아카데미상을 받았을 때 미국의 영화계와 언론은 이 영화를 대담한 페미니스트적 선언으로, '여성들에게 강간당하지 않을 권리가 존재함을 알려준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성폭력은 여성운동에 의해 하나의 분명한 정치적 이슈로 여성들에게 공유되었고, 그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피고인>이라는 영화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여성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여성들을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성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거대한 사회문화적 흐름의 결과이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미국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반격은 여성들의 지위가 실제로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촉발됐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이상적인' 평등 때문에 되려 불평등해지는 아이러니에 직면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렇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 분배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 집단들의 방어가 매우 거세지므로 주변인이 중심으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은 더욱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때 주변인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무차별 공격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상황과 욕구를 정당화할 수 없도록 무장해제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기득권자들의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살아남고자 하는 여성들이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고 강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러한 무장해제 상태에서 여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무기로 삼아 생존할 것인가? 이런 전쟁터에서 무기를 빼앗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사회는 여성들에게 미리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왔다. 쫓아내기 전에, 죽이기 전에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불안해하는 남성들의 기를 살려주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전열을 다잡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후퇴를 거듭해야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검열을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형성되는 말과 영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은근히 항복과 후퇴를 강요하게 될 것인지, 검열하고, 개입해야만 한다. IF

#### 한설아

내 인생의 키워드는 혼돈이다. 그러나 혼돈 그 자체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끊임없는 '갈칫갈'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늘 혼돈하는 것을 파편으로 만드는 데 그것은 파편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파편을 통해 이어지는 길을 위해서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먹거나 산과 마주치는 곳에서 하나의 길을 본다. 어디에서나 길을 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교차로에서 있으며 다음 순간이 무엇을 가져다줄지에 대해 일지 못한다.' (말터 맨아인)



## 여자 기를 살려야 하는 10가지 이유

우리는 이즈음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다. 여기저기서 남자 기를 살리자고 요란한데, 정말 작금의 사태가 남자 기를 살려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걸까? 이렇게 망쳐놓고 뭘 어떻게 하려고 더 기를 세워달라는 것일까? 더 확실하게 망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 기를 세워야 하는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지도 모른다. 왜?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한 점이 많으니까.

### 1. 여자는 연출·인맥에 무관하다

여자에겐 무슨무슨 연출은 커녕 썩은 동아줄도 없다. 여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줄'을 만들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서거나 음험한 목적일 때는 더욱 그렇다. 왜냐고? 여자들은 양심적이니까. 기껏 맺은 연출이라고는 자식과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고 찾는 하나님, 부처님 등등과의 관계뿐이다.

또 혈연관계가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며 공허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부계혈연가족의 족보가 바로 교과서니까. 피붙이 하나 없는 곳으로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 죽어라고 길러도 자기 성 하나 물려주지 못하고 죽으니 무슨 '관계'에 연연하고 싶을까?

### 2. 여자는 실력과 능력 배면 시체!

"같은 실력의 남자가 있다면 굳이 여자를 뽑을 이유가 어

디 있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성장한 여자들이 닦은 거라곤 실력밖에 없다. 남녀불평등의 체에 걸러지고 걸러진 여자들. 최후까지 살아남은 여자들에겐 능력밖에 없다. 게다가 지천에 깔린 여자들이 모두 칼을 갈면서 실력을 닦은 여자들이다. 내 언젠간 이 칼을 휘두르리라. 부끄럽지 않게 휘두르리라 다짐하면서...

### 3. 여자는 한 사람의 영웅을 원치 않는다

들 이상이 모이면 여자는 함께 나누고 남자는 위계를 정한다. 여자를 모임에는 리더가 필요없는데 남자를 모임에선 지배자가 필요하다. 여자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데 남자들은 자기 말고 나머지는 조용히 있어주기를 원한다. 여자들은 한 사람의 독재자, 카리스마, 영웅을 원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안다.

### 4. 여자는 전쟁과 파괴를 싫어한다

여자들이 자신의 피와 살로 아이를 낳아 기르면 남자들은 전쟁을 만들어 하루아침에 그들을 죽인다. 자고로 여자는 살리는 데 관심이 많고 남자는 죽이는 데 흥미를 느낀다. 자, 누구의 기를 살릴까. '선택'은 명백하다.

### 5. 여자는 '살림'의 명수다.

여자는 살림살이가 전공이다. 안 살림 잘하는 사람이 바

랄 살림도 잘한다. 집안 살림에서 사회 살림으로. 나아가 나라 살림까지 알고보면 다를 게 없다.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살리는 것은 살림이 아니다. 쥐꼬리 같은 박봉을 받아도 대여섯 식구 거뜬히 요모조모 두루두루 먹이고 입히는 게 '살림'이다. 그 재주가 없었다면 60,70년대 경제부흥이 가능이나 했을까.

### 6. 여자는 생존의 명수다

여자의 생존력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평균수명도 남자보다 길지 않은가? 여성들은 역사를 통해 또는 개인사를 통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힘을 발휘해 환난을 극복해 나갔다.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적군을 물리친 것도, 전쟁통에 아비없는 자식들을 먹여살린 것도 모두 여자였다.

### 7. 여자들은 자연이다

기계문명의 성장 이면에는 썩어가는 지구가 있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지고, 더 안락해지기 전에 지구가 멸망할 지도 모른다. 여자들은 자신이 낳아 기른 아이가 썩은 지구에서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부지런히 쓰레기를 분류하고 물건을 재활용하고 자원을 아낀다. 남자들이 보다 독성이 강한 새채와 화학제품을 만들어 지구를 죽이면, 밀림을 썩여내고, 강물을 오염시키면 여자들의 몸이 아프다. 아이들이 병들고 여자의 자궁이 썩어가기 때문에, 여자는 자연 그 자체이다. 여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한다.

### 8. 여자는 사랑을 만든다

여자는 자유롭게 변신한다. 소녀에서 여성으로, 어머니에서 할머니로. 여자는 일생동안 많은 단계를 거치며 존재의 변이를 이룬다. 존재의 변이를 경험한 여성은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일방에 대해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잘 이해할 수 있다. 남자들의 사랑법이 예고의 늪에 빠진 자기애의 발현이라면 여자의 사랑은 나 아닌 남을 사랑하는 이타의 사랑법이다.

### 9. 여자는 창조의 원천이다

여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여자는 자기 몸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젖을 주고 사랑을 주며 그 생명을 인간으로 만든다. 여자는 생명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이다.

### 10. 여자는 신에 가깝다

모든 여자들은 자기 안에 마녀를 가지고 있다. 여자들은 EQ교육, 감성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느낌과 감각이 탁월한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싸주는 사람. 육감으로 알아채는 사람. 이성과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 그대 이름은 여자일지니. 여자들이여, 그대 안에 마녀의 기운을 되살려라! **11**

# 기센 여자가 나라를 살렸다

민담 속에 나타난 기센 여자들의 이야기



옛날에 어떤 어머니에게 쌍둥이 딸과 아들이 태어났다. 그 쌍둥이 아이들은 낳은 지 열흘만에 걷고 뛰기 시작한 장사들이었다. 어느날 그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머리 허연 신령이 나타나서 이런 경고를 한다.

“너의 장사 자식들을 둘 다 살려두면 두 아이뿐 아니라 너까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둘 중에 하나를 죽여라.”

어머니는 궁리 끝에 자식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 아들과 딸중 내기를 해서 지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제안이었다. 이윽고 내기가 시작됐다.

아들은 굵이 석자나 되는 쇠신을 신고 서울까지 갔다와야 하고, 딸은 박달나무로 만든 치마를 입고 돌을 날라 산성을 크게 쌓아야 한다는 내기였다. 그런데 딸이 그 산성을 거의 다 만들 때까지 아들은 돌아오는 기색이 없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어머니는 밤을 잔뜩 살아 딸에게 주면서 먹고 하라고 종용했다. 딸은 그 밤을 다 먹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성이 다 만들어지고 성문을 달게 됐는데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딸에게 뜨거운 찰밥을 해다가 억지로 먹였다. 후후 뜨거운 기운을 식혀가며 밥을 먹어치우고 성문을 달러는 찰나 아들이 돌아왔다. 딸은 자신이 내기에서 졌음을 알고 돌에 머리를 부딪쳐 죽고 말았다. 이 장사남에 이야기는 민담으로 혹은 전설로 전국에 걸쳐 전해지고 있다.

이 장사남에 이야기는 사회를 바라보는 참으로 뛰어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우선 두 장사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결국 영웅은 한명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다분히 남성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보다 능력있는 딸을 죽이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구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대부분의 여자들이 ‘잘난 여자 죽이기’의 문화적 그물에 걸려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사회는 여자장사를 죽여야 했을까? 그들

이 두려워한 여자들의 전면목. 그 힘은 무엇일까.

민담 자료를 이리저리 뒤적거려보면 ‘강한 여자’들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 민중의 삶의 방식, 가치관, 소망, 욕망, 두려움 등을 엿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옛날 이야기’ 민담을 통해 잘난 여자들을 만나보자.

## 부엌대기 식충이들의 사람을 살리는 재테크

어느 마을의 부자집 영감은 며느리를 들이는 데 꽤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쌀 한말을 가지고 머슴들과 석달을 버텨내는 시험에 통과한 여자라야 자기 아들의 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워낙 부자 집이다 보니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이 시험에 응시했지만 허기에 시달리다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처녀가 이 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나섰다. 집안이 부유해서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처자였지만 사실 똑똑하고, 야심찬 이들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일을 즐기지 않던가. 처녀의 부모는 한사코 말렸지만 처녀는 그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처녀는 그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쌀자루에서 쌀을 듬뿍 퍼내 하인에게 밥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하인은 “저 여자, 제 정신이 아니구만” 했겠지만 어쨌든 그 여자는 기름기 찰찰 도는 밥을 듬뿍 퍼서 하인들에게 한 그릇씩 주고 자신도 그 밥을 맛나게 먹으면서 말했다. “잘 먹어야 기운이 나느니라. 잘 먹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라.” 그리고는 곧 한 머슴에게는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가 팔도록 시켰고, 여자하인에게는 배를 짜서 팔게 했다. 또 자신은 이웃의 바느질감을 얻어다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쌀은 이내 떨어졌지만 곧 돈이 모였다. 처녀는 그 돈으로 쌀을 사서 배부르게 먹고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석달 동안 이렇다 하는 소리가 없자 인근의 사람들은 짐작하기를 모두 끊어죽었거나 배가 고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나보다 했다. 그러나 원경? 처녀와 머슴들은 혈색도 좋을 뿐 아니라 그 사이 돈까지 모았다는 것이다.

사실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 사회 위장자들과 기업주들은 어떤가. 조곤 허리 더 조르라고 난리인 이 시대, 정리해고다 뭐다 해서 근로자들의 밥줄을 끊어놓고는 고물가, 고금리로 아예 명줄까지 끊어내는 이 시대 상황에 비하면 참으로 살맛나는 이야기이다. 잘 먹어야 돈도 번다는 이야기는 또 있다.

자런고비 집안에 시집간 한 여자는 천정에서 혼수 대신 가져간 쌀을 물레 숨겨두고는 시부모와 이런 흉계를 한다. 집안의 곳곳 일석을 자신에게 주면 예전에 쓰던 만큼만 쓰고도 더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시부모는 솔깃해서 일석을 머느리에게 맡긴다. 머느리는 곳곳에서 퍼온 쌀 한 바가지에 자신이 가져온 쌀을 보태 푸짐하게 상을 차린다. 몇달을 그렇게 살고 나니 시부모도 안심을 해서 살림을 완전히 머느리에게 맡긴다. 머느리는 이제 마음대로 곳곳에서 쌀을 퍼다 밥을 해먹이면서 가족과 하인들을 토크동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다. 어느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노름에 정신이 나가서 집안 재산을 거덜낼 판

이었다. 보다 못한 부인이 이런 제안을 했다. “내가 노름한다고 잔소리는 안 할 테니 이제부터 집에서 노름일랑 하시구라. 내 안주랑 술도 모두 준비하리다. 그 대신 음식값은 주막에서처럼 내야 하오.” 부자는 좋아라 했다. 부자의 노름하는 비릇을 고쳐보겠다고 그렇게도 극성을 피우던 마누라가 아주 제 눈앞에서 하라고 하니 이젠 밤새도록이라도 걱정이 없겠구나.

부자지간의 노름이 집안에서 시작됐다. 노름돈은 주머니 받거나 아버지와 아들의 주머니를 왔다갔다 했고, 아내는 열심히 술과 안주를 판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술을 아버지와 아들의 주머니가 말라갔다. 그런데 술과 안주를 판 부인의 주머니는 돈으로 가득찬 것이 아닌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가족이다 보니 더 훤히 보였던 것이다.



“에잉, 이게 뭐야? 결국 마누라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냐? 나 이런 노름 안 해.” “그걸 여태 몰랐단 말이오? 그럼 노름해서 돈 벌 줄 알았소?” 결국 부자는 노름을 끊고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됐다는 말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민담에는 향한 집안에 시집 가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라면 다 쓰러져가는 부계 혈통을 추스린 며느리가 복덩어리라고 귀여워서 후세에 그 이야기를 전했는지 모르지만 이의 해석은 또 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 민담에 나오는 여자들의 역할은 알뜰과 절약만이 아니다. 때로는 교묘한 트릭으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초능력으로 앞날을 예언하고, 사기꾼을 속여넘기고, 미래를 만들어간다. 그 스케일도 적지 않아서 한 마을의 지주를 넘어뜨리고, 마을 전체의 농업을 관장하기도 한다.

어떤 여자는 착취와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일군 한 마을의 지주인 큰아버지를 속여 그의 재산을 털어낸다. 또 어떤 여자는 마을의 지향도를 관찰해서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물길을 바꾸고 비려진 땅을 일구어 옥도를 만들도록 한다.

####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그렇게 한 마을을, 한 집안을 일으킨 여자들은 힘도 세고, 성격도 강하다. 한마디로 드세다는 이야기와도 통한다.

몸집이 너무 커서 시집을 못 간 한 여자는 뒷산에서 술을 만들어 파는 총각과 감채결혼을 한다. 여자쪽에서 혼인을 강요하는 바람에 부서워서 웅한 것이란 말이다. 그녀가 보기엔 신랑의 집안이 가난하게 사는 건 식구들이 너무나 게으르고 소극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산에서 회초리를 한아름 해다가 식구들 앞에 팔아놓고 말을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게으르고 일 안하는 사람들은 이 회초리로 맛도록 하겠습니다. 시아주버님, 이 회초리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때리십시오.”

“아이,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숫기없는 신랑의 형은 소스라쳐 놀라며 회초리를 밀어냈다. 시아버지도 신랑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이 그 회초리를 자신이 집어들었다.

“그럼, 제가 하지요. 이제부터 하루라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가차없이 때리겠습니다. 우선 시아주버니는 예전대로 동네의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시아주버니는 난처한 듯 말했다. “아니, 어떻게 매일 일거리를 찾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일이 많아요?” 제수씨의 태도는 단호했다. “일이 없는 날엔 돈받지 못할 일이라도 맡아 도와주고 오세요. 그러다보면 차차 일거리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질신을 삼아 팔아오도록 했고, 신랑도 부지런히 술을 굽도록 했다. 그렇게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을 사람 사는 꼴이 잡혀갔다. 모두들 짐작하겠지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다.

또 올지 않은 일은 죽어도 하지 않는 고집불통형도 있다. 시집 간 지 얼마 안 돼 시집식구들이 사당 안에 괴상한 탈바가지들 걸어놓고 잠신을 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며느리는 그 길로 탈바가지를 불에 태워버렸다. 집안이 발라 뒤집혔음은 물론이고 며느리에 대한 시집식구들의 구박이 극심했지만 며느리는 그에 굴복하지 않았다. 불태운 탈바가지 귀신이 밤마다 나타나 그녀의 아이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냈고, 진짜 그녀의 아들이 불뚱이나 죽어나갔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날 그 귀신이 다시 그녀의 꿈에 나타났다. “너의 고집에 내가 두 손 들었다. 사실 죽은 두 아들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운명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다. 이번에 낳게 될 셋째 아들은 큰 인물어 될 테니 잘 키우거라” 하면서 귀신은 영원히 사라졌다. 물론 그녀의 세번째 아들은 자라 나중에 정승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해준 화자는 이 말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기가 세니까 아들도 훌륭하게 낳았지.”



#### 인자仁者는 곧 여자라

위기에 여자들이 강하고, 남자들보다 담도 세다는 속설은 이제까지 별로 들어본 바가 없었지만 민담에서는 흔히 발견된다.

물어가 사는 사람들 죽죽 송장이 되어 나온다는 흉가에 들어가 귀신도 잡고, 돈 재박을 얻어 평생 호의호식하게 됐다는 ‘돈귀신 이야기’도 있고, 첫날 밤, 신혼방에 들어와 신랑을 물어가는 호랑이의 꼬리를 날개에 잡아 결국 호랑이를 잡았다는 신부 이야기도 있다. 꼬리가 잡힌 호랑이는 집에 걸려 단숨에 산 속으로 달아났지만 신부는 죽어도 호랑이 꼬리를 놓지 않았다. 끌고 가다 지친 호랑이는 결국 입에 문 신랑을 포기하고 달아났는데 신랑은 무서움에 기절해 있었고, 신부가 마을로 내려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신랑은 목숨을 건졌다.

남자들과 인간성을 비교한다면 단연 여자들이 훌륭하다. 못된 지주의 재산을 털었든 아니면 자수성

가해서 재산을 모았던 여자들은 부를 분배할 줄 알았다. 갖가지 계략을 동원해 못된 이의 재산을 뺏고 나면 거의 정해진 절차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누어준다는 것이다. 얼마나 신나고도 뿌듯한 일인가. 사실 '장영자' 류의 재산축재형 여자는 민담 속에서 그리 많지 않다. 어쩌면 부를 축적해서 물려줄 자기 혈통이라는 게 없는 존재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몰락한 양반집의 딸 미옥은 열집 머슴인 고도령이 마음에 들었다. 그 참에 고도령이 미옥의 아버지 박좌수에게 청혼을 해온다. 박좌수는 벌려 화를 내지만 미옥은 아버지를 설득해 결국 고도령과 혼인을 한다. 혼인한 다음날 미옥은 고도령과 10년 이별을 약속하고 헤어진다. 같이 살면 서로에게 안주해 나태해지기 마련이니 각자 10년 동안 헤어져 살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떠나기 싫어하는 고도령을 밀어내고 미옥은 10년 동안 부지런히 돈을 벌며 거부가 된다. 물론 고도령도 과거에 급제해 자기가 살던 고을의 현감이 되고 둘은 행복하게 재결합한다. 그 때 미옥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다. "쌓아두기만 하고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대체 오랑캐들이 하는 짓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당신이 받는 복으로도 우리 집은 충분히 살 수 있으니 우리의 재산은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살림에 찌든 아랫동서가 가여워서 욕심쟁이인 자신의 남편을 속여 재산을 나누어주는 여자. 자신의 힘만 믿고 거들먹거리는 남동생에게 겸손의 덕을 가르치는 여자장사 이야기 등을 보면, 여자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 ‘준비된 여자’들이여, 사회로!

지혜와 힘, 그 둘 다를 갖춘 여자들이 민담 속에는 그득그득이다.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잘나고 똑똑한 여자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자, 이제 이 공공 얼어붙은 시대에 여자들이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을 꺼내놓을 차례다. 가슴 저 깊숙한 곳에 먼지 덮여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쳐졌던 자신의 지혜, 능력, 용기, 투지, 강한 '끼'를 꺼내어 말끔하게 닦아내고 빛나게 발휘해볼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말을 가슴에 새겨보자. '난 국에 여자가 있었으니...'

박미라 / 본지 편집장

# I'M Fine!

## IMF 인생극장, I'M Fine!

오늘 회사에서 남편은 실장의 호출을 받았다. 무슨 심각한 이야기라도 들은 것일까. 남편의 굳어진 얼굴은 피곤하고 유치원에 들러 딸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도 피질 줄을 모른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보람이의 재물을 보면 모든 것을 잊고 웃어버리던 그이었다. 딸아이의 재물으로도 깊은 수심을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딸아이의 재물이 상처를 건드린 듯 아파하는 모습이었다.

#### 네 이웃의 욕을 탐하지 말지어다

IMF 이후 상사의 호출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됐다.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직원들의 신종 유행병 IMF 명퇴바이러스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원, 명퇴, 감봉, 조기퇴직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진 얼음마냥 속이 타고 썰어드는 기분이다. 그런데 실장하고 무슨 얘기를 했기에 사형선고 받은 사람...사, 형, 선, 고... 그렇다면 회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일까. 그이와 나 둘 중에 누가 단두대의 이슬이 되는 것일까?

저녁 준비를 한다. 내일 종말이 와도 저녁은 먹어야 한다. 축 처진 기분으로 대충 이것 저것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식탁을 채운다. 직장 생활을 하는 맛벌이 주부답지 않게 늘 식단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집안 청소나 세탁 등엔 소홀해도 처녀 때부터 요리에는 관심이 있었다. 화가 나거나 글을 쓰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화장실에서 엉덩이를 끼고 앉아 요리책을 읽는다. 상상 속에서 수십가지의 요리들을 만들고 나서 그 음식물들이 배설물이 되어 변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만일 내가 홍보실에서 글을 쓰지 않았다면 음식점을 차렸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을 자주 해본다. 건성으로 식탁을 차리다 가장 아끼던 유리그릇을 놓친다. 애써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손 끝에 맞고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난다. 깨지는 소리에 남편과 보람이가 달려나온다. 굳어진 내 얼굴을 보더니 눈치 빠른 아이와





남편은 꼬리를 착 내리고 마지려들지 않는다.

식사를 기다리는 남편, 엄마 아빠 눈치만 보는 아이. 이래서 가족은 권태롭지만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고 편안한 모양이다. 설명이 필요없고 느낌으로 알아버리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방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알고 있는 병인데도 의사가 선고를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진짜 환자가 된다. 10시가 다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간다.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부터 5초를 넘기지 않고 잠드는 것이 남편의 잠버릇이다. 그런데 예상외로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베란다가 아닌 침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우리 부부에게 밥 숟가락을 그만 들겠다는 말과 같고 곧 추방령을 감수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따져서는 안될 만큼 남편의 얼굴이 침통하다. 불안감만 더욱 무겁게 가슴을 누른다.

남자인 내가 실직해서 보람이나 키우면서 살림을 할 수는 없잖아. 한명이 실직을 하고 감봉까지 된다면 보람이도 종일반에 다닐 수 없게 되고 천상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내가 어떻게 살림을 할 수가 있겠어. 잠시만 쉬어.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복직이 될 거야.

제1장 自他不二 당신과 내가 남이 아니어늘...

—당신이 대충 눈치챈 것 같아서 말하기가 훨씬 쉽다. 오늘 실장이 우리 홍보실에서 2명을 감원해야 하는데,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명은 사표를 쓰라는 거야. 당연히 당신이 그만두어야 할 것 같은데, 실장은 내심 내가 그만두기를 바라는 눈치더라구. 사실 당신이 일을 더 잘 하는 것은 홍보실에서 알려진 일이잖아. 여보,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지금 퇴직해서 뭘 하겠어. 그러니 당신이 내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해줘. 그러면 우리 둘 중에 하나만 감원 대상이니까 난 안전한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 사보를 만들 때 당신은 프리랜서나 임시직으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저보고 사표를 쓰라고요? 당신 남자들이 점심 먹고 싸우나 다닐 때, 미스 김과 저는 자료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집에 와서 TV 보며 빈둥거릴 때 저는 집안살림 끝내놓고 회사에서 가져온 일을 마무리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출근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회사에 대한 애정도 능력도 제가 많은데 여자라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알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남자인 내가 실직해서 보람이나 키우면서 살림을 할 수는 없잖아. 한명이 실직을 하고 감봉까지 된다면 보람이도 종일반에 다닐 수 없게 되고 천상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내가 어떻게 살림을 할 수가 있겠어. 잠시만 쉬어.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복직이 될 거야. 아마

당신이 복직대상 0순위일 걸. 이걸 확실해.

—여보, 남자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더 이상 제 목을 조르지 마세요. 남자니까 살림하면 안 되고, 체면에 손상이 가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돈도 적게 벌어진다면 안 되고, 밤일도 잘해서 마누라 기절까지는 아니라도 화끈하게 해줘야 한다는 법이 법전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건 남자들이 만든 억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 억지가 결국 남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서로에게 더 잘 맞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남자도 설거지하고 파출부하고 살림하고, 그래도 창피한 것이 아닌 세상이라면 남자들이 실직하거나 사업이 망했다고 목을 매달거나, 자살 따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남자들은 파출부나 청소부나 노점상 같은 것을 하면 거시기가 떨어지거나 할듯이 호들갑을 떨죠?

—(침묵)

—여보! 난 당신이 살림을 한다거나, 남들에게 손가락질당하는 하찮은 일을 한다 해도 정직하게 열심히만 산다면 영원히 당신을 존경할 수 있어요. 여보, 저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어요. 실장님도 그것을 원하는데 당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어요. 퇴직금을 가지고 안전한 체인점을 내면 당신은 사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싫다면 그렇게 해요. 여보, 부탁이에요.

—당신 말이 다 맞아. 하지만 난 살림도 할 수 없고 장사는 더더군다나 내 체질이 아니야. 퇴직금을 몽땅 날리고 빈털터리가 될 것이 뻔하게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가게를 해봐. 평소에 음식점을 하면 성공할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잖아. 그리고 당신의 음식 솜씨는 유명하잖아. 차리기만 하면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걸. 사실 당신은 뭘 해도 잘 할 거야.

—여보, 우리가 입사동기로 만나서 지금까지 저는 양보만 해왔어요. 대리 승진 때나 차장 승진 때도 남편보다 상사일 수 없다고 제가 사양한 것을 설마 당신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이번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저보고 사표를 쓰라고요?

당신 남자들이 점심 먹고 싸우나 다닐 때, 미스 김과 저는 자료수집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집에 와서 TV 보며 빈둥거릴 때 저는 집안살림 끝내놓고 회사에서 가져온 일을 마무리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출근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당신 왜 이래? 정말 나를 실직자로 만들려는 건 아니겠지?

—저는 실직자가 되어도 상관없고요?

—당신은 실직이 아니라 본직으로 복귀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의 이기심은 정말 절릴 정도예요.

—여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가워 바워 보나 재미있거나 아니면 사다리타기나 그것도 싫으면 지금부터 밥일을 시작해서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사표를 쓰기로 하자.

—당신은 그 어느 것으로도 저를 이길 수 없어요. 당신은 제가 호락호락 사표를 쓸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전 절대로 사표 따위는 쓰지 않아요. 제가 사표를 쓰지 않으면 결국엔 당신이 권고사직을 당할 수밖에 없겠군요.

—당신 정말 지독하다. 그래 난 실직자가 되어서 빌빌거리다 확 죽어버릴 거야.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라고.

#### 제2장 1절 <돌아간 길> 敎職成人, 그대 앞에 뜨거운 찬사가 쏟아질지니 이는 참나라

그렇게 그이와 나는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잠을 잤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하루를 보냈다. 드디어 실장이 중대 발표가 있다고 자리를 뜨지 말라고 한다. 침이 목줄기를 타고 골격 넘어간다. 모두들 긴장을 했다. 특히 남편은 이젠 죽었구나 하는 표정으로 땀까지 번들거리고 있다. 실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의 주인들은 내일부터 실직자가 되는 것이다.

곧 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나와 미스 김이 호명되었다. 적대감에 불타던 남편들이 주위로 몰려들어 신사처럼 위로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결국 예상대로 먹여 살려줄 남자가 있는 아줌마와 부양할 식구가 없는 아가씨가 대상이 되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다. 우리 둘 다 여자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득의만만해서 네가 양보하지 않아도 사회는 남자 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냐는 표정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아침에 회사 로비에서 실장을 만났었다. 그는 내가 퇴직자 명단에 들어 있지 않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했다. 그런 실장에게 사표를 건네준 것을 그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번 기회에 오래 전부터 하고 싶어하던 음식점을 해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꾸려갈 회사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말이다.

#### 제2장 2절 <지름길> 오늘,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랴...

그렇게 그이와 나는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잠을 잤고 출근을 했다. 그리고 하루를 보냈다. 드디어 실장이 중대 발표가 있다고 자리를 뜨지 말라고 한다. 침이 목줄기를 타고 골격 넘어간다. 모두들 긴장을 했다. 특히 남편은 이젠 죽었구나 하는 표정으로 땀까지 번들거리고 있다. 실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의 주인들은 내일부터 실직자가 되는 것이다.

실장은 몇번 침을 삼키고는 말했다. “바야흐로 경쟁의 시대. 처절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모두 결과에 승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대로 남편과 미스터 최가 해고명단에 올랐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나 역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남자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여자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로서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더 이상 희생자가 되는 건 싫다. 실장이 나가고 난 뒤에도 사무실엔 침묵이 한참동안이나 흘렀다.

이제 해고된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회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리라. 그들 역시 시대의 희생자이므로. 11



이순주

64년생. 서울에겐 '여서' 동인. 상경관대학교 졸업. 한중문의 말을 더 넣고 간을 맞추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랑나가 나기 시작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뿔뿔뿔 났다. 몇 줄의 신명까지 건드렸는지 술 한 손가락을 넣고 자야 한다는 것까지 잊고 말았다. 하지만 무언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싶어하던

한 아이의 모습이 기억났다. 사는 것이 너무 바빴던가... 딱 좋은 시기에 사랑나가 곁으로 왔다. 다시 살을,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할 때라고 아픈 이를 움켜쥐고 그것들을 생각해보자. 내 꿈, 내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 “지하철 성추행도 노래에 담아요”

언더그라운드 가수 객주림

“이놈의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만지는 손길이 있어/ 어떤 놈인지 오늘은 못  
참아 고개를 돌리니 또그만 놓이네/ 이제 열네살 중얼잠 되었을까 꼬마애라니  
웃음도 안 나와/ (중략)/ 바로 그때 전철이 멈추고 나도 몰래 손잡고 같이 내려버렸어/  
정신없이 밖으로 걸어나와서 정신없이 걸가를 헤매이다가/ 예쁘게 생긴 참외 하나 보았지 나도  
몰래 노오란 웃음이 나와/ 그 어린 두 손에 참외를 쥐어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 괜찮단다 그럴 수 있단다 이거 받으렴 다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해”(작사  
이종휘, 작곡 객주림, 〈노란 참외〉)

지하철 성추행 현장범에게 “집에 가서  
혼자 해”라고 천연덕스럽게 충고하는  
객주림의 노래를 들은 주점의 손님들은  
삼시간에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연말,  
if의 송년모임 뒷풀이가 열렸던 홍대  
부근의 한 주점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그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다소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놀림과 즐거움을 느꼈다. 주점 한  
구석에서 기타를 치며 걸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가수 객주림을 보고 여성들은  
“거 참, 속 시원하다”며 환호성을 지르고,  
남성들은 머쓱해하면서도 박수를 보낸  
것이다. 여자라면 누군들 이런 경험이  
없으랴.

사람타령만이 아닌 우리 일상의  
감피마다 숨어 있는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

가수로는 장필순이나 권진원 등이 떠오른다. 객주림도 그들과 노래의 빛깔을 함께 하지만,  
노랫말이나 곡이 더욱 인간사에 근접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난 한참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고 지하철은 속했는지/ 내 무릎에 얹어진 그 종이의  
내용이 너무 슬퍼서 고개를 돌려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중략)/ 이렇게 달리다 보면 저 아이에게나 나에게나 끓이린 게 있을까/ 달리는 아를  
알고 있을까”(〈아상한 생각〉)

“...사람들은 날더러 걱정된다 말해도/ 응답기에 남겨놓은 부모님의 꾸밈도/ 지난날  
옛사랑의 아슬픈 추억도/ 웃으며 문 달배연기로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Solo〉)

그에게는 손쉽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부딪치는 성추행(〈노란 참외〉)이나 비슷비슷한



신촌의 한 클럽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객주림씨

사연의 종이쪽지를 돌리며 구걸을 하는 지하철의 아이들(아상한 생각)도 무덤덤하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가 하면  
그의 노래에는 부모님의 걱정이 담긴 응답기를 듣거나 주위 사람들의 걱정어린 충고를 듣고도 씩씩하게 ‘난 이대로  
좋아’라고 말하는(Solo) 곳곳한 뱃심도 담겨 있다.

“대학교 때부터 노래를 부르다 지금은 졸업한 지 몇년 됐고요. 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지만 갑갑해요. 현실적으로 제  
노래는 돈이 안되는 일이잖아요. 부모님이요? 하하, 이제 뭐 거의 포기하셨죠.”

객주림은 93년부터 민중 록그룹 〈조국과 청춘〉의 멤버로 노래하면서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픈 욕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본인이 직접 곡도 쓰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훈련을  
시작했다. 웃 입는 스타일에서부터 불려야 하는 노래까지 지정해주며 맹무새처럼 길러지는 ‘여가수’가 되기  
싫어서란다. 인형이 되기 싫어서 노래 만드는 공부를 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그의 고집과 생각은 기존의 가요계에  
편입하는 데에 적합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기회사에서 만들어준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냐? 우선은 장르 구분 없이 이것저것 다 만들어 불려보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당장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찾은 대안이 관객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일.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공감해 줄 관객을 찾아 홍대 근처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노래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지금처럼 록위주의 클럽가수들 틈에서  
포크나 발라드를 노래하는 그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도 많지 않다. “그냥 주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를 하고 싶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이 괴롭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 죽어야 하겠나 하여 막연히 좋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라는 그의  
배경에 박수를.

준비된 것 하나없이 노래하는 겁없는 여자 객주림을 만나려면 신촌의 〈노노〉클럽에 연락하면 된다. (문의: 338-5424)  
글·사진 강영선

## “말은 난무하는데 제대로된 말이 없어요”

언어심리소설 『불타는 대지』의 작가 이하천

이 하천씨를 처음 만난 건 홍대 앞 극장 (마너)에서 열렸던 ‘97 if 송년의 밤’ 행사장에서였다. 그에 대한 첫  
인상은 ‘쇼킹’한 것이었다. ‘그로테스크’한 눈화장과 아한 색깔의 메니큐어 때문이었을까. 소설가 이하천씨의  
그런 외모는 사실 내가 상상하는 소설가외도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솔직히 말하면 난 그 외모 때문에 약간의 혼란에  
빠져야 했다. 무의식적으로 설정된 ‘우리’의 범주와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또 하나의’ 편견이나  
선입관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삶의 과정은 그리 범상하지 않은 않았다.

그는 세계와 막 대면하기 시작하는 20대 초반 집안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고1때 첫 눈에 들어버린 11살 연상의  
학교 스승과 결혼을 감행했던 ‘모험적인’ 여자였고 곧 이 땅이 아닌, 미국과 캐나다에서 15년을 머물다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 얘기의 궁극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바와도 맞닿아 있었지만 그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가게’  
도달해 있었다. 늘 ‘떠도는 영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삶의 궤적이 특이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는 한때 국문학도였고 70년대 중반부터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동인으로 귀국 때까지 10년간 많은 시를 발표했다. 연출가 이장성씨와 함께 토론토에서 극단 〈알〉을 창단한 이력도 있다. 93년엔 김용옥씨의 추천으로 『조용히 슬어라, 대지는 깊이 잠들지 않는다』(통나무)를 출간. 이 소설을 읽었던 조혜정 교수가 '이제야 말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평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문학에 몰두하게 된 것은 그후로 오랜 뒤였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비싼 수업료 대고'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인 남편이 박사학위를 두개 딸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비싼 수업료를 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닐 터이다) 남편을 '선생님삼아' 살았다고 했다. 이하전은 '영혼을 일깨워줬던 한 남자와 이혼하지 않고 산 것은 '선생님 남편'의 탁월한 점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골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학교도 마치지 않은 채, 게다가 아이는 6년간 친정부모에 떠맡긴 채 홀몸 이 땅을 떠났었던 여자.

그는 한 남자와의 결혼을 위해 부모와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로 투쟁해야 했고 오랫동안 문학에 다가가지 못했다. 경제관념조차 없던 남편 덕에 사업을 하면서 캐나다에서 큰 빚들을 소유하기도 했지만 많은 돈이나 그밖의 소유물들은 무의미했다. 그는 그때를 '자신의 이중적 정신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찾아 헤맸던' 시간으로 회상한다. '다행히도' 이 땅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체험은 그에게 아주 귀중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함지 불렀고 또 뭐라고 설명할 수조차 없었던 어떤 삶의 방해요소가 서구세계에서는 없었던 거죠. 내면적으로는 용기있고 힘있는 삶을 원하면서 외적으로는 수줍고 착하고 순종하는, 이중적 정신구조의 갈등이 아예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회체제나 인간정신, 이 모든 것이 이중적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법밖으로 벌어지는 성함이 결혼의 조건으로 나타나 집안을 따지는 거다. 당시 이하전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혼을 반대했던 가족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자신 역시 왜 그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었다고 말한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승락을 위한 극약처방으로 '혼전임신'을 택해야 했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모든 불행들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되고, 한국인은 '공공의 이익'이나 '밝은 정신'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가 한국을 떠나 있었던 시간만큼 걸렸다. 그의 시어머니는 늘 자식들 앞에서 잘 우는 분이였다. 그가 왜 그리 울었는가를 깨달았던 것은 마흔이 다 되어서였다. 그때 이후로 그는 시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더 이상 비보짓을 하지 않는 머느리가 됐다. 한국의 여성들이 눈물을 보아는 것은 자식을 컨트롤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일종의 '무기'였음을 뒤늦게 알아챘던 것이다.

"그렇게 보면 효라는 것도 일종의 계산이죠. 엄마, 아버지의 막강한 힘으로 자식들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불효가 되고... 우리 어머니도 늘 말씀하시길 날 굶게 걸렸다고 하셨거든요. '굶게' 기른 것이 자람이 채서는 안 되잖아요. 용기있게 길러야 하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야 이런 언어의 모순을 이해하겠지만 대다수 우리의 어머니나 요즘 주부들도 자신이 살아온 삶이 늘 감동되는 삶이었음을 일면서 말한테는 씩씩하게 자랄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옳고 불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이중적 정신구조에서 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는 자주 '언어없음'과 여전히 봉건유교적 사회의 체계, 여기서 파생되는 집단적 억압의 무의식을 연평시켜 얘기했다. 그의 두번째



자신의 집에서 포즈를 취한 이하전씨

소설 『불타는 대지』는 이런 '괴물'들에 억눌린 세 사람을 중심으로 쓴 심리소설이다. 그는 인간정신의 해방을 꿈꾸며 문학을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한다. "우리사회에는 진정한 언어가 없다"는 그의 말뜻은 가부장제라는 '괴물'이 남자를 남성성이라는 관념에 묶어 놓았듯이, 여자들을 여성성의 상자에 가둬놓아 서로 얼굴을 맞대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 사이, 남녀사이를 말한다. 더 나아가 문학을 하는 그의 입장에서선 수천장 글을 쓰되 참글이 아닌 것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했다. 『불타는 대지』에서 밝힌 작가의 말을 들어보자. "대체로 이 땅의 소설은 아직도 밝은 인식의 언어를 탐구하기보다 통작정서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삶과 문학의 언어가 서로 따로 놓고 있는 것이 그 구체적 증거다."

그가 한국에는 언어가 없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특한 삶의 궤적과 무관하지 않다.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이 처한 여성차별 체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동서양의 사회시스템의 차이에서 이 땅의 모순을 꿰뚫어 보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하전은 한국에 돌아 온 지 2년 되던 해인 90년 지금의 터전이 된 부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장안군 가장을 바닷가 근처 자연 속에서 집에 찾아오는 들고양이, 개, 원숭이, 영무새 등 숲한 동물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

"한국에 와서는 모든 것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구조에 건드릴 수 없었죠. 벽이 많고 겁쟁이만 설계하는 그런 답답한 구조가 아닌 6~7가지 해방개념에 따라 내 손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낮은 천정으로부터의 해방, 벽으로부터의 해방, 벽지로부터의 해방을 이뤄내고 향광등, 모노톤, 장롱 그리고 풍수로부터의 해방을 이뤄냈다. 또 아웃의 여러가지 소리로부터도 해방했다고 했다.

"그 이후 그 집에서 즐겁게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글도 쓰고 농사도 짓고... 자연이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를 다시 깨닫게 됐고 땅을 밟고 사니 힘이 솟아납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상추와 배추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영혼과 창의성이 살아남을 느낍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삶을 통해 이 사회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는 긴 여정을 건너왔다. 그러나 그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시킬 수 있는 길이 바로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것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페미니즘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더구나 그는 '지식인들의 허구적 삶'을 통렬히 비판한다. "지식인들은 실천이 없어요. 특히 우리사회 대표적인 학자들은 말만 하고 글만 쓰고 있지 실천이 없습니다. 지식인들이 할 일은 우리의 인간정신의 부활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는 나에겐 이모저모로 "소킹했던" 사람이었다. 그 소킹함이란 페미니즘이 지평을 넓혀가야 하는 광대한 뿌리이자 페미니즘이 진정한 인간해방의 힘을 얻기 위해 깊이 천착해보아야 하는 그런 생각과 언어들이었다. 어쨌든 그의 얘기는 '밝은 인식을 위한' 희망의 소킹 스토리였다고 말하고 싶다. 글 박혜숙

## 공격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수처럼 인생도 그렇게

2002년 월드컵축구심판을 꿈꾸는 국내 첫 여성국제축구심판 임은주씨

어 렵게 잡은 임은주씨(33)와의 점선(7)날, 천바지에 빨간 티셔츠 깃을 새우고 컷머리에 밝은 갈색 브릿지를 한, 선공은 인상을 풍기는 그는 그 날 같은 장소에서 10분 간격을 두고 연달아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권유로 육상을 시작해, 중학교 때는 배구, 고등학교와 대학시절엔 필드하키를 했고, 대학 졸업후에는 축구로 태국마크를 달았습니다. 그 후 이화여대 체육대학원에 다니며 이화여대 축구팀 코치를 맡았을 때 심판수업을 받아 1급심판이 됐고요. 지난 96년 9월에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실시하는 국제축구심판 시험에 합격해 현재 국제축구심판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는 인사 첫머리에 일사천리로 자신의 경력을 브리핑(?)했다. 경력이 대단했지만 그의 지나온 길이 늘 꿰뚫었던 것은 아니다.

중학교 3학년때 이미 172cm의 장신에다 만능 스포츠우먼이었던 그는 운동이 좋았지만 아버지는 매를 들면서까지 반대했다. 결국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늘 운동연습 아니면 시험에 나가있었던 터라 성적은 바닥권을 맴돌았고 학교생활에도 흥미를 붙일 수 없었다. 결국 중간에 인문계고로 전학, 필드하키를 시작해 주니어대표로 선발됐고 체육특기생으로 천주사대 체육교육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졸업후 체육선수 출신으로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국제경기 때 외국선수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부러웠죠. 사회체육이 발달한 나라의 선수들은 우리처럼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인 하키선수도 있고, 또 졸업후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무리가 없지요."

하지만 국내사정은 그렇지 않다. 운동권(?)에 남기 위해 코치나 감독이 되는 경우는 극소수. 임씨는 갈 곳 없는 운동선수가 되지 않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짰다. 여성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가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치밀하고 억척스러웠다. 임은주씨는 대학재학 때부터 한국사회체육센터에 근무하는 동안까지 체육정보사, 수영강사, 에어로빅강사, 스포츠마사지, 응급처치, 레크레이션강사 등 무려 8가지의 사회체육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던 중에 이화여대등에서 여성축구팀을 창단하고 북경아시안게임 출전 여성축구대표선수 선발테스트가 있을 거란 소식을 들었다.

"평소 대학원 진학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선수로 선발되면 특기자로 대학원에 갈 수 있다가에 남몰래 축구공을 차고 땀을 흘리며 제 자신과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그는 결국 스위퍼(수비수)의 포지션으로 태국마크를 달았고 그 후 직장 사퇴, 대학원 진학, 이화여대 축구팀 코치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 즈음에서 그는 또 한번의 기회를 잡아낸다.

"게임판정규칙을 알면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심판 특별강습회에 참가했죠. 그랬다가



97년 4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심판시험에서 체력테스트를 마치고 함께 포즈를 취했다. 아랫줄 가운데가 임은주씨

1급심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국가대표 출신들은 2급심판 5~7년의 경력이 없어도 석달간의 합숙훈련과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가 1급심판 자격을 따겠다고 하자 주위에선 말들이 많았다.

"오기가 나서, 난 할 수 있고 허능님이 주신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생각으로 매달린 끝에 결국 통과했습니다."

1급심판이 되고 나니 내친김에 국제축구심판시험(50m를 7초 내에 주파하는 등의 체력과 영어능력, 축구규정 테스트)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국대회 이상의 축구경기 심판경력이 30개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시자격에 맞추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다녔고, 영어실력을 쌓으려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그곳에서 몸사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더니 수업료를 내고도 돈이 남아 귀국할 때 중고차를 한대 장만했다는 임은주씨. 땀과 눈물을 몇드림 쏟아부은 후 결국 FIFA가 인정한 국내 최초의 여성국제심판이 된 그에게 가지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지 물었다. 혹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축구심판은 몸으로 뛰어야 하나 결혼을 해도 가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들어요."

결혼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눈에 아직 몽박자가 덜 싹워서 그런가 보이며 어운을 남기지만 어느정도 목표점에 이를 때까지 '무기한 연기'라는 게 그의 최종결론.

여성의 장점을 잘 살리면 축구심판을 보는 데 유리한 점이 많다고 그는 말한다. 거친 선수들을 시험 전에 미리 불러 자상하게 주의를 주고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특유의 세심함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으로 인정받기를 욕심내는 임씨지만 그에게도 못지 못할 실수가 있었다.

초등학교 전국대회에서 주심을 볼때 어린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신통해 경기종료 시간이 10분이 지나도록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던 것. 이미 전반전에 점수차가 꽤 벌어진 경기인데다 임씨의 솔직한 시인과 사과로 진땀의 교장선생님도 이해하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어린 학생들의 경기를 맡을 땐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으면 꼭 5~6분쯤 시간을 넘기게 된다고.

지금 그에게 또 다른 꿈이 있다. 심판생활을 하면서 시아가 더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그는 실전의 바탕 위에 이론을 갖춰 체육행정엔 전문가로서 참여해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 동안 체육인의 사정을 잘 아는 체육행정자가 드물어 안타까웠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 길을 닦겠다는 생각으로 올 8월 스포츠마케팅 수업을 위해 유학을 계획중이다. 월드컵을 먼저 치른 미국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와, 2002년 개최될 월드컵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 '성공적인 21세기 개막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는 각오. 물론 유학중에도 계속 국제심판자격을 유지해 2002년 월드컵에서 힘차게 호루라기를 불어 그라운드를 누빌 꿈도 접지 않았다.

임씨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여자심판들의 남자경기 배정에 관한 세미나 참석차 2월중 말레이시아에 간다. 그리고 지난 90년 북경아시안게임에는 태국마크를 달고 선수자격으로 출전했는데 올해 방콕에서 개최될 98아시안게임에는 심판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라며 흥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그를 보면 공격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간을 포착해 독점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선수로서 약해진 감각이 인생의 문명에 있어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역순이" 임은주씨가 새롭게 도전하는 길잡이 작업의 쾌투를 빌어본다. 글 김도연(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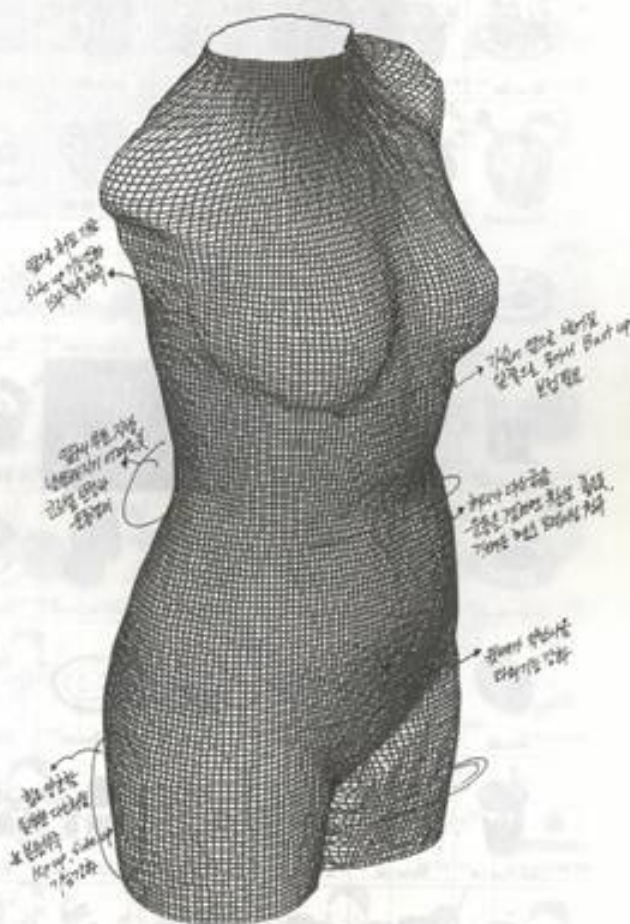
# 주부의 24시간은 악몽



기획 오세주

VIVIEN

## 당신의 몸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조이나?

VIVIEN

기획 오세주

## 칼로리 노이로제

Sense-up Diet  
다이어트 최신 정보  
다igest

칼로리를 비교하며

|                                                                                                 |                                                                                                |                                                                                                |                                                                                                |                                                                                                |                                                                                                 |                                                                                                  |                                                                                                  |
|-------------------------------------------------------------------------------------------------|------------------------------------------------------------------------------------------------|------------------------------------------------------------------------------------------------|------------------------------------------------------------------------------------------------|------------------------------------------------------------------------------------------------|-------------------------------------------------------------------------------------------------|--------------------------------------------------------------------------------------------------|--------------------------------------------------------------------------------------------------|
| <br>칼로리 702    | <br>칼로리 710   | <br>칼로리 715   | <br>칼로리 724   | <br>칼로리 726   | <br>칼로리 726   | <br>칼로리 734   | <br>칼로리 751   |
| <br>칼로리 813    | <br>칼로리 820   | <br>칼로리 831   | <br>칼로리 848   | <br>칼로리 853   | <br>칼로리 874   | <br>칼로리 888   | <br>칼로리 898   |
| <br>칼로리 904    | <br>칼로리 917   | <br>칼로리 927   | <br>칼로리 934   | <br>칼로리 950   | <br>칼로리 957   | <br>칼로리 967   | <br>칼로리 983   |
| <br>칼로리 1040 | <br>칼로리 412 | <br>칼로리 447 | <b>école</b><br>칼로리 사전                                                                         |                                                                                                | <br>칼로리 464 | <br>칼로리 482 | <br>칼로리 488 |
| <br>칼로리 502  | <br>칼로리 517 | <br>칼로리 535 | <br>칼로리 547 | <br>칼로리 570 | <br>칼로리 579 | <br>칼로리 584 | <br>칼로리 592 |
| <br>칼로리 598  | <br>칼로리 623 | <br>칼로리 623 | <br>칼로리 628 | <br>칼로리 628 | <br>칼로리 627 | <br>칼로리 676 | <br>칼로리 723 |
| <br>칼로리 116  | <br>칼로리 126 | <br>칼로리 137 | <br>칼로리 140 | <br>칼로리 155 | <br>칼로리 165 | <br>칼로리 172 | <br>칼로리 198 |
| <br>칼로리 0    | <br>칼로리 0   | <br>칼로리 11  | <br>칼로리 21  | <br>칼로리 35  | <br>칼로리 40  | <br>칼로리 50  | <br>칼로리 58  |

## 빠르고 즐겁게 하는 다이어트

|                                                                                                  |                                                                                                  |                                                                                                                                                                                 |                                                                                                  |                                                                                                  |                                                                                                  |
|--------------------------------------------------------------------------------------------------|--------------------------------------------------------------------------------------------------|---------------------------------------------------------------------------------------------------------------------------------------------------------------------------------|--------------------------------------------------------------------------------------------------|--------------------------------------------------------------------------------------------------|--------------------------------------------------------------------------------------------------|
| <br>칼로리 702   | <br>칼로리 710   | <b>‘먹을 땀 먹고, 움직일 땀 움직이면<br/>나도 살 빠질 수 있다!’</b>                                                                                                                                  |                                                                                                  | <br>칼로리 715   | <br>칼로리 724   |
| <br>칼로리 878   | <br>칼로리 888   | <p>흡수 칼로리와 소변 칼로리를 동등하게 비교한 칼로리 비교표<br/>지금까지 숫자를 비교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단해 다이어트에<br/>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다이어트에 대해<br/>분명하지 않았던 상식까지 보충해 소개한 관련 다이어트 상식<br/>[다이어트 상식]은 [다이어트 상식]</p> |                                                                                                  | <br>칼로리 898   | <br>칼로리 908   |
| <br>칼로리 976   | <br>칼로리 982   | <br>칼로리 984                                                                                  | <br>칼로리 988   | <br>칼로리 992   | <br>칼로리 998   |
| <br>칼로리 408 | <br>칼로리 412 | <br>칼로리 416                                                                                | <br>칼로리 420 | <br>칼로리 424 | <br>칼로리 428 |
| <br>칼로리 704 | <br>칼로리 704 | <br>칼로리 708                                                                                | <br>칼로리 712 | <br>칼로리 716 | <br>칼로리 720 |
| <br>칼로리 440 | <br>칼로리 440 | <br>칼로리 444                                                                                | <br>칼로리 448 | <br>칼로리 452 | <br>칼로리 456 |
| <br>칼로리 182 | <br>칼로리 177 | <br>칼로리 172                                                                                | <br>칼로리 164 | <br>칼로리 147 | <br>칼로리 132 |
| <br>칼로리 904 | <br>칼로리 904 | <br>칼로리 908                                                                                | <br>칼로리 912 | <br>칼로리 916 | <br>칼로리 920 |

### 대단한 가정부

과란만한 연애시절을 청산하고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다. 둘은 행복했다.

그러나 신혼여행 첫날밤부터 두 사람은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밤 12시에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여기는 화장타... 내 몸이 타고 있다..." 음산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는데도 밤 12시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두 사람은 너무 무서워 입주 가정부를 고용했다. 그 날 밤 또 전화가 걸려왔다.

"여기는 화장타... 내 몸이 타고 있다..."

대신 전화를 받은 가정부가 소리쳤다.

"너는 몸만 타고 주둥이는 여태 안 났는가봐!!"

### 여자가 헌팅하다 실패했을 때

남자가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반해서 접근했다.

여자의 얼굴을 봤는데, 영 아니었다. 이 때 하는 말.

"죄송해요... 사람을 잘못 봤어요!"

여자가 남자 뒷모습 보고 반했을 때, 접근했다가 남자 얼굴이 영~ 아닌 때 하는 말.

"저기... 혹시... 도에 관심 있으세요?"

### 딸들의 소원

오래된 성에 늙은 마녀와 세 딸이 살고 있었다. 마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세 딸을 불렀다.

"나의 운명이 보이는구나.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소원을 한가지씩 들어주겠노라."

평소에 몸이 약하던 첫째딸이 말했다.

"전 튼튼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딸은 강해졌다.

항상 반대만 붙는 둘째딸이 말했다. "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둘째는 그래서 부자가 됐다.

끝으로 욕심쟁이 막내가 소원을 말했다.

"어쩌나... 전 둘 다 되고 싶어요.... 어머니!"

과연 막내딸은 뭐가 되었을까...?

"강부자"

### 혼전관계를 보는 시각

군인 : 경찰임무 수행이지.

학생 : 철저한 연습행위. 때워서 남주남?



매우 : 실천도 중요하지만 리허설도 중요하지.

교수 :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회사원 : 월급에 앞서 가불을 하는 것.

법무사 : 가동기

은행원 : 약속어음 발행

산악인 : 사전 답사

국회의원 : 날치기 통과

세일즈맨 : 견본품

교통경찰 : 속도 위반

작가 지망생 : 습작

산부인과 의사 : 우리의 발줄

이벤트 기획자 : 화려한 이벤트 사업

프로야구 선수 : 프리베팅

### 부부관계

부부싸움할 때 부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부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남편이 돈도 없고 정력도 약하면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남편이 돈만 많고 정력이 모자라면

—돈이면 다냐! 돈이면 다야?

남편이 돈은 없고 정력만 세면

—니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 첫경험후 여자들의 반응

경상도 여자 : 몰라예, 책임지소마!

충청도 여자 : 몰라유, 어떡허유, 책임지유!!!

전라도 여자 : 알장 서!! 느그집이 어디여!!

서울여자 : 자기 즐거웠어, 연락하지 마!!

### 경상도 IMF

IMF : Inja Ma Faida (인자 마 파이다).

### 정치는 죽었다

과출소 앞 게시판에 국회의원 입후보자 홍보 포스터

가 죽 붙어 있었다. 술 취한 사람이 경찰에게 비틀거

리며 다가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물었다.

"경찰 아저씨, 여기 붙어 있는 이 놈들은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한 놈들입니까?"

"여보세요, 이걸 선거용 포스터예요 현상범 수배사

진은 저 쪽 게시판에 붙어 있잖소."

그러자 술 취한 사람이 말국질을 해대며

"아하, 앞으로 나쁜 짓을 끌라서 할 놈들이군."

### 임신 전과 후

전— 내 아이는 다른 부모들처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시킬 것이다.

후— 그러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학원, 피아노 학원, 속셈, 글짓기, 미술학원 등 여러 곳을 다니게 한 후에 고르게 해야 한다.

전— 내 아이는 공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전원 생활에서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

후— 강남에선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하다.

전— 아이를 위해 부모의 삶까지 희생당할 순 없다. 남편과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이고, 아이는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후— 자식이 커서 "엄마가 뭘 안다고!", "엄만 내 인생에 도움이 안돼!"라고 한다면 난 우울증에 시달리다 죽을지도 모른다. 남편이 다 무슨 소용이람...

전— 어렸을 때 사치스런 생활잔치 같은 건 생략해도 된다. 애 낳으면 돈이 필요할 뿐이다.

후— 아이를 위해 그 날은 캄캄 이벤트!

전— 공공장소에서 내 아이가 마구 떠돌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패서라도 조용히 시키야 한다.

후— 우리에 기숙제 앞에서 어른들이 눈치 주는 것을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전— 아이에게 왜제나 일제를 사주는 부모들은 다 때 국노고 부모될 자격이 없다.

후— 우리나라 건 이쁘지도 않고 쓰다가 자꾸 고장난다. 그런 거 쓰다가 내 아이 성질 나빠질 바엔 이쁘고 잘 써지는 일제가! 뭐... 나 하나잖아.

전— 과잉보호는 자식을 망칠 뿐이다.

후— 신경쓰지 않다가 우리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질꺼!

전— 애가 가출했다고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는 아버지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후—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생각했는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최후에 그 방법을 선택한다면 자기 방에서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 스캔들메이커 클린턴에게

지난 2월 6일 열렸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당신과의 공동기자회견은 참 불만하  
던데요! 아무리 섹스스캔들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 총리가 공식  
방문에 열린 '점잖은(?)' 기자회견장에서, 그것도 이라크에 공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트윈스키 관련 웹사이트에 오른 그림

이야기하는 판에, "트윈스키  
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겠느  
나?", "사임할 생각이 없느  
나?"며 트윈스키와의 관계만  
을 집요하게 물어댔으니, 당  
신은 혼자 벌거벗고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겠지만, 보는  
내 입장에선 속이 다 후련함  
이다.

"클린턴은 오랄섹스만 주  
로 한다는데, 오랄섹스는 법  
적으로 간통이 아니기 때문  
에 그런 것 같다", "클린턴은  
섹스 중독자", "어떻게 해서  
트윈스키의 드레스에 클린턴  
의 정액이 묻었을까?" 등의  
대사들이 텔레비전 토크쇼를

통해 그대로 방송되는 걸 보다보면 참 우리나라와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  
군요.

사실 지난 1월 22일 당황한 표정으로 "나는 거짓증언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하  
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클린턴도 끝났구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었어요. 당신도 당  
신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정치인들, 뒤로 별별 호박씨를 다 까면서 걸로 척하  
니 똥똥 잡고 있는 나으리들의 간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무릎을 쳤지  
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통령의 성생활'을 감히(?) 내놓고, 공식석상에서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누구와 잤다더라", "그 애가 누구 애라더라" 그렇게 '더러' 통신으로 전해질  
뿐, 기자회견장에서 댄 얼굴을 마주대고 묻지는 않지요. 워낙 점잖으니까, 부럽죠? 그런 풍토

에서 당신이 진짜 물러날 걸 생각해보니 참신했어요. 당신 개인으로야 안 되긴 했지만 우리  
나라 정치인들의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 생각하니 신바람이 났지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잠시 주춤한 것 같았던 당신 인기가  
자꾸자꾸 높아졌잖아요. 지난 92년 제니퍼 플라워즈 때부터 시작해 캐서린 윌리, 주산 맥도  
갈, 셸리 퍼듀, 셸리아 로렌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플라 존스에  
이르기까지 한두번 있는 스캔들이 아니니 아예 사람들도 무뎌져버  
린 것이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리나라 같으면 상대여성은 거의 매장되  
다시피 할 텐데 오히려 트윈스키는 스타가 돼버리질 않나. 인터넷에  
서 트윈스키가 언급되고 있는 관련 웹사이트가 5,380개나 되더라구  
요. 원, 팬클럽까지 결성이 됐으니.

여성단체들의 성명서도 쏟아질 법한데 어째 그것도 없어요? 지난  
1월 말에 나온 미전국여성단체의 성명서 보셨죠? 참 호뭇하졌겠어  
요.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급을 유보한다"였지요. 아마? 지난  
92년 아니타 힐이 대법원 판사였던 클레런스 토마스를 성희롱 혐의  
로 고발했을 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목소리를 높여 사임을 요구했던 당시 여성단체들의  
입장과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자꾸 들여다봤죠.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미국의 특수성이 무엇  
인지를 분석해보기도 하고.

결국 아직은 '게임이 끝났다'고 속단할 때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  
게, 미국인들이 표면상으로는 그냥 이번 스캔들을 마분한 일상에 활력을 주는 화제거리 정  
도로, '스타의 사생활'을 들춰내는 것처럼 즐기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렇지  
만도 않았어요. 아무리 당신의 인기가 '이상현상'으로 높아가고 있다고 해도, '클린턴이 르  
윈스키에게 거짓증언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비율은 어떤 조사에서도 50%선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은 꼭 새겨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신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어쨌든 당신은 지금 속으로 여성들을 참 우습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성편력으로 문제  
가 됐는데, 시끄러울 것 같던 여성단체들은 쥐죽은 듯 조용하고, 아내 힐러리는 적극 후원해  
주고, 일반 여성들은 당신과 성관계를 했을 것으로 상상되는 트윈스키를 마구 부러워하고,  
섹스 상대가 된 것으로 알려진 트윈스키는 그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있겠어요?

트윈스키 얘기로 들어가보죠. 그 여자도 당신 눈엔 정말 웃기는 짜장 같겠죠? 그녀는 '성  
의 자유'가 '국도로' 보장될뿐더러 부추겨주기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것을 행



인터넷속의 육체파 클린턴. 다른 남자의 나체에 클린턴의 얼굴을 합성.

우리나라 같으면  
상대여성은 거의  
매장되다시피 할 텐데  
오히려 트윈스키는 스타가  
돼버리질 않나. 인터넷에서  
트윈스키가 언급되고 있는  
관련 웹사이트가  
5,380개나 되더라구요.  
원, 팬클럽까지  
결성됐으니.

운으로 알고,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유명한 남자에게 접근하고 그것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려는 여자들 중의 한명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미국에선 유명인과의 성관계를 폭로해 그 남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돼 엄청난 돈을 거머쥔 여자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렇게 당신에게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을수록 당신은 지천에 '칼린' 여자들이 우스워 보였겠죠.

게다가 당신의 아내 힐러리는 남편의 외에도 굴하지 않고 남편을 괴롭히는 '르윈스키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요즘 미국여성들은 가슴에 독수리브로치를 달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죠. 미국의 상징, 대통령을 지키자는 이 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한 여성은 물론 힐러리 여사고 한개에 75달러나 하는 이 브로치가 지금 여성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르윈스키 따위 때문에 남편을 망칠 수도, 나라를 뺏길 수도 없다는 미국여성들의 자존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역시 바람피우는 남자를 사이에 두고 여자들끼리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너무 자만하신 마세요. 여성단체들의 당신에 대한 지지가 '당신' 자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라는 것이지요. 전반적인 미국 전체의 보수화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진보적인 여성정책을 펴준 데 대한 감응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당신의 여성정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거나, 방향을 잡지 못할 때는 당신에 대한 '공격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1년도 안 살아봤지만, 한국에서 생각할 때와 미국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 다른 것 같더라고요. 20세기 초 여성참정권운동뿐 아니라, 1960년대 여성운동의 근원지가 미국이었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여성문제가 많이 해결돼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기르기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고, 여성들을 몸 중심으로, 미모 중심으로 보는 사고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던데요. 뭘 여성정책에 상대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는(그런데 그것도 당신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힐러리의 아이디어를 훔쳐오든, 빌려오든 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와서 부쩍 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일 뿐입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싶으면 언제든 돌아설 수도 있다는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여성들이 진짜로 '인간 클린턴'을 좋아한다구요? 막 뿌리치려고 하는데 자꾸자꾸 따라붙는다고요? 케네디 대통령처럼, 당신은 케네디와 비교되는 걸 온근히 즐기는 것 같아요. 잘 생기고, 진보적으로 보이고, 여성들에게 인기있고...

아-예, 그것도 잘 압니다. 대통령에다, 얼굴까지 잘 생기고, 돈도 많고, 학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막 따라다녔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 다 관계를 하는 겁니까? 오는 여자 안 막

는 박애주의자인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또 그럴 수 있다는 침시다. 그러면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부인하는 건 뭘니까? 플라워와의 관계는 이제 인정했다면서요? 물론 미국이라는 사회가 우리 한국과는 또 달라서 그 여자들이 스타가 되고 유명해지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 부분에서 분명히 있었던 일을 공식적으로 없었던 일로 하라는 요구만큼 인간적으로 부당한 요구가 또 있을까요? 이걸 당신이 좋아하는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달라서인지, '르윈스키와 성관계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신이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선밖에 안 되던데요? 그러면 좀 더 당당해질 수 없을까요? 당신이 가진 것은 하나도 잃고 싶지 않은 거겠죠? 품위와, 멋있음과 진보성과 세련됨과 색시함과 권위와 멋진 아내와... 물론 대통령직과 당신의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 상대 여성은 뭘니까? 직장을 구해주고 스타가 돼 돈을 벌게 해줬으니 된 겁니까? 차라리 일부일차제를 해체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하지 그래요? 오히려 그게 솔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 솔직할 텐데... 사실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11**

1998년 2월 25일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 유학생이



김미경

80년생. 서강대 국문과와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겨레신문」 창간멤버로 그 동안 여성문제관련 기사를 꼭 써왔다. 97년 3월부터 「E21」 미국에서 연수중이다. 한가지 일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성격 때문에 늘 걱정이다. 요즘은 인터넷에 빠져 아말게 하면 뉴미디어와 여성문제를 연결시켜볼까 그 생각만 하여 산다.

# 뿔발에서



강홍구

화가 미루고 미루다 주문받은 글을 쓰려는 순간 의문이 생긴다. 왜 이 잡지는 남자의 성경험을 살는가. 호기심일까 아니면 남자에 대한 탐구의 일종일까. 호기심이나 재미라면 그런가 보다이고, 남자에 대한 탐구 내지는 연구라면 글씨 방향이나 방식이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든다. 괜히 글쓰기 싫으니까 부리는 심통인지 모르지만 남자건 여자건 일로는 성경험에 대해 논구적으로 물어볼 수가 그래도 없지만 글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알은 녹음해두지 않는 한 사라져버리지만 글은 어쨌든 남아있으니까. 게다가 성경험은 자위행위기 아닌 한 상대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대가 있는 성경험에 대해 쓰고 싶은 생각은 순물만쯤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쓰는 성경험은 어릴 때에 국한된다. 책에 실느냐 마느냐는 편집자가 알아서 하겠지.

남자와 여자의 신체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아주 어렸을 때이다.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도 않는다.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이 모두 거의 벌거벗고 다녔기 때문에 신체구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두 알게 되어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서서, 여자아이들은 아무 데나 꾸그리고 앉아 오줌을 누었다.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런 현상에 대한 해설이 뒤따랐다. 여자아이들은 개가 고추를 따먹었기 때문에 고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정도로 충분했고 그 이상의 궁금증도 아무런 신비감도 없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몸 특히 성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였다. 여름이면 점심 시간에도 도시락을 열른 먹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학교 앞의 바닷가로 달려가던 설 아이들이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학교에서 일본만 달리면 이르는 바닷가 모래밭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달리면서 차례로 고무신, 반바지, 셔츠를 벗어던졌다. 대개 팬티도 입지 않았으므로 쉽게 벗어던진 신발과 옷들은 제멋대로 모래밭에 흩어졌고 우리는 벌써 물 속에 있었다. 물 속에서 한참을 놀다가 심증이 나면 다시 뿔발에서 놀았다. 그러다 지치면 뿔발에 잇대어 있는 모래 밭에 누워 햇볕을 쬔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의 생김새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었다.

이러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마 사학년 무렵인 듯하다. 계기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동네 사춘기 무렵의 소년들과 그 또래를 지난 청년들로부터 왔다. 아직 인구의 도시집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라 요즘과는 달리 섬에는 청년들이 많았다. 물론 몇년 뒤에는 모두 육지로 도시로 나가는 바람이 불었지만 밤에는 사랑방등에 모여 놀면서 빨리 어른들이 되어갔던 것이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청년들에게 배운 대로 우리는 바닷가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나란히 눕거나 앉아 다 자라지도 않은 성기를 만지작거리 발기시키고 자위행위 흥내를 냈다. 뿐만 아니라 성기에 대한 품평이나 분류도 했다. 그것도 어디선가 주워들은 것이었다.

것이 담배와 자위행위였다.

언제 누구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피웠다기보다는 흥내를 냈다는 게 옳겠지만 진달래, 금잔디 같은 질 나쁜 권련이나 운 좋으면 파고다, 아리랑 등의 담배를 집에서 몰래 몇 개비씩 훔쳤다. 또 새 교사를 짓느라 일하는 목수들이 피다버린 담배 공초를 쉬는 시간에 공사장 주변에 얼전거리며 주웠다. 그런 담배도 없으면 집에서 어른들이 피우려고 남겨놓은 말린 담뱃잎을 가져와 피웠다. 주머니 칼로 담뱃잎을 썰고, 썬 담배를 공책장을 뜯어 침을 발라 칩 말아 피웠던 것이다. 물론 담배맛을 알았을 리 없다. 하지만 유행처럼 번지자 우리보다 어린 삼학년 아이들도 피우기 시작했다. 정 담배가 없으면 청미래 덩굴 마른잎이나 박하잎 따위까지 말아 피웠다. 어느 때는 진달래 한감을 반나절 동안 돌이 모조리 피운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유행 같은 것이었고 오래 가지도 못했다. 그것을 알아챈 어른들이 우리를 비웃었던 것이다. 자신들도 해본 경험 이 있던 어른들이, 꾸짖는 것도 혼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담배 맛있다?"라고 물었던 것이다. 그것도 여럿이 모여서서, 물

론 담배맛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 못했을 것이다. 맛도 모르고 따라 피운 일이었기에 쉽사리 그만두게 되었으리라.

성에 대한 관심도 비슷했다. 청년들에게 배운 대로 우리는 바닷가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나란히 눕거나 앉아 다 자라지도 않은 성기를 만지작거리 발기시키고 자위행위 흥내를 냈다. 그 때 어떤 느낌이었는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임에는 틀림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성기에 대한 품평이나 분류도 했다. 그것도 어디선가 주워들은 것이었다. 너는 자라 자지다. 너는 몽둥이 자지다. 너는 고 추자지다 등등.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렇게 나누었다. 어떤 아이는 잘 벗겨지지 않는 포피를 억지로 벗기다 아프다고 상을 찡그렸고 포피가 쉽게 벗겨진 아이들은 어른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다.

그런 놀이를 하는 곳은 물론 학교 앞 바닷가는 아니었다. 학교 앞은 사방이 탁 트인 곳이라 사람들 눈에 쉽게 띄어서였다. 때문에 학교와 마을 반대편, 서해의 수평선이 바라다보이는 바닷가나 오후에 소를 먹이러 나가서였다. 특히 서해 수평선이 바라보이는 바닷가는 물결에 닿은 바위와 자갈과 모래가 차례로 늘어서 있

## 멜발에서

어서 놀기가 그만이었다. 절벽 아래였기 때문에 어른들 눈에 띄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위들은 거의 놀이의 일종이었지 진지한 성적 관심이라고 하기는 힘들었다. 우리는 어떻게 성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나 성적 상대인 여자의 신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오학년 무렵 지도책에서나 이름을 본 남해의 항구도시에서 한 아이가 전학을 왔다. 나이는 우리보다 두어살쯤 위였던 그 아이는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성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도시적인 성적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의 가슴을 유방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도, 생리에 대해 말해준 것도 그 애였다.

뿐만 아니라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포르노영화를 본 경험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남자의 물건이 팔뚝만 하다는가 여자의 반응이 어떻다는가 등등.

꼭 그 아이의 이야기 때문은 아니었지만 멜발에서 놀 때 우리에게 새로운 놀이가 추가되었다. 멜발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온몸에 땀을 바르고 땀을 던지는 땀 싸움 외에 멜발에 구

멍을 뚫는 놀이었다. 고추를 세워 부드러운 멜발에 얹드려 땀에 구멍을 뚫고 성교의 흥분을 내는 것이었다. 마치 소와 닭이나 개들의 수컷이 암컷 위에 올라타서 하는 것처럼. 땀이 딱딱하면 손가락으로 뚫고 고추를 집어넣기도 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는 역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문학적 수사를 붙이자면 대지와 교접 따위가 되겠지만 그런 표현이란 그저 분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멜발에 가서 온몸에 땀을 바르고 신나게 놀아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글을 주문 받았을 때 쓰려고 했던 이야기이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앞서도 말했듯이 지금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쓰게 될 때가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다. 성적 경험을 다른 형식의 표현을 빌지 않고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생각만큼 재미가 없으니까. [11]

소설 불타는 대지

## 마비되어 쓰러진 '인간 정신'의 부활을 꿈꾸며

작가 이하천이 던지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나는 이 소설에서 마비되어 쓰러져 있는 '인간정신'의 부활을 꿈꾸어 보았다. 그것은 어쩌면 '여성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주인공 김상준은 자신의 심리에서 두 여성, 즉 음지를 대변하는 김경민과 양지를 대변하는 백상희를 양과 음으로 거치면서 영혼의 마비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으로 끌고 나갔다." — 작가의 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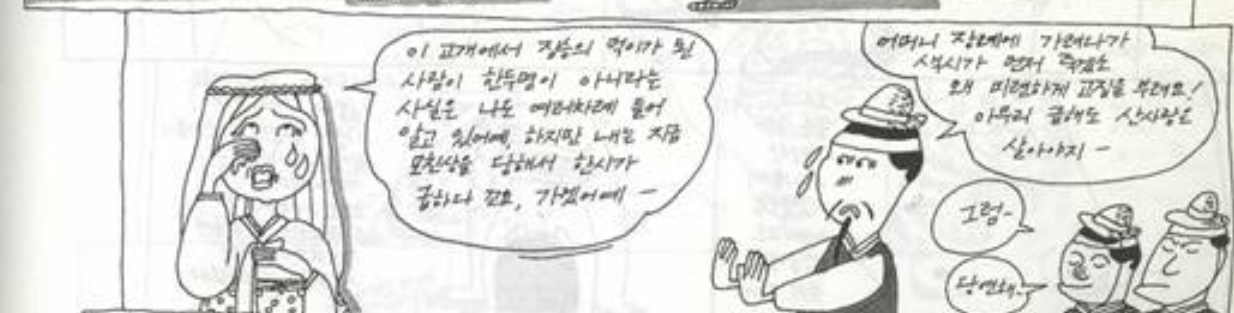
주인공 김상준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한 인물이다. 그 후 1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오지만, 세상은 여전히 돈과 인습이라는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진다. 이후 어느 시골의 외딴 집에서 상처받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상준은 자살을 기도하는 한 여성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녀를 구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김상준은 우울하기만 하다. 그러던 중 김상준의 대학시절 후배 백상희가 11년만에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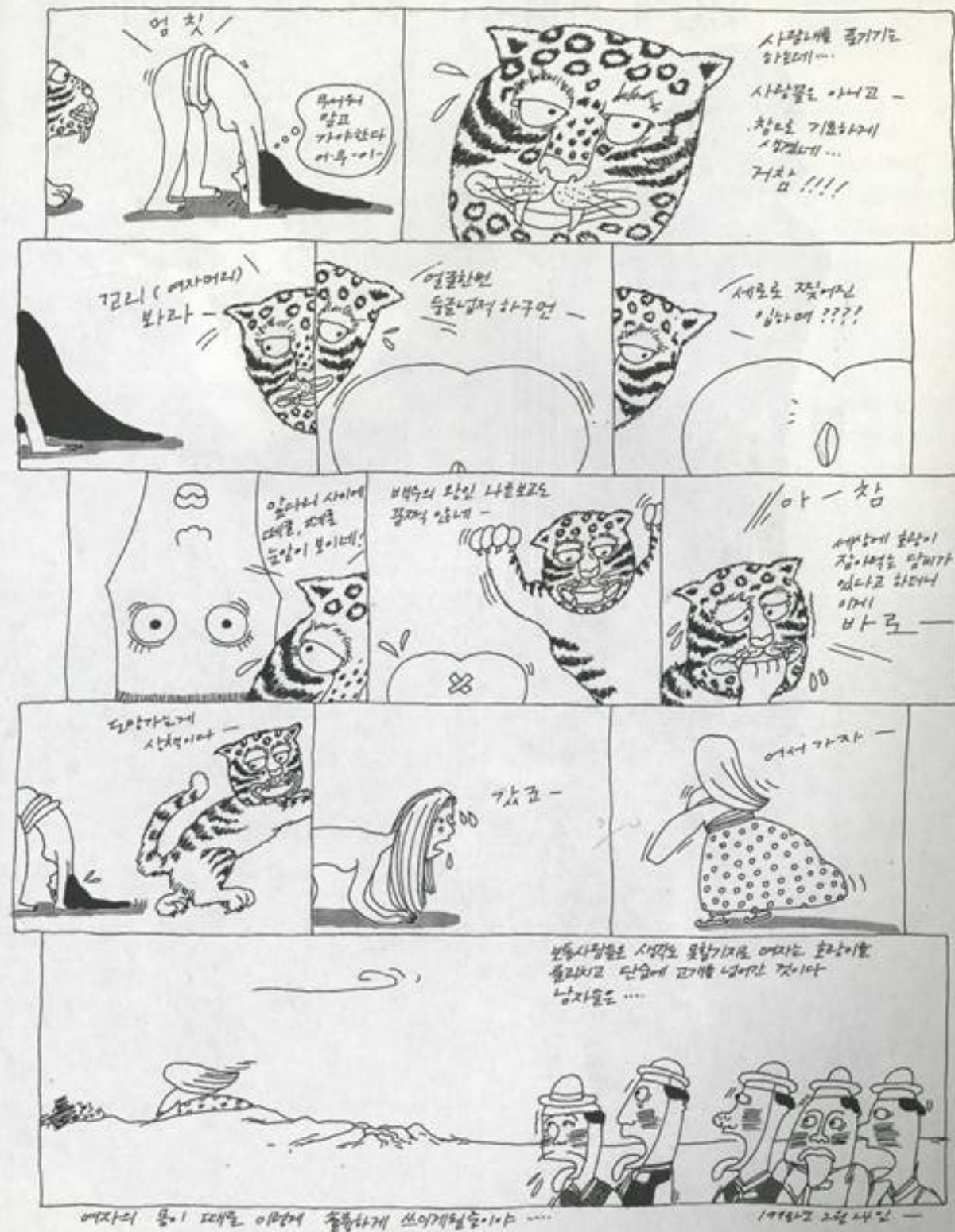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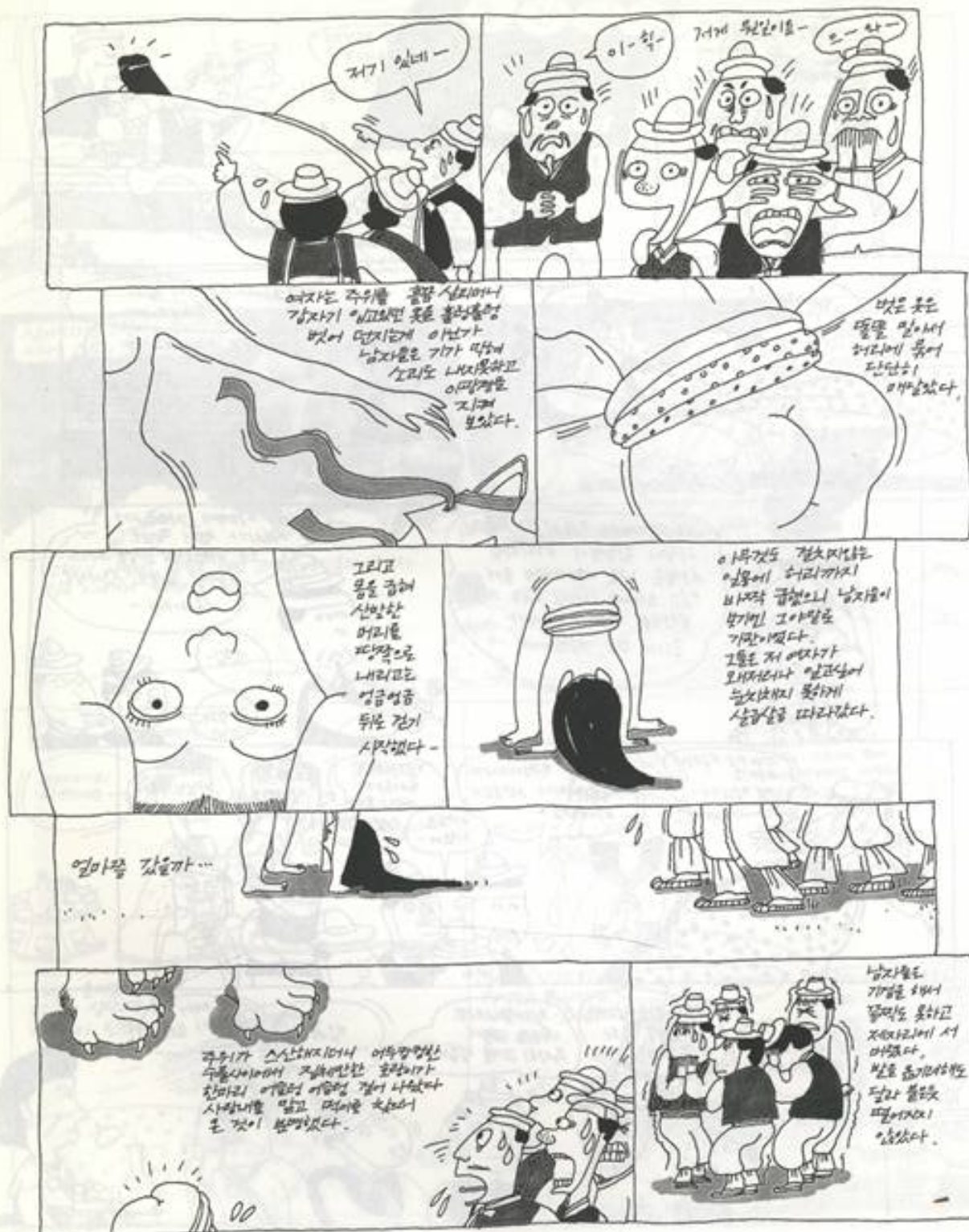
# 색녀열전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충남남도 봉곡의 신작재는  
충남도로 이문난 신이였다...





# 20대, 신인류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이미지극장의 종합예술가 이음



이음을 만나는 일은  
매우 두려웠다.  
71년생이라는 사실과  
예술가라는 사실.  
그가 해온 작업의 어떤 특징들이  
나를 한편으로 주눅들게  
한편으로 답답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0** 대들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20대인 70년대생들이라고 한다. 그들이 20대에게서 느끼는 낯설음은 민족, 나아가 종족을 초월한다. 같은 민족은커녕 지구에 사는 인간들 같지가 않은 것이다. 세대간의 이런 단절감은 거의 적의敵意에 가까운데, 40대는 30대의 수동적이고 명분주의적인 인생들을 이해할 수 없어하며 30대는 20대의 개인주의와 자유분방함을 용서하지 못한다.

## 내 나이 20대에 난 무얼 할거냐

그런 간극들은 너무도 당연히 사회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 것이다. 특히 20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매우 고유하고 복합적인 조건에서 말이다. 그게 왜 특히 10년이라는 단위로 묶여지는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그러한 간극들의 거리와 그로 인한 가치관 내지 철학, 태도, 감수성 등의 차이가 계급이나 성을 초월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든다.

8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30대들에게 지배적인 문화는, 그 전 세대들보다는 덜하겠지만, 역시 '문학'이었다.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지배적인 것이었다기보다,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문학적인 언어의 테두리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미술에 있어서도 관찰되었다. 미술창작자나 평론가나 감상자나 간에 시각적인 것을 문학적인 언어로 사고하고 바라보았다. 어쩔 수 없었을지 몰라도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니 이미지니 대중문화니 하는 말들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이 90년대이다. 이 시대에 청년기를 맞은 세대들은, 씩씩하던 뼈저린 변혁의 물결의 뒤끝에 드러난 크고 작은 욕망의 심에 정박했다. 이들은 전 세대의 반성(?)여부와 상관없이, 지나간 '스토리'와 단절되었고 무르익은 '이미지'의 심들 사이를 즐겁게 유람하였다. 이들의 문화는 영상이미지였다. 이들에게 '사연'이나 '나레이션'은 필요없었다. 영화와 광고를 비롯한 대중문화의 '순수시각적' 이미지 기능은 전 세대와는 사뭇 다른 시각적 색연필과 자유로움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세기말의 상황을 문자를 통한 설명에 의해서보다 암울한 색조에 의해 느끼고 표현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본격 시각이미지 세대들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교육은 대부분 제도교육 바깥(대중문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역시 대한민국의 후진 미술대학에서는 미래의 아티스트들을 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매우 새로운 신인류들은 '나는 나!'를 주장하며 '나'만의 새로운 감각으로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바디 드로잉-에우라디케와 올레우스) 1998  
이미지 시어터 Image theater의 첫번째 실험무대 '바디 드로잉' 2막 살아있는 조각 이음과 음악조립해체가 감동심이 이어지는 캔버스(무대)를 이미지와 소리의 총동로 채워가고 있다.

## 이름에 대하여

이름을 만나는 일은 그래서 매우 두려웠다. 71년생이라는 사실과 예술가라는 사실, 그가 해온 작업의 어떤 특징들이 나를 한편으론 주눅들게 한편으론 답답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눅들게 했다는 건 그의 뛰어난(신세대적인) 종합적 감각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추진력과 능력(그것도 아주 완성도 높게)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고, 답답한 건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통하고 싶은 것 혹은 그의 욕망의 기운기가 잘 파악이 안되는 데서 오는 갈증 때문이었다. 게다가 물론 그의 의도대로는 아니겠지만, 나이에 비해 '똥'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다(사실 음악이나 춤, 영화 등 여타 다른 예술분야보다 미술이라는 분야는 장르의 특성상 '똥'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름은 예쁘고 착하며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생각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를 보면 프랑스 감독 땡 베송의 영화 <제5원소>에 나오는 '절대선생'이 떠올려진다. 기존의 언어로는 대화가 불가능하며 한없이 천진난만하고 중성적이고 그 자체로 자족적이며 뜨겁고 심플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게다가 무한히 창조적이고 액티브한 '리루' 말이다. 물론 이름은 더욱 암전하고 신중하고 긴장되어 있다. 그는 한 선배작가의 표현대로 '가



<살아있는 조각>전에 전시했던 <두번째 옷, 두번째 육체>. 첫번째 옷이 우리의 신체라면 두번째 옷은 의상이다. 두번째 옷은 자기실현을 위한 표현의 행위이다.

늘고 팽팽한 선'이다. 그는 자신의 속에 있는 액티브한 에너지의 타래에서 실을 한 가닥씩 뽑아 거미처럼 가늘고 팽팽하게 자신의 예술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보여주기.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탈라라'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자기를 즐겁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기를 하는 이 작가는 다분히 신세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이나 '나는 나' 류의 선언은 아니다. 그에게는 차가움이나 냉소나 티프함이 없다. 그는 열정과 긍정성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다. 거미처럼.

## 이름의 작업

그는 이제까지 세번의 개인전을 치룬 바 있고 몇번의 단체전에 작품을 냈으며 한번의 공연을 가졌다. 그의 작업은 명실공히 매우 실험적이고, 모험적이며, 도전적이고 감각적이었다. 그의 작업은 시각, 촉각, 청각 등이 공간과 시간을 뛰어내고 충돌하는 종합예술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첫번째 개인전의 제목은 <빨간 플라우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빨간색으로 예술가의 영혼을 표현한 것이

다. 전시기간 내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그를 포함해서) 움직이거나 혹은 가만히 있거나 하면서 살아 있는 작품이 되었으며, 빨간 공간, 빨간 풍선, 풍선을 넣은 얼굴(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녹게 되어 있었다), 그의 빨간 소품들이 아주 강한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였다. 이 전시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기에) 바로 색깔, '빨간색'이다. 영혼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빨간색'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용기와, 또한 새로운 표현형을 실현시키는 힘있는 노동력에 감탄하게 만드는 전시였다.

두번째 전시 <살아있는 조각>에서는, 아크릴 혹은 동 같은 딱딱한 재료를 이용해 그가 직접 만든 옷과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라이트 보드)이 전시되었다. 사이키델릭하기도 하고 그로테스크하기도 하며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각을 보여주는 그의 '옷'들은, 그야말로 터미네이터나 로보캅에서 미적 감흥을 받은 세대의 상상 속에서 튀어나온 바로 그 핵심을



메디트로폴 - 튀어나온 것에 대한 관심, 1998. 호소를 친공한 이름의 전시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체의 튀어나온 부분과 그것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보여주고 있었다. 게다가 감각류의 껍질 같은 옷을 입은 살아 있는 조각들은, 전통적인 분류법에 따른 정체성에 제대로 대입이 되지 않는 묘한 분위기를 지닌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성별도 계급도 일련의 위계와 범주도 모호하다. 아니 아예 그런



〈하이웨이-기계물을 가진 새 아홉〉, 1997. "정신도 어떤 연체..." 하이웨이의 스피드 비결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것기에 이렇게 속삭인다. 하이웨이로 진입하거나 적당하지 못하는 나막한 것들의 몸부림을 통해, 현대사회의 '속도'와 '편견'에 대한 숙고를 시도한 작업이다.

유한 음악과 모노톤의 화면 속에서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신세대가 생각하고 느끼는 환경문제란 어떤 것일까? 신세대의 특징이 설명적이지 않은 순수시각적 감각인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표피적이라거나 단편적이라는 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아니어야 한다는 게 내 바람이다. 즉 어떤 깊고 예리한 통찰력이 아주 신선한 감각과 만날 때 진정한 감동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 말이다.

이러한 전시 이외에 무엇보다 최근에 공연장에서 행한 '이미지 썬어터' 작업은 그 성공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가 하고 싶은 예술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라이브 아트의 맥락에서 시작된 이미지 썬어터의 작업들은 예술가의 고유한 신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동감을 중요시하며 신체의 행위로부터 유발되는 여러가지 예술의 형태를 환원하여 강렬한 시각이미지로 해석해낸다. 즉 본격 시각예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음)

이는 그가 줄곧 추구해온 본격 시각예술, 고급 시각예술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그는 (대중문화의 반대편에 있는) 고급예술에 사람들이 열광하기를 바란다. 고급예술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잃은 이유는 살아 숨쉬는 감각과 생동감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음은 고급예술이 그것을 회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 한 시도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음악, 춤, 미술을 접목시켜 순수하고 새로운 '이미지' 그리기를 해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춤도 춤이 아닌 '드로잉'이며 이음은 '살아 있는 조각'이며 음악은 '색조'이다. 무대는 커다란 캔버스이며 그 안에서 이들은 때로 조화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면서 자유로이 선과 색을 창조하는 것이다. 음악이나 춤을 그 내부의 논리로 보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다소 어색하거나 불편한 무대였지만, 지금 대한민국 예술판에서 구멍난 곳이 어딘지 정확히 짚고 있는 이음의 판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기도 하였다.

#### 예술가의 욕망과 진실

이음이 가진 신세대답지 않은 '보수성(???)'은 '예술지상주의'에 있다. 그는 다분히 예술을 믿는다. 예술의 고유성, 힘,

구분이 해소된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다(그의 이러한 점은 매대롱의 광고사진이 구시대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것은 예술인가, 이것이 예술이라면 과격적인 요즘의 광고사진과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 지점이 이음의 숙제이자 예술의 숙제라는 생각이 드는 전시였다.

세번째 전시는 메시지가 비교적 분명한 비디오 퍼포먼스 〈하이웨이〉인데, 자유로이(自由路)와 난지도에서 행한 그의 퍼포먼스를 촬영하여 편집한 것이다. 자유로와 난지도가 상징하는 바로 그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이었다. 양철잔이 역시 딱딱한 재료의 옷을 입은 작은 새(이음)와 비리진 면도크림(그의 후배)의 퍼포먼스는 시종일관 암

#### 그의 작업의 외형은

매우 참신하고 섬세하나 작업에서 드러난 그의 욕망은 아직 단순하고 완만하다.

아직 닿지 않았거나

이미 해소되어버린 문제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성성에 대한 그의 무관심과 무감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영향력을 믿는다. 그가 생각하는 예술가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이며 꿈을 현실화시켜주는 마법사이며 생을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이너이다. 그는 예술에의 '훈련'과 '손 맛', 예술가의 오리진리티(독창성), 예술가의 유일한 영혼과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예술가의 체취가 묻어남,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작업들을 지향하며 그것이 부재한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그의 예술의 상대는 바로 대중문화이다. 대중문화의 세례를 받고 자란 그가 생각하는 예술과 대중문화의 변별점은 창작주체의 '영혼'이다.

여기서 다시 문제는 그 영혼의 각도이다. 앞서도 품었던 의문이 바로 이것이다. 그 영혼의 욕망과 진실의 기운기는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사기詐欺인가.

젊은 사람들의 작업에 일단 신뢰가 가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아직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겠다는 마음을 먹지는 못하는 데 있다. 이음의 바람은 자기 세대의 감수성에 충실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한편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아방가르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아주 예리한 예감의 기운기가 필요하다. 그의 작업의 외형은 매우 참신하고 섬세하나 작업에서 드러난 그의 욕망은 아직 단순하고 완만하다. 아직 닿지 않았거나 이미 해소되어버린 문제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성성에 대한 그의 무관심과 무감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작업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대한 예술가의 기본적 태도에는 당연히 그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표명되는 것이다. 물론 그 방법이 예전과는 달리 선언이나 강변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이음은 스케일이 크고 용기가 있고 반짝이는 감각이 있으며 추진력과 생산력이 뛰어나다. 그가 '예술'을 믿고 그 경계선을 끊임없이 고민한다면, 그래서 아주 예리한 예감의 영혼을 다듬을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그저 그를 바라만봐도 좋을지, 그러나 역시 예술가에게는 어려운 시절이다. 예전처럼 '사원'이나 '엄한 강함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않는 판국에, 예술가는 자신의 영혼을 어떤 방법으로 다듬어야 할까. 지금이야말로 천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11

#### 우연

비주얼 이미지를 크리에이티브하거나 리메이크하는 코리안 콰터럴 아티스트. 메인 스트림을 리팩트한 마이너 비주얼 아트 그룹 〈레드 우먼들〉 멤버. 레디컬하고 레플루세이션하고 파워풀하고 포스트모던하고 콘다스틱하고 이그노미하고 내츄럴하고 색시하고 예뻐한 아트를 도맡는 프리랜서 아티스트. 노 캐리어, 노 아내, 노 하우스, 노 간이지만 내비 마인드이며 노명류이다. 우화해하하...

## 자본주의, 쾌락 그리고 007시리즈

〈007 네버 다이〉 개봉을 계기로 '007' 다시보기



제임스본드 중에 가장 완벽한 본드로 알려진 존 코넬리 주연 007 영화 포스터.

**필** 자의 제한된 영화정보에 의하면 가장 긴 생명력을 가진 오락영화 시리즈는 단연 007시리즈이다.

최초의 007영화인 존 코넬리의 〈닥터 노〉(1962)부터 빼놓지 않고 18편을 30여년에 걸쳐 되풀이해 봐서일까. 필자에게 있어서 007영화를 본다는 것은 마치 지난 30여년에 걸친 영화와 세상살기의 변화를 뒤섞어 리와인드해서 돌려보는 야릇한 되새김질 같은 경험이기도 하다.

다 알다시피 007은 강력한 쾌락메카니즘을 가진 서구 오락영화의 모범적인 텍스트이다. 물론 그 텍스트를 만드는 이들은 남성이다. 동서냉전논리에서 태어난 007영화는 구 소련을 악의 세력으로 설정하고 영국 여왕폐하(Her Majesty), 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자본주의의 승리와 정당함을 입증하는 이 첩보물의 기본 내러티브는 자본주의의 정점인 상류사회의 쾌락과 남성이 욕망하는 본드걸을 등장시켜 이데올로기적 효과와 남성시선의 관능적 쾌락법칙을 따라간다.

게다가 매년 등장하는 장난감 같은 신무기와 놀라운 성능의 고급차, 속도감있는 액션 그러나 촌스럽게 피를 튀기는 것 따위는 하지 않는 세련된 액션, 그리고 상류사회의 파티장과 휴양지 또한 007영화의 스펙타클을 구성한다.

### 총과 여성이 연출해내는 쾌락메카니즘

007영화의 특성이기도한 세련된 이미지 전시장인 크레딧 타이틀에선 늘 총과 여성의 몸이 관능적으로 결합된 강력한 시선의 쾌락 메카니즘을 연출해낸다.

드라마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쾌락장치의 중심에 선 미남 신사 플레이boy 제임스 본드의 존재이다. 서구적 시선에서 가장 멋진 신사형 남성으로 보이는 배우를 대대로 제임스 본드로 캐스팅해서 그의 세련된 상류사회 매너와 여자몰리기 솜씨를 보여줘 여성관객들로 하여금 물신화된 본드걸을 보고 느끼는 불쾌감을 잊고, 오히려 본드걸들에게 동화돼 그를 욕망하도록 만들어내는

내러티브의 법칙은 여성관객을 소외시키지 않는 뒤틀린 형평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아무리 요염한 여자와의 정사중이라도 임무를 위해 과감히 여성의 몸을 밀치고 일어나는 그의 정의감과 사명감은 사랑(여자)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남성다움의 삶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영웅호색'이라는 남성질서의 법칙을 정확하게 수행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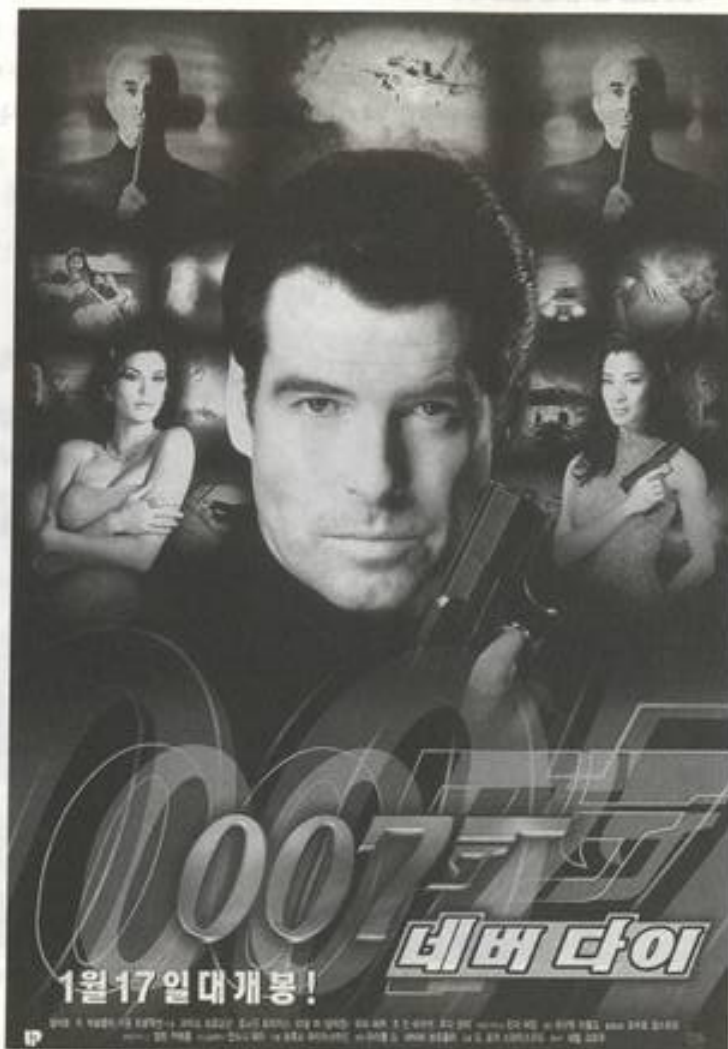
### 여전사로 변신한 본드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007시리즈는 80년대 후반부터 기본적인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에 봉착한다.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과 동서냉전논리의 와해, 게다가 이전 대중오락영화에서조차도 여성인권에 대한 배려를 보이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세상의 변화가 그렇다.

그리하여 90년대 007시리즈는 새로운 적의 개발과 본드걸의 변모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느냐에 성패를 걸고 있다. 구소련을 대신해 러시아의 무기밀매 마피아조직이나 아랍의 서구 적대적 세력, 마침내 최근판에선 미디어 독점으로 인한 미디어크라시가 새로운 적으로 등장한다. 다른 한편 본드걸은 일단 복수의 전략으로 과거의 물신화된 여성과 '다소' 주체적인 여성으로 과거의 쾌락장치의 보전과 현재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과거의 본드걸들은 가슴과 엉덩이가 부분 외모를 재산삼아 캐리커처한 게 물으로 남자몰리기였다. 심지어 이름만 봐도 그 면모가 짐작이 가는 '푸시 Pussy'나 '키시 Kissy'였으니... 그러

다가 90년대 이후의 본드걸들은 기본적으로 제임스 본드에 반해 그의 임무를 돕는 보조자인 것은 같아도 적어도 첼로 연주자나 컴퓨터 전문가, 그리고 마침내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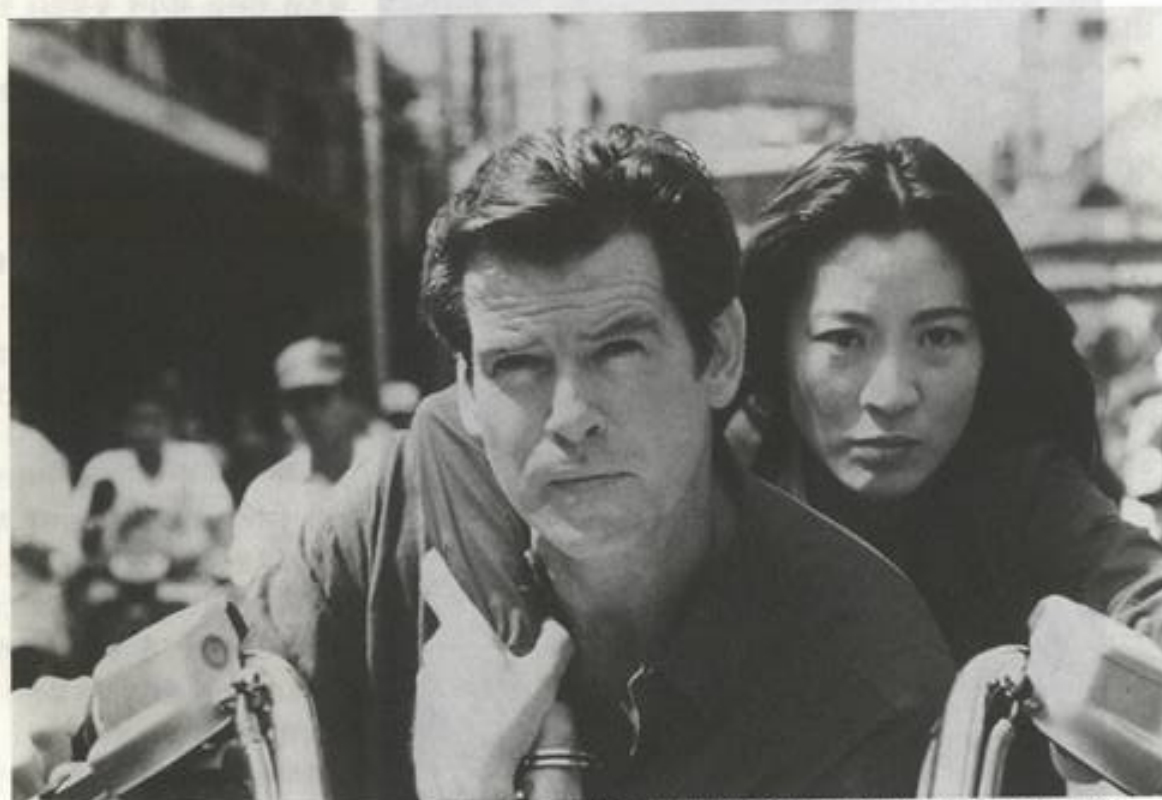


제임스 본드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육체로서의 여성, 또한쪽에는 총잡이 여성이 있다.

근 판에선 중국의 비밀 에이전시라는(제임스 본드와 같은 직업으로 격상했다) 식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이번에 바로 그 중국 에이전시인 〈엑스 마담〉 출신의 미셀 여(양자경)는 썩은 서구 자본주의를 욕하면서 적을 일당 백으로 때려눕히는 여 전사가 아닌가.

### “여자 말을 들어, 놀 옴으니까”

전통적으로 007영화에선 제임스 본드의 단골대사는 “나는 본드, 제임스 본드요”와 “마티니 스트레이트”였다면 이번엔 남성보스들보다 늘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여자보스와 미셀을 염두에 두고 “여자 말을 들어, 놀 옴으니까”(이 대사는 여



〈007 네버 다이〉에선 본드걸(양자경)이 제임스 본드(피어스 브로스난)와 같은 직업물 가진 인물로 격상했다.

러번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배변 정확하게 자막번역이 안되었다)가 추가되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제임스 본드의 차례이다. 여러 제임스 본드 중에 가장 완벽한 본드로 불리우는 손 코넬리에서(6편에서 주연), 한편만 하고 실력한 조지 리젠비, 세련미보다 야성미가 넘치는 로저 무어(7편), 박력이 없어 곧 폐기처분된 티모시

## 이정이어 느끼려

007시리즈의 인물들은  
유독 자본과 연결된 이름을 갖고 있다.  
일단 본드란 이름만 해도 그렇다.  
본드Bond는 ‘결합’이나 ‘연대’라는  
뜻과 동시에 요즘 한국의  
큰 관심사이기도 한 정크 본드니  
양키 본드니 할때 ‘채권’이란 뜻을  
갖는다. 그의 비서 이름도  
‘머니 페니’이다.



야성이 넘치는 연기의 로저 무어

달튼(2편)에 이어 마침내 제5대 본드인 피어스 브로스난(2편)이 90년대판 미남 신사 플레이보이 초능력 첩보원직을 꽤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피어스 브로스난은 본드걸의 변모와 통하는 면이 있다. 그는 TV 탐정물 〈레밍턴 스틸〉에서 여자탐정이 일거리를 따려고 가상으로 만들어낸 남자탐정을 자처한 인물인데, 제임스 본드 흉내를 내지만 과거의 제임스 본드 같은 플레이보이 캐릭터와는 달리 여자를 정복한다는 식의 사고는 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귀여운 남자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어쨌든 90년대식 여성에게 어필하는 강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본드걸 역할을 수행한 미디어 제왕의 아내이자 그의 옛 정부였던 여성을 단순히 이용하는 차원이 아닌 인간적인 연민까지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007시리즈에서 깊이있게 읽어볼 흥미있는 구석은 이 텍스트들이 보여주는 자본주의 예찬론이다. 007시리즈의 인물들은 유독 자본과 연결된 이름을 갖고 있다. 일단 본드란 이름만 해도 그렇다. 본드Bond는 ‘결합’이나 ‘연대’라는 뜻과 동시에 요즘 한국의 큰 관심사이기도 한 정크 본드니 양키 본드니 할때 ‘채권’이란 뜻을 갖는다. 그의 비서 이름도 ‘머니 페니’이다.

### 본드Bond는 채권?

〈007네버 다이〉에서 유럽을 기점으로 세계의 뉴스를 독점하려는 악당들과 싸우는 선한 편은 제임스 본드(영국)와 미셀 여(중국)이고, 미국은 제임스 본드에게 해저탐사장비를 제공하는 우호적인 보조자이며, 제임스와 미셀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 사이공 시내를 박살낸다. 그리고 이 액션에서 미셀이 007에 못지 않는 대 활극을 풍후식 액션으로 선보이지만 결국 상황은 제임스가 주도하고 위기에 처한 미셀을 구조한다. 그리고 임무가 완성된 후 제임스는 미셀과 키스를 나눈다.

겉으로 보면 세계평화를 위한 영국과 미국, 중국의 협력이지만, 그 속에는 앵글로색슨의 서구 자본주의의 승리담이 예고돼 있다. 단일 화폐와 노동시장의 통합이나 여타 유럽연합의 정책에 계속 비토권을 놓은 영국, 그리고 미국이 합심해서 서구 자본주의를 주도하면서 중국시장을 끌어들이는 이 놀라운—그러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시장의 전략은 세계평화를 위해 악당들을 물리치는 통쾌한 승리담에 은닉돼 있는 것이다.

내친 김에 리와인드 해보면 과거의 007영화도 영미가 주도하는 세계평화에 적대적 세력을 통제하고 세련되게 박살내는 첩보 승리담이지만 그 가운데는 늘 서구 자본주의의 향내가 풍기고 있다.

필자는 서구 자본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려고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가장 긴 생명력을 가진 오락영화의 모범적인 텍스트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쾌락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감개무량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 IMF식으로 007 다시보기

그리고 보면 본드걸의 존재는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남자가 주인이 된 시장에서 교환가치로서 여자가 거래되는 시장의 법칙은 007영화의 자본주의 예찬과도 당연히 연결된다. 돈있는 자, 권력있는 자의 여자가 제임스 본드에게 반해 본드걸이 되가는 과정은 사실 자본의 이동과정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변모한 본드걸을 맡은 양 자경은 과거의 본드 걸처럼 거래되는 화폐 같은 캐릭터는 분명 아니다. 그 대신 그녀는 홍콩을 되찾은 중국시장의 상징이 돼 제임스 본드와 키스를 나누며 중국과 서구 자본주의의 빅딜을 예고하는 기묘한 상징물이기도 하다.

혹시 어떤 독자는 요즘 세월이 하도 자본주의 경제책 새로쓰기판으로 짝이더니 007영화까지 너무 그렇게 본 게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맞는 말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떠난 영화보기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의미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혹시 독자 중에 그간의 007영화를 제임스 본드에 반해 세련된 첩보물을 보는 식으로만 대했다면, 다시 한번 비디오로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서 본드 걸이 이용되는 방식에 대해,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배경이 007영화라는 텍스트에 강박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을 찾아보면 영화가 다시 보일 것이다. 바로 이런 재미가 영화 꼼꼼히 보기의 쾌락이자 소득이다. **II**



유지나

본지 편집위원, 동국대 연극영화과 교수,  
영화 평론가.

# 여성이여, 느껴라 탐험하라

## 전여옥, 성과 몸의 자유를 말한다!

여성이 탁월한 의학적 대상이라고 믿는 여자와 성이 권력의 수단이자 여성 억압의 도구였음을 느껴온 여자가 만나 이 책을 썼다. 삶과 일은 달랐지만 우리는 여성의 권리가 그 귀중한 몸에서 비롯된다는 미움을 지니고 있었다. 이 책은 모든 여성에게 보내는 자유의 메시지이다. - 머리말 중에서



•체녀성의 이데올로기 •NO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낙태와 피임 •나는 왜 섹스를 하는가? •오르가슴과 라벨의 (불)례로 •첫경험을 위한 준비 •내게 맞는 피임법은? •강간을 당했을 때 대처법 •임신중절, 그 불가피한 선택 •엑스, 거짓말, 그리고 간통죄 •일하는 여성의 출산 적령기

• 전여옥 · 임정애 지음 • 신국판 / 값 7,500원

# 심리를 알면 궁합이 보인다

##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할까?

성격, 습관, 섹스,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 남녀의 심리적 특성이 부부관계와 결혼 만족도,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심리학자 최창호의 심리로 보는 궁합 이야기

부부, 연인의 심리궁합을 짚는 13가지 테스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심리학자 최창호 지음 • 신국판 / 값 7,500원 ▶신간

전화: 364-7871~3 **북경** **북경출판사**

연극배우 이주실이 개성있는 엄마 역을 연기한다

없이 그때만 해도 나는 나가 박사, 교수가 되고 서른살 넘으면 남매나 태어날 때 나를 좀 만났었더라  
하다못해 자립관람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었다. 그랬더라면 아마도 가도도 나는 한 나이고  
수집이 없었. 이, 가이가 미국 가서 자동차 박사가 돼가지고 태어나고 뭐 나있대  
아직, 언젠가는 선생이 변호사였을 거야...

일시: 4월 1일~5월 24일(월요일은 쉼)  
회수: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토 일요일 오후 4시, 7시 30분  
장소: 극장마녀(홍대에서 신촌방향 150m)  
가격: 일반 15,000원(단체 12,000원)/학생 10,000원(단체 8,000원)  
주부를 위한 놀이방 운영(금 오후 3시)

(마요네즈) 30% 할인쿠폰  
2인 1매 공연 마지막 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REVIEW



|               |                                                  |
|---------------|--------------------------------------------------|
| ENTERTAINMENT | 스타덤에서 팬덤으로<br>HOT, 안재욱 등 연예인 팬클럽 세력화             |
| MEN'S STUDIES | 남성학 서적이 먼지는 또 다른 문제의식<br>『남자도 사람이다』 등 5권의 남성학서적  |
| MOVIE         | IMF와 멜로드라마의 함수관계는?<br>〈접속〉, 〈편지〉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 |
| TALK SHOW     | 수다, 그 가벼움의 기본전환<br>이홍렬, 서세원 등이 진행하는 TV 토크쇼       |
| CARTOON       | 내가 아들을 좋아하는 몇가지 이유<br>이정애, 박화정, 유시진의 작품세계        |
| MUSIC         | 언더그라운드, 새로운 방식으로 물에 오르다<br>홍대주변에 등장한 클럽과 음반사업    |
| BOOK          | 히스테리아가 밝은 불의 책                                   |



인제대학교 MBC 방송대강에서 제이대 PC통신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십대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댄스그룹 H.O.T.

송하기 힘들다"며 방송을 했고 "차라리 방송을 때려치우라"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곧바로 떠올랐다. 이 사건의 탓만은 아니지만 그후 허수경은 방송을 중단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중이다.

요즘은 방송·연예 담당기자들조차 함부로 글을 쓰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 즉각 항의성 전화를 하거나 항의서명을 받아 보내기 때문이다. 어떤 가사가 문제가 되면 PC통신에 그 기사를 띄워 회람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같은 십대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종종 인신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양새를 띤다. 허수경은 진행자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지적을 했지만 MC 자

질도 없는 인물로 폄하되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프로그램을 없애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이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힘의 논리에 기대는 기성세대

의 행태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아니 기성세대의 눈에 그들은 잡었고 무시운, 비이성적 집단으로 비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들을 증신도집단쯤으로 간단히 치부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의 이런 열정과 집단행동 뒤에는 스타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만 돌아볼 수 없는 의미있는 변화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열성팬들이 자신의 우상에 대해 광적인 보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수들의 공연장에서 라이벌 관계의 팬클럽끼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이다 크고 작은 다툼으로 변지는 일은 아주 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끝나면 전부 퇴장해버리거나 경쟁그룹이 노래를 부르면 떠돌고 야유를 퍼붓는 팬들 때문에 공연진행자들은 공연에 앞서 '공연의 매너'를 강의(?)하기도 한다.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는 좋아하는 스타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까운 친구끼리 의를 상하는 일도 있다.

이런 것들이 스타를 숭배하는 마음의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감정의 표출이라면 HOT나 안재욱의 경우는 좀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응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단지 좋아하는 스타들에

최근 서태지와 아이들 팬클럽이 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기념 영상음악회>는 팬들의 대표적인 사례다. 은퇴한 서태지와 아이들을 추악하며 열린 이 콘서트는 영상자료와 서태지와 아이들을 그대로 흉내낸 팬들로 구성된 이미테이션 그룹이 나와 그들의 음악을 재연했다.

열광하고 환호를 보내는 데서 나아가 언론보도에 반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며 자신들이 또 다른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해내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안매체의 하나인 PC통신이 주요 장으로 이용된다.

최근 한 일간지에는 한 문화평론가의 기고문에 반박하는 HOT의 팬의 글이 실렸다. 문화평론가 P씨가 HOT 멤버인 강타의 대학진학에 대해 정례진 삶의 과정을 그대로 좇아, 파격을 기대했던 자신을 실망시켰다는 글을 기고한 것에 대해 HOT의 대학진학은 공부

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모범적인 연예인의 출연으로 바람직하다는 한 팬의 반론이 실린 것이다. 이 반론에 대해 예초의 문화평론을 옹호하는 또 다른 독자(혹은 팬)의 반론이 이어졌다.

문화평론에 대한 HOT 팬의 반론은 HOT는 무조건 정당하다는 전제 아래 쓰여져 평론가의 고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문화평론가의 지적에 대해 비전문가인 팬이 자신의 의견을 신문에 기고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스타덤에서 팬덤으로의 변화다. 스타를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옹호하고 소비하는 팬들로 구성된 기존의

스타시스템과 달리 팬(소비자)들이 직접 스타를 만들고 관리하고, 혹은 그런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들 태사자.

이때 소비자들은 단순한 스타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일부를 자처하며 권력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팬덤으로의 변화는 자본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관철되는 스타시스템 안에서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의 폭을 넓혀가는 중요한 변화로 지적된다.

최근 서태지와 아이들 팬클럽이 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기념 영상음악회>는 팬들의 대표적인 사례다. 은퇴한 서태지와 아이들을 추악하며 열린 이 콘서트는 영상자료와 서태지와 아이들을 그대로 흉내낸 팬들로 구성된 이미테이션 그룹이 나와 그들의 음악을 재연했다. 서태지 없이도 성공한 서태지

공연으로 비상한 관심을 끈 이 공연은 실제 스타는 부재하는 가운데 스타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한 팬들끼리의 이벤트만으로도 의미있는 문화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공연의 주체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라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고 추억하는 팬들이었던 것이다.

또 비록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은 사라졌어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여전히 즐기고 듣고 그들을 추앙하며 그들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는 팬들을 통해 그들의 스타성은 지속되며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연예산업이나 스타시스템 속에서 소비자의 위치를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연예산업의 한 축으로 팬클럽이나 팬집단의 비중이 커진 것일 뿐이지 팬이라는 존재가 연예자본의 한 하위요소로서 기능하는 지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팬클럽이나 열성팬의 경우 순위프로그램의 인기조작이나 경쟁자에 대한 악소문 퍼뜨리기 등 여론조작에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그것도 무보수로) 동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을 중요한 문화적 양식의 하나로 주목하는 것은

# 남성학서적이 던지는 또다른 문제의식

『남자도 사람이다』 등 5권의 남성학 서적

지금 남성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위선의 탈을 벗어버린 자본의 논리에 밀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그들에게, 돌아가 숨 마땅한 거처조차 없어져버린 지 오래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던 가족의 울타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순종과 인내의 미덕으로 포장됐던 여성차별에 대한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여성들의 도전으로 깨어졌기 때문. 살아있는 신화처럼 군림하던 가부장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수난시대'의 조짐들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사회에 남성에게 대한 학문적 탐구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남성학'이 그것. 아직 이름조차 낯선 남성학은 자칫하면 남성의 정력강화를 위한 사이버의 학점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지만, 70년대 미국에서 'Women's Lib'(여성해방운동)을 계기로 등장한, 엄연한 논리체계를 갖춘 학문이다. 몇몇 출판사에서 사회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남성학 관련서를 내놓고 있다.

남성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한 이들은 일본의 남성학자 이토 키미오의 『남성학 입문』(정재기 옮김/교육과

학사)를 읽어보자.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트루먼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을 결정했다. 제국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용징이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상식. 그러나 그는 용기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해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남성들이 '남성다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처럼 남성사회에서 '남자답게'라는 억압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온 남성들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한 저자는 남성학이란 '남성의 눈으로 남성사회를 비판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남성의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학문'이라고 정의내린다. 이제 남성들은 구태의연한 남성다움의 허세를 벗어버리고 '자기다움'과 '인간다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

'굴이 회수를 건너면 행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삶의 경관도 다르게 마련. 일본과 우리사회는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르다. 절기면서도 위압적인 한국적 가부장제를 여성학자들과 남성학자가 비판



박천호

『출판자』 기자. 때로는 존재 자체가 욕이 될 때가 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남자로 태어나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 누군가에게 상처일 수 있다고 누가 말할 모르기엔 참으로 난감하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무성(無性)으로 살고 싶다. 무성으로 무성의하게 살면 어디가 닮을까.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많이 비껴난 태도이다. 이들이 자신의 우상을 비호하는 일에 그토록 절박하게 집착하고 때로는 광적이고 폭력적인 열정을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처한 낮은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1]

댄스그룹 구피



여성그룹 SES

팬덤이 사회계층적으로나 성적으로 약자인 이들에게 사회적 세력화를 가능케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팬클럽의 주요 대상은 저연령의 여성, 학생이다. 이들은 계층·연령·성적으로 가장 권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무기력하고 개별적으로 흩어져 공적 영역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어 있는 이들이 팬클럽이나 집단적인 팬이라는 이름으로 사회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때때로 이들의 행태가 놀라울 정도로 가상 권력의 행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회적 권력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이들이 그 권력을 소유하려 했을 때 그것을 행사하는 방식 역시 기성의 방식을 그대로 좇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을 단지 철없는 집단주의자, 겁없는 캐권주의자 쫓으로 규정

# 신앙의정문 특구코 귀작인작사한성

적으로 고찰한 『남성과 한국사회』(여성한국사회연구소 엮음/ 사회문화연구소)와 『남자도 사람이다』(정재기 지음/ 집현전)는 우리시대의 일그러진 권위와 남성상을 비추주는 거울이다.

『남성과 한국사회』는 상징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한국남성들을 여성학자들의 시각으로 해부한다. 밖에서는 매춘으로 성적 쾌락을 향유하고 집에서는 여성에게 정숙한 '암탉'으로

화, 군대에서 청년들에게 남성우월의식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과정을 밝힌 「군대문화와 남성」, 광고 속의 남성문화를 분석한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남성상」 등 우리사회의 우울한 세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여성학이 여성도 인격을 갖춘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항변을 담고 있다면, 『남자도 사람이다』는 앞의 명제를 살짝 뒤집는다. 책 제목이



남기를 강요하며 온갖 허세를 부리던 남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좋았던 시절'을 그리며 대포집에서 술잔에 눈물을 떨구고 있지는 않은가.

이효재는 「한국사회와 남성 이데올로기」에서 남성들이 처한 위기는 여성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남성과 가정에 예측시킨 결과라고 진단하고, 양성평등의 인간관계는 궁극적으로 성차별적 우주관과 생명관을 극복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달라지는 아버지상을 추적한 「아버지상의 변

말하듯이 남성 또한 획일적인 남성이데올로기의 피해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여성다움의 명에서부터 탈출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듯이, 남성들도 남성다움의 억압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남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말한다. 「남성으로서의 맛있는 모습을 포기하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것,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것, 인생을 적극적으로 즐길 것, 그리고

남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울 것.」 이는 자신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란 누구나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닐까.

여성이 남성을 공격하면 통찰력, 여성해방, 독립심, 자긍심의 표현으로 평가받지만,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면 성희롱, 남성소비니즘, 공감협박이라고 비난받는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바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엘리즈 코츠의 『남자의 위기』(안종철 옮김/한송)는 과연 선진국답게 '선진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남성현실을 보여준다.

저자는 여성들처럼 공개적으로 남성권리회복운동을 벌일 수 없는 미국남성들의 고민을 말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이 과도하며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결론적으로 오해와 혼란으로 점철된 남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왕'과 '전사'로서의 강인함과 함께 '마술사'와 '연인'으로서의 온유함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에게 생물학적인 성의 의미가 없는 것은 그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책 볼스워의 『기묘한 선 남성』(송경숙·권영석 옮김/IVP)은 바로 기독교적인 남성상을 탐색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제 강인하고 거칠고 이치적인 전통적 남성상의 폐기압력에 직면해



남성들은 전통적인 남성이 되는 길과 양성적인 남성이 되는 길의 기로에 서 있다. 용이 입증했듯 각 사람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한다. 온전한 남성상의 화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독교적인 남성상은 남성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에게 내재한 여성성과 교류하는 것이다.

여성학의 문제제기와 도전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남성학 관련서는 그 분석대상과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남성들에게 지워진 점들이 여성들만큼이나 비겁다는 소박한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공격적 지배욕과 성적 억압의 천착없이 남성들에 대한 동정론을 유포시키고,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혐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각 계급에 따라 억압과 차별의 차원이 다른데도 남성과 여성을 하나의 실체처럼 뭉뚱그려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며, '인간다움'을 향한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할 때 인간해방이 가능하다는 남성학의 문제의식은 숙고할 가치가 있다. [1]

## IMF와 멜로드라마의 함수관계는?

〈접속〉, 〈편지〉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



변재란

## 변재란

영화평론가. 그저 일에 쫓겨 앞으로만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게으름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철이 든 걸까?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어디쯤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있다.

경제 위기로 온나라가 위기감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의 영화관객들은 그동안 버려두었던 '우리 영화'에 몰려갔다. 그 덕분인지 〈접속〉은 97년 한국 영화 흥행에서 선두를 차지했고 98년이 된 지금 〈편지〉와 〈8월의 크리스마스〉 또한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추세라면 98년의 한국영화는 멜로드라마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세련의 영화를 그저 멜로드라마라는 개념으로 묶어버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의 공통점과 차이를 발견하고 그것의 멜로드라마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신선한 체험이 될 것이다.

대체로 멜로드라마는 회고적이다. 그리고 성취될 수 없는 것을 꿈꾼다. 즉, 희망적인 정서는 좌절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멜로드라마에서는 끊임없이 가족의 의미를 강조한다.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현재와는 벽을 쌓은 채 살아가는 동현(한석규)과 짝



컴퓨터 통신을 통해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접속〉.

사랑에 가슴 아파하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수현(전도연)이 컴퓨터 통신을 통

해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접속〉은 이들의 스쳐지나가는 우연한 만남을 강조하는 데서 보듯이 우연이 어떻게 필연이 되는지를 '인연론'으로 설명한다. 이들의 만남은 사실 컴퓨터 통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떠나려는 남자와 기다리는 여자, 바라보는 남자와 '보여지는 여자'라는 도식을 유지한 채 결국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희망은 가능해진다는 쉬운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만남'으로만 본다면 〈편지〉의 환유(박신양)와 정인(최진실)의 만남은 환유가 정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기차역에 화분들을 내놓았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의지의 문제다. 기차역에서 그녀가 떨어뜨린 지갑을 전해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기차와 앞서거나 뒷서거나하던 끝에 결국 전해준다는 지, 결혼과 유학을 선택하기 위해 동전을 던질 때 둘 다 앞면(정인과의 결혼을 약속하는)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등 다분히 사랑은 의지이런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고아 같은 남녀의 사랑이야기인 〈접속〉처럼 두 사람을 고아로 설정함으로써 이야기가 철저하게 두 사



영화 〈편지〉.

람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족의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가족을 영속화하는 동시에 남성이 가정의 영역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지독한 성별분업 속에서 남성은 생산의 영역에, 여성은 재생산의 영역에 묶여있는

현실과는 달리 멜로드라마 안에서 남성은 직장이나 사회보다 가정에 더욱 오래 머물고 있으며 특히 이 영화 안에서 그것은 남성의 애정어린 배려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이 가정을 보살피듯이 남성들도 가정을 보살피기를 기대하는 여성들에게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이 땅의 남녀들의 시선을 주목시킨 영화들에서 남자들의 위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남자는 떠나려다가 되돌아오고 다른 남자는 편지로 남는다. 그리고 또다른 남자 역시 추억을 남기고 떠난다. 즉, 살아남는 자의 역할이 여성에게 주어진다.

그는 이상적인 남성이 된다. 더구나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병이 아내의 일에 혹 방해될까 염려하고 심지어 죽어서도 아내가 용기를 잃을까 미리 편지까지 써놓는다는 설정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우연히도 <편지>에 나오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에서 똑같이 영감을 얻었다는 <8월의 크리스마스>는 <편지>가 죽어가는 과정의 치절함으로 감정의 과잉을 끌어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담담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편지>가 행복한 가정에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죽음이라는 설정을 하는 데 비해 <8월의 크리스마스>는 남자 주인공 정원(한석규)의 죽음을 전제로 시작해서 죽음을 앞둔 당사자의 일상을 차분히 풀어간다. 그래서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30대 남자와 20대 초반의 소녀와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순정만화 같음에도 불구하고, <점속>이나 <편지>에서 보여지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진부함'이 퇴색한 이유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일부러 꾸미려고 하지 않은 미덕을 지녔기 때문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며 응시하는 정원의 직업이 사진사이며 그의 사진관 이름이 '초원사진관'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나날이 자라간 사랑의 종말을 사랑하고 그것의 무모함을 사랑하며 그것을 추억으로 감싸안는다. 한 때 자신을 사로잡았고 어느 순간 피로움으로 이끌었던 사랑이 추억이 되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아픔도 어느 순간 아무 것도 아닌 일상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은 죽어가는 그를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지게 하는 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친구를 만나서 술집에 자신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분노를 쏟아놓고 살아남을 아버지에 게 비디오 커는 법을 가르쳐주다가 이해 못 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그는 결국 비디오 작동법, 사진관 기기 사용법까지 적어놓는가 하면 어느 천둥번개가 치는 날 조용히 아버지 곁에 누워 보고 또 어느 날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조용히 흐느끼기도 하면서 죽을 앞에 놓인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뿐이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영정 사진을 찍으며 추억에 젖고 그 순간을

기억하고 남겨두려 한다.

<편지>의 사랑이 지극한 만큼 가족 이데올로기의 화신으로 '죽어서도 편지를 보내는 가부장제의 명령'의 모습을 띠며, 살아 있는 정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8월의 크리스마스>의 사랑 표현은 언젠가 찍었던 사진 한 장이 사진관 진열장에 걸리는 것으로 남게 된다. 공유했던 기억만이 역사로 남은 사진관 앞을, 아직 삶이 서툰 다림(심은하)은 언젠고 지나치면서 자신의 사진과 그에 얽힌 기억과 만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도 아니고 전혀 강제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약속으로 부담을 주는 것도 역시 아니다.

IMF 한파로 '정리해고'가 당연한 수순으로 예정된 가운데 용기 잃은 남편들의 기를 살리는 것은 아내/여자들 책임이라는 말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더 많이, 더 크게, 그리고 더 빠르게 라는 구호 아래서 그저 앞으로만 달려온 근대화는 이미 전 사회 영역에, 특히 남자들에게 불안を生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확대재생산되고 있을 즈음에 나온 세 편의 영화들은 개인의 일상사를 중요시

##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남자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하고 그 안에 바로 사회적 위기감을 매개한다. 이 점에서 최근 이 땅의 남녀들의 시선을 주목시킨 영화들에서 남자들의 위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남자는 떠나려다가 되돌아오고 다른 남자는 편지로 남는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역시 추억을 남기고 떠난

다. 즉, 살아남는 자의 역할이 여성에게 주어진다. 또 앞서 밝혔듯이 이 세 남자들



은 한결같이 이른바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터의 영역에서 떨어져 있거나 이른바 여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을 키우는 곳(<편지>의 환유는 수목원에서 일한다)에서 일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 차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바로 이 위

기의 시대에 남성들이 할 수 있는 타협의 한 지점이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들이 돌아가야 함은 물론 회복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가족과 가정의 가치의 확인이다. 이들은 한 여자는 언젠고 기다리면 서 떠나려는 남자를 붙잡으며 다른 여

자는 사랑의 힘에 기대어 남편과 닮은 아들과 함께 살아남아 그가 심은 나무에 기대는가 하면 살아남은 또 다른 여자는 잠깐 멈춰서 어느 여름날을 기억할 것이라는 환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II

# 수다, 그 가벼움의 기본전환

TV토크쇼 이모저모



김정복

1988년 생, 고교졸업 후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몇몇 편집사무실과 출판사를 거친 후 지금은 번역 프리랜서와 자유기고가를 하고 있다. 추억을 질책하는 것, 기억을 질책하는 것이 나의 생존과 존재문제가 되는 서론의 감을 막 낚았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20대의 무한정주 시절을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가고 그 추억과 상처의 흔적을 수다로 풀어낼 수 있는 여유를 위해, 내 삶의 속도를 재어보는 것, 무너지는 것과 다름 거라고 생각한다.

**얼** 마친 우리의 카툰세계를 보니 지 퍼게이트로 곤역을 치르고 있는 클린턴 얼굴을 온통 루즈 자국으로 먹칠을 해냈다. 카툰으로 그려진 클린턴의 울상짓는 표정이 불만했다. 그동안 이런저런 성추문으로 곤궁에 처했던 클린턴이 요리조리 잘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임기응변에 능한 말솜씨 덕분이었다고 한다.

말 잘하는 귀신은 때깔도 곱다?

이번 경우에도 문제의 여성과 정신적 관계였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오리발 내미는 재주로 위기를 모면할 정도면 걸말과 속 뜻을 비벼대는데 실력이 여간이 아닌 것 같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은가, 뻔히 알고도 넘어가는 순간.

그러고 보면 말 잘하는 것도 재주다. 말 많으면 말이 많다고 용전함을 미덕으로 알았던 시대는 전설이 될 만큼 요즘 TV채널마다 밤이고 낮이고 말잔치가 한창이다.

맨처음 토크쇼라는 이름을 달고 시청자들을 말잔치로 끌어들이는 게 자니윤쇼일 것이다. 오랜 외국생활로 인한 어눌한 말투의 자니윤과 꺼방한 스타일의 보조MC 조영남이 초대손님에게 깃꿎은 편지를 먹여가며 중간 중간 야한 음담까지 곁들였던 그 프로는 인

기인들이 한번쯤 통과의례로 거쳐가고 싶어 할 만큼 히트를 쳤다.

주로 한창 뜨는 스타들의 근황이나 유명인사의 성공담 내지는 스캔들 주인공의 재미난 에피소드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적당히 꼬아서 양념으로 없었던 토크쇼는 잠자리에 들기전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폭소를 안겨주었다. 안방에서 훑어보는 스타들의 이모저모는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무명시절 고생담은 누구나 고달픈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위로도 되었다. 게다가 보너스로 주어지는 야리꾸리한 이불 속 이야기는 베틀타이밍 불쏘시개로도 안성마춤이었고 목소리를 낮춰가며 은밀하게 주고받던 성적인 대화를 공개석상에서 드러내놓고 깔깔대며 즐길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순간포착 센스, 마담기질

사실, 일대일의 대화를 벗어나면 얘기가 공중에 떠서 썰렁해지기 쉽다. 셋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방사상 관계에서는 누군가 민첩하게 채널을 조절하는 리모콘 역할을 해야 자리가 어색해지지 않는 것처럼, 토크쇼의 경우에도 초대손님과의 주파수 조절은 얼굴마담의 말재간과 적절한 공감대를 짚어내는 순간포착 센스에 달려있다.

이색적인 포맷으로 시선을 끈 자니윤쇼가

진행자들의 잦은 오버액션과 다소 방만한 태도로 인해 구설수에 오를 무렵 북북튀는 애교로 출근길 직장인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라디오 DJ 이숙영씨가 경쟁 프로에 투입되었다.



SBS &lt;이혼열 쇼&gt; 아침 레스토랑 코너에 초대된 이숙영과 이혼열

화끈한 어법의 애침기질과 람바다 춤으로 시선을 끌었지만, 여성 진행자로서의 섬세함과 유연성을 살려서 자근자근하고 깊이 있는 진행을 보여 주길 바랐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 쇼맨십이 강한

이숙영씨가 흡사 살롱 마담 같은 분위기로 끌고가는 느낌이었고, 카메라를 의식한 탓인지 진행자가 뛰어버리는 역효과를 낳은 것 같았다.

다음으로 주병진쇼나 김한길쇼, 임백원쇼, 이주일쇼, 밤으로 가는 쇼 등등 새로운 얼굴 마담들이 속속 등장했다. 교체되곤 했는데 주병진쇼나 이주일쇼는 토크쇼라기보다는 개그쇼에 가까운 정도로 재미나 말장난으로 시간을 때울 때가 많았다. 초반에는 반박하는 유머감각과 재치로 자꾸함은 덜었지만 초대손님들과 길도는 우스개소리나 뻔한 흥보성 멘트로 자기들끼리 주먹 밀며 친목과

티 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선호한 방식은 김한길쇼였다. 초대자에 대한 적절한 질문과 거기에 상응하는 멘트로 초대된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진행자가 초대손님과 짜고 치는 봐주기식 선전토끼쇼 수준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대화 자세를 살리려고 노력한 프로였다. 하지만 진행자의 대면대면한 말투나 일체의 눈요기거리를 제거한 단순한 포맷, 그리고 대화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초대손님의 빗나간 답변 등이 뭔가 조미료 짝짝 들어간 자극을 바라는 시청자들에게는 딱 지루한 느낌을 주었는지 끝이나 쓰지 댔 토크쇼? 하는 무릎을 들기도 했다.

제일 재미없는 토크쇼 중 하나는 밤으로 가는 쇼 같은 방식이었는데, 노련한 경력의 고참 MC인 임성훈과 미녀 보조MC 그리고 출렁이 역할을 하는 조형기나 다른 개그맨 등으로 이루어진 밤뽕진행형은 초대손님이 누구이건 별반 다를 것 없는 질문이나 분위기 유도, 스캔들과 신변감각식의 진행으로 짜증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음식남녀와 수다

요즘 들어 경제불황 탓인지 재작비가 덜 든다는 토크쇼가 일주일 내내 편성되어 있다. IMF시대가 I'm fired라는 유행어로 번지면서 밤이 두려운 임포시대라는 유머도

때로는 삼류 연예잡지나 스포츠 신문에 실린 유치한 재미 이야기가 일상의 나른함을 잊게 해주듯이 적절한 수다는 일상의 짜증을 덜어주는 청량제 같다. 한없이 무거운 인생잡언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볍게 발장단을 쳐대며 늘어질 여유도 필요한 것이다.

나왔지만, 이런 불황에도 정력적으로 잘나가는 토크쇼 주자가 이홍렬쇼와 서세원쇼이다. 이제까지의 토크쇼가 주로 앉아서 문답



KBS2 (서세원의 하우스쇼).

식의 주고받는 대화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수다와 요리를 연결시킨 이홍렬쇼의 포맷은 참 신선했다.

열집 아줌마 같은 소탈하고 수다스러운 인상의 이홍렬이 앞치마를 두르고 초대손님과 참, 참, 참 요리준비를 하면서 퐁퐁퐁 입방아를 찧는 광경도 볼만하고, 중간중간 초대손님과 시청자가 공감할 만한 메뉴의 이럴 경우 저럴 경우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이홍렬쇼의 묘미는 무엇보다 1부, 2부 막간을 이용한 'I'll be back'의 코믹연기에 있다. 기상천외한 분장으로 'I'll be back' 하는데 채널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한 친구가 이홍렬쇼의 성공은 눈물겨운 이 막간연기에

있다고 할 만큼 작은 찌투리시간도 놓치지 않고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이홍렬쇼의 매력은 이홍렬의 만학도로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가식없는 순진함에서 나오는 것 같다.

지난번 최화정과 유희열, 지누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아내와의 첫키스의 추억을 고백하다 무안해하던 이홍렬의 표정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게다가, 초대손님들도 감추기 싫은 대화가 아닌 솔직한 자기 표현으로 개운한 느낌을 준다. 신인배우로서 초대된 추상미씨의 경우, 애인 있냐는 질문에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솔직한 의사표시를 하면서 아버지 추송웅의 후광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까지일 뿐 결국 자기 할 나름이라는 소신있는 태도를 보여줘서 유쾌했다.

특히, 신혼여행 첫날밤 직전의 샤워 장면에서 출연자들이 미래의 배우자에게 애정고백하는 장면은 나라면 어떤 말을 준비할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비교해 보게 만든다. 하지만, 2부의 콕테일바는 좀더 담소를 즐기는 진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나믹한 편지를 날리려고 재미 자체에만 치중한 인상도 없지 않다. 그래도 유쾌한 이홍렬쇼에 별점 4개쯤 줘도 성별 사람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포맷으로 화요일의 서세원쇼가 따라잡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정출연으



SBS (아주열의 투나잇 쇼).

로 보이는 주병진·이경실·김홍국권의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로 출연정지를 당했던 김홍국을 주병진과 이경실, 서세원이 합세해서 물어치는 장면은 배꼽 잡게 만들었다. 거기다 궁지에 몰린 김홍국이 주병진의 팬티사업을 후원한다는 스펀지 쿠키의 장본인을 두고 팔-팔-치고 들어오는 데는 폭소 그 자체였다.

하지만, 왠지 경박해 보이는 서세원의 정중거림과 초대손님과 진행자가 서로 막나가는 분위기가 채널을 돌리게 만든다는 점도 있다.

#### 유머 속의 페이스

사실, TV토크쇼라는 게 그냥 웃자구요. 라든가 그랬다더라, 는 호기심 충족의 시간 때우기용인 경우가 심상이다. 하지만 간혹 초대손님이 보여주는 솔직하고 과감한 자기 고백은 한 편의 영화나 책보다 더 진한 감동을 준다.

꽤 오래된 기억이지만 늘 일정적인 에너지로 팬들에게 활력을 주는 가수 윤복희씨의 경우, 불우했던 어린시절과 불행했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낙태경험에 대한 후회, 나중에 신앙생활로 얻은 기쁨과 안정에 대한 인생역정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의 굴곡 많았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행착오를 덜어주는 징검다리 가 되었으면 한다는 솔직한 자기고백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 공감대와 공감대

유난히 대화에 집착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와의 통화는 늘 통탄타임으로 시간을 잡아먹기 일쑤지만 수화기를 놓고나면 무료함과 권태가 사라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차분해진다.

난 말이지, 유머감각 없는 남자는 별로야. 그런 남자는 섹스도 못할 것 같아. 친구의 이런 말에 하기사, 말이 통해야 몸이 가겠지 하면서 웃어제긴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클린턴의 왕성한 정력도 유머감각에서 나오는 건지도 모를 일이다.

섹스도 무언의 대화이고 보면 서로 대화 리듬이 맞아야 한다는 얘기일 게다. 때로는 삼류 연예잡지나 스포츠 신문에 실린 유치한 재미 이야기가 일상의 나른함을 잊게 해주듯이 적절한 수다는 일상의 짜증을 덜어주는 청량제 같다. 한없이 무거운 인생잡언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볍게 발장단을 쳐대며 늘어질 여유도 필요한 것이다. [11]

# 내가 이들을 좋아하는 몇가지 이유

이정애 · 박희정 · 유시진의 작품세계



## 한상정

88년생. 학부 예술학과와 미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시각적인 대중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 많은 예술가. 6개월이 된 딸 예은이와 함께 부산으로 낙향하여 3대에 걸친 장녀의 역할을 형성하여 어머니의 배려하에 만화책도 읽고 공부도 하며 마구 행복함.

‘모순을 극복하는’이라는 말에는 80년대의 향기가 따라다닌다. 꿈꾸었던 아주 커다란 변혁과 함께 등장하던 말이었다. 비록 꿈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대립되는 요소들이 하나의 결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은 일종의 힘을 발휘한다. ‘배력적’이라는 힘이다. 그럼처럼 보아도, 또는 대화만 읽어도, “아, 누구 작품이다” 하고 깨닫게 하는 고유의 향기를 지니면서도 그것이 독자들에게 무사히 전달되는 일종의 보편성의 획득. 그리하여 필자 같은 중독성 환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석자만 보더라도 무조건 책을 빼들고 집까지 모시고 오게 하는 엄청난 권력을 발휘한다. 평소 열려 맹신하는 작가들 중 이번 호에 등장하는 이 카리스마 소지자들은 이정애 교수, 박희정 교수, 유시진 교수이다.

이정애는 엄청난 이야기꾼이다. 『열왕대전기』는 지금까지 13권을 돌파했다. 일단 이만해도 흔치 않은 일이다. 장편을 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루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이야기가 커야 하고, 다양한 인물에 다양한 성격을 부여해야 하며, 갖가지 상황을 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세기말에 이르러 인류구원을 둘러싼 왕들의 전쟁 이야기.

심상치 않은 감을 잡고 들여다보면, 갖가지 용어와 개념, 재치와 유머가 빼곡이 차있다. 최소한 두번은 읽게 되는 이 작품은 일단은 이야기 전개가 궁금해서 허겁지겁 읽고, 그 다음은 박학다식에 탄복하며 각 상황을 천천히 즐기며 음미한다. 결코 시간때우기에 적합하지 못한, 일종의 인문학적인, 예술적인, 오락적인 교양서적이다. 정 심심하면 친구랑 ‘이 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서로의 상식과 지식을 열람해보는 수도 있다.

게다가 얼핏보면 ‘뭐 이런 그림이!’ 할 정도로 못 그린 것 같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나름의 미학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약간 그로테스크하며, 애곤 슬레의 아주 예민한 인물들과 비슷하게도 보인다. 이런 그림체는 그녀의 위트와 다양한 지식을 표현하는 데 어울린다. 그녀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언제나 남성이며 여러가지 형태의 남성 사이의 애정이 등장한다. 흔하지 않은 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정애는 여성을 표현하는 것보다 남성을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는 결론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아카데미한 지식과 동성애적 취향에 더 어울릴까? 그럴 것 같다. 여기는 남성우월문화구역이니까. 기존문화에 찌든 내가 어찌 그녀를 차버릴 수 있겠는가.



박학다식한 작가의 취향이 엿보이는 이정애의 『열왕대전기』(위).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교류를 보여주는 박희정의 『호텔 아프리카』(아래).

박희정의 『호텔 아프리카』는 결코 만화방에서 보면 안된다. 진짜다. 바로 내가 실패사례. 아마도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라고 응수했던 작가일 것이다. 만화방의 약간 떠도

는 듯한 분위기는 그녀의 작품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녀의 작품은 혼자 조용히 음미해야 하며, 다 보고나서는 아무말 없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누군가에게 편지라도 쓰고 싶은 그리움의 시간을 만든다. 따뜻해진다...

이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무엇인가를 잃은 사람들이며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에 상처없는 인간이 어디 있으랴. 잃은 것은 남편이기도, 어머니기도, 애인이기도, 자식이기도 하며, 변방으로 쫓겨난 유색인종이나 동성연애자의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다. 거기엔 생채기를 내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메우는 것도 사람이다. 마치 신영복의 『검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는 듯하다. 하나의 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타인들과 따뜻한 교류를 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 꼬마 엘비스와 청년 엘비스가 흐르는 물처럼 이들 사이를 연결해주고, 영혼과 교류하는 인디언 지요가 꿈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수필 같은 가벼운 터치로 때로는 긴 이야기로, 때로는 시처럼 짧은 영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 삭막한 구제금융시대를 떠나 풍요로운 상상의 세계에 데려간다. 게다가 그녀는 정말 잘 그린다. 감성의 미묘한 전달에 잘 어울리는 인물들의 다양한 자세, 그 감성에 어울리는 섬세한 배경과 분위기 설정, 정확한 뎡생력, 심지어 아이나 노인, 아저씨까지도 잘 그려낸

다. 이러한 회화적 능력이 그녀의 감수성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며 교주의 자리에 있게끔 해주는 것이리라.

유시진의 『마니』는 처용설화에서 따온 이야기이다. 처용은 부인의 외도에 대해 “...두 다리는 내 다린데 두 다리는 뉘 다린고”라는 가사를 남기고 떠난 설화 속의 인물



이다. 나와 내 친구들은 그를 시시결렁한 농담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지만, 유시진은 『마니』 안에서 형제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하는 운명을 피해 인간족 사이로 도피한, 또 배신당한 사랑에 처연해하며 다시 바닷속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난 용왕족으로 부활시켰다. 바

로 이 차이가 창작자가 되지 못하고 옆에서 떠벌이는 오늘의 내가 탄생한 이유리라. 무심히 지나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작력. 예고, 부러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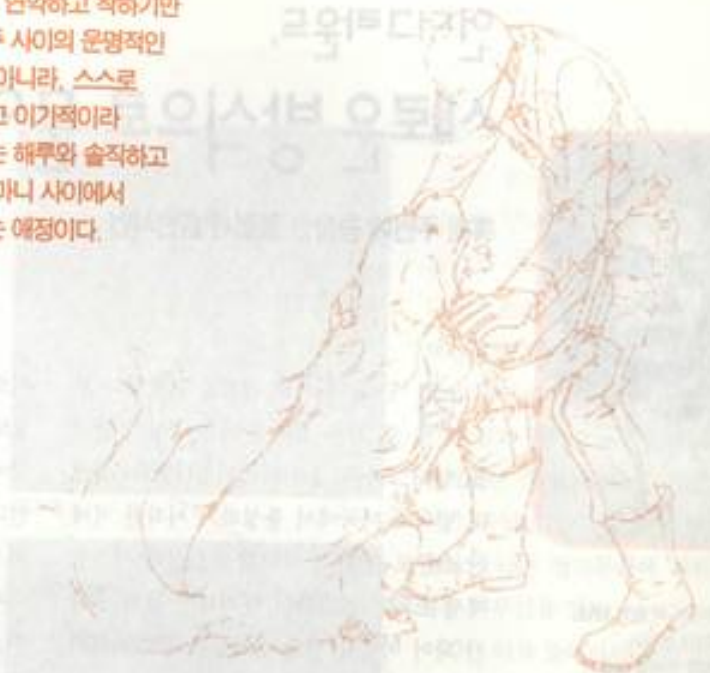
유시진의 작품이 매력적인 이유는 독특한 주인공과 그에 어울리는 그림체 때문이다. 싸움을 피해 인간족 사이로 도피한 용왕녀인 ‘마니’와 그녀를 보호하는 주술사 ‘해



전형적인 남녀 주인공의 둘을 그린 유시진의 『마니』.

루’. 전형적인 공주와 기사라는 틀. 그러나 이 공주는 일반적인 공주족과는 전혀 다르다. 논리적이고 자신을 담담히 적시할 줄 알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열정적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화로 자신을 이해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고, 삶을 개척해나갈 용기도 갖고 있

마니의 여주인공과 해루의 애정관계는 ‘강하고 선한’ 기사와 ‘연약하고 착하기만 한’ 공주 사이의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나약하고 이기적이라 생각하는 해루와 솔직하고 용감한 마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애정이다.



유희정의 『호텔 아프리카』 중의 한 장면

다. 게다가 이 둘의 애정관계는 ‘강하고 선한’ 기사와 ‘연약하고 착하기만 한’ 공주 사이의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나약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해루와 솔직하고 용감한 마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애정이다. 유시진은 오늘날에 적합한 당당한 여주인공을 탄생시켰다. 여기에 맞게끔 그림체도 한번에 쉽게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도 마치 여러번 그은 것처럼 단정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단아하고 절제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유시진만의 이러한 아우라가 열혈독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예고, 힘들어라. 사실 좋아하는 데 이유

를 단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도 애정을 가져주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면 이 까짓 고생쯤이야. 이 작가들을 따듯한 시선으로 지켜본다면 많은 행복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듯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하리... 11



### 김옥주

주인지 '서울아!의 음악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다루는 수험생 잡지 '팬진 Gongu'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음악 평론가 내지 칼럼니스트라기보다는 맥아티스트임을 자처하는, 그래서 작년 5월 명동과 홍대거리에서 열렸던 '스트리트 펑크쇼'를 최근 들어본 일 중 가장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 언더그라운드, 새로운 방식으로 물에 오르다

홍대 주변에 등장한 클럽과 음반사업

최근 들어 신문, 잡지를 뒤적여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수상한 단어들, 언더그라운드, 인디레이블(1960~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융성하기 시작한 저예산 소규모 음반사, 메이저 음반산업 시스템에서 소외된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이 주체가 되어 비주류 장르 음악들을 음반화하기 시작했다), 클럽.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벅지>처럼 변태적인 냄새를 풍기는 밴드가 있는가 하면 <청년단체>, <삼청교육대>, <새마을운동>, <바른생활 사나이>처럼 건전한(?) 이미지를 내세운 밴드들도 있고 또 <그때 그놈>, <내 귀에 도청장치>처럼 괴상한 이름의 밴드들이 궁금증을 도발하기 시작한다. <불타는 화양리 쇼바를 올려라>, <결혼한 애인 교통사고사 비관자살>, <개나소나말이나심지어 기린이나>, <어제 생긴 밴드>, 이쯤 되면 뭔가 다른 세상이 펼쳐져있을 것 같은 홍대부근 신촌의 클럽가에 대한 호기심은 극에 달한다.

화려한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말쑥하게 단장하고서 매끈매끈 다듬어진 말쑥씨, 춤숨

씨로 브라운관을 주름잡는 여의도 중심의 오버그라운드 가수 촌락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지만 홍대, 신촌을 중심으로 한 언더그라운드 동네는 분명 매우 다른 음악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펑크록 클럽인 드럭을 비롯해 스팅글, 제머스, 플링스톤즈, 하드코어, 언더그라운드, 록월드, 프리비드, 마스터플랜, 스팅, 땡 그리고 다시 오픈할 예정인 블루데빌까지 10여개의 클럽들이 산재한 이곳에선 화려한 조명, 명, 피켓을 앞세운 오빠부대의 환호성, 고주파의 위력 대신 조악한 음향시설, 작고 초라한 무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50여개의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이 음악과 꿈을 키워가는 중이다. 94년부터 하나 둘 홍대 신촌 지역에 들어서기 시작한 클럽, 밴드들이 만들어내는 언더그라운드 록문화는 원래 예술가들의 거리였던 홍대 앞의 주변부 문화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묘한 색채를 가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드럭의 5개 펑크 밴드들이 주인공으로 나서 96년 5월 홍대와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펑크 록 페스티벌 '스트리트 펑크쇼'를

촉발점으로 지상세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언더그라운드는 97년 들어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개방적인 클럽 연대', '아름다운 밴드 연합' 등 조직적인 틀까지 갖추면서 자체의 인디레이블을 설립,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기 시작했다. 클럽과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의 지지자들을 규합해 새로운 수용자층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잡지 형식의 팬진(fanzine: 팬과 매거진의 합성어, 팬클럽이 주체가 되어 자신이 지지하는 뮤지션의 소식을 담아내는 소규모 잡지), 웹진(webzine: 인터넷상에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잡지) '공'도 지난해 6월 창간되어 언더그라운드 음악계의 소식을 알려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공'은 잡지를 발간하는 일 이외에도 <방말 달리기>라는 이름의 클럽 공연을 매달 기획하고 대학과 언더그라운드 진영과의 연계점을 찾아나가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는 일종의 동아리로 언더그라운드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문화집단이다. 누구나 제각각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는 고등학교생부터 30대까지 30여명의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Tel 336-7285).

'스트리트 펑크쇼'의 성공에 힘입은 드럭이 96년말 <아우어네이션 Vol. 1>

core#0  
Odor



코코어



프리카 칼로



노브레인 위퍼 (아우어네이션 Vol. 2)

이라는 크라이너트, 옐로우키친의 유니버스 음반을 발매하면서 물꼬를 튼 저예산 인디레이블은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적 성과를 결산하고 세상에 알려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다. 초저예산으로 제작한 <아우어네이션 Vol. 1>은 유통에서도 많은 난항을 겪었지만 클럽과 공연장을 중심으로 1만장이 판매되는 경이를 낳았다. 지난해 세계적인 음악업계지인 '빌보드'가 홍대 앞의 유난한 펑크문화에 대한 특집 기사를 다루었을 정도.

97년 여름 들어서서 제머스가 제2호 클럽 레이블로 도약하면서 고스락, 핫도그, 내 귀에 도청장치, 청년단체, 아무밴드, 허벅지 등 10개 팀이 참여한 유니버스 앨범 <록담의 울음소리> 발매로 본격적인 클럽레이블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면 98년은 바야흐로 인디레이블 전성기. 드럭이 노브레인, 위퍼의 유니버스 앨범 <아우어네이션 Vol. 2>와 크라이너트 특집 앨범을 발매하고 플링스톤즈와 하드코어가 유니버스 앨범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만 20여개의 인디레이블 앨범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제머스는 고스락, 내 귀에 도청장치 등 5개 밴드들의 싱글 앨범을 제작, 매달 한장씩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저예산 인디레이블들은 드럭, 제머스, 롤링스톤즈, 하드코어처럼 클럽에서 레이블로 자생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버로스, 킹의 보컬 권병준과 그 친구들이 모여 만든 '강아지 문화예술', '황신해 밴드'와 '어어부 프로젝트 밴드' 등이 중심이 된 <도시락 특공대>처럼 음악 색채가 비슷한 음악인들이 모여 레이블을 만든 경우도 있다. 강아지 문화예술은 지난 해



클립레이블 '드럭'에서 <아우어네이션 Vol. 2>를 발표한 위퍼의 공연모습. 드럭은 주말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펑크록밴드들과 팬들의 열기로 가득 채워진다.

(One Day Tours)라는 유니버스 앨범으로 시작해서 비버로스, 킹의 기타리스트 박현준이 결성한 <밴드 99>와 엘로우키친의 공동 앨범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외에도 지난해말 클럽 밴드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실시, 8개의 팀을 선정해 음반 사업에 뛰어들었다. 음반사 'Indie'가 '허벅지', '코코어', '프리다칼로' 등 3팀의 독립 음반을 발매하고 기존 유통망인 도매상 체계를 통하지 않는 작거리방식에 나섰고, 개인 제작 개인 유통으로 메이저 시스템에 저항하고 나선 '모하

비', 최소리, 김동섭, '퍼니 파우더' 등 갖가지 비책들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80년대 중반부터 상업적 주류 대중음악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와 흐름 속에서 90년대 말의 클럽과 인디레이블 문화가 갖는 의미 또한 위치지워진다. 80년대 중반 들국화, 김현식을 비롯해 동아기회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언더그라운드 사단의 음악이 당시 대중의 귀를 장악하고 있던 상업적 팝음악에 대한 저항 기제로 작용하면서 국내 대중음악

의 활성화라는 현상을 빚어냈던 것처럼 현재의 클럽과 인디레이블들이 갖는 에너지와 잠재력은 앞으로의 대중음악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전세계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음악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얼터너티브 록이 실질적으로 촉발한 우리나라의 클럽씬은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다'는 펑크주의와 더불어 남성중심적인 화두로, 헤비메탈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아직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비



유니버스 앨범 <Rock의 물음소리>.



허벅지 밴드.



강아지 문화예술의 <One Day Tours>.

아직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비누도둑', '토스트', '허클베리핀', '액션미너 밴드' 등 여성멤버들이 주도하는 밴드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추세. 팬들과 밴드가 너무나 어우러져 열기를 뿜어내는 클럽의 라이브 현장은 공동체성이라는 록의 본질을 교과서적으로 드러내 준다.



프리다 칼로의 멤버들.

비누도둑', '토스트', '허클베리핀', '액션미너 밴드' 등 여성멤버들이 주도하는 밴드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추세. 팬들과 밴드가 너무나 어우러져 열기를 뿜어내는 클럽의 라이브 현장은 공동체성이라는 록의 본질을 교과서적으로 드러내 준다.

80년대 록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헤비메탈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결속력이 떨어지고 재생산의 차원으로 들어서는 못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버린 것에 비례해 볼 때 지금의 클럽과 인디레이블 문화는 조직적이며 공세적으로 생명력을 확장시켜가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김대중정부의 진보적인 문화정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대중음악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기대해 본다. □

# 히스테리아가 뽀뽀 봄의 책



히스테리아  
종이가 보자라~ 어느 때보다  
귀중한 종이. 불에 있고 양말기없는  
소리말고 스스로에게 함되고  
여성들에게 함주는 말, 의미, 열정,  
성정을 종이 위에 토해내기 위해  
머리에 뿜어내고 있다. 그동안  
히스테리아의 Book Review를  
지켜봐주셔서 감사함~!!

『나도 한때는 자작나무를 탔다』(김연 지음/ 한겨레신문사)

우리는 80년대란 긴 터널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 때 내 옆에 있던 동지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90년대를 마감하는 이즈음에서야 드디어 사람들은 80년대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어느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길 두려워했던 그 시절이. 그리고 그 때는 주연이었지만 지금은 조연이 되고만 상처 깊은 이들의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기적인 운동권 남성에게서 또 다른 억압을 경험한 주인공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모성을 통해 여성성을 깨달아간다는 이야기는 그저 그런 운동권 후일담에 머무르길 거부한다. 이 글에서 개인보다는 전체가 중요했던 그 때의 명제가 이제는 개인 대 구조를 탄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 바뀌었다. 오히려 개인만이 남은 이 시대에 그 긴장감이 신선하지 않은가. 주인공이 딸과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한다면 당신도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성만이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주리란 성급한 결론은 경계해야 한다. 이 소설에서 강한 감동을 느꼈다면 내친김에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전경련

지음/ 문학동네/ 6,500원)도 읽으시라.

『김소영의 영화 리뷰』(김소영 지음/ 한겨레신문사)

우린 때때로 여성주의적인 영화가 어디에 있는건지, 아니 있거나 한건지 몰기도 궁금할 때가 있다. 그러나 타는 목마름에 성급해지기보다 여성주의적이지 않은 어떤 영화도 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꼼꼼히 읽어내



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간단한 페미니스트 영화소비자로 살아남기 위해, 여기 훌륭한 교과서 『김소영의 영화 리뷰』를 추천한다. 너도 나도 영화평론가를 자처하는 이 마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비평을 즐기게 한 이를 꼽으라면 주저않고 김소영을 댈 것이다. 그가 그간 발표한 영화비평들을 모아 한 권을 책으로 묶었다. 『라이언 킹』에서 『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에 이르기까지 96편의 영화가 김소영의 언어로 다시 쓰여져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예술영화는 친근하게, 대중영화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데 그의 도움을 기꺼이 구하자.

『뽀뽀 - 백지숙의 문화읽기』(백지숙 지음/ 푸른미디어)

요즘은 '○○가지' 류의 책들이 범람하고 있다. 지하철 안에서든 쉽게 읽을 수 있는 짧고 간결한 토막글의 편리함. 게다가 읽는 즉시 가슴이 따듯해지는 훈훈한 이야



기. 가벼운 위로가 필요한 이들은 저마다 '○○가지' 류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분노도 터뜨리지 못하고, 비판의식마저 동정심 안에 가두어버린다면 무엇이 이 사회를 변하게 할 것인가. 평화로운 타협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닐까. 혹시 이런 우려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짜투리 시간을 『뽀뽀』에 투자해 보

라. 먼저 어찌 저런 짧은 글 속에 그리 많은 내용을 담아내는지 놀랄 것이고, 그 다음엔 문화읽기란 재미줄처럼 온 신경을 사방으로 뚝뚝 뻗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뽀뽀』이란 제목이 무색하지 않게 백지숙은 이승희 열풍에서 한보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에 뒤얹혀있는 모던과 포스트모던, 저급한 고급문화와 아방가르드



적인 대중문화를 날카롭게 꼬집어가며 읽어내고 있다. 장담컨대 『뽀뽀』 같은 우리의 문화를 읽어

낼 수 있는 가닥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잊을 났던 가족 이야기』(이동원 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우린 모두들 가족이라는 용당이에 발을 담그고 있다. 사람의 생김새만큼이나 각 가족사도 다르고 한 가족 안에서 그 구성원들의 경험은 크게 차이

가 난다.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가족문제에 대해선 완전 문외한일 수도 그렇다고 자신있게 전문가를 자처할 수도 없다. 이렇듯 객관적이고도 비판적인 거리를 상실해서 직시하기 더더욱 어려운 가족의 문제에 과감하게 칼을 댈 이들이 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가족을 공부한 11명의 학자가 모여,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모아담았다. 만나서 사랑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야기가 생애주기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었고 친절하게도 글 끝 자락에 '생각해볼 문제'까지 달아주었다. 살뜰한 재미는 보장할 수 없지만 가족의 문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속삭임』(박완서 지음/ 샘터)

불안한 사회, 팍팍한 삶으로부터의 탈출구는 꿈과 행복이 있는 동화읽기로! 『엄마의 말뚝』, 『미망』의 작가 박완서가 어른을 위한 동화를 냈다. 골목 안 작은 집의 식구들은 요즘 새로 태어날 아기 맛을 준비에 분주하다. 엄마는 아기용품들 사느라 들떠 있고, 아빠는 어떻게 하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할까 고민하며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꾸미느라 바쁘다. 할머니 역시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 죽어버린 '옛날 이야기'를 살려내 아기에게 들려줄 준비를 하

# 이성애자가 보는 보의 채

고 있다. 아마도 아기는 꿈을 열쇠삼아 사람과 사물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 가면서 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진짜 한페이지씩 읽다보면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른을 위한 것임을 알게된다. '동화'라는 장르가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이제 드물겠지만, 이 책은 단순히 마음을 가볍고 풋풋하게만 하는 것이 아닌 성숙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복잡하고 짜증나는 세상 이야기를 그렇게 쉽고 세심한 언어로 바꾸어내는 작가의 능력이 놀라울 뿐이다.

**『꽃병』 (김종우 지음/ 여성신문사)**

얼굴이 갑자기 화끈 달아오른다는가, 가슴에 열이 나거나 뻣근하고 혹은 무엇이 뭉쳐 있어 답답함을 느껴본 여성은 경희대 한방병원 꽃병 클리닉 담당의 신경정신과 임상교수의 이 책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듯싶다. 꽃병은 흔히 나이 든 주부들이 걸리는 질환쯤으로 인식되고 여성들이 힘들게 살아오면서 참고 참은 결과 나이들어 오레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볍게 치부되어왔다. 이 책은 도대체 꽃병이란 무엇이고, 과연 우리나라에만 있는 질환인지 그렇다면 여성이 특히 꽃병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치료와 예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고 있다. 또한 꽃병과 비슷한 질환으로는 무엇무엇이 있으며 주요 증상은 어떤지도 더불어

소개하고 있다. 음양오행 가운데 화火의 인체에서의 작용과 여성의 꽃병의 원인을 임상사례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꽃병에 관한 정보를 거의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아주 실용적이다. 여성들의 세상에 대한 화와 분노를 잘 다루어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성이며, 느껴라 탈출하라』 (전여옥, 임정에 지음/ 푸른숲)**

여성으로 태어나 성장, 월경, 섹스, 임신중절, 임신, 출산, 그리고 폐경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삶을 비춰볼 때 여성은 과연 독립적인가? 전여옥은 여성의 삶이, 성이 억압되고 유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여성이 자신의 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성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성과 몸의 자유'를 주장하고 여성성의 회복과 모성의 위대함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평등제도의 출현을 모색한다.

꼭 일부 급진적 여성주의자의 입장과 비슷한 듯 보이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독자 여러분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여성만의 경험에 대해 자기식의 강한 주장을 펴는 것이 전여옥답다.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전여옥의 임신과 출산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

사와 함께 쓴 책으로 전여옥의 출산일기와 진료차트가 함께 공개되어 있어 참신하다. 어쨌든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경험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괜찮은 책이다.

**『흔스러운 것에 대한 그림』 (김종태 지음/ 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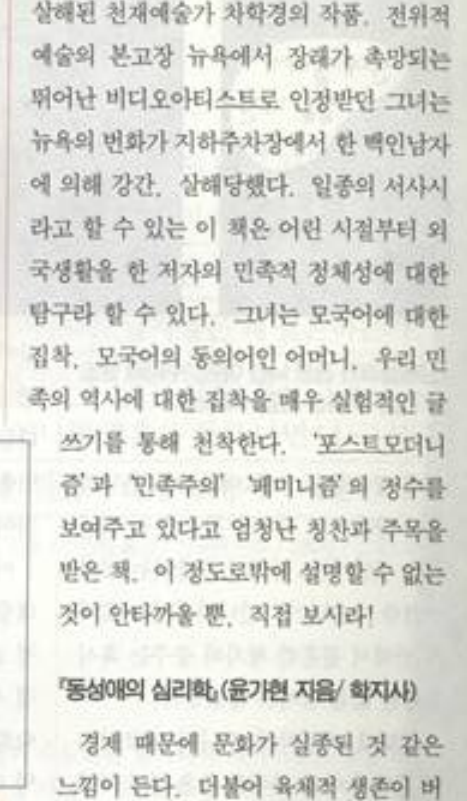
경제위기로 10년, 20년 거꾸로 살



게 되는 건 아닌가 두렵고 걱정이 많은 이 때, 기왕에 현재에서 주춤거릴 때 과거의 것을 돌아보고 그리워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종태의 책은 지금은 사라지고 변하고 잊혀져가는 옛날의 물건과 신앙과 음식과 전통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과거 우리 여성들의 일상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손을 댄던 물건에 관한 기억들이다.

이것을 단순히 전통의 일부나 소박한 여인네의 인정어린 향수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불만스럽다.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의미를 입힐지는 바로 우

# 사랑하니까 곁하니까?



리 문이다.

**『대중매체와 성의 상징질서』 (박정순, 김훈순 엮음/ 남)**

페미니스트 언론 연구에 관한 논문들이 체계적으로 엮인 책이 나왔다. 모두 <여성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연구원들이 직접 쓴 글로, 우리 한국사회의 미디어가 어떻게 성을 조직하고 재생산하며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왜 수용자들은 미디어에 탐닉

하여 그 환상을 열렬히 소비하면서도 때때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중성을 갖는지에 답할 수 있는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텔레비전 드라마, 광고와 같은 텍스트 분석과 수용자의 경험읽기, 국내 페미니스트 언론 연구의 동향을 다루고 있어 대중매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텔레비전을 재밌게—비판하는 쾌락도 있다는 사실!—보고 싶은 '태순이' 들은 반드시 보아야 한다.

**『딕테』 (차학경 지음/ 김경년 옮김/ 토마토)**

이 책은 1982년 미국 뉴욕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천재예술가 차학경의 작품. 전위적 예술의 본고장 뉴욕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뛰어난 비디오아티스트로 인정받던 그녀는 뉴욕의 변화가 지하주차장에서 한 백인남자에 의해 강간, 살해당했다. 일종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어린 시절부터의 국경생활을 한 저자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모국어에 대한 집착, 모국어의 동의어인 어머니,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집착을 매우 실험적인 글쓰기를 통해 천착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민족주의' '페미니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엄청난 칭찬과 주목을 받은 책. 이 정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 직접 보시라!

**『동성애의 심리학』 (윤기현 지음/ 학지사)**

경제 때문에 문화가 실종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더불어 육체적 생존이 버거워 정체성 고민은 부차적 지위로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이 분리되지 않을 사람들, 동성애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동성애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철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각 문화권에서 동성애 현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정신의학 및 심리학에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성애에 원인을 여러가지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동성애의 인권회복 운동과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의 생활양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에세이식으로 쓰여진 짧은 글들의 모음.



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한국에 페미니스트는 있는가』**(류숙림 외, 지음/삼인)

인물비평 시리즈를 내고 있는 도서출판 삼인에 서 이번에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 주목했다. 초

취재하고 비평한 필자들(그들은 대체로 위의 여덟사람보다는 덜 유명하다)의 관점도 흥미롭게 읽어야 할 부분이다. 이 책을 차분히 읽다보면 페미니즘이 여성권리의 신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의 전 영역에서 이미 하나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기쁨도 얻을 것이다. **II**

**『신데렐라가 집을 나간 이유』**(수니티 남조 시 지음/아육순 옮김/책세상)

왜 공주들은 모두 아름답고 연약하기만 한가. 왜 사나운 짐승은 늘 비난 받을 짓만 하고 왕자가 구출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반해서 결혼한 왕자와 공주는 혹시 불행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인도의 여성작가 수니티 남조시는 이 책에서 이런 의심을 품은 어떤 여성의 눈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옛이야기와 동화를 변형시킨다. 그래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고, 여성 억압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그리스신화의 여러 신들,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해라자데, 인도의 우화집과 이슬 우화집에서 영감을 얻은 이야기들 또 안데르센 동화와 그림 동화에서 보았던 익숙한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어 수다를 떠다. 현실을 풍자함으로써 촌철살인의 강력한 환기력을 갖는 우화의 매력 위에 저자의 유머와 공격적인 언어법이 더해져 이야기

창기 한국의 페미니스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다듬어 온 차세대 페미니스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으로 지평도를 그린 것이다.

이 책은 차세대 페미니스트 가운데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여덟명(조혜정 교수, 작가 최윤, 여성신문사 이계경 사장, 국회의원 이미경, 방송인 오숙희, 작가 공지영, 영화평론가 김소영·유지나)을 선정해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또 그 생각들의 결과가 어떤 지형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보다 더 젊은 비평가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혹자는 '왜 어떤 인물은 빠졌고, 어떤 인물은 들어갔는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거나 그들을 비평하는 필자들의 논조에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책은 '누구만 페미니스트'라거나 '이것만이 페미니즘'이라는 식으로 편을 가르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 학자·문인·언론인·정치인·영화인 등 비평의 대상이 된 인물뿐 아니라 그들을

화제의 여성학 신간

자신의 삶을 시작하려는 젊은 여성에게 던지는 화두

#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자, 이제 다시 질문해 보자.

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좋아라 하며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좋아서 한 결혼이 왜 빗나가는가?

여자들은 왜 결혼하는가? 남자들은 왜 결혼하는가?

남녀의 관계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은 결혼 제도 자체인가,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면 너도나도

남은 관습과 타성에 빠지기 때문인가?

에스터 빌라 지음 / 안인희 옮김 / 신국판 변형 / 226쪽 / 값 6,500원

에스터 빌라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에서 극소수의 선택받은 여성들이 주도하는 할머니식 페미니즘은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페미니즘도 남성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997년 12월 9일 『문화일보』

니체는 결혼을 "성교의 가장 치사한 형식"이라고 했고, 에스터 빌라는 이를 받아 결혼을 "한 사람은 물욕에서, 다른 사람은 성욕에서 맺은 거래"로 이해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여자가 어떤 남자의 노동력에 대해 독점권을 획득하고, 대신 그 노동력에게 그녀의 성기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1997년 12월 16일 『한겨레신문』

성스럽고 아름다운 결혼 이면에 여성의 '몸'과 남성의 '돈'이 자리잡고 있는 결혼 메커니즘을 파헤친 에스터 빌라의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라는 작품이 화제가 되고 있다.

— 1998년 1월 2일 『여성신문』

사람들이 결혼하는 진짜 이유는 사랑이 아니고 남자의 돈에 기대는, 자발적인 노예상태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시각의 에세이다.

— 1998년 1월 16일 『중앙일보』

에스터 빌라

1936년생, 의학박사, 사회학박사, 극작가. 페미니즘계의 이단아 독일 여성 운동의 대모로 추앙받는 페미니스트 저널 『에미』의 편집장 일리스 슈바르처와 맞수가 되어 여러 차례 언론의 이목을 독점하며 끊임없이 세간에 물의를 일으켜 온 화제의 인물. 대표작으로는 서구 사회 남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3부작 『길들여진 남자들』, 『아리숙한 적 남자 부러워하기』, 1987 『다양한 성관계』, 『길들임의 끝』이 있다.

도서출판 시공사  
전화 02-736-2201~3  
팩스 02-736-2201~2

# 산뜻한 여자의 필수품?

"산뜻한 여자는 매일매일  
올데이즈를 쓴다?"



## 진짜 산뜻한 여자의 필수품



날마다 기분까지 산뜻해요!



팬티 라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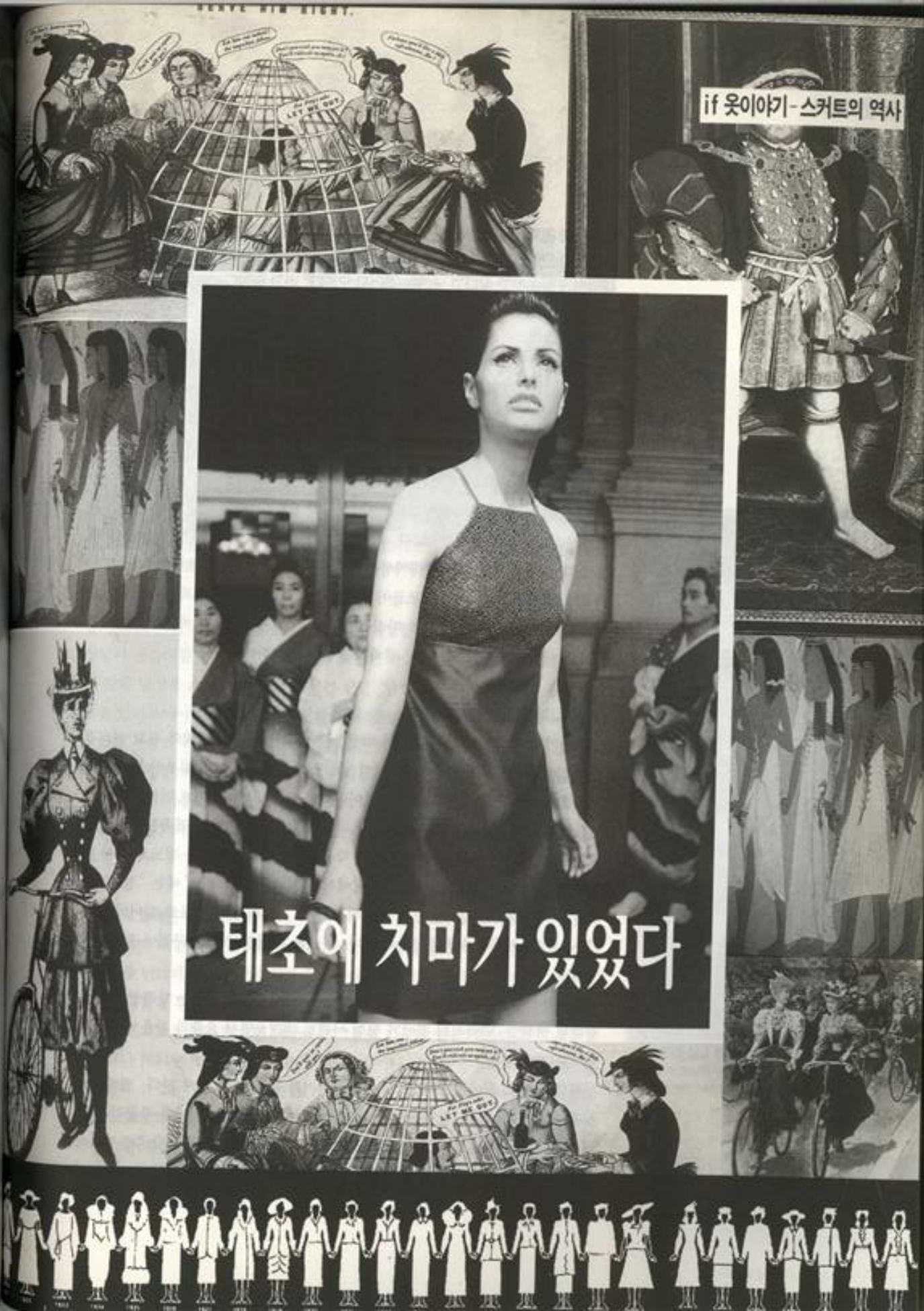


기획 오혜주

나는 계속 무능할 테야.  
애보는 것. 집안 일 하는 것...  
그래야 날 가사노동에서  
'소외'시킬 거 아냐?

어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애 하나 제대로 갈래질 못해서  
직장으로 전화를 해?

01×는 '족쇄'입니다



여성들이 경제상태가 좋아지면 다리를 많이 노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학자 모리스는 "여성은 재정적으로 보증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남성에 대해  
대담하게 유혹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이지 모른다" 라고 말한다.

“태초에 치마가 있었다.” 세계 복식사의 첫 문장은 아마도 이렇게 시작  
될 것이다

성서 속의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자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치마는 이집트, 중국, 아  
프리카 등 지구상의 거의 모든 인류의 첫 패션인 셈이다.

치마는 과연 여자만의 옷일까? 스코틀랜드의 켈트, 그리스 군인의 전통복 등  
남자가 입는 치마는 수없이 많다. 치마는 여자옷, 바지는 남자옷으로 정해진 것  
은 도대체 언제부터일까? 현대여성들이 치마 대신 바지차림으로 직장이나 모임  
에 자유롭게 참석하기까지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희생과 고난은 과연 무엇이었을  
까? 치마길이 경제적 부침에 따라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치마 하나만  
놓고도 이처럼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분석이 가능하다.

#### 초미니의 원조는 남자들의 치마

13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남성과 여성들은 대부분 원피스 형태의 길고 여러겹  
을 껴입어야 하는 옷차림을 했다. 이때 남성들의 옷차림을 보면 겉옷인 튜닉의 길  
이가 짧아지면서 그 밑에 반쳐입는 치마길도 요즘의 미니스커트 저리가랄할 정  
도로 엉덩이와 음부가 다 드러나는 '초미니'였다. 이처럼 남성 귀족들간에 유행  
했던 짧은 치마는 각국 정부와 교회가 착용금지법령을 제정했을 정도로 당시 사  
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4세기경 영국에서 제정된 '외류개혁법'에는 "경건보다  
하위인 기사騎士는 일어섰을 때 음부와 둔부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길이가 짧은  
가운, 재킷, 외투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벌금은 20실링이다"란 구절이 등장하기  
도 한다.

남성복식에서 바지가 나타난 것은 15세기경이다. 짧은 치마는 불룩한 반바지  
형태로 변했고, 반바지의 길이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요즘과 같은 바지형태  
로 자리잡게 됐다.

한편 여성의 치마는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긴 길이, 살인적으로 허리를 졸라매는 코르셋, 치마를 부풀리기 위  
해 입는 속옷인 크리놀린, 몇겹으로 겹쳐입은 패티코트, 게다가 온갖 주름장식이  
달린 치마패션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마침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우스꽝스러



새장같은 크리놀린 속에 갇힌 남성을 통해 불만하기 딱이 없는 여성의 복식을 풍자한 만화.

울 정도로 커진 크리놀린의 문제점은 일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시 출간된 한 잡지는 새장 같은 크리놀린 속  
에 갇힌 남성을 소재로 한 만화를 실는 한편 "남성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여성의  
옷을 입어보아야 한다. 그러면 여성들의 복장도 달라질 것"이라고 썼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에 응답한 첫 주인공은 미국여성 아멜리아 블루머. 그는 자  
무같이 험렁한 바지 위에 무릎길이의 치마를 받쳐입는 스타일을 제안했다. 바지  
는 창안자의 이름을 따서 블루머로 불리게 된다. 그녀는 클리놀린보다 훨씬 실용  
적인 블루머 차림을 유럽에도 전파하려고 했으나 상당히 적대적인 반응에 부딪치  
고 말았다.

#### 여자의 발목은 유죄?

블루머에 대한 가장 강력한 흑명은 당시 서서히 불길이 지펴지기 시작하던 여  
권운동을 반대하는 보수남성 진영에서 나왔다. 영국의 잡지인 『핀치』는 "남편으  
로서 아내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아내들이 블루머와 짧은 코트  
를 벗어던지도록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들이 가운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1881년 영국에서도 '리버티'란 디자이너 그룹이 등장해 새로운 모드를  
제안했다. 그것은 '아 라 타데마 a la Tadmor'란 이름이 붙은 험렁한 가운으로 여  
성을 코르셋과 크리놀린의 고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옷은 그들 내부에서만 인기를 끄는 데 그쳐 대중화되지 못했다.

2년 뒤 런던에서는 '합리복합회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의복의 스



짧은 치마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헨리8세의 초상화에서 보듯 치마는 본래  
남성적인 것도 여성적인 것도 아니었다.



기원전 1300여년에 그려진 이집트 고분벽화.  
한장의 커다란 천으로 만든 스커트차림을 볼  
수 있다.



19세기말 스포츠가 남녀를 불문하고 대중화되면서 치마길이 짧아지는 등 여성복식의 실용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1895년경 프랑스 디자이너가 자전거를 디자인한 블루아치형.

케치들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졌다. 일등상은 삼륜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성을 그린 작품에 들어갔다. 이 작품은 장딴지 중간쯤 내려오는 길이의 치마를 입고 그 밑에 발목길이의 바지를 걸친 것으로,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바지 위에 텍시코트를 입은 차림과 비슷했다.

자전거의 대중화는 여성의 패션을 바꾼 숨은 공로자 중 하나이다. 1890년대 유럽에서는 자전거타기가 크게 유행하면서 남녀 모두 무릎길이의 스포츠용 바지인 니커보커, 블루머를 즐겨 입었고 치마길이도 한결 짧아지게 됐다.

불과 30,40년 전인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상류층 여성이 무릎 아래를 드러내놓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조르주 상드처럼 드레스를 거부하고 남성복을 입었던 '혁명가'들도 있었지만, 일반 여성들은 공공장소에 발목을 보이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는 약혼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가 길을 건널 때 발목이 보일 정도로 치마를 치켜드는 버릇이 있다고 상당히 격한 어조로 비난한 적이 있으며, 『레미제라블』에서도 후반부분의 남자주인공인 마리우스가 착사랑하는 여인 코제트의 치마가 바람에 불려 발목 부분까지 치켜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워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 광마른 모델 트위기의 미니스커트 선풍

20세기에 들어와 여성의 패션은 양차대전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활동하기 편한 치마와 바지가 평상복으로 사랑을 받게 됐다. 60년대 초반 드디어 패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미니스커트의 등장이다. 그 뒤에는 프랑스 디자이너 쿠레쥬가 있었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 출신인 그는 고급 맞춤복 디자이너인 발렌시아가의 재단사로 패션계에 입문했다. 장식을 절제한 스타일을 좋아했던 발렌시아가의 전통을 계승한 쿠레쥬는 63년 컬렉션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던 길이를 허벅지 중간까지 과감히 잘라낸 치마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미니스커트는 당시 청년문화의 중심지였던 런던으로 건너오면서 빠른 속도로 대중화됐다. 비틀스와 롤링스톤스에 열광하던 젊은 여성들은 미니스커트의 전도사로 나선 광마른 모델 트위기를 너도나도 모방하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이들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60년대 미니스커트의 광풍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70년대 오일쇼크가 전세계를 휩쓸면서 여성들의 치마는 다시 점점 길어지게 된 것이다.

사실 경제와 치마길이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호경기에 옷감을 충분히 사용한 긴 치마가 유행하고, 불경기가 되면 옷감을 적게 들이는 짧은 치마가 인기를 끌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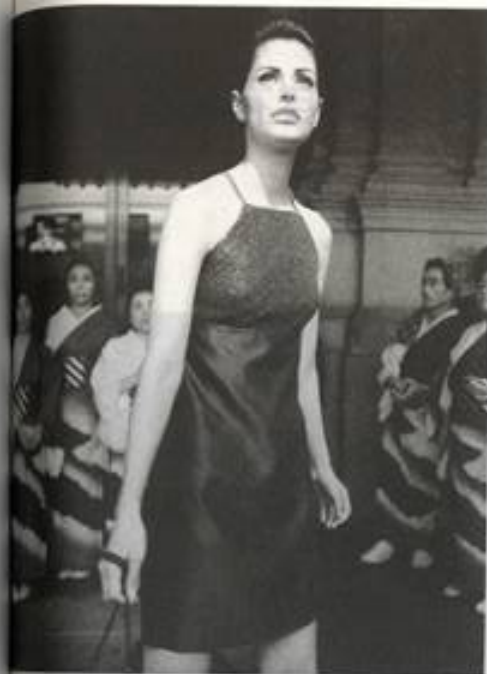
예를 보더라도 20년대 호경기 때는 치마길이가 점점 짧아지다가 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자 다시 길어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2차대전의 발생으로 전시경기를 타게 된 미국에서는 치마길이가 짧아졌고, 전후 내핍기간에 길어진 치마는 60년대 호경기를 맞으면서 초미니 형태로까지 변모했다.

여성들이 경제상태가 좋아지면 다리를 많이 노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

동물학자 데스몬드 모리스는 그의 저서 『댄워칭—인간행동을 관찰한다』에서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성은 재정적으로 보증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남성에 대해 대담하게 유희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경제가 일반적으로 활성화되면 신체적인 활동성을 느끼게 되므로, 곧 스커트가 짧을수록 움직이기 편리하기 때문에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는지도 모른다.”

최근 국내 패션계에서도 올해 통스커트가 다시 유행하게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경제불황시대에 성적 노출이 적게지게 된 현상을 반겨야 할까 아쉬워해야 할까. [11]



전통과 현대의 충돌. 미니 스커트는 60년대 처음 선보인 이래 '여성의 성적 도구화' 한 비난과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젊음의 상징'이란 찬사를 동시에 받아왔다.



오애리

문화일보 생활부 기자

# '보다'와 '보여지다'의 그 먼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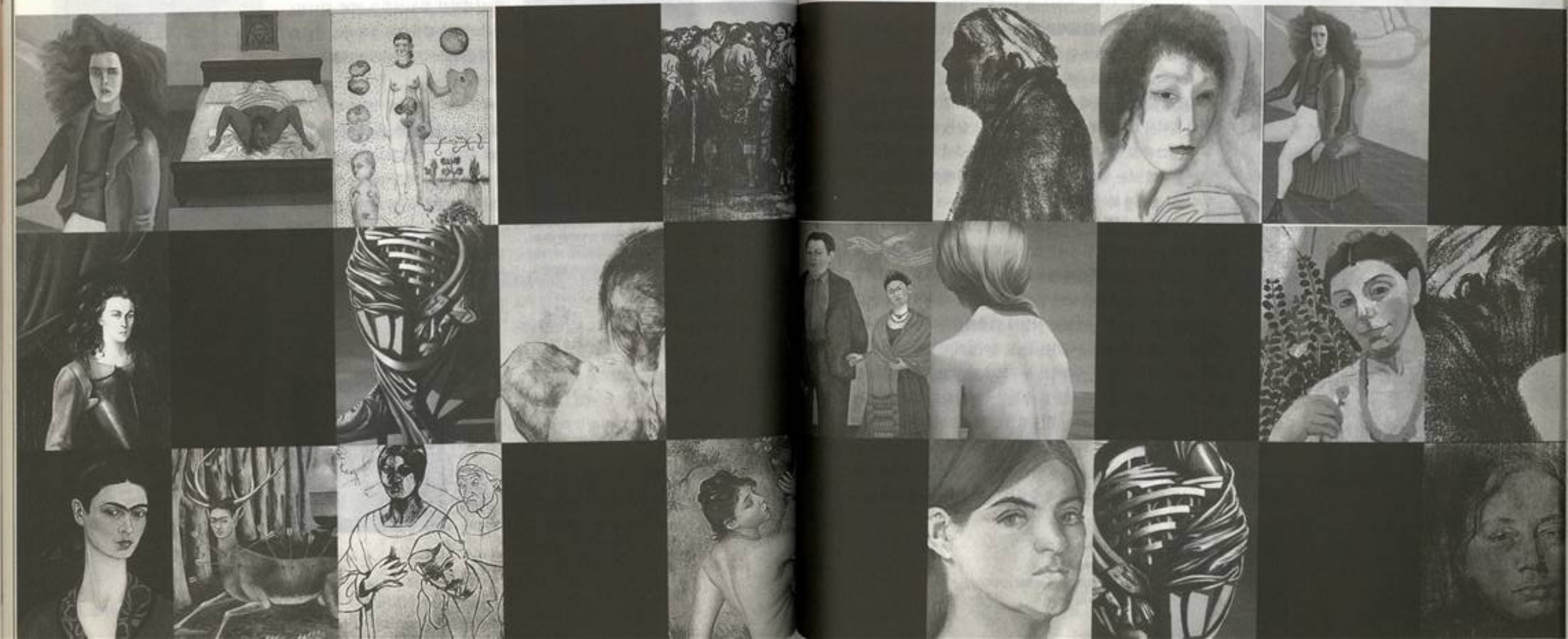
여성화가들의 자존 自存 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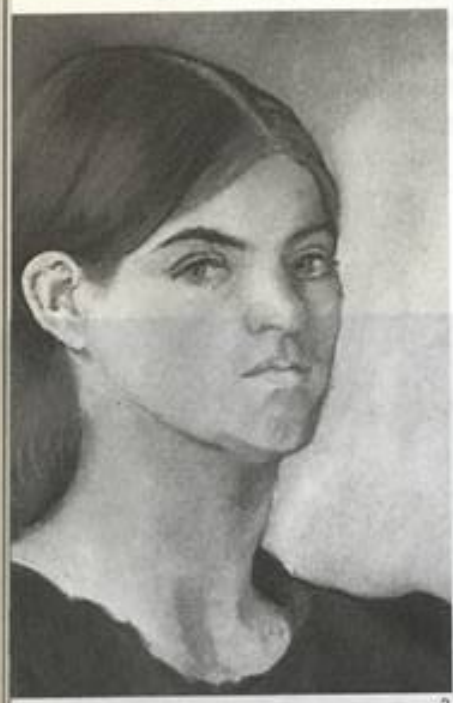
연재순서

- 1 여성 화가들의 생존방식, 그 불안한 자기 바라보기—비르크, 로코코, 19세기 여성작가들의 자화상
- 2 '보다'와 '보여지다'의 그 먼 사이—수잔 발라동, 모더 폰 백커, 마리 로랑생, 케테 콜비츠, 상징주의 여성화가들(프리다 칼로, 레오노라 캐링턴, 케이 세이지)
- 3 질곡을 넘어서—에바 하세, 마리송, 루이스 부루조아, 신디셔인 50~60년대 미국 여성주의 작가군, 우리나라의 여성작가들

여성화가들의 자존 自存 의길



# ‘보다’와 ‘보여지다’의 그 먼 사이



2

19세기 말 프랑스의 화가 수잔 발라동. 그녀가 갖는 매력으로 으뜸인 것은 바로 ‘관계의 역전’에 있다. 보여지는 객체에서 보는 주체로의 역전. 몽마르트의 어느 구석진 화실들을 전전하며 르노와르, 로트렉, 사반느 등의 모델로서 허름한 의자에 기대어, 벗었거나 입었거나 화가들의 요구대로 포즈를 취한 채 관찰되던 그녀가, 실은 그 순간에도 자신을 그리고 있는 화가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을 관찰하면서, 화면을 구성하고 색을 입혀가는 과정을 스스로 배우고 익혀 아무지게도 조금씩 화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 ‘보다’와 ‘보여지다’의 그 먼 사이—수잔 발라동(1865~1938)

보여지는 그녀와, 보는 그녀는 얼마나 다른가?

터져오를 듯한 육체의 향연을 묘사하고 있는 르노와르의 <목욕하는 사람들>(그림 1) 중에서 그 물살 한가운데 뒷모습으로 서 있는 이가 수잔 발라동이다. 아직 채 성숙되지 않아서 더 음험한 본능을 자극할 듯도 싶은, 그리고 생에 대한 수줍음인 양 두 볼 빨간 르노와르의 발라동과, 그보다 4~5년 전에 그려진 그녀의 자화상(그림 2)을 함께 보는 일은 흥미롭다. 그리는 주제에 따라 재현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세탁부의 사생아로 태어나 11살 때부터 여공에서 웨이트리스, 말 사육사에서 서커스단 공중곡예사에 이르기까지 인생역전을 거치면서 마침내 몽마르트의 싸구려 직업모델이 되고, 또 그렇게 자신의 팔자를 닮은 사생아 유틸로(세기말 보헤미안 화가)를 낳아 키우게 되었던, 나이 열여덟에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그녀. 최초의 자화상이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머뭇거림이라곤 없다. 다문 입술, 수식을 건너뛰고 본질로 투시해 들어가는 눈. 모델이었기 때문에, 화가의 환상에 따라 재현된 객체로서의 허망한 이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그리기를 선택함으로써 몽롱한 수동성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강한 농담과 뚜렷한 윤곽선, 여류답지 않은 힘찬 필력을 지닌 그녀를 두고 드가는 “테러를 마리아(무시무시한 마리아)”라고 탄복한다.

그녀 나이 사십에 그려진 <가족 초상화를 위한 스케치>(그림 3). 가슴에 손을 얹고, 마치 삶의 비의를 잃어낸 사제와도 같이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



3



4

1. 르노와르 <목욕하는 사람들>
2. 수잔 발라동 <예술가의 초상>
3. 수잔 발라동 <가족 초상화를 위한 스케치>
4. 마리 로랑생 <자화상>



1

녀 앞으로 아들 유틸로가 있고 뒤로는 화가의 어머니가 있다. 알코올릭과 정신병력의 수렁에서 전전하던 아들 유틸로를 건진 것은 그 영혼에, 어머니가 씨뿌려 기른 그림이라는 사다리였다.

구속없는 삶을 향해 내달렸던 그녀는, 아들의 친구인 화가 안드레 우터(당시 22세 연하였다)와 결혼, 유틸로와 함께 ‘저주받은 3위일체’라 불리운 기이한 가정을 꾸렸으며, 세 사람의 공동전시회를 갖는다. 이들의 동거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쯤에서 발라동과 마리 로랑생의 작품을 비교하자.

발라동의 삶이, 어둔 곳에서 싸늘 피워 장애의 벽을 타고 넘은 음지땅굴의 일생을 연상시킨다면, 한 연배 뒤, 역시 파리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던 마리 로랑생(1885~1956)의 경우는 빛의 세계로 돌진해 들어가 꽃이 되어 피고, 그런 자신을 나르시즘의 시선으로 감싸 바라보는 흰 수선화를 느끼게 한다(그림 4). 피카소들과 교류하고 시인 아폴리네르의 뮤즈이기도 했던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큐비즘과 야수와 다다이즘에 참여하면서 20세기 초 아방가르드의 중심을 통과해 내지만, 그녀의 작품은 달콤한 파스텔조에 부드러움을 강조한 장식적 화풍으로 완결된다. 그녀의 자화상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매력적인 여성성이다.

## 여성성의 프리즘—모더 존 베커(1876~1907)

여성성의 신화라는 프리즘의 파장이 여성화가들에게서 드러나는 양상은 다양하다. 역시 19세기 말, 독일 표현주의 화가 모더 존 베커를 보자.

그녀의 자화상 속에선 화가로서의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자기규정성이 불안스레 화해하고 있다. 독일 지방도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얘기하곤 한다. “나는 대단한 무엇이 될 거예요, 곧 그런 시절이 오겠지요, 내가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죽은 듯이 있지 않아도 되고, 내가 화가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질 때 말예요.” 시골마을의 지역작가와 결혼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남편의 그것을 넘어서 나이 서른에 이미 일가를 이룬다. 그녀는 파리에 가서 공부하지만 두고 온 남편에 대한 의무감과 화가로서의 길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녀의 작품은 당시 표현주의자들 특유의 강박적 격렬함을 묘사하기보다는 시골 아낙들을 모델로 하여, 대지와 닮은



5



6

5. 모더 존 베커 <농부의 아내>
6. 모더 존 베커 <호박꽃잎을 한 자화상>



7. 케테 콜비츠 <포로들>  
8. 케테 콜비츠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9. 케테 콜비츠 <자화상>  
10. 케테 콜비츠 <자화상>

그들의 모습을, 중후하고 질박한 단순성에 담아낸 것이었다(그림5).

<호박목걸이를 한 자화상>(그림 6).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혼란되어 있다. 풀과 나비를 배경으로 만년의 다소 섹슈얼한 포즈로 꽃을 든 채 서 있는 베커. 그녀는 누드와 자연이 바로 여성의 장소라고 믿었다. '자연에 속해 있는 육체로서의 여성'이라는 패턴(문명에 속한 남성과 상대개념으로서)과, 화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한 화면에 따붙이기하고 있는 것이다. 파리로 그녀를 찾아온 남편은 예술의 요구와 가정사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임신으로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베커는 딸을 낳은 지 삼주만에 심장마비로 서른하나의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 "오직 본질적인 인간이 되자"—케테 콜비츠(1867~1945)

가장 비장한 모성 이미지를 각인시킨 이는 독일의 케테 콜비츠다. 난 아직도 그녀의 작품을 정면으로 보아내기 힘든데, 80년대엔 그 부채감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90년대엔 그 비탄감을 실어내기에 내가 너무 가볍다. 의사인 남편과 함께 가난한 노동자지역에 살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절망과 증오, 사랑과 연대를 절박한 흑백화면으로 담아온 그녀였다(그림7, 8). 그녀의 작품이 주는 무게감은 때로 중압감으로 되고 마침내는 고통스럽게 반발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 흡인되어 그림과의 동일화를 이루어내도록 종용하곤 했던 것이다.

그녀의 울픈은 단호함에서 나는, 다가서기 힘든 일관된 세계를 보아온 것이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부르는 그 단호함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모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전쟁으로 아들 페터를 잃은 후에 그려진 자화상(그림9)이 있다. 몸을 사르는 비통함 이후의 망연한 정적...

다음 작품은 그녀의 임종 두 해 전인 일흔다섯의 나이에 그려진 자화상(그림 10)이다. 이제 영광도 고집도 없이 죽음과 대화하는 한 노인이 있다. 백발의 미켈란젤로가 말년엔 어린이용 보행기에 앉아야 했듯이, 이제 피고 지는 인생의 질서



대로 무감하고 둔해진 육신으로 구부정히 서 있는 콜비츠. 오직 "본질적인 인간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삶을 단련시켜갔던 여인의 쓸쓸한 뒤안이다.

#### 뮤즈 인가 예술가인가

야만의 1차대전 이후, 초현실주의의 기치를 든 예술가 무리들은, 합리가 지배하는 틀을 전복하고, 억압된 무의식과 꿈, 환상을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내 해방시킴으로써, 인간가치의 품을 넓혀내려 애쓴다. 비합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이들을 이끌었던 브로통은 자신들이 "대항한 것은 남성적인 것이며, 추구한 것은 여성적인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성적인 것을 회복함으로써 기존의 억압 질서를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의 이상적인 원형은 양성을 함께 지닌 자웅 동체였다. 마치 페미니즘의 주장을 접하는 듯하다. 이 여성친화적, 여성에찬적 모델가들 주변으로, 능동적이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모여들면서 남성초현실주의자들의 뮤즈로, 예술가로 초현실주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예쁜 여성미술가들이 독립한 예술가로서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남성작가들이 '역사'가 되어가는 동안, 그녀들은 번번히 '가십'이 되곤 했던 것이다. 사실 초현실주의가 만든 뮤즈로서의 여성은 남성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었을 뿐, 그녀들이 지닌 매력이 창작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될 수 없었다. 결국엔 작품이 말하는 것이므로.

초현실주의 여성작가들은 동료 남성예술가들이 그녀들에게 부여한 여성신화를 뒤쫓아가는 대신, 자신의 이미지에 몰입한다. 그녀들에게 자화상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자신의 존재성을 찾아가는 방식이기도 했다.

#### 바람의 신부, 새의 대장을 만나다—레오노라 캐링턴(1917~)

눈빛은 우물처럼 깊고, 싱그러운 향기나는 투명한 피부에, 가슴 속 자제할 길 없는 삶의 욕망을 담아 도통히 부풀어오른 연핑크 입술의 한 영국 처녀가 있다. 레오노라 캐링턴. 합리적인 세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제도적인 규율에 대한 혐오, 호시탐탐 그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꿈꾸기(반항적인 태도로 학교에선 번번이 쫓겨났으며, 글씨를 쓸 땐 거울에 비춰서 거꾸로 쓴다거나,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사제 앞에 가서 치마를 걷어올리며 "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다는데 물론 속연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귀부인들이 모인 파티에 가서는 친구와 함께 매독 증상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며 다닌다든가...)로 몸을 떨었던 바람의 처녀. 그녀는 그림을 위해 파리로 건너와서는, 머리 회곳해가는 초현실주의 미술가 에른스트



11. 레오노라 캐링턴 <자화상>  
12. 레오노라 캐링턴 <세어지와 삶네>

13. 케이 세이지 (작은 초상)  
14. 케이 세이지 (길)

(새의 대장이라 이름붙인)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 이제 그녀는 '그들' (초현실주의자)이 되었는가? 그러나 대부분의 초현실주의 여성미술가들이 그들의 뮤즈가 되어 육체를 지배하고, 영혼에 영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리들 속에서 주체가 되기엔 너무 어리거나, 주눅들어 있었다. 귀엽고 매력적인 서브일 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던 캐링턴은 남성 초현실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여성상인 '팜므 앙팡' (아이같은 여성: 성숙한 몸이 되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지닌 초현실주의의 여성상)의 수동적 의존성에 합의하지 않는 대신, 어린 시절의 초현실적 순진성을 유년의 꿈과 신화를 통해 복구하고 있다. 높은 정신세계를 갈망하듯 위로만 뻗어오른 머리 카락의 캐링턴(그림 11), 마법세계를 환기시키는 세개의 유방을 가진 작은 하이에나는 자신의 분신인 듯하고, 유년시절의 동반자인 목마가 방안과 먼 하늘에 날아가고 있다. 서사적 이야기를 지닌 이 자화상은 인

간과 동물 간의 분별을 지어 만드는, 마술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금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당시의 그녀를, 동료화가 레오노라 피니는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의 이미지로 그려내기도 했다(그림 12).

에른스트가 전범으로 몰려 수용소로 끌려가자 혼자 남게 된 그녀는 브랜디 한 병에 집을 팔고 스페인으로 가지만 극심한 신경증으로 자신이 히틀러를 죽였다고 외치고 다니다가 정신병원에 수용된다. 가까스로 병원에서 탈출, 멕시코로의 밀항에 성공하는데 이곳에서 비로소 그녀의 예술은 개화한다. 그녀의 작품은 '연금술의 여신'을 통해서 여성 창조자의 이미지를 세워나간다. 남성미술가의 개입 없이도 그 스스로 자연과 만물을 창조해내는...

#### 그들과 자존-케이 세이지(1898~1963)

대표적 초현실주의자 이브 탕기의 아내, 로마의 공주로 태어나 이태리 공작과

결혼하지만 재능과 힘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건조한 삶을 털어버리고 결혼 전의 성을 되찾는다. 탕기를 만나면서 생의 전환을 맞고 창작에 전념하지만 항상 탕기의 그늘을 느낀다. 남편 작품의 재탕으로 평가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녀는 탕기가 추구했던 유기체적 이미지와는 달리, 금속적이고 기하학적인 형식으로 작품을 몰아가면서 끊임없이 남편의 화력으로부터 자존하려는 피마르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녀의 매력적인 자화상들, <작은 초상>(그림 13)이란 제목의 작품은 눈, 코, 입 따위의 얼굴 위 생리기관 대신, 마치 피하조직을 설명하듯 철근 골조와 경첩, 금속성의 천으로 내부를 묘사하고 있다. 얼굴 옆선에서 어깨선으로 떨어지는 계단의 격막함, 말 그대로 내면 풍경인 셈이다. 그러나 머리카락의 한부분을 도발적인 붉은빛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마지막 육체성을 드러낸다.

바다를 향해 돌아앉은 여인의 뒷모습을 담은 <길>(그림 14)이라는 작품 역시 자화상이다. 탕기가 죽고 일년 뒤에 그려진 작품 속의 그녀는, 황량한 기하학적 바다(혹은 대지)로 몸을 향한 채 망연히, 삶의 속살을 추억하는 듯도 보인다. 그녀의 작품들은 엄격한 절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래서 가슴 무너지는 울림이 있다. '타협을 거부하는 무미건조한 정신의 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 그녀는 스스로의 고독감을 견디지 못해 권총 자살한다.

#### 칼로적인 너무나 칼로적인-프리다 칼로(1910~1954)

초현실주의를 몰랐으며 생애적으로 초현실적이었던 멕시코의 미술가 칼로, 그녀에게 그림그리기란 피로 쓰는 자서전이었다(그림 15). 유년기에 소아마비를



16



17

15. 프리다 칼로 <나의 탄생>

16. 프리다 칼로 <프리다와 리베라>

17. 프리다 칼로 <프리다와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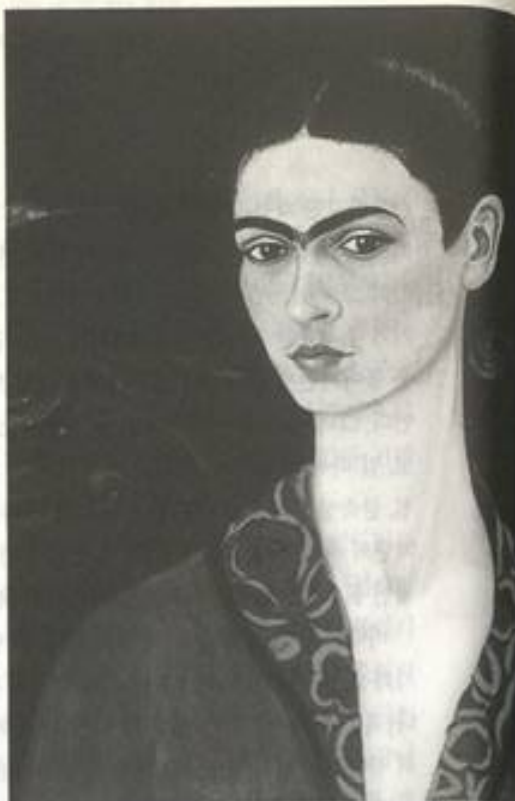
15

## 엄마의 빨래 어머니, 우리 우리 식으로 살래요!

요즘 한국에서는 '뽕통이도 세대차이를 느낀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을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빨래에 관한 부분은 더욱 그렇다. 세탁기와 각종 세탁류의 상품화로 우리세대는 빨래에 관한 한 '신인류'가 된 셈이다. 세탁기를 두고도 손으로 빨아야 직성이 풀리는 어머니세대를 지나 '세탁노동'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게 된 딸세대. 그래서 빨래를 통해 본 어머니의 삶은 딸의 눈에 그리 곱게 비치지만은 않는 것 같다. 자, 이제 빨래에 얽힌 이야기 속으로!



않았고 15세 때 전차사고로 척추골절, 자궁 파손, 평생 32번의 수술을 해야 했다. 병상의 고통을 잊기 위해 누워서 그림을 시작한다. 그림은, 불구인 그녀가 우뚝 서서 당당히 세상과 겨루어내도록 한 지지대였다. 천장에 거울을 붙이고, 가장 가까이 있으되 가장 안타까운 존재인 자신을 그려서 자화상 장르에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이룬다. 멕시코의 벽화가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하지만(그림16) 그의 난봉기질 탓으로 평생 고통받으며, 자궁 파손으로 인한 거듭된 유산의 아픔을 겪는다. 유산후 그려진 드로잉은 생명체



를 만들어낼 수 없는 육체의 불모성과, 그림을 통한 창조력을 대비시킨다(그림17). 리베라와의 별거와 이혼 뒤 상실감으로 트로츠키와의 염문과 동성애로의 편향을 거치기도 하지만 다시 재결합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녀의 그림 속에 모두 담겨 있다. 그녀의 자화상은 고통을 빨아들이며 자란 그녀의 내면이, 고혹적인 외모를 통해 드러나면서 가히 초현실주의적 이상이라 할 악마적 미학(그림18)에 이르고 있다. 도착적인 자기애와 자기부정, 자기 연민이 교차하는가 하면(그림19), 때로 여우처럼 완벽하게 가공된 표정과 세팅된 의상, 장신구로 조합된 그녀의 모습은 우아한 작위감의 경지마저 느끼게 한다(사진 20). 브르통의 표현대로 '리본을 매단 폭탄'처럼 살았던 그녀는 영혼과 신체의 고통을 끝내려 약물로 자살한다. 죽어서도 누워 있을 것이 두려워 화장시켜 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며 이에 따라 그녀는 불이 되고 연기가 되고 물이 되었다. 11

### 제미란

본지 아티스트마다. 각자마다 평창하는 파문과도 같은 어우러를 끌어오는 여성미술가들을 한 우물 안에 몰아넣기로 한 기획 자체가 이미 무리였다. 말로 몰어도 한 사람이 3백4십 분량이나면, 깊은 속에 잠겨 흔들리는 그녀들의 물뿌리개로 짐수 채들지 못하는, 번번히 민들레 나의 글쓰기를 용서하시라.

18. 프리다 카로 (자화상)  
19. 프리다 카로 (작은 사슴)  
20. 뉴욕에서의 프리다 사진



## 봄빨래 나들이

아, 빨래는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 어린 딸이던 시절(세상에, 벌써 40년 전의 얘기다) 내게 어머니의 빨래는 냇가에서 맘껏 뒤눌 수 있는 신나는 나들이행사였다. 웅크렸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기색이 보이면 어머니는 겨우내 덮었던 이부자리며 식구들의 무거운 겨울옷가지들을 모아 산더미 같은 빨래거리를 만들어 빨래나들이에 나섰다.

우리집에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는 이웃집 아주머니도 오시고 일하는 언니와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따라나선다. 찬합에는 각종 나물과 반찬들이 켜켜이 담겨지고 밥통에는 하얀 밥이 그득그득 담긴다. 해지기 전까지 하루종일 빨래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행이 그 날 먹을 점심을 준비해가는 것이다.

아이들은 물론 빨래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 돌보는 일까지 해야했던 엄마는 자신에게 딸린 부속사람들인 아이들 관리를 위해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다. 어쨌든 아이들은 신난다. 엄마가 이웃집 아주머니를 동행하듯 아이들도 친구들을 동반할 수 있는 모처럼의 나들이 기회인 것이다.

봄빨래 나들이는 언제나 마전터라고 불리우던 산 밑 개울가로 갔다. 빨래가 가득 담긴 대야를 이고지고 점심보따리도 바리바리 들고 아이들을 포함한 6~7명의 일행이 봄기운 완연한 들길을 따라 냇가로 간다.

얼음이 풀리고 자연 온도를 지닌 초봄 냇가의 물 온도는 김까지 모락모락 나기 때문에 빨래하기에 그다지 차지 않다. 엄마와 이웃집 아주머니는 커다란 이불빨래부터 방망이로 탕탕 두들기면서 빨고, 일하는 언니는 엄마의 빨래 뒤치다꺼리를 한다. 하얗게 빨아진 이불호칭 따위는 개울가 관판한 바위더미 위에 돌을 괴어서 마련한 아궁이, 그 위의 빨래 삶은 솥에서 양젓물을 넣고 콕콕 삶아진다. 물론 불쏘시개로 쓸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것은 아이들의 몫이다.

아이들은 나뭇가지를 주우러, 겨울망을 비집고 솟아나온 파란 봄나물을 찾으러 마구 들판을 뛰어다녔다. 바람은 아직 차갑고 매서웠지만 '누가 봄바람 따위를 두려워하랴'는 듯이 우리는 맹렬하게 쏘다녔다. 어린 우리들에게 자연은 온통 재미있고 경이로운 것 투성이었다.

젓지 않은 깨끗한 들판을 찾아 하얗게 삶은 이불호칭들이 널려지고 엄마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개울가에서 목격한 조약돌들을 골라 넣어놓은 이불호칭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내키통이를 콕콕 눌러놓는다. 파란 기운이 여기저기 솟아나오고 있는 초봄의 들판에 하얗게 널린 이불호칭 빨래들은 지금까지도 뇌리에 선명히 박혀 추억어린 풍경화를 그린다.

그리고 엄마의 부르는 소리가 아련히 들린다. 점심 먹을 시간인 것이다. 우리는 번개같이 달려가 빨래터

불 옆에 모여앉는다. 미리 준비해온 밥도, 반찬도 차갑다. 그렇지만 빨래 삶은 솥을 내려놓고 금방 끓인 뜨거운 국이 있다. 푹 터진 넓은 들판에서 널려진 빨래들 사이에 모여앉아 먹는 점심은 정말로 꿀맛이었다. 엄마도 이웃집 아주머니도 모처럼 야외에 나와 빨래를 하며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고 아이들은 뛰어노느라 정신이 없다. 어머니의 빨래나들이는 그렇게 흥분과 즐거움이 가득한 신나는 행사였다.

그러나 그렇게 신나는 빨래나들이는 일년에 한두번뿐이다. 집안에서의 엄마의 빨래는 전혀 다른 그림을 선사한다. 어린 시절 우리집의 빨래는 켄프가에서 이루어졌다. 엄마는 집에서 하는 빨래를 언제나 밤중에만 한 것 같다. 낮에 한 적도 있었겠지만 집 밖에서 노느라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낮에는 다른 집안일을 하느라 저녁시간에만 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집에서 빨래하는 엄마는 언제나 화가 난 듯 말이 없었다. 어느 저녁, 아마도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니면 무언가 화낼 일이 있는 저녁일 게다. 어머니는 주섬주섬 말없이 식구들이 만들어놓은 빨래거리를 모아서 빨래를 시작한다. 엄마는 한쪽 옆으로 빨래거리를 간뜩 쌓아놓고 물을 받아 빨래들 위에 놓인 빨래를 탕탕 두드리고 또 사정없이 비비며 꼭 도둑의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빨래를 한다. 그럴 때 엄마의 얼굴은 언제나 굳어 있고 아이들이 겨들 여지가 없어보인다. 걸음을 전혀 주지 않고 그저 빨래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다. 슬금슬금 엄마 눈치를 살피던 아이들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숨어서 혼자 할 일을 찾아본다. 엄마의 저녁빨래는 언제나 화풀이 대신인 것 같았다. 식구들이 더럽혀놓은 묵은 때를 빨아내면서 화를 삭히고 마음의 때마저 씻어내리는 마음빨래도 같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와서야 든다. 그러나 마음다스리기마저 노동(식구들의 빨래)을 통해 해야만 했던 어머니의 세상은 세탁기를 돌리며 빨래를 하는 우리 세대 딸들의 가슴을 이상하게 만든다. 류숙렬(문화일보 생활부 차장, 44세)

## 손빨래 공포증

손이 에에게 추운 날이다. 목욕탕 시뻘건 함치박엔 이불호칭이며 딱한 빗살의 두꺼운 겨울 옷가지들이 허연 김을 피우며 시체처럼 널부러져 있다. 칙칙한 누비뭉뻬차림으로 쪼그려 앉아, 자주빛 빨래판에 도무지 거품도 잘 일지 않는 털바지를 뒤척여 부벼대는 엄마. 숨을 몰아쉬는 때마다 휘휘 새어나오는 입김은 차가운 날씨 탓으로 이내 서리가 되고 만다. 이런 날 우리



삼형제는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엄마의 치미는 부화를 어느 순간에 맞닥뜨릴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긋지긋한 빨래일을 대신해주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누가 뭐래도 빨래는 집안일 중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이었다. 나의 손빨래 공포증은 이때부터 비롯됐을까?

떡을 팔아 6남매 생계를 삼던 외할머니의 말로 태어난 덕에 7살 때부터 밥을 지어야 했던 엄마. 외할아버지와 둘을 양고 흠을 치대어 부산 초량동 허름하기 짝없는 집을 지으며 혹시라도 무너질까 작은 등으로 담벼락을 받쳐줬을 땐 9살이었다고 했다. 외할머니의 떡보다는 그 딸에 더 마음을 두어 매일같이 목이 메이게 떡을 사드셨던 우리 아빠 역시 장남이었고, 엄마는 5남매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어야 했다. 코흘리개 적부터 부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엄마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긋지긋한 일과 동반관계는 끝을 몰랐다. 일에 관한 한 득도라도 이루어야 했을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나 일이 싫어서 끓는 엄마의 분노는 노쇠해지지 않는다. 길들여지지 않고 매일 새것처럼 일어서는 분노. 엄마가 빨래하는 날은 뿔뿔이 뚫린 마그마에 어느 순간 발을 대일지 조마조마했던 것이다.

그런 엄마는 내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 당신이 너무나 지긋지긋해하던 일을 자식에게 대물리기 싫으셔서라고 했다. 그 덕으로 난 결혼 이후 살림 자습기를 혼이 빠지게 치워냈지만 지금도 엄만 내 손에 물이 묻는 것을 안쓰러워 하신다.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내 일이나 해야 될 팔자였는데..." 하시면 나는 헛헛이 웃는 수밖에.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다된 빨래 다듬어서 보기 좋게 펴말리고, 마른 빨래 곱게 개어 서랍 속에 넣기까지 건너뛰 대목없는 빨래의 긴 파노라마. 나는 부리고 얼르고 남편과 실랑이하다 이제 도리없이 포기한 채, 빨래와 눈맞추기로 마음 먹은 지 얼마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난 빨래만큼은 '손에 묻 묻히지 않고' 하기로 한다. 집안일을 줄여가는 데는 단호한 결단과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살림 7년차의 노하우다. 이 사실을 아신 엄마는 정작 어떤 뉘두리를 보태실까? 제미란(본지 아트디렉터, 35세)

## 흰 빨래는 희게 널고

우리집 빨래 군기는 셋다. 입었던 옷을 아무 데나 벗어 내팽개쳐 놓는다거나, 신고 난 양말이며 속옷을 뒤집거나 툭툭 말아는 채 던져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빨랫감은 곱게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우리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걸로 알고 컸고, 다른 집들으려 다 그러는 줄 알았다.

엄마의 빨래질기는 예술이었다. 마당을 가로지른 빨랫줄에 양말은 양말끼리 발꿈치가 가지런히 왼쪽으로 향하게 죽 널고, 속옷은 속옷대로, 겹옷은 겹옷대로 반듯이 펴서 같은 방향으로, 그 속에서도 흰 것은 흰 것끼리, 검은 것은 검은 것끼리... 마른 빨래를 개는 일은 어린 우리 삼남매 몫이었다. 양말이야 처음부터 칼같이 널었으니 그대로 한 켤레씩 포개기만 하면 됐지만, 나머지 빨래는 구김이나 널었던



자국이 없게 꺾려 당겨 펴서 팬티는 밑에서 위로 반 접어올린 다음 좌우를 안으로 사분의 일씩 접어넣고 다시 반 접어서 직사각형으로, 런닝은 이렇게, 바지는 또 저렇게...

내가 고등학교 이학년 때 부모님은 동대문에 식당을 차려 거기서 주무시고, 정릉 셋방에는 제주에서 올라와 직장 다니던 팔촌누나가 들어와 살림을 봐주게 됐다. 하지만 한창 나이, 하루만 입어도 한가운데가 누려져버리는 팬티를 어떻게 난생 처음 보는 젊은 누나한테 맡긴단 말인가. 해서 처음으로 내 빨래를 하던 날, 맨손으로 무궁화 세탁비누를 칠해 빨래판 위에

팬티를 비빌 때의 그 소스라치게 몽글하고 차가운 촉감이란! 이렇게

우리는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는 걸 체질화시키고 있었다.

내가 서른살 때 큰 맘 먹고 사드린 전자동 세탁기를 한동안 굳이 탈수기로만 쓰시던 엄마를 꼬드겨 세탁기를 '제대로' 쓰게 만든 건 나였다. "엄마, 엄마, 나 옛날에 입주과와 들어갔을 때 있잖아, 나도 그 집 세탁기에서 탈수기만 썼거든. 근데 어느날 엠티 갔다와서 너무 힘들어서 잠바하고 청바지만 오늘 한번만 해보자고 눈 딱 감고 세탁기로 빨아봤는데, 글썽 반자동인데도 너무너무 편한 거 있지. 엄마도 눈 딱 감고 그냥 한번만 써봐."

그러나 엄마는 시집간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 사시게 됐다. 처음 가본 날 아내의 두 번 입을 딱 벌렸다. 가실 한전에 자로 잰 듯 가지런하게 '흰 빨래는 희게 널고 검은 빨래 검게 널린' 전조대를 보고 한번, 엄마의 '빨래 수칙'을 듣고 또 한번. "당신, 어머님 빨래 널어논 거 봤어? 게다가, 어머님은 빨래를 일곱가지로나 분류해서 돌린대!" "엄만 원래 그래. 당신, 한 집에서 안 살길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 우리집 빨래는 자연히 내 몫이다. 나는 빨래를 세탁기 빨래 세 가지와 손빨래(말에 옷가지, 아내의 스타킹과 '망측한' 위생팬티), 이렇게 네 가지로만 분류한다. 칼같이 낸다고 널지만 놀러온 사람들이 별로 감동하지 않는 걸 보면 아직 엄마 따라가려면 멀었나보다. 그래도 가끔 엄마 집에 놀러가면 나는 부엌이나 욕실을 들여다보면서 큰소리친다. "내가 엄마보다 나은 거 하나 있다. 엄마는 행주나 걸레 빨아서 그냥 저렇게 놔두지? 나는 행주 걸레도 널어서 말려. 솔직히 우리 집 걸레가 웬만한 집 수건보다 깨끗할걸?" 이호인(본지 편집위원, 36세)

## 빨래로 대화하기

느 은 저녁 문을 따고 들어오니 집안은 빨래비누 냄새로 가득하다. 엄마가 빨래를 해 널어놓고 가셨나보다. 난 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엄마는 가끔 김치며 갖가지 밑반찬을

들고 올라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날이면 집안청소와 밀린 빨래를 해놓고 가신다.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는 빨래를 해놓고 가셨다.

엄마는 세탁기를 쓰지 않으신다. 그래서 서울 집에도 지금은 보기 힘든 적은 용량의 일명 팔순이만 있다. 물론 시골집에도 아주 구형 세탁기(빨래통과 탈수통이 분리된)가 탈수만으로 생명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남들에게서 나는 향긋한 가루비누 냄새가 아닌 썩한 어떤 이들은 퀘퀘하다고 하는 고향 빨래비누 냄새가 난다.

밀린 빨래나 양이 많을 때는 힘들고 지겨울 법하지만 엄마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으시다. 엄마는 세탁기로 빨린 게 갖이 빨리지 않아 당신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엄마의 유별난 깔끔함이 아니라 엄마만의 빨래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엄마는 우선 딸들의 옷걸이에 가서 빨랫감을 물색하신다. 나나 동생이 빨랫감이라고 내놓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코로 냄새를 맡아서 용케도 빨 때가 된 옷가지들 한웅큼 들고 욕실로 가서 빨신다. 그 귀신 같은 냄새맡기로 물려 있던 옷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와 동생이 신기해하면 엄마는 "옷에서 우리 딸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딸 냄새가 나는지 다 알 수 있지" 하며 웃으신다.

난 그 엄마의 웃음에서 엄마의 빨래의 진정한 의미를 읽는다. 그것은 당신 곁에 두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놓은 딸들과 하는 다른 방식의 대화이다. 하나하나 빨래를 하면서 큰딸과 작은딸과 대화를 하신다. 여기에 묻은 이 자국은 아마 우리 딸이 음식을 먹다가 흘린 것이리라. 무엇을 먹었을까도 생각해보시거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고, 이 손목에 묻은 때는 우리 작은딸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서 묻은 것이리라 하면서 그 교실에 같이 계시는 것이다.

엄마는 함께할 수 없는 공간에서 딸이 묻혀온 때를 문질러 짝짝 빨면서 딸과 함께 간접적인 대화를 하시는 것이다. 가끔은 그 문질 때를 보고 상황을 짐작하시고는 칭찬이나 꾸지람을 하시기도 한다. 떨어져 살아서 모녀기간에 서로 살을 부대끼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과 정다운 대화를 빼앗긴 엄마는 빨래를 매개로 딸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빨래를 보면 엄마의 모습이 선하다. 딸들이 나간 빈 집에서 당신이 빨랫감을 직접 고르고 빨면서 또 어떤 딸들을 중얼거리셨을까. 그러면서 난 내 나이 때의 엄마를 상상해본다. 그 때 엄마는 외할머니와 함께 인왕산에 올라 맑은 물에 빨래를 하셨다고 했다. 흐르는 맑은 물에 빨래를 하면서 모녀는 정답게 많은 대화를 하셨으리라. 이제 그 꽃다운 처녀는 딸을 낳은 어머니가 됐고, 딸의 빨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놓고는 빈 집의 문을 닫고 내려가셨다. 딸들의 얼굴도 못 보고 내려가신 엄마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빨래비누 냄새 때문인지 코끝이 찡해져온다. 별탈없이 내려가셨는지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빨래 걷는 손길이 빨라진다. 김보미(취업준비중, 24세)

## 자식 키워 무슨 영화를 보려고

내가 첫애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께서 합을 찢던 무명베에다가 베를 조금 더 떼서 기저귀를 만들어주시고 큰 시누에 키울 때 당신이 쓰시던 새것 같은 기저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만든 재활용비누 한 박스를 사주셨다. 재활용비누는 시장비누보다 세척력도 좋고 잘 행구어졌으므로 고맙긴 했지만 그 많은 기저귀빨래를 생각하니 암담했다. 대충의 몸조리를 끝내고 서울로 올라와서 손빨래를 할 요량으로 젖은 기저귀가 날 때마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기저귀를 담갔다. 그렇게 며칠을 하고 있으려니 근처에 사시던 선생님이 와보시고 "자식 키워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이 짓이나, 세탁기 써라" 하신다. 사실 힘에 부쳤다. 확실히 우리 세대는 어머니세대에 비해 육체노동에 근성이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탁기빨래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 긴 기저귀가 엉망으로 엉키고 구겨지는 통에 그것을 풀고 펴서 건조시켜 개는 것은 유쾌한 노동이라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후 시어머니께서 막내서방님 아이를 키우셨고 내가 다시 둘째를 가졌다. 그래서 첫애 때 쓰던 기저귀를 꺼내 삶아 넣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천기저귀 쓸래? 종이기저귀 써라" 하신다. 당신이 종이기저귀의 편리함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꼭 천기저귀 써야지, 환경에도 안 좋고 첫애 때도 썼는데 뭘' 하고 아무렇게 마음 먹었다. 그런데 막상 예를 넣고 산후조리를 하러 친정에 갔더니 친정어머니가 첫애 때 아무 소리 않고 빨아주시던 기저귀를 못 해주시겠다고 종이기저귀를 쓰잔다. 나는 할 말이 없어서 그러자고 그랬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이런 것을 환경이니 에너지 절약이니 하면서 쳐다도 안 봤으니.

그 후 들으니 환경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반드시 천기저귀가 종이기저귀보다 낫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주장(『건강한 아기를 위한 펄퍼스 3단계 육아법』 1권)도 있고 사용한 기저귀를 분해시켜 퇴비로 만드는 처리공장을 가동시키기도 한다니 환경에 대한 죄의식을 약간은 더는 느낀다.

물론 공들인 손빨래와 세탁기빨래 그리고 종이기저귀의 질은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육아는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다. 대가족제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곁에서 팔 하나라도 거들어주었으나 지금은 누구의 표현대로 육아는 여자 정역살이다. 섬에 갇혀 있거나 구석기시대의 동굴 생활에 견준다면 좀 심한 표현일까? 만약 여성들이 기저귀빨래에서 벗어난다면 육아를 좀더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것이다. 아이에겐 짜증을 줄일 것이고 남편의 아침식사나 첫애에 대한 관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세대의 공들인 빨래방식에 대한 향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반인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 속의 편리함을



위한 모든 문명의 이기에 이유를 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의 작은 협조자 종이거저귀를 게으름이나 환경, 에너지 절약 등의 이유를 달아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쓰레기 처리문제나 무공해제품 생산 등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백은주(주부, 33세)**

## 어머니, 우리 우리 방식으로 살래요

“우리 어머니 빨래에 대해선 아주 유난스러웠어. 우리 율케 언니가 빨래줄에 걸어놓은 빨래를 하나하나 유심히 들여다 보면 마음에 안들면 꼭 나뉘쳐서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시는 거야. 그렇게 힘들어 한 빨래들이 흙바닥에 나뉘고요 야단이었지. 뭐.”

내가 잘 아는 어떤 아주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며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다.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빨래에 목숨 걸던 세대였던 것 같다. 회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깨끗한 빨래, 그게 바로 살림 잘하는 여자들의 증거기도 했다. 우리 어머니도 늘 빨래를 양젓물에 하얗게 삶고, 뽀뽀하게 풀을 먹이곤 하셨었다. 그래서 우리집에는 언제나 ‘양젓물 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저기 부엌 문 앞에 바카스병에 들어 있는 거 양젓물이다. 입에 대지 말아라”가 그 내용이었다.

그에 비하면 요즘 우리의 빨래 솜씨는 전적으로 세탁기에 의존해 있으며, 또 우리 어머니 세대처럼 최고 깨끗한 빨래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색깔있는 속옷과 양말이 유행하는지도 모르겠다. 결혼해서 처음엔 빨래가 누렇게 되는 걸 내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다. 결혼 전 친정의 빨래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빛을 띠었는데 내가 빨래는 왜 이 모양이람?

가끔 우리집 빨래를 보다 못해 시어머니가 오셔서 여보란듯 빨래를 회개 빨아놓고 가셨다. ‘귀찮더라도 가끔은 좀 살아라’ 하는 잔소리를 잊지 않으시면서...

그런데 이상한 건 나는 아무리 살아도 시어머니가 하시는 것만큼 하얘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는 비누를 엄청, 무지하게 문질러 풀어놓고 거기에 표백제까지 섞은 후 빨래를 삶으시는 거였다.

집에서 만들어 쓰던 양젓물 대신 어머니들은 이제 손쉽게 표백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하얀 빨래에 길들여진 어머니들은 양젓물보다 더 독성이 강하고, 더 강물을 오염시키는 세제들을

사용해(그것도 마구) 세탁을 한다. 빨래를 선명하게 빨아준다는 색깔 표백제, 부엌의 찌든 때를 손쉽게 지워준다는 부엌세제, 흰 옷을 더욱 하얗게 해주고 세균까지 죽여준다는 락스 등등을 내가 보기엔 좀 과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류의 살균제들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 인간과 공생관계에 있는 세균들까지 죽여서 결국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우리 어머니세대의 흰빨래 만들기 작전이 그리 탐탁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나도 가끔 행주를 살아 쓴다. 아기의 천기저귀도 내내 삶아서 갈아채웠다. 그러나



그건 행주나 기저귀의 잡균을 죽인다는 의도이지 하얗게 보이고 싶어서는 아니다. 나는 오줌기저귀는 항상 물에 담궈서 오줌물을 빼내고 명물에 문질러서 명물에 삶아냈다. 흰 기저귀가 좀 탁하게 보일진 몰라도 세제에 표백제까지 써서 우리의 강물을 오염시킨다면 도대체 종이기저귀보다 나은 건 뭐 있을까 싶어서였다.

게다가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흰 빨래에 시간을 죄다 내줄 필요가 뭐 있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어떤 이들은 하얗게 뽀뽀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는 남편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옷을 보면 내가 들인 노동의 시간이 생각나서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걸.

어머니, 이렇게 빨아서 입고 살다 가게 내버려두세요. 우리 이래도 아무 불편이 없어요. 무분별한 세제남용 때문에 지구가 죽게 됐다는 소린 들었어도 누런 빨래 입다가 죽은 사람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김미진(주부, 35세)**

## 엄마 고집은 아무도 못말려!

우리집은 낡을대로 낡은, 지은 지 무려 20년이나 되는 아직도 연탄을 때는 오래된 주공아파트다. 연탄을 때고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 알 테지만 겨울은 정말이지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는 계절이다. 그래도 지금은 연탄보일러를 와서 수도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없던 옛날엔 찬물을 한가득 받은 커다란 솥을 연탄아궁이에 한참을 올려놓고 물이 뜨겁게 데워지면 주황색 바가지로 여러번 퍼다가 썼다. 그 추운 겨울날 엄마는 늘 찬물로 손빨래를 하셨다.

팬티에서부터 청바지, 잠바에 이르기까지 언니를 제외하고 교복세대가 아니던 나, 여동생, 남동생에게서 매일 쏟아지는 옷가지들과 아빠가 벗어던지는 흰 와이셔츠와 양말 등은 전부 엄마의 몫이었다. 더운 물이 풍족하지 않던 그 때, 처음 빨래감을 붙릴 때 말고는 세탁에서 행궁에 이르기까지 모두 찬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얼음보다도 더 차가운 겨울철 찬물로 30분 이상 빨래를 하다보면 아무리 흰 면장갑을 낀 고무장갑을 끼고 한다지만 그 손 시린거야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다. 엄마는 고무장갑 낀 손이 참을 수 없이 시려워지면 그제서야 한쪽에 찬물을 섞지 않고 한 바가지 담아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다. 그러기를 아주 여러번 반복해야 그 많은 빨래를 다 래치울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빨아진 옷가지들은 빨래판에 수북히 쌓이고 곧이어 “경화야, 경미야”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동생과 나는 서로 나가기를 미루다가는 몸을 움츠리며 다용도실로 가서 엄마와 빨래짜기를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차갑고 손이 시리던지 엄마와 함께 빨래질까지 마치고 나면 손은 어느새 뽀뽀하게 굳어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진다. 그제서야 엄마와 난 온기가 훈훈한 안방으로 들어가 뜨끈뜨끈한 구들장에 손을 대고 뽀뽀할까 언 서로의 손을 연신 주물러대곤 했다.

그렇게 살기를 10년 넘게 한 우리집은, 몇해 전 드디어 연탄보일러를 뺐다. 보일러가 놓일 즈음 세탁기

한대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했던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탈수만 되는 거란다. 그것도 누가 내다버린 것 주워온 거라고... 깨끗이 닦으니까 새것 같지 않냐고...

여하튼 물기가 잔뜩 배어 무거워진 청바지나 잠바를 빨 때 불려나가는 일은 없어졌다고 동생과 난 좋아했다. 물론 서로의 손을 주물러주는 살가움이 줄어든 것은 아쉬웠지만 말이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너희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지들 빨래를 왜 지들이 못해 입어',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내가 종이지 중, 니들 종이지' 하는 엄마의 불멘소리와 금속성 섞인 목소리가 빈번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실 내가 설거지를 하면 '차워, 니가 하면 그릇에 밥풀 묻은 거 도로 씻어야 해' 하며 내 기를 꺾 죽이거나 하고 빨래라도 할라치면 '니가 빨 건 때가 하나도 안져서 내가 다시 해야 돼, 방에 들어가 책이나 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체 그런 푸념은 왜 하시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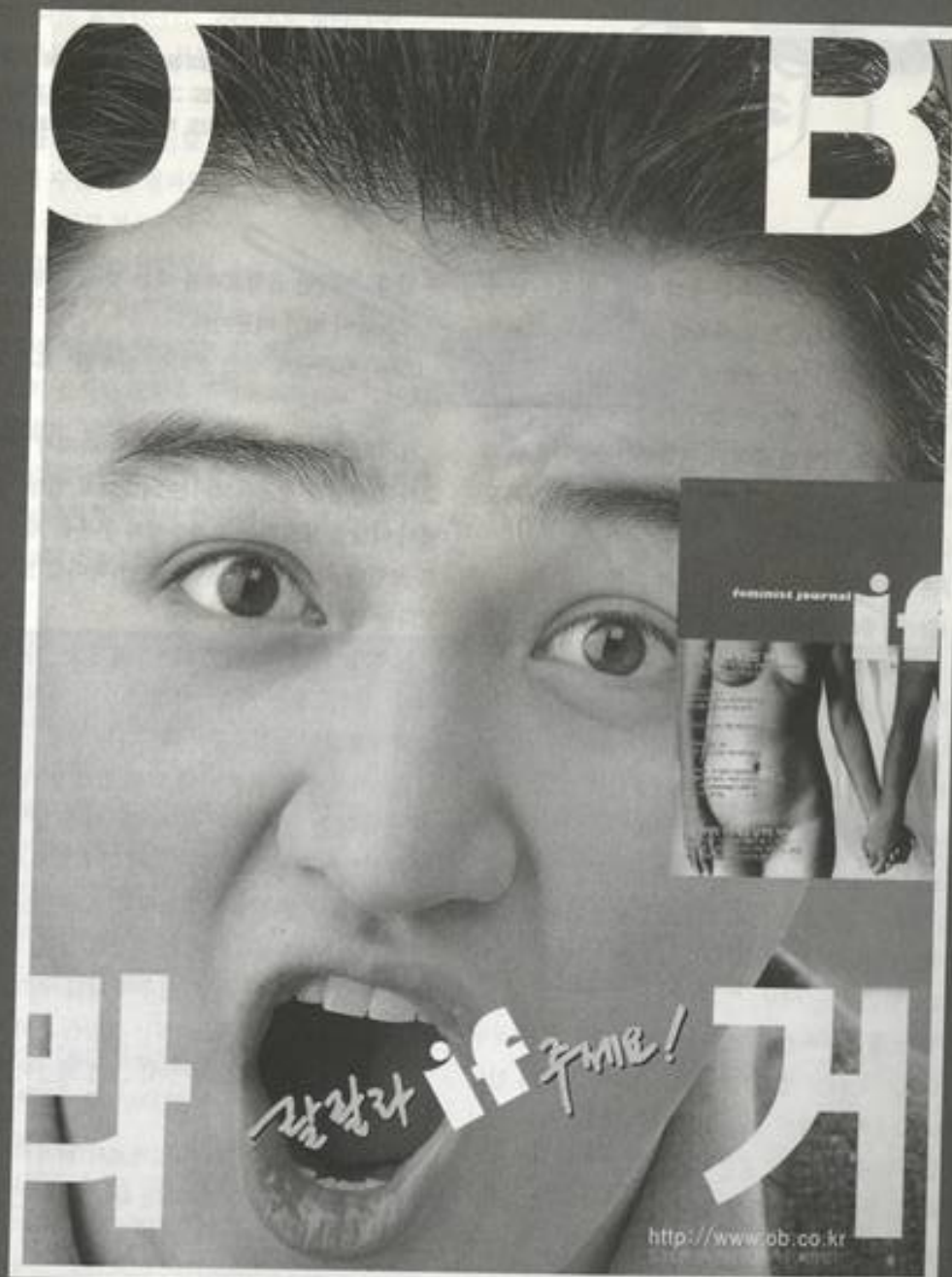
곰곰 생각해보니 이랬다. 처녀 적 농협에 다니셨던 우리 엄마는 꼼꼼하다 못해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성격이었고, 결혼후 가사일에만 전념하면서 그 방면에서도 유감없이 처녀적 배인 완벽함을 발휘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엄마손이 아닌 누구의 손도, 심지어 세탁기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된 건데, 그래도 처녀 적엔 주위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라도 들었지만 가사일에 있어서 엄마의 완벽함은 칭찬해주는 이도 없거니와 누구 하나 알아주거나 최소한 고마워하는 기색조차 없으니 온근히 부아가 나신 거였다. 나는 그런 엄마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완벽한 엄마를 뒀다는 것은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었다. 왜냐구? 늘 쪼이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전 오래 직장생활을 한 착한(?) 언니가 보너스 받았다며 제일 큰 뽕들이 세탁기를 기꺼이 집에 기증을 했다. 나도 가끔씩 빨래를 하다보면 그 시간이며 힘든 거며 괜한 짜증이 났었는데 그 세탁기를 보니 큰 집이라도 빔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이제는 빨래에 관한 엄마의 푸념은 안 들어도 되지 않은가.

'엄마 이젠 손빨래 안 해도 돼서 좋겠네!' 우리 세 딸은 세탁기를 이리저리 훑어보시는 엄마 옆에서 거의 엄마를 위한 만세를 불렀다.

그날 저녁, '경화야 빨래 빨 거 있으며 갖고 와' 하는 소리가 들려 '웁다구나, 드디어 세탁기를 써보려고 하시는군' 하고 평소에 감춰두었던 옷가지들을 잔뜩 들고 마루로 향하는데... 으잉~ 세탁기 주변에 엄마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였다.

어리둥절함과 동시에 깨달음이 오는 찰나, '빨래 갖고 와!' 하는 소리가 들려온 다용도실엔 가보니 예구구구 아니나다를까 빨간 고무장갑을 역칙스럽게 끼고 있는 엄마가 옷가지가 잔뜩 담긴 빨간 고무장갑바에다 물을 한가득 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경화(회사원, 26세) [1]





## 상대적이고도 절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난영 자음

매사에 긍정적이지 못한 여자가 있다. 그는 모든 걸 비꼬고, 뒤집어야 직성이 풀린다. 특히 기존에 '권위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은 일단 뒤흔어버려야만 하는 여자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녀가 비꼬고 뒤집고 뒤흔들으면, 그래서야 제대로된 것같이 느껴지니 웬일일까. 그가 (이)에서 '상대적이고도 절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의 연재를 시작했다.

**남자:**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종의 수컷. 성질은 난폭하고 사납지만 애완용으로 사육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다. 예전에는 암수의 구분이 매우 간단하여 짝짓기를 할 때 위에 있는 쪽이 수컷이었지만 근래에는 뒤집히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남자를 여자라고 착각하는 것은 이 동물에게 가장 치명적인 모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혼:** 날개옷을 도둑맞은 선녀의 악몽.

**사랑:** 일종의 의미없는 수식어. 혹은 의미없음을 의심하여 목숨을 걸기도 하지만 대부분 곳곳이 살아남아 의미없음을 체득하게 된다(사랑이 밥먹여주나?). 이 단어의 의미없음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세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증가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들은 Ref. 구피, 터보 등을 꼽을 수 있다.

**연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위해 시작하는 활동. 주된 효능은 자신의 성적체감 확립에 있다—이럴 수가! 내가 남자였다니... 혹은, 거봐요, 난 여자라고 말했었죠, 여보.

**가사노동:** 하루종일 움직이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신비한 효과가 있는 중노동. 흔히 사랑의 노동이라고들 하지만 이는 대가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섹스:** 종족보존을 위해 행해지는 육체적 활동에서 출발한 가장 대중적인 실내 스포츠. 고정된 룰은 없으나 출중한 역량을 가진 여성일수록 인기가 없는 유일한 스포츠. 여성들의 경우 이 스포츠에 임하기 전에 낯달걀 한두어개쯤은 먹어두는 것이 스포츠맨십이라 할

수 있다. 적당한 음향효과를 내는 것이 상대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혼:**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몸부림. 혹은 생존본능.

**재혼:** 강렬한 고통과 지옥의 화염 속에서 남다른 순교자적 인생을 창조해보려는 예술가적 열정. 고통 속에서 해탈을 도모하는 요가수행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번 속아도 또 속을 수 있다는 단적인 증거.

**정치가:**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없는 가장 안정된 직업. 단점으로는 퇴직금이 없으므로 재직시 알아서 쟁겨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정도.

**돈:** 가치척도. 이걸 주면 먹을 걸로 바꿔주는 신기한 종이 혹은 금속조각. 이 자체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무인도에 표류라도 하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다.

**강간:** 쌍방 중 일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격정적인 섹스. 남자들의 성적인 환상의 정점. 상대는 누구라도 좋다는 것이 특징. 경우에 따라 구속되기도 하지만 늘 억울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피의자라는 점이 관찰의 포인트 (난 당했어! 그건 화간이었던 말이야)라고 할 수 있다.

**포르노:** 신 자연주의의 일파로서 허례허식을 거부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식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간본연의 모습을 추구한다.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일파도 있는데 기독교적인 전통이 특히 우세하다. 에덴동산에서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신이 주신 자연스럽

고도 정의로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일본에는 스스로 돕는 무리들이 많다?

**오르가즘:**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황홀의 경지. 섹스에 수반하는 결과로 간주되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보고된다.

신체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지가 뻗뻗해지고 체온이 올라가며 혈압이 상승되는 등 발작의 증상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화이트데이:** 하얗게 텅빈 머리로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 일년중 하루라도 단맛을 보며 살라는 박애주의적 이념의 한 표현.

IMF: I aM Fucked.



### 자식과 암의 공통점 5가지

1. 일단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
2. 시간이 갈수록 자란다.
3. 자랄수록 감당하기 어렵다.
4. 때때로는 돈이 많이 든다.
5. 당신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란다.

### 남자와 강아지의 공통점 5가지

1. 먹이를 챙겨주어야 한다.
2. 털이 많다.
3. 시간을 내서 놀아주어야 한다.
4. 바깥을 잘 돌아놓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5. 복잡한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 남자가 강아지보다 편리한점 5가지

1. 돈을 벌아온다.
2. 혼자 두고 여행을 다닐 수 있다.
3. 데리고 다닐 경우 여자 목욕탕을 제외하고는 출입제한을 받지 않는다.
4. 간단한 심부름은 시킬 수 있다.
5. 생리적인 욕구도 해결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보다 강아지가 좋은 이유

1. 부담없이 때릴 수 있다.
2. 두 머리를 함께 키워도 뜻밖이 없다.
3. 돈이 적게 든다.
4. 강아지의 부모로부터 간섭당하지 않는다.
5. 외박을 하고 돌아와도 꼬리치며 반겨준다.

## 배반과 위무慰撫의 드라마, 모녀에 관한 몇가지 삽화



「마요네즈」의 저자 전혜성

98년 벅두 우리는 '몽쳐야 산다'. 다시 허리를 졸라 매자'라는 70년대 식의 낡은, 그러나 이제는 절실하게 다가오는 명제 앞에 서 있다. 그 몽침의 구심점에 아버지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의 최대 희생자는 일터에서 밀려나 추운 거리를 떠돌고 있는 아버지들이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들의 어려움을 더해주는 존재는 달팽이처럼 아버지 등에 주렁주렁 매달린 가족이다. 이혼이나 불륜 같은 불온한 일탈을 꿈꾸던 아내, 랍송을 듣고 힙합바지를 입고 아버지의 권위에 반항하던 '나쁜' 아이들은 이제 일탈과 탈주의 꿈을 접고 가정으로 회귀해야 한다.

### '아버지 담론'과 '아리랑 고개의 여인들'의 이야기

이리하여 낡고 찢겨진 가족 사진첩이 다시 들춰지고, 해체된 가족의 이야기는 빠른 속도로 복원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이문열의 「선택」에 이르는 이른바 '아버지 담론'이 아마도 올해는 문학의 중심을 장악하면서 그나마 자리잡기 시작한 여성작가들의 이야기를 잠식할지도 모른다. 흔들리는 가장의 자리를 찾아주고, 가족의 이야기를 복원하는 것이 코

앞에 닥친 위기를 넘어서는 지혜인 양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자아찾기나 내적 갈등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철없는 행태로 비칠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가장 먼저 침묵해야 할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이고, 화급한 현실을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허물어져가는 가족으로 인해 가장 상처받은 자는 누구인가. 역사의 고비마다 큰 뜻을 품고 밖으로 떠돌다 사라져버린 아버지와 남편의 자리를 대신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뒤돌린 우리 가족사를 바로잡아 써내려간 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 땅의 수많은 '아리랑 고개의 여인들'(김연, 「나도 한때는 자작나무를 땀다」)이고, 어머니이

다.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여성들의 이야기, 때로는 경외의 대상으로 때로는 희생자로 비춰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필자는 최근 문학상 수상작이나 여성작가들의 근작을 읽으면서 이들의 작품이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껏 일방적인 희생이나 경외의 대상으로만 여겨져왔던 '모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보거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미됨의 과정을 통해 사회와의 소통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은 안정된 가족, 강하고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가족이나 모성과 연루된 오래된 신화를 깨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 어머니와 딸, 그 애증의 드라마

어머니와 딸은 영원한 짝패이자 서로를 비워주는 거울이다. 이들이 같은 성이라는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분모인 '여성'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입거나 입혀왔다. '애증의 드라마'는 이 때문에 확대재생산된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자면 딸은 자신의 자아성취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꿈을 대신 이뤄줄 소망충족의 대상일 수도 있다. 해서 딸의 일탈이나 배신은 커다란 상처로 각인된다. 딸의 입장에서 보자면 희생하는 어머니, 그러나 끊임없이 딸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 탐욕스런 어머니는 이율배반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딸은 어머니가 촌충처럼 놓은 금기와 욕망의 그물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 땅의 수많은 딸들은 그래서 '난 어머니처럼 살지는 않을거야'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장하고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자신도 어느덧 '어머니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절망한다.

대개 어머니와 딸 사이의 갈등과 화해의 드라마는 딸의 시각에서 그려진다. 이 땅의 딸들은 어머니의 고단한 삶의 경로를 부정적인 모델로 여기고, 교육을 통해 어머니 세대

에 비해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면서 가부장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의 '현재'를 냉정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딸의 눈에 비춰진 어머니는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탐욕스런 어머니, 신경쇠약 직전의 부주의한 어머니,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어머니, 희생을 감내하고 가족의 유지를 성공적으로 행하는 강한 어머니로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난다.

### 탐욕스런 어머니와 경멸하는 딸, 전혜성의 「마요네즈」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자르는 가족의 풍경으로 시작하는 전혜성의 「마요네즈」는 탐욕스런 어머니의 모습을 경멸하면서도 냉소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딸의 반응은 경멸과 거리두기이다. 어머니와 낡은 가족이 처놓은 덫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새로운 가족을 일군 그녀에게 어머니의 방문은 침입으로 여겨진다. 어머니의 방문과 더불어 집안은 이수라장이 되고 딸의 일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어머니 때문에 애써 딸은 자서전 대필은 전혀 진척이 없다.

더군다나 대필자서전의 주인공은 무능하고 추하게 늙은 어머니와는 정반대로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여왕'과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딸은 어린 시절 왕비같이 우아하고 굽던 어머니가 탐욕스럽고 갖가지 질병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딸에게 끊임없이 기대면서 천박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노인네로 변해버린 이유에 대해 전혀 둔감하지는 않다. '침울한 왕'과 같이 '아무런 변화없는, 딱딱함만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질서에 질식당한 한 가족의 음화가 그려진다. 그 음화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구타에 멍든 모습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병적으로 약에 탐닉하거나 사치를 거들하는 '사양길 여배우'와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다.

딸에게 '엄마의 미모, 엄마의 병, 엄마의 희망'은 '수많은 종류의 용석을 꾸러넣은 찢어진 종이상자'(36쪽)와 같다. 작품은 평온한 가족사진첩의 밑에 감춰진 폭력이나 소외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로부터

딸들을 보호하지 못한 채 자기 연민에 젖어 몰락해가는 어머니를 다 같이 거리를 두고 비판하고 있다.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있을 때나, 지금 딸의 집에 얹혀 살면서도 자신을 위해 머리에 마요네즈를 바르는 부분에서 탐욕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은 절정에 이른다. '마요네즈'는 '엄마와 아버지를 연결시키는 어떤 비극적인 코드의 암호' (181쪽)이다. 또한 마요네즈는 어머니의 허영과 이기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표

이다. 집안에 퍼진 마요네즈 냄새는 딸이 어머니에게로 향한 연민의 눈길을 거두고,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가 허상뿐인 가족으로 묶인 '혈연의 노예'에 불과함을 자각하게 해주는 환기물이다. 딸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이렇게 '타자화'된다. 하지만 타자화는 여전히 연민과 경멸 사이, 어린 시절 장미 같았던 어머니에 대한 아련한 향수와, 퇴락한 지금의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사이에서 양가적인 시선을 담은 채 이루어진다.

딸이 경멸의 시선을 거두고 어머니의 모습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어머니 목소리의 복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마요네즈』에서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자신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비로소 제목소리를 낸다. '엄마의 겹절을 찢고 나온 엄마는, 먼 훗날 홀로 노쇠해질 내 얼굴처럼 보였다' (191쪽)는 고백은 딸이 이기적인 어머니의 얼굴 이면에 감추어진 상처를 이해하고 자신 또한 그 상처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표이다. 그러나 화자는 섬뜩히 어머니의 상처를 위무하려 하거나 화해의 몸짓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엄마와 딸 사이의 배반과 오해의 골이 깊고, '희망없는' 가족에게 남은 것이라곤 계약과 의무뿐임을 화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신경증의 어머니와 떠도는 딸, 배수아의 '부주의한 사랑'

우리사회에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밖의 나머지를 잃는 것이다. 바깥의 삶을 포기하고 안의 세계에 갇힌 여성들은 하나같이 신경증을 앓고 있다. 『마요네즈』의 어머니는 약기운이나 나르시즘에 취해 감금 상태를 견뎌낸다. 배수아의



『나도 한때는 자작나무를 땀다』의 저자 김연

소설에 나오는 어머니도 신경쇠약 직전의 부주의한 어머니이다. 그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 누구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때혹적인 여성, 자기 일에서 성공한 여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에게는 누구의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사회적인 징표가 붙여지지 않는다. 물리적인 나이에 대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렘소디 인 블

루』와 『부주의한 사랑』에서 가족은 유약하고 이기적인 어머니로 인해 해체된다. 딸이나 아들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또래끼리 무리지어 다님으로써 어머니의 부주의와 배반에 대항한다.

『부주의한 사랑』에는 부주의한 신경쇠약 직전의 어머니/이모와 그 어머니/이모의 딸이기를 부정하고 자신을 사생아로 여기는 딸이 나온다. 자신이 어머니의 딸인지, 이모의 딸인지 가늠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서 키웠던 어머니에 대한 배반의 몸짓이다. 어머니 부정은 이미 태내에서 심리적 상처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과 열정을 이겨내지 못한 채 신경증을 앓는 이모이자 어머니로 인해, 과부의 몸으로 사생아를 낳은 자신의 친어머니로 인해 그녀는 세상의 모든 가족을 부정한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구성원 바깥을 떠돌고 영혼 또한 정주하지 못한다. 남자친구의 사촌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부주의한 사랑의 진원지, 진정한 관계맺음이나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영혼의 방목 상태의 근원은 '부주의한' 어머니이다.

떠도는 딸에게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친' 어머니가 아니라 양어머니이거나 계모이다. 진짜 어머니는 과도한 사랑의 열정이나 부도덕한 불륜에 빠져들거나, 그도 아니면 자기 연민과 자학을 거듭하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제 그녀는 역설적이게도 이 어머니의 비극을 되풀이함으로써 자신이 받았던 배반에 답한다. 책 제목처럼 딸이 선택하는 인생은 어머니처럼 '부주의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경증의 어머니가 불러온, 자살과 살인과 이별로 쓰여진 비극적인 가족 시나리오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딸들은 끊임없이 사랑과 사랑 사이를 떠도는 것이다.

####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을 꿈꾸는 어머니와 딸, 김연의 『나도 한때는...』, 공지영의 『착한 여자』

같은 연배이자 유사한 경험으로 80년대를 보낸 김연과 공지영, 두 작가에게도 여성성/모성은 세대적, 성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90년대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한 화두

이다. 『나도 한때는 자작나무를 땀다』의 수민이나 『착한 여자』의 정인은 모두 남성중심적인 논리에 훼손당한 존재들이다. 『나도 한때는...』에서처럼 운동권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논리에 침윤되어 있기 때문이다. 『착한 여자』에서처럼 가족사의 상처로 인한 것이든 남성들은 일방적이고 상처를 입히는 존재이다. 타인에게는 더없이 친절하지만 가족에게는 불성실한 남성들과 운동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해야 하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가정은 더 이상 안



『착한 여자』의 저자 공지영

온한 장소가 아니다. 『나도 한때는...』의 수민과 인실은 남성들이 내팽개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출산과 육아의 고통을 혼자 치워야 한다. 또한 『착한 여자』의 정인은 무관심 속에 버려진 채 거식과 폭식을 번갈아하고 자살을 기도한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상처를 훌쩍 뛰어넘는다. 아이는, 특히 딸은 어미의 상처를 위무하고, 사막 같은 세상을 함께 건너가는 '길동무'와 같은 존재이다. 『나도 한때는...』의 수민은 아이의 생일 때마다 여행을 떠나면서 과거 80년대 학교와 현장에서의 운동 경험,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끊임없이 보고 반성한다. 그녀는 또 다른 남자 규의 결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인실을 보듬고 함께 길을 떠난다. 아이를 길러본 자, 남성성의 원리에 훼손당해본 자끼리의 동류의식과 자매애가 이들간의 소통을 가능케 한다. 『착한 여자』의 정인도 자신의 딸과 이혼한 변호사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밥과 육아와 사랑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오랜 세월 쌓인 상처를 치유한다.

앞서 소설들과는 달리 이들의 소설은 어머니의 입을 통해 진술된다. 어미됨의 고통과 기쁨을 체험한 이들은 한층 성숙한 눈으로 세상과 화해하고자 한다. 『나도 한때는...』의 딸미에서 수민의 고백처럼 이들은 더 이상 '강한 자의 역사'에 끼려 하지 않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여성이란 성을 담담히 받아들이기' (330쪽)에 이른다. 이들의 상처 치유 이야기가 소중한 것은 이들이 다른 여성들의 상처마저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의 불우한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과 맞닿아 있음은 물론이다.

#### 어머니와 딸 간의 평등한 소통을 바라며

어머니 혹은 딸로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현실의 어머니들은 탐욕스러우면서 회생적이고, 부주의하면서 사려깊다. 아직까지 우리 소설들은 이와 같은 어

니의 양면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의 서사와 딸의 서사가 한 작품 안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요네즈』에서 어머니의 역사가 좀더 세심하게 다루어졌다면, 『부주의한 사랑』에서 어머니의 신경증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딸이 아닌 어머니 자신의 '입'을 통해 기술되었다면 하는 점들은 그래서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



#### 김양선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문제나 여성문제에 '자생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됨. 자생적인 관심을 문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대학원에 진학. 국문학을 전공했으며 지금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곳저곳 시간강사로 나가고 있음. 근대성과 여성문학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공부 계획임.

얼마 전 가족사진첩을 정리하다 내 어머니의 초저적 사진을 보게 되었다. 사진속 어머니는 당시 유행하는 신세(新世?) 복장을 하고 세상 모든 꿈이 당신의 것인 양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내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더라는 위대한 깨달음. 이 글을 쓰면서 나도 '딸'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보아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다. 가끔씩 어머니가 내뱉는 말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나도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라는 식의 고백을 들으면서 혼자 분해하고 실망했던 걸 보면 말이다. 어머니도 욕망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어머니의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되는 것. 나도 이제 삼십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어지 않아 가능해질 것 같다.

# Miss No

98' BY DDAK

고등학교 때였다.  
 성이 변하면  
 붙여 신발장까지 새로고쳐  
 신발의 형태도 다듬어주고 나서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났었다.  
 그후로도 종종 선생님들  
 철과 어울리지 않게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나곤 했었다.  
 그리고 또 얼마후  
 우리는 선생님의 임신소식을 들었다.

어머. 은정언니  
 언제 돌아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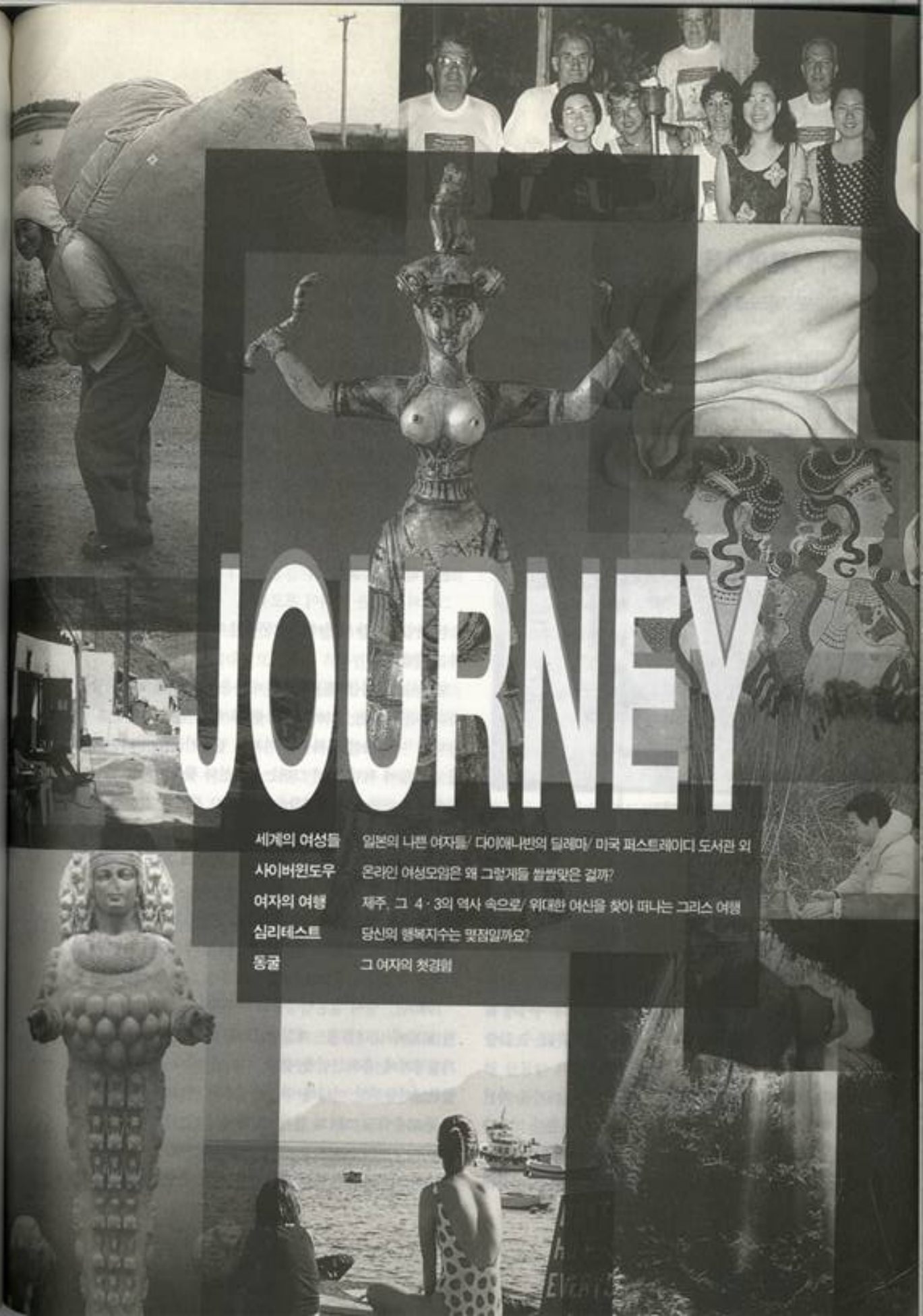
원니 더  
 생각했었다.

대! 일년  
 죽었다.

그런데 날  
 다들  
 죽은 스카프!!







# JOURNEY

세계의 여성들 일본의 나쁜 여자들/ 다이애나비의 딜레마/ 미국 퍼스트레이디 도서관 외  
사이버원도우 온라인 여성모임은 왜 그렇게들 뽐뽐맞은 걸까?  
여자의 여행 제주, 그 4·3의 역사 속으로/ 위대한 여신을 찾아 떠나는 그리스 여행  
심리테스트 당신의 행복지수는 몇점일까요?  
동굴 그 여자의 첫경험

## 일본의 나쁜여자들

유재순(『일본은 자궁으로 승부한다』 저자)

## 사생아 입적에도 당당하다—잔마 리에코

잔마 리에코(殘間里江子, 48세)는 89년 6월 아이를 낳자마자 호적에 올리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 “이 아이를 내 호적에 넣어 주십시오.”



일본의 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 잔마 리에코

그러자 구청직원이 대답했다.

“6개월 전에 이혼하셨지요? 그러면 전남편의 호적에 올려야 합니다.”

“이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입니다.”

“그러면 애 아빠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민법상 이혼 10개월 이내에 태어난 아기는 법적으로 전남편의 아이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엄마의 호적에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 즉시 그녀는 구청을 상대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해줄 것을 정식으로 재판에 청구했다. 그 다음날부터 그녀는 주간지와 일간지들의 표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아이의 아버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

면 세상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생아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해, 그것도 여자가(?) 당당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낸 전례가 이제껏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매스컴은 그녀의 소송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의 해석과 함께 여성운동가들의 코멘트도 곁들이면서, 과연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 매스컴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한 잔마 리에코는 어떤 여성일까? 일본 언론에서 잔마 리에코 하면 80년대에 그녀가 이룩했던 ‘기적의 3부작’을 끝까지 거론한다.

## 잔마 리에코의 3대 기적

그녀의 직업은 미디어 프로듀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직업이지만 일본에는 전문적인 직업으로 정착된 지 이미 오래됐다.

SBS시즈오카(靜岡)방송의 아나운서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던 그녀는, 그러나 2년 반 후에 그 일을 그만두고 주간지인 『여성자신』에서 계약기자로 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스케일이 워낙 컸던 그녀는,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5년 반만에 기자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독립했다. 출판, 광고, 영상, 문화이벤트, 포럼 등을 기획제작하는 회사로, 바로 이곳에서 ‘3대 기적’을 일구어 낸 것이다.

첫번째 기적은 은퇴한 지 20여년 가까이 된, 지금도 일본인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던 한 인기 여가수의 자서전 기획물.

1980년, 당시 일본남성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아마구치 모모에(山口百恵, 재일동포2세)라는 인기 여가수가 인기절정기에 은퇴선언을 했다. 그 때 아마구치의 은퇴는, 일본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커다란 아쉬움을 남겨 은퇴후에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었다. 바로 이 아마구치의 자서전을 잔마 리에코가 기획한 것이다.

사실 아마구치는 인터뷰를 안 하기로 유명한 데다가, 은

퇴사유가 결혼이었고 또 무엇보다 그녀는 결혼가정 출신의 재일동포 2세라 정상적인 가정을 늘 동경해왔기 때문에 결혼을 계기로 두번 다시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기어코 아마구치를 ‘자서전출판’이라는 명목으로 대중 앞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 자신이 출판허락을 받아냈고, 인터뷰는 물론 원고까지 쓰는 등 총편집하여 프로듀서한 것이다. 책은 출판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렸다. 인쇄된 것이 없어 못 팔 정도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키며 자그만치 3백만부나 팔렸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획출판이었다. 이 때부터 그녀는 일본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두번째의 기적은 그녀가 여성잡지 『프리FREE』를 편집하면서 만들어냈다.

당시 일본에는 록히드사건(76년 8월 16일, 다나가 가루에이 일본수상이 총리대신으로서의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미국의 록히드사로부터 5억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으로 정·재계가 모두 발칵 뒤집혀 있었다. 결국 다나가 가루에이(田中角榮) 수상은 현직에서 물러나고, 일본인들은 금권정치의 원조격인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었다. 그의 집을 비롯하여 그 어느 곳이라도 다나가 전 수상이 나타나는 곳이면 기자들이 발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다나가 전 수상을 인터뷰한 기자는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잔마 리에코였다. 당시 2백여 곳의 매체를 따돌리고 단독으로 성공한 인터뷰였다. 그 때 일본 언론들은 그녀의 추진력과 취재력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경쟁사로서의 패배를 인정했다.

세번째 기적은 마침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시행되었던 86년에 이룩한 거대한 이벤트 행사였다. ‘지구는 나의 일터입니다’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에서 남녀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일하는 여성 105명을 패널리스트로 참가시켜 토크쇼를 벌였다. 자그만치 10일 동안 1만여명이 참가, 대단한 호응을 불러 일으킨 빅이벤트 행사였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역시 잔마 리에코다운, 기적 같은 대형기획작품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 이벤트 메이커에서 스캔들 메이커로

그런 잔마 리에코가 89년에는 사생아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해 소송까지 넘으로써 스캔들메이커로 매스컴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것이다.

그녀에 대한 일본여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천차만별이었다. 40,50대 전업주부들은 노골적으로 ‘나쁜 여자’라며 적개심을 감추지 않았고, 20,30대 젊은 여성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체로 이해하는 입장에 섰다. 그러가 하면 페미니스트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는데 그녀의 아이의 입적판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권신장이 한발자국 전보하느냐 후퇴하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간지나 여성지들의 입장은 또 달랐다. 80년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에인’(일본에서는 사랑하는 미혼남녀의 호칭은 연인, 불륜관계는 에인이라고 부르므로 만약 미혼남녀에게 에인이 있느냐고 물으면 큰 실례가 된다) 붐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따라서 유부녀의 입장에서 애아버지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호적에 입적을 시키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잔마 리에코의 행동은, 그야말로 내면적으로만 자유의 노라가 되고 싶어하는 일본여성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때문에 공격이든 사적이든 그녀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거나 친했던 유부남들은, 출지에 애아버지 용의자(?)로 의심받아 태어난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 심지어 그녀와 가깝다고 소문난 한 유부남은 부인으로부터 신랄한 추궁을 당해 한동안 부부관계가 불편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그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매스컴과 주부들로부터 거센 비난이 일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남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비도덕적인 여자, 악녀로 때도했다. 또 그녀의 일까지 영향이 미쳤는데 수개월 전에 약속된 강연요청과, 계약했던 프로젝트, 심포지움의 패널리스트 출연 요청이 취소됐던 것이다.

결국 1년후 드디어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넣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언론들은, 이 판결을 사회면 톱기사로 올리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진일보했다며, 별성별로 갖기운동 차원에서도 부합되는 판결이라고 대한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대는 여성시대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지만 남자의 호적에 들어 있지 않은, 종이조각(호적) 밖에 있는 여성은 ‘제쳐놓는다’는 시선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일이 있어서 괜찮지만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옛날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성을 미혼·기혼, 낳았다 낳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봅니다. 자신과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특히 여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세간에 대해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혼모가 된 것으로 (매스컴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녀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가끔씩 그녀가 매스컴에 얼굴을 내밀 때, 아이 아빠가 몇번 다녀갔다 하는 정도만 귀띔해줄 뿐이다. 또 그녀를 그토록 비난했던 주부들은 이제 하나의 또다른 라이프스타일로 그녀를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증거에 닮아나이다.

#### 나쁜여자의 대명사, 아이돌가수 — 마츠다 세이코

그녀를 일컬어 일본언론들은 스캔들메이커라고 부른다.



세계적 세이코가 되기 위해 일본식 화장법을 벗어나 메이크업과 패션을 바꿨다.

반면 20·30대 여성들에게는 압도적인 ‘마마돌’의 최고 우상으로 군림한다. 작년 말, 그녀의 디너쇼 티켓이 발매가 되기도 전에 100% 예약매진되었고, 20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전국투어콘서트는 티켓발매 20분만에 동나버렸다. 마츠다 세이코(松田聖子, 36세), 일본 아이돌가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일본에서 현대적인 여성을 거론할 때, 마츠다 세이코를 제외하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또한 여대 입학시험에 그녀에 대한 것이 논제로 등장할 만큼 학문적으로도 그녀의 위치는 확고부동하다. 어디 그뿐인가. 일본의 최고학부인 동경대의 교수는 그녀에 대한 논문으로 많은 갈채를 받았다. 지금도 그녀에 대한 동경대 교수의 논문은, 사회학적으로 여성의 지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인용되는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여성지나 주간지에 그녀가 등장하지 않으면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사실일 만큼 그녀는 스캔들 제조기로 통한다. 설사 화제가 될만한 이야기가 없으면 일부러 만들어서 행동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기사만큼은 끊임없이 생산(?)

해낸다.

2학년의 학생신분으로 ‘미스세븐’ 콘테스트에 큐슈대표로 참가하여 우승하면서부터 마츠다 세이코는 연예계의 신데렐라가 되었다. 청순하면서도 귀여운 용모가 소니레코드사의 눈에 띄어 <나츠의 계절>이란 노래로 정식가수 데뷔를 한 것이다.

#### 스캔들 제조기

마침 그 해에는 인기절정의 인기 여가수 아마구치 모모에가 결혼과 함께 은퇴한 해여서, 레코드대상 신인상 수상과 함께 등장한 함직한 외모의 마츠다 세이코는 데뷔하자마자 인기스타 대열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5년후 그녀는 한창 인기절정의 나이 스물셋에 영화배우 간다(神田正輝)와 결혼했다. 간다는 여대생들의 앙케이트조사에서 선호하는 남편감 1호로 선정될 만큼 준수한 미남배우이다. 하지만 세이코는 간다와 결혼하기 전 약혼자가 따로 있었다. 같은 가수로 역시 톱스타였던 고 히로미와 연애하여 공개적으로 약혼까지 했었던 것. 그런데 세이코가 간다와 사귀면서 고 히로미를 헌신짝처럼 차버린 것이었다.

이 때부터 세이코는 스캔들 메이커로서의 명성(?)을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한다. 인기절정에서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는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미남배우와 결혼에 끝인한 그녀는 얼마 후 딸을 낳았다. 그리고는 남편과 딸은 일본에 남겨둔 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영어연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물론 남편인 간다의 동의를 얻은 일이라 일본여성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렇지만 미국에 가서도 그녀는 조용히 있지 않았다. 뉴욕에 여행은 일본 남자가수와 카페에서 진한 키스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그 남자가수의 연인이었던 나가모리 아키라라는 유명가수가, 동맥을 끊어 자살미수에 그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래도 소동의 원인인 세이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인 간다도 아내를 믿는다고 두둔하는 코멘

트를 했다. 그러자 세이코를 맹비난했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남편이 믿는다는데야 하고 입을 다물 어버린 것이다.

1년후 일본에 돌아 온 세이코는 미국가요계 진출을 서둘렀다. 일본의 세이코가 아니라 ‘세계의 세이코’를 꿈꾸었던 그녀는, 제2의 마돈나가 되기 위해 영어까지 배웠던 터, 두 나라를 오가며 레코드 취입을 한 후 본격적인 가수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제1차 미국진출은 참패로 끝났다. 세계적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기에는 아무리 많은 영화를 들이민다 하더라도 가창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랐던 것. 여기에 또 하나의 대형사건이 터져버렸다.

제프라는 미국청년이 뉴욕으로부터 한아름 사진을 들고 와 책을 낸 것. 뉴욕에서 유학할 당시, 세이코의 개인영어 교사였던 그와 반동거하다시피하며 찍은 사진과 이야기를 공개출판한 것이다. 이 때도 그녀의 남편은 아내인 세이코의 말을 더 믿는다는 말로 이혼가능성을 일축했다. 오히려 경악한 것은 일본여성들이었다. 그들 부부가 금방 이혼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항상 제멋대로인 세이코를 늘 감싸주는 남편 간다.

#### 남편과 딸을 두고 미국으로

봉건세대에 속하는 50·60대의 주부들은 그녀를 가리켜 악마 중의 악마라고 비난하면서, 간다에 대해서는 아내의 부정을 모른 척하는 바보 같은 남자, 모자란 남자라며 싸잡아 힐난했다. 하지만 20·30대의 직장여성이나 주부들은 전혀 달랐다. 과거에 싫어하던 여성들마저 열렬하게 그녀의 팬이 되어주었다. ‘여성의 적은 바로 여성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세이코는 오히려 현대여성들의 열화 같은 지지로 오늘의 위치에까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엄마로서의 그녀는 어떤가.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를 챙겼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의 운동회나 학교행사에 참가하여 보통엄마들처럼 자리를 지켜 아이에게도 ‘파티타임’이라 해서 파티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세이코의 삶의 형태에 일본여성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자신들의 꿈을 그녀가 고스란히 실현해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여세를 몰아 작년에 발매된 싱글 CD는 약 2개월만에 백만장을 넘는 대히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세이코는 아니었다.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 준비의 하나로 그녀는 작년, 드디어 그 말했던 간다와의 부부생활을 청산했다. 물론 이혼요구는 세이코가 한 것이다. 미국에서 성공을 하려면 전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강력하게 남편을 설득한 것이다. 현재 세이코는 이혼후 그녀의 계획대로 일본과 뉴욕을 오가며 제2의 미국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일본여성계에서는 80년대를 여성시대, 혹은 세이코시대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고용기회균등법, 여성들의 음주흡연 증가, 전직률, 수입 증가 등으로 일본여성들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성의 시대에 가장 선두주자로 달려온 것이 바로 마츠다 세이코였다.

"아마구치 모모에는 톱스타의 지위를 버리고 가정주부라는 길을 선택하므로써 전 세대의 길을 좇았습니다. 그녀의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이코의 등장으로 선택의 폭이 '이것도 저것도'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변화이지요." 사회학자 우에시마(植島啓司)의 말이다.

봉건세대들은 가정이나 일이나의 기로에 서서 주로 가정을 선택했는데, 현대여성들은 일도 하면서 가정도 갖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세이코처럼 스스로 나서서 이것도, 저것도 모두 내것으로 취하는 공격형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녀는 남자들에 의해 선택받던 어머니세대들의 인생을 단호히 거부하고, 확실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라이프스타일의 뉴리더로서 일본마마들의 최고 우상이 되고 있다.

## 죽음을 부른 다이애나빈의 딜레마

김신 명숙(본지 편집위원)

"다이애나빈의 딜레마는 그녀가 전통적 여성도 현대적 여성도 아니었다는 데 있었다. 이 같은 것은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갔다."

독일의 유명한 여성운동가 알리스 슈바르처는 최근 자신이 발행하는 페미니즘 잡지 '엘마'에 쓴 「동화나, 치명적 정치스캔들이나」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그녀가 해부한 다이애나의 삶과 죽음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요약한다.

다이애나는 81년 7월 찰스 왕세자와 결혼하면서 귀족 출신의 보모에서 하룻밤 사이에 전세계의 꿈의 여인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이어진 15년간의 결혼생활에서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찍히는 여성'으로서 각종 잡지의 표지와 신문지면을 장식하며 최고의 화려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열광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에게 열광했으나 그녀와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를 경멸했다. 밖에서 그녀는 빛났으나 안에서는 우울에 빠졌다. 이러한 운명은 그녀처럼 대중적 인기와 관심을 모으는 사람들에게겐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나 브리지트 바르도와 달리 그녀는 세상의 관심을 스스로 만들 어낸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얻었다.

재클린 케네디는 여러 면에서 그녀와 비교된다. 그녀 역시 다이애나처럼 남편에게 배신당했고, 다이애나가 이혼 후 아랍 부호의 아들인 도디 알 파에드를 만났듯 퍼스트레이디 자리에서 물러난 후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의 전리품이 되었다. 그러나 말년에 출판사 편집자로 일했던 재클린에게는 모욕을 당할 때 돌아갈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다. 하지만 다이애나에게는 자기만의 세계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항상 상대적이었고 이혼 후에도 자신의 두 발로 서지 못했다.

도디 알 파에드와 다이애나의 관계는 정략적인 것이었다.



물고 있는 다이애나.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앉아 물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세계적 부호인 도디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영국사회로의 진입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자신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다. 원저궁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다이애나는 우습게도 자신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려고 했다. 그것도 단지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약간의 왕족의 고귀함, 약간의 테레사 수녀의 이미지, 약간의 편집 걸, 거기에 약간의 페미니즘이 가미된 자신의 키치적 삶에 다이애나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여인상과 현대적 여인상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그녀는 객체이면서 동시에 주체가 되고자 했고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다이애나는 주어진 규칙을 쫓아 힘이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세력을 얻은 90년대의 산물이었으나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갈 힘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19세기의 산물이었다. 다이애나는 또 허영의 유혹에 저항할 힘이 없었

고 결국 희생자가 되었다.

알리스 슈바르처는 이 글에서 다이애나와 도디의 죽음이 그들의 결혼을 막으려는 영국 정보기관의 음모일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했다. 다이애나는 도디와 결혼한 후 이슬람교로 개종할 계획이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그럴 경우 그녀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정치전략적으로 서양여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쟁취한 최고의 전리품이 되었을 것이다. 그녀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차도르를 쓰고 여성차별이 극심한 이슬람의 가치를 옹호하는 전혀 뜻밖의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됐을지도 모른다. "다이애나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손 안에 있는 놀이공이었다"는 슈바르처의 주장이 새삼 아프게 가슴에 와닿는다.

## '총리부인' 자리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한 두 여자

세리 부스 & 실비안 아가친스키 조스팽

김신 명숙(본지 편집위원)

불과 수년 전 힐러리 클린턴이 전세계에 보여준 '전문직여성'이란 문장을 가진 퍼스트레이디 상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일을 가진 퍼스트레이디는 하나의 시대적 추세로 자리잡아가는 듯하다.

지난 해 5월 영국과 프랑스에서 총리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와 리오넬 조스팽의 아내들도 유능하고 지적이며 맛있는 전문직여성이라는 점에서 결코 힐러리 클린턴에 뒤지지 않는다. 이 두 여자는 강한 자의식 면에서 오히려 힐러리를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톱클래스 변호사 세리 부스는 총리부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일을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다. 현재 그녀에 대한 평가는 변호사와 총리부인으로서의 이중역할을 무리없이 잘 소화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단, 역할에 따라 그녀의 모습은

매우 다르다고 한다. 총리부인으로서 그녀는 말이 없고 엄전하며 한 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로서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다. 법정에서의 그녀의 변론은 탁월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최근에는 유럽재판소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변호해 여성들의 주목을 끌었다. 철도국 직원인 한 레즈비언이 동성 커플도 양성 커플이 받는 여행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며 동등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그녀의 편에 서서 법정싸움을 벌였던 것. 세리는 남편보다 정치적으로 더 급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리 부스와 그의 남편인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가정생활에서도 세리 부부는 세 아이를 키우면서 동등한 파트너십을 실천해 왔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레어 총리가 아이를 돌보고 세리가 일 때문에 밤 늦게 들어오는 것 따위는 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조스팽 총리의 아내인 실비안 아가친스키는 키예르케고르를 전공한 철학교수로서 명망이 높은 지식인이다. 그녀는 지난 해 선거전 『르 몽드』지에 『프랑스의 여성화』를 위해 프랑스여성들이 분발하기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실었을 정도로 열렬한 페미니스트이기도 하다. 조스팽 총리는 선거

후 조각에서 무려 8명의 여성을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30% 여성할당제 약속을 지켰는데 이것이 그의 아내의 작품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총리부인의 자리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한다. 남편은 남편이고 자기는 자기라는 것. 그러나 강하고 독립적인 그녀의 성격이 본질적인 면에서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실비안은 조스팽과 94년에 결혼했는데 둘 모두에게 재혼이었다. 그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다.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고 철학관련 TV프로그램을 맡기도 했다.

현재 그녀는 『프랑스의 여성화』를 위해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동등권 획득이 말은 좋아도 현실에선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 와 세리와 실비안을 페스트레이디로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공통점은 그들의 등장과 함께 여성의 정·관계진출이 급진적이었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여성의원 수가 2배 정도나 늘어났다. 해방된 아내를 두면 남편들의 의식도 해방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까?

## 페스트 레이디 도서관

유은경(자유기고가)

**해** 리 트루먼 전 미국대통령(33대)은 지난 60년대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장래에 미국 대통령부인들의 진정한 역할과 무거운 책무 그리고 숨은 국가적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는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오늘날 트루먼의 ‘희망’은 엄연한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립페스트레이디도서관’이 이달중 오키오주 캔턴에 설립된다고 전하고 “이 도서관은 생존중인 6명의 페스트레이디를 포함, 모두 43명의 미국 페스트레이디들의 삶과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키오주 캔턴은 20세기를 연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매킨리(25대, 1897~1901 재임)의 부인 아이다 색스턴 매킨리의 고향이며, 이곳에 있는 그녀의 사저에 들어설 페스트레이디 도서관은 첨단 컴퓨터시스템과 연결, 온라인 가상 도서관으로도 운영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신설될 페스트레이디 도서관의 서지목록은 매년 갱신된다”며 “온라인도서관 개통 때는 힐러리 현 대통령부인이 백악관 컴퓨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시험 검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주의 주지사 부인이자 이 도서관의 초대 부관장으로 선임된 프랜시스 휴 글렌드닝은 “미국 역사상 여성들이 이뤄낸 성취와 국가적 기여도를 제대로 기록해놓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역사 발전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역대 페스트레이디들에 대해서도 대통령들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관심과 역사적 의미가 부여돼야 한다는 게 이 도서관 설립의 주된 취지”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페스트레이디의 역할은 사실 건국초부터 논란거리였다. 그들은 힐러리의 언급처럼 ‘하고자 하는 일마다 대중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지 워싱턴(초대)의 부인 마서 워싱턴은 페스트레이디 시절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마치 연방감옥의 죄수와 다를바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인들은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페스트레이디의 공적인 활동을 인정하게 됐다. 이와 관련, 페스트레이디 도서관의 상임고문인 에디스 마이오는 “미국헌법에 페스트레이디의 역할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페스트레이디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페스트레이디도서관이 설립되기까지는 또 다른 ‘수퍼우먼’의 활약이 컸다. 전직 교사인 메어리 로더스키 레굴리는 수년 전 링컨대통령(16대)의 부인 메어리 토드 링컨에 관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연방의회도서관의 ‘대통령 사이트’를 살살이 뒤졌다. 그러나 어디서도 페스트레이디에 관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스스로 무언가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그녀는 뜻있는 사람들을 규합, ‘페스트레이디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금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메어리 레굴리는 또 남편 랠프 레굴러 하원의원(공화당)과 함께 유관기관들을 설득, 아이다 매킨리의 옛집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빅토리아풍의 이 낡고 아담한 저택은 지난 70년대에 국립공원관리소가 110만달러를 주고 매입, 관리해오다 얼마전에 주립 ‘스타크재단’에 관리권을 넘겼다. 아주 최근까지 심지어 여성 역사학자들도 페스트레이디들의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룩했다기보다 결국 대통령이 된 남자와 결혼했을 뿐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근 페스트레이디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부쩍 늘고 있다. 오늘날 미국 대학들의 페스트레이디 연구는 주로 ‘여성의 공적 생활과 사생활 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켄트주립대 총장 캐럴 카트라이트는 이같은 움직임이 페스트레이디들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결돼 있다고 본다. 그녀는 “페스트레이디가 여성의 공적 생활이 사생활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해주는 단적인 본보기”라고 전제하고 “사교적인

안주인에서 사회 활동가로, 침묵을 지키는 동반자에서 완전한 동반자로 변한 대통령 부인들의 역할로 이 도서관의 의미는 더욱 적절해졌다"고 평가했다.



1848년 센eca폴스 여성권리 대회에 참석한 미국의 여성 지도자들.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수잔 B. 앤토니 여사(위). 아래 사진은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

## 미국돈이 여자가된다

류숙렬(본지 편집위원)

**19** 98년은 미국여성들이 여권운동을 시작한지 150주년이 되는 해. 미국의 여권운동은 1848년 뉴욕 센eca폴스에서 열린 최초의 여성권리대회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미국여성들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투표권을 요구하며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 부여를 주장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97년말 여권운동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최초의 여성권리대회를 열고 헌신적인 여성참정권 운동을 펼쳤던 여성운동가 수잔 B. 앤토니 여사의 얼굴을 미국 달러지폐에 새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2000년부터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얼굴을 새긴 수잔 B. 앤토니 달러지폐가 유통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알폰소 다마타 상원의원(뉴욕주 공화당)은 의회에서 수잔 B. 앤토니 여사의 얼굴 대신 자유의 여신상을 새기는 것으로 수정제안해 여성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의 수정 제의의 변은 "자유여신상을 새기게 되면 여성과 자유 두가지 모두를 기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여성잡지 '뉴우먼'은 이에 대해 "미국의 여성권리운동 150주년을 기념하는 최악의 방법은?"이라고 퀴즈를 내고 그 답으로 "달러지폐에 새겨질 실제 여성의 얼굴을 동상의 얼굴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조롱을 표했다. 또 동상과 실제 여성을 구별 못하는 무식한 남성정치가 다마타 의원이 마가렛 쟁거나, 해리엇 터브먼 같은 전설적인 여성운동가들의 이름을 들어보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11**

## 온라인 여성모임은 왜 그렇게들 쌀쌀맞은 걸까?

**이** 팜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짝딱해서 진력이 난 우리의 미스 노. 이 의롭고 씩씩한 날들에 격려가 될 친구를 찾아나선 어느날, 누군가가 컴퓨터 통신에는 여자들이 토론하고 운영하는 모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부랴부랴 찾아 들어가 몇만인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접속 성공! 부른 가슴을 안고 괜스레 보이는 한 여성모임에 회원가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게 웬걸. 마치 시험문제와 같은 가입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입신청하게 된 동기를 쓰시오

여성의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쓰시오

시사적인 문제(성폭력, 노출논란, 고용차별 등등)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남녀차별에 대한 경험을 사례를 들어 쓰시오

문제를 앞에는, 제대로 쓰지 않을 경우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엄포가 덧붙여져 있었다. 형여 답안을 잘못 써서 가입이 거부될까봐 진땀이 나기 시작한 미스 노. 다른 온라인 여성모임들은 어떤지 일단 둘러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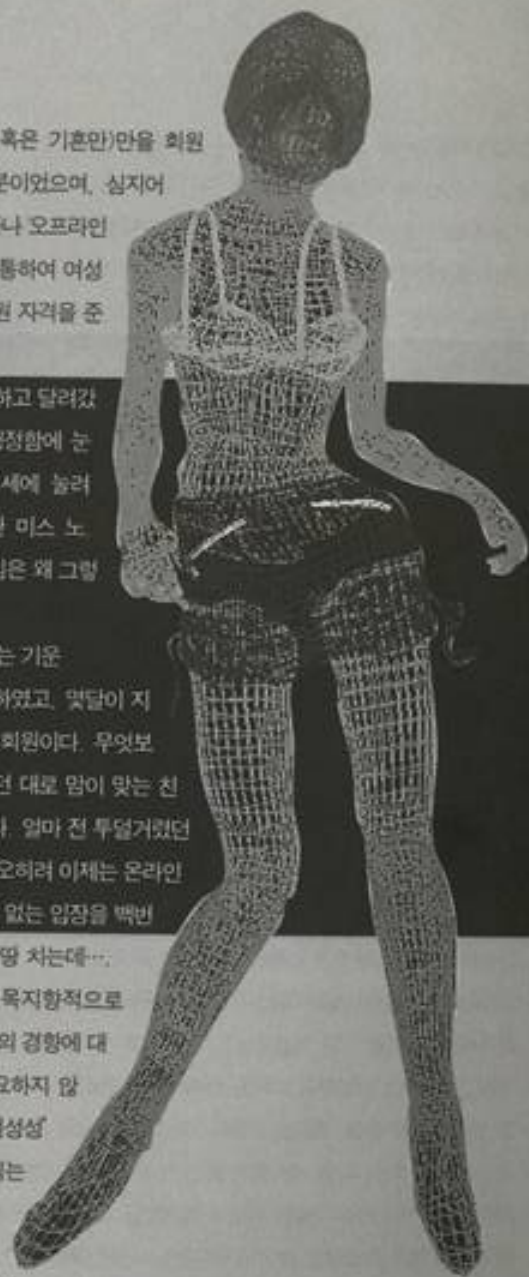
그러나 여성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모임들은 대부분 회원가입과 처리과정이 매우 엄격하였다. 본인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나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를 가하겠다는 경고는 예사였다. 엄격하게

여성(때로는 이혼한, 혹은 기혼한)만을 회원으로 받는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는 직접적인 전화 통화나 오프라인(면대면) 모임 참여를 통하여 여성임을 증명해야만 정회원 자격을 준다는 곳도 있었다

따뜻한 환영을 기대하고 달려갔다가 대번 맞닥뜨린 냉정함에 눈물조차 땀 들었다. 기세에 눌려 거의 용기를 잃을 뻔한 미스 노. 도대체 온라인 여성모임은 왜 그렇게들 쌀쌀맞은 거야?

그러나 결국 미스 노는 기운을 추스려 가입에 성공하였고, 몇달이 지난 지금은 아엠티 중간 회원이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소원하였던 대로 맘이 맞는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이다. 얼마 전 두달거렸던 기억은 가을가을, 아니 오히려 이제는 온라인 여성모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백번 이해한다고 큰소리를 댔던 차인데...

다소 폐쇄적이고 친목지향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여성들의 경향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경우 '여성성'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이다. 원래 여성은 그런 특질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 혹은 그것이 여



성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 '여성성'에 대하여,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선천적인 '차이'를 '차별'로 몰아가는 이 사회에 대한 분노나 어린 여자아이일 적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해온 성역할을 거부했을 때의 고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천적인 여성성, 혹은 후천적인 여성성을 거부하는 여성들은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성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문화'를 의식하는 여성들이 만드는 모임들은 기존과는 다른 의미에서 '여성적'이며,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별다른 설명 없이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호응한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이야기들이, 컴퓨터 통신이라는 '첨단의 매체', '미래의 매체', '가상 공간'이라는 단어와 섞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모호해진다. 컴퓨터 통신과 여성과의 관계를 다룬 많은 논자들은 컴퓨터 통신이야말로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컴퓨터 통신에서 나는 아이디(ID)로만 알려질 뿐이고, 내가 아이디 안아나 밖에 성별을 알리는 단서를 남겨 놓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런 익명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컴퓨터 통신은 기존의 사회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진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흑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야말로 선입견 어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위의 사례에서 이제 컴퓨터 통신에 익숙해진 미스 노가 여성모임이 아닌 다른 온라인 공간에 진출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마도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크고 작은 온라인 성희롱을 경험할 것이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여자가'라는 꼬리표가 붙은 언어폭력에 시달릴 것이다. 때때로 남성중심주의자들에 의하여 여성모임 그 자체가 싸잡아 오욕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대응하는 시삽(SYSTEM OPERATOR, 온라인 모임 운영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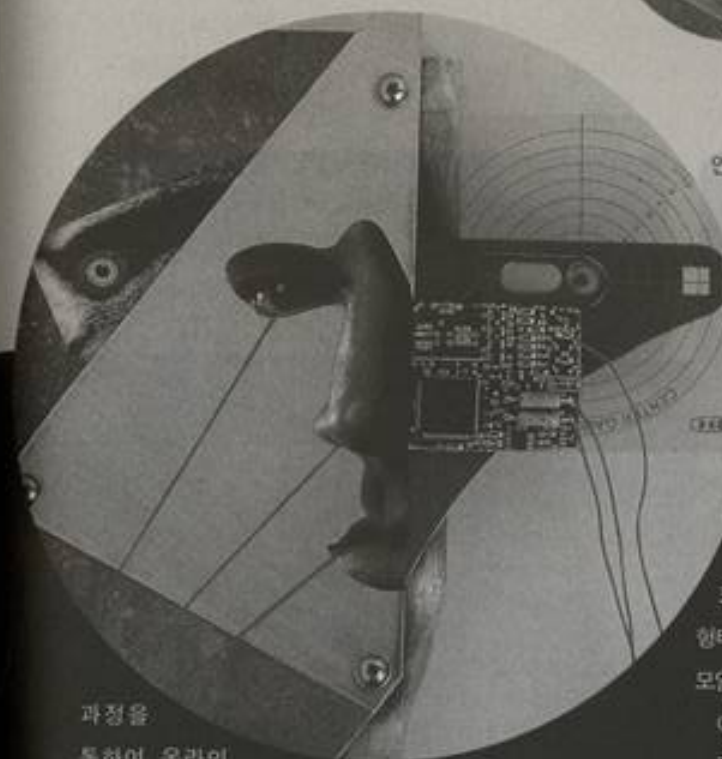
호소를 종종 접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잔 해링을 비롯한 온라인 연구가들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해링은 온라인 모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온라인 토론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경우에 남성이용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저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한 예로, 'dog'라는 단어가 우선적으로 여성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이 단계에 이르면 남성이용자들은  
토론이 악의적이라거나 주제가 부적절하다면서  
토론 자체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탈퇴하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양성 모두를 통틀어 불쾌한 사람을 이르는지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을 때, 이 주제에 대하여 여성들의 참여가 전체의 반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자(여성은 세상의 반이지만, 온라인 토론에서 여성이 반을 차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갑자기 남성 이용자들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면서 토론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해링이 이런 사례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단계에 이르면 남성이용자들은 토론이 악의적이라거나 주제가 부적절하다면서 토론 자체를 비방하고 심지어는 탈퇴하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토론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토론에 참여하는 여성이용자들의 수가 급감하고, 이렇게 여성이용자들의 참여가 줄어들 본래의 '정상적인 질서'로 돌아가면 토론실은 그래서야 평온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해링은 여기서 온라인에서 '정상적인 질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적게 참여하는 것이라며 우울해 한다. 더욱 우울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온라인

토론이나 모임을 남성들이 절대적으로 지배해 온다는 것이다.

해링은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에 '악명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자 언어로만 만남이 이루어지는 컴퓨터통신 공간에도 각각의 글에 글쓴이의 성별에 대한 단서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자기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근거들을 끌어들이지만 남성은 전제로 살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여성의 글은 보통 짧다든지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론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모처럼 용감하게 자기 주장을 개진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호응을 안 하는 '반여성적인' 토론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대결을 회피하는 예의바른' 참여 태도 때문에 여성들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에 못지 않은 소수자로 머무른다. 이런 것이 아마로 '검열'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실질적



인 검열'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여성모임에 대한 해링의 관찰이다. 이 여성모임들은 나름대로 엄격한 운영 방침들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WMST(Women's Studies List)라는 모임에서는 토론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운영진이 차단하곤 했다고 한다. 몇몇 회원은 재미있는 주제들이 감당당하고 있다며 불평하기도 했는데, 운영진은 그에 대하여 만일 토론이 벌어질 경우 남성들이 몰려들어 장악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이를테면 '실질적인 검열'에 대하여 모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검열'인 셈이다. 우리나라에는 '동호회'란 형태로 여성모임이 운영되고 외국에는 보통 뉴스그룹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그 형태나 동서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모임은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마도 아픈 경험 끝에 체득한 진리일 것이다.

결국, 온라인 여성모임은 온라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여성모임들이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여성임을 확인하고 정을 쌓는 경향이 다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온라인 공간 자체가 온라인으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여성모임은 온라인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여성들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여성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곳이 바로 온라인 공간인 것이다. 열심히 활동하는 여성모임일수록 불공평한 현실을 재빠르게 인식한다. 온라인 여성모임은 온라인이 아닌 여성모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여성 모임들이 싹싹뻗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안적인 질서와 다른 문화를 꿈꾸면서 '편협한 여성성'을 가까이 고집한다.

때때로 빈약한 우리 현실에 대한 갈증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풀어보고픈 마음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온라인'은 결코 그 해답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컴퓨터 통신에는, 인터넷

## 제주, 그 4·3의 역사 속으로



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존재하지요?'라는 슬픈 질문을 너무도 많이 듣는다. 온라인에 무언가 다른 것, 그러니까 현실보다 나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싸움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초면에 쌀쌀했다고 해도, 온라인 여성모임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11**

## ■ 각 통신망에서 여성들이 가볼 만한 곳

- △ 함세산: GO HUMAN
- △ 하이텔: GO FEM(페미니스트들의 천국), GO JUBU(주부동호회), GO BARUN(비문통신을 위한 모임 여성분과), GO SG172(동성애자모임 '보아나사람'), GO 여성
- △ 천리안: GO FEM(여성학 동호회), GO 여성
- △ 나무누르: GO MIZ(여성모임 '생의 한가운데'), GO JUBU(주부동호회 '나를 찾는 사람들'), GO queer(동성애자 모임 'RAINBOW'), GO 여성

## 장여경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보화를 주장하는 활동가와 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인 〈통신연대〉 대표를 맡고 있으며,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사회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여성들에게 알릴 정보화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뛰어넘어 이를 교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 만장굴 입구.

며 칠 전 '자유수호회의회'라는 무서운 곳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평소에 위낙 불법행동을 일삼은 데다 여기저기 항의 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이었다. 특히 대선 때 양심수 석방을 주장한 후보를 빨갱이 운운한 C일보에는 거의 행패를 부리다시피 전화를 해댔기 때문에 더욱 간이 콩알만해졌다.

98년 1월 16일~19일까지 3박 4일동안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추진 범국민위원회'(우리나라 운동단체 이름은

왜 이렇게 긴 것일까?)에서 주최한 '50돌맞이 제주4·3 역사순례'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지령, 오로그, 남로당 같은 말을 써가면서 4·3은 빨갱이들의 폭동이었고 당시 정부는 제주 도민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구출하였으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란 그동안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왔던 사람들이다.

## 제주 여행 직후의 편지 한통

참가자들의 주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답사여행 한번 다녀온 것으로 어딘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니 겁도 나고 그들의 비열함에 며칠간 열받았다. 그 한 통의 편지에 겨우 며칠 제주에 갔다는 내가 이렇게 겁먹었는데 그간 제주 사람들의 고통은 어땠을까.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 침묵과 왜곡을 강요당하고 피해자가 범죄자로 죄악 시되어온 세월을...

대부분 사람들에게 4·3은 낯설다. 위낙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렵고 또 위낙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가지 시각으로 본다는 것도 불가능한 사건.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대학살극, 이게 내 나름으로 정리한 4·3이다. 제주도민들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를 위해 무장봉기한 48년 4월 3일부터 54년까지 제주에서는 미군정 美軍政의 지시 아래 '좌익 소탕(레드 헌트)' 작전이 있었다. 그러나 그 '레드(빨갱이)'에 제주도민 전체가 포함되었다는 데 역사의 비극이 있다. 6년 6개월 동안 제주도민의 3분의 1에서 5분의 1이 죽었다. 48년, 1년에만 도내 169개 마을 중 130개 마을이 불타 없어졌다. 보통 약 3만명이 희생되었다고 보며 5만~8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다.

#### 4·3 사건이 일어난 지 약 50년후.

발굴자들의 발길조차 닿을 듯 말 듯한 깊고 깊은 동굴에서 2구의 해골이 발견되었는데 소녀와 엄마가 꼭 껴안고있는 모습이었다. 두 모녀는 공포와 추위 속에서 굶어죽은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순례자들은 당시 학살지와 동굴, 공동묘지 등 4·3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나는 원래 여행을 잘하지 않는 편이다. 돈도 시간도 없지만 어딜 다녀오면 그 여운이 길게 가기 때문에 일상에 복귀가 잘 안된다. 여행 이후로 내내 4·3 생각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화가 강요배님이 여행참가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주신 두 모녀 동굴 그림(판화)은 무서워서 펴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 그림은 5세 정도 되는 예쁜 소녀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장면인데, 처음에는 제주 '관광' 기념으로 표구해서 걸어놓으려 했다. 제주에는 도처에 자연동굴이 많은데 동굴은 당시 제주사람들이 무차별 학살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은신처가 되었다. 약 50년후, 발굴자들의 발길조차 닿을 듯 말 듯한 깊고 깊은 동굴에서 2구의 해골이 발견되었는데 소녀와 엄마가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두 모녀는 공포와 추위 속에서 굶어죽은 것이다.

당시 제주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인간이 고립무원의 인간에게 어느 정도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아버지를 죽이면서 아들더러 박수를 치라 하고, 사람의 머리를 대창으로 쪼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시키고, 어린아이를 불태워 죽일 수 있던 말인가? 총으로 죽인 것은 차라리 인도적인 방법이었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차마 여기 쓸 수 없을 정도였다.

#### 레드콤플렉스와 여성혐오

나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통일도 민주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다. 가해 집단의 피해의식, 피해자들을 천민집단으로 낙인찍고 혐오, 비난하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를 배려하는 것.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소외가 분단 조국에서 어떻게 레드콤플렉스와 여성 혐오로 연결되는가를 알고 싶다. 4·3도 이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제주도는 영주(영주), 탐라(탐라), 제주(濟州)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쓰이고 있는 '제주'의 제字는 '물 건널 濟濟'로 육지인의 입

장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탐라가 신라에 복속되어 자주권을 상실한 시기인 서기 662년(백제가 멸망한 해)부터 지금까지 제주는 중앙정부(육지인)의 수탈의 대상이었고 변방과 유배, 항쟁과 반골의 상징이 되었다. 4·3 때 만행도 주로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한 육지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어찌 같은 동포끼리 그럴 수가!'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지역 차별이 민족문제나 계급문제만큼 심각한 모순임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다른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4·3이 이런 것이었는지 너무도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92년에, 기지촌 여성 윤금이가 어떻게 죽었는가? 항문에서 식도까지 쇠우산대가 꽂혀 있었고



원혼을 달래는 제주 당곳의 한 장면.



92년, 4·3 희생자 11구의 시체가 발견된 다랑어굴 근처에서 참가자들이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자궁 속에는 맥주병이 두개 들어 있었으며, 국부 밖으로는 캡시콜라 병이 박혀 있었다. 너무 맞아 살이 터져 피가 흥건한 그녀의 몸에 19살의 미군 이병 마클 케네스 리는 하이타이 가루를 뿌렸다. 한마디로 장난을 친 것이다. 그에게 한국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50년 전 제주의 학살자처럼 말이다. 윤금이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은 계속 있었다. 이기순, 강운경, 차혜선, 김분임, 허주연, 정종자... 물론 '발견'된 것만 그렇다는 얘기다. 아내 구타나 강간 피해 여성들의 증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럴 때 우리는 똑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던 말인가?

#### 의미있고 고뇌에 찬 여행도 상품이 될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당연시된다면 모든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서북청년단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에 대한 억압은 다른 형태의 억압을 가능케하는 모델을 제공한다. 그것은 우리를 불의에 둔감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상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간다고 하니 주위에서 모두들 IMF 시대에 웬 제주도?란 반응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주도는 놀러가는 곳이다. 나는 딱 한번 제주도에 놀러간 적이 있는

데 그때 본 제주도와 이번 제주도가 너무 달라서 제주도가 두개처럼 느껴진다. 여행중 제주 사람으로부터 '육지로부터 독립했으면 좋겠다. 육지 것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서울 토박이로, 32년 동안 서울을 가장 오래 떠난 적이라고는 농활 때밖에 없는 나는, 마치 가해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나 서울에 살면서 유형 무형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사람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남자친구들에게 여성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이 불



바람을 맞고 서 있는 4·3을 경험한 제주 할망.

편해하는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나에게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하게 해준 주최측의 고생하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한다. 어설프지만 소위 386 세대로서 사회운동은 나의 영원한 화두이다. 과연 무엇이 '운동'인가? 진보적 이론을 공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보다 과격한 입장을 내세우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경험을 조직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여행후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4·3

## 올림피아, 크레타, 산토리니에서 터키까지

‘위대한 여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하)

부 지린을 멀며 아테

네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올림피아에 도  
착하고 보니 땅거미가 질 무  
렵이었다. 한나절을 꼬박 버  
스 안에서 보냈는데도 지루  
함보다 아쉬움이 진하게 남  
는 까닭은 파노라마처럼 펼쳐  
지는 켈레폰네소스반도의  
아름다운 풍경 때문이라.

부드러운 능선이 보이는가  
하면 어느새 아슬아슬한 절벽 위로 위태롭  
게 버스가 달리고 있고 눈을 감았다 뜨면 시  
야 가득 바다가 들어오질 않나, 마당 한가운  
데 아무렇지도 않게 세워놓은 자전거처럼  
경비행기가 있는 농가가 보이고...

아무튼 올림피아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를  
정하고 나서, 여유롭게 시내를 구경하려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거창한 계획이었던가  
깨닫는 데 심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렵잖  
아 200미터 정도 한줄로 늘어선 대로가 그  
마을의 전부였으니까, 마치 서부영화에서  
총잡이들이 걸투를 벌이는 마을처럼 단출하  
다못해 적막함마저 느껴졌다.



해질무렵 오이아해변에서.

뭐, 다른 구경거리가 없나 열심히 두리번  
거리는데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빨간 반바지를  
입은 한 무리였다. 아무리 단체관광객이라  
도 그렇지 어찌 저렇게 바지를 통일해서 입  
나 궁금중을 참지 못하고 그 무리로 다가가  
물었다. 일행 중 친절해 보이는 한 아주머니  
는 열심히 우리의 호기심에 답해주었다. 알  
고보니 그들은 장기기증 캠페인을 위해 올  
림피아를 출발지로 유럽을 쉬지않고 달리는  
AVIS재단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  
져준 것이 반가웠는지 모두들 친절하고 마  
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모습은 지금 떠올려  
도 가슴이 훈훈해진다.



제주 4·3기행에 참가한 사람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들은 일본 본토 사수의 최후 보루로 제주도를 설정하고 제주 곳곳에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사진 뒷 배경의 해안  
절벽을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깎아 한 다음 어뢰장 집안사설, 무기고 등으로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번 여행이 나를 4·3 운동가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의미있고 고뇌에 찬 여행’도 상품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이번 여행처럼 재미있고 가슴 아프고 통찰력  
을 심어준 여행은 없었다.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사람이라면  
다량위 오름의 분화구, 동광 큰 넓케(동굴)에서의 칠흙 같은  
어둠, 성산의 새찬 바닷바람, 다양한 처지에서 생업과 동시

에 4·3운동을 해온 제주 운동가들의 열정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참, 오는 8월 21~24일 제주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문제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4·3 5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열린다. 특히 22일에는 ‘국가폭력과 여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린다. 이 시기에 맞춰 색다른 탐라여  
행을 해보심은 어떨지. **11**

### 신정 회진

원가 글썽이 생각하여 갈다가 길거리 전봇대에 부딪치고 그 때문에 걸음걸이가  
양망인, 제주도 일로 물영진(명칭한) 페미니스트 지방생이다. 아줌마로서 통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섯살 짜리 딸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대학 졸업후  
여성의전화에서 일했다. 지금은 여성학과 대학원에 다니며 여성의전화  
열심회원이기 기지촌 여성공동체 새움터의 일을 돕고 있다.

다시 이 여행의 본 목적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서둘러 우리는 올림피아 유적지로 향했다. 올림피아는 올림픽 경기의 개최지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레아와 헤라가 도착의 지모신地母神으로 숭배됐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그 먼길을 주저없이 달려왔는데 올림피아 유적지에는 비바람에 닳고 닳은 돌덩이들만이 너른 돌판에 뒹굴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다 겨우 찾은 신들의 어머니 레아를 모셨다는 신전 '메트론'과 헤라의 신전 '헤라리온'은 사이좋게 서로 이웃해 있었다. 모녀지간이면서 고부간이기도 한 이들의 관계는 과연 어땠을까? 이름도 서로 비슷한 것을 보면 어디선가 읽었던 것처럼, 원래는 동일인물이 아니었을까.

#### 모권제와 초기 가부장제, 그 치열한 싸움의 흔적

아무튼 요즘 잘나가는 이영애가 도도한 표정으로 광고했던 화장품이 헤라여사인지 헤라여신은 레아보다 상대적으로 가깝게 다가왔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로 본처역할을 톡톡히 하는 질투심 많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헤라 입장에서 보면 그 결혼은 불행하기 짝이 없었을 거다. 그런 헤라가 결혼의 수호신이 라니 아이러니하다. 자기보다 한참이나 나이 어린 친동생과의 결혼은 결코 헤라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맺어져야 했던 그들의 결합은 모권제와 초기 가부장제의 갈등과 가부장제의 승리를 반영한 것이라.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단서들이 바로 그 올림피아 유적지에 남아있다.

메트론과 헤라리온 정면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넓이로 따지자면 메트론과 헤라리온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컸고 신전을 떠받쳤던 기둥의 둘레로 짐작컨대 그 높이도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우스 신전의 기둥들이 더욱 생생한 것을 보면 메트론이나 헤라리온보다 한참이나 후에 지어진 것임에 분명했다. 즉 뒤늦게 등장한 제우스(초기 가부장제)가 레아와 헤라(모권제)를 제압하기 위해



헤라의 신전 '메트론'과 이웃해 있는 헤라 신전 '헤라리온'.

과장되게 몸을 잡은 것이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메트론 한가운데 서서 크기로 짓누르려 했지만 결코 놀리지 않았던 여신의 힘을 느껴보려 했다. 의식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그 경건한 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했지만 우리의 두 발이 닿아 있는 그 신전 위로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여신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발끝부터 전율이 느껴졌다. 아마 여신의 기가 전달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 우리는 뱀의 여신상이 발견된 크레타섬으로 향했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뱀의 여신상(애초에 우린 뱀의 여신상 사진에 반해서 그리스행을 택한 것이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는지, 크레타섬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정작 섬에 도착하고 나니 뱀의 여신상과의 대면을 미루고 싶은 건 또 무슨 변덕일까. 맛있는 음식은 아끼고 아꼈다가 맨 나중에 먹는 오래된 습관 때문이었을 거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기대에 찬 기다림을 마냥 읊미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라클리오박물관에서 만난 뱀의 여신상은 양 손에 뱀 한 마리씩 씹하니 쥐고 두 눈을 크게 부릅 뜬 모습으로, 아담한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들을 압도하였다. 그 여신상은 양쪽 가슴을 다 드러내고 비비단 리 팬치는 잘록한 허리를 지녔건만 섹서러움, 섬세함, 관용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

어보였다. 그보다는 당당한 위용, 여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가차없이 벌을 줄 것만 같은 잔잔함이 있었다.

#### 생명과 부활의 상징, 뱀의 여신

처음 사진으로 보았을 때, 여신의 손에 쥐어진 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놓고 우리 사이엔 의견이 분분했다. 출산과 풍요를 관장하기 위해선 좋은 토양뿐만이 아니라 씨앗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뱀은 남근의 상징일 것이라는 나름의 해석에 만족했었는데, 이 얼마나 프로이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빈약한 상상력의 소치일까.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면 이 뱀은 불멸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즉 뱀이 허물을 벗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 된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선 뱀과 여신이 동일시되었는데 이는 신성한 샘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해마다 젊음과 처녀성을 갱신하는 헤라, 아프로디테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이밖에도 뱀은 직관, 예측 불허의 행동(뱀은 갑자기 나타났다 홀연히 사라지므로), 신비스러운 등 여신들의 여성적인 특질을 의미하기도 했다.



뱀의 여신상. 여기서 뱀은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다.

뱀의 여신상은 크노소스 궁전에서 발굴되었다. 크노소스 궁전은 미노아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로, 지진과 화재로 땅 밑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보존이 잘 돼 있었다. 게다가 오랜시간 공들여 복구를 해놓아서(그 정화성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지만) 과연 이것이 수천년 전에 지어놓은 것일까 싶을 정도로 말쑥했다. 크노소스는 궁전이라기보다는 집단주거지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게다. 적게는 2만에서 많게는 10만명이 함께 살았던

이곳은 생활의 편리를 위한 모든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그 옛날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문명은 진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기미처럼 치밀하고 완벽하게 정돈된 수로와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나 있는 창 그리고 적절하게 배치된 저장고, 작업장, 극장 등등 놀랄거리가 수두룩했다.

#### 집단주거 시설 크노소스 궁전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여왕이 거처하는 방이 매우 겸소했다는 점이다. 다른 방에 비해 더 크지도 않았고 위치도 정중앙에서 한참이나 빗겨난 지점에 있었던 것을 보면 왕족과 평민과의 차별이 크게 강조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어쩌면 크노소스가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른다. 초기 청동기 시대에도 이곳에는 여신에게 바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하며 여신숭배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크노소스에 그 흔적을 남긴 데미테르, 레아 그리고 헤라의 신전으로 이어진다.

크노소스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기저기서 발견된 아름다운 프레스코화이다. 진홍, 검정, 진노랑, 하양 그리고 파랑색만으로 그린 이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미적인 감흥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이에 더해 미노아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서 쉽게 눈길을 땔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 당시 크노소스에서는 여성들이 가슴을 드러내는 의상이 유행이었나 보다. 누구처럼 한여름에도 숨이 두겹게 들어있는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저렇게 속꺼내놓고 다니면 얼마나 편할까하는 부러운 마음에서 한동안 그림 속의 하얀 젖가슴만 쳐다보았다. 저 당당한 가슴에서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크레타 섬은 신석기시대부터 도리아인의 침입을 받기 전까지는 모계제사회였고, 여성이 왕의 역할과 종교의식을 담당했으며 상속도 딸에게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여성들은 상당한 성적 자유를 누렸다고 하니 뭐가 두려워 가슴을 풍광 동여매고 다녔겠는가. 우리는 크노소스를 떠나며 플라톤이 이야기한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가 바로 미노스문명이

라는 가설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드러낸 젓가슴의 당당함

그 동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다닌 것이 스스로도 대견스러워 약간의 포상을 우리 자신에게 하기로 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경치좋은 해변에서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는 것이다. 남들이 모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산토리니섬으로 행선지를 정하고 배표를 샀다. 표에는 오전 11시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한시간이 지나고 두시간이 지나도 배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결국 다섯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배를 탈 수 있었는데, 정작 우리가 놀란 것은 사람들의 배를 기다리는 태도였다. 도대체 배가 언제오는 거냐고 안달이 나서 사무실에 들락날락거리는 이는 우리뿐이었고 모두들 느긋하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정시에 출발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곤 아예 생각도 안하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몽땅 집어삼킨 터무니없는 배 운항 시간표에 화가 나면서도 우리는 그 동안 얼마나 시간에 쫓겨다녔으면 몇 시간(장장 5시간 넘게 지만)의 기다림도 참아내지 못하는 걸까 씁쓸했다.

어렵사리 도착한 산토리니섬은 관광객들의 손을 지나치게 많이 탄 곳이었다. 지중해관광 안내책자에 곧잘 등장하는 회칠이 된 하얗고 동글동글한 집 그리고 벽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파란 대문과 창틀. 관광객들의 기대에 열심히 부응하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다. 더구나 우리가 돈많은 일본인인 줄 알고 바가지를 씌우려는 서툰 상술을 부리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산토리니에 대한 인상은 영 좋질 않았다. 하지만 이 불쾌한 감정은 관광객들이 봄비는 곳을 벗어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쩌다가 우리의 발길이 닿은 곳은 모래 대신에 검은 자갈이 깔린 오이아해변으로, 사람들도 없는 매우 한적한 곳이었다.

그 곳에서 우린 지는 해를 보면서 해수욕을 했고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하는 아늑한 식당에서 멋진 저녁을 먹었다. 이번 여행기간 동안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 식당은 간판도 없었고 젊은 시절 전원생활을 하느라 한국에도 가보

았다고 자랑하는 유쾌한 할아버지가 낚아온 신선한 생선만으로 요리했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 더구나 집에서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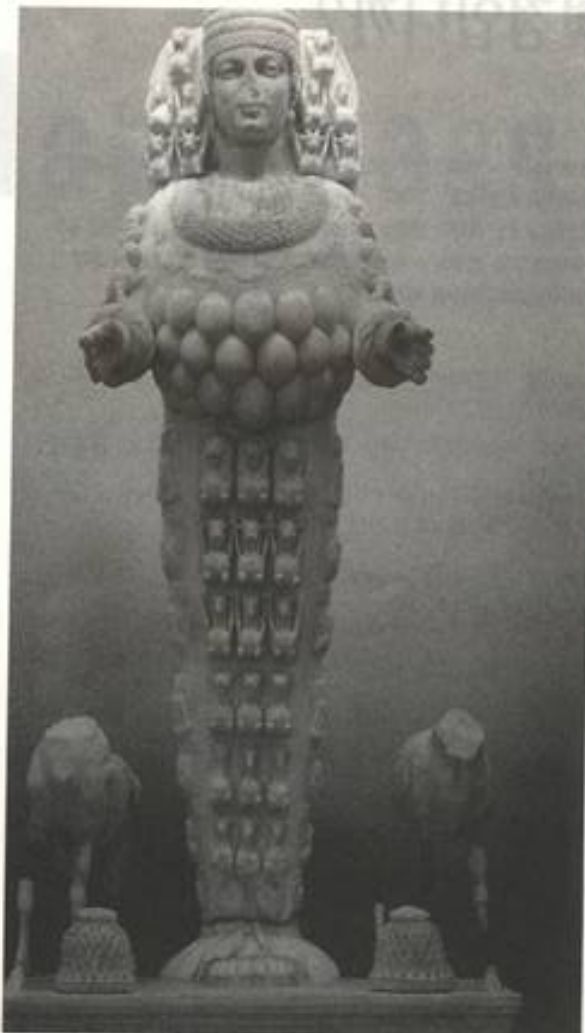
갔다는 와인까지 곁들여 먹었는데도 값은 매우 싸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고와 친절에 대한 대가치곤 적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겨우 산토리니의 위신을 그 노 부부가 세워준 것이다. 다시 배를 타고 터키로 향할 때, 어쩔 저리도 바닷물이 파랗까 감탄, 또 감탄했다.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동요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으로 시작됐었고 우리가 여지껏 보아온 바다는 초록빛이었는데 이 지중해는 정말로 파아랬다. 막연하게 파랑은 차갑고 우울한 색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파란 바다빛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어서인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해보였다.

#### 간판도 없는 식당에서의 멋진 저녁식사

에페수스(터키)에 도착해서는 바닷바람과 소금에 짙은 몸을 씻고 싶어 터키탕을 물어 물어 찾아갔다. 목욕탕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큰 타일로 몸을 가리고 들어간 터키탕은 아, 글썄 남녀혼탕이었다. 덩치 큰 남자들만(물론 타일을 두르고) 네명이 있길래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당황하는 것을 눈치챈 목욕탕아저씨는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터키탕의 구조는 매우 특이했다. 한 가운데 높은 돔 지붕이 있고 그 지붕에 난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오는 온온한 햇빛만으로 터키탕의 실내를 밝혔다. 돔 바로 밑으로 대리석으로 된 팔각형의 커다란 단이 있는데 그 위에 누워 있으면 달궀진 돌의 온기로 배가 불는 거였다. 좀 터키탕에 적응이 돼가는 찰나, 때밀이아저씨가 엄청 큰 검은색 때수건을 들고 나타났을 때 다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줄게 쓱쓱 배를 문지른 다음 비누



젓가슴을 드러낸 여인들을 그린 프레스코.



에페수스의 아르테미스. 가슴에 달린 계란 모양의 젓가슴은 은해, 풍요, 구원의 상징이라고.

거품으로 맛까지까지 해주었다. 물론 타일바닥 부분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다. 예상치도 않게 남자의 손에 때를 벗긴 우리는 그 민망함을 털어내고자 황급히 에페수스 박물관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우린 뱀의 여신상에서 받은 충격과 같은 정도의 아니 그 이상의 쇼크를 받았다. 바로 에페수스의 아르테미스상으로 가슴에는 삼십개도 넘는 젓이 달려있고 몸은 온갖 종류의 동물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분명 아르테미스는

처녀신이고 결벽증이 유달리 심한 것으로 유명한데 어찌 저리도 젓을 주렁주렁 달고 있을까. 어찌보면 기괴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한없이 푸근한 것도 같은 그 아르테미스상은 여지껏 보아 온 여신상과는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 계란과 같은 모양을 한 그 수많은 젓들은 처녀신의 한없는 은혜, 영원한 풍요, 구원의 상징이라고 안내책자에 적혀있었다. 음... 아마 이름도 없이 숭배되었던 지모신에게 후세사람들이 아르테미스란 이름을 갖다붙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 남자에게 때밀린 원조 터키탕

우리가 이미 올림피아에서도 보았듯이 지중해 일대의 토착신이었던 수많은 여신들은 그리스신화의 틀 속에서 남신들의 아내, 누이, 어머니의 위치로 끼워맞춰졌는데 이 여신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름이야 어떻게 불리던 간에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지모신으로서의 모습은 이렇게 남아 바로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여신을 찾아다녔던 이 여정이 아르테미스와의 조우로 끝맺음을 하게 되는구나 싶어서인지, 보면 볼수록 아쉬움이 남았다. 사냥의 여신으로 활을 들고 산과 들판을 질주했던 아르테미스의 용맹스러움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젓을 지닌 지모신의 넉넉함이 바로 페미니스트로 살아갈 우리들이 지녀야 될 품성이라고 그 여신상은 조용히 일러주는 것만 같았다.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의 길지 않았던 여행을 마무리지린다. [11]

#### 엄연수, 이현정

물은 만나기만 하면 어떤 여성주의 사업을 벌이든 배운을 볼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진다. 대부분 엉뚱하고 무모하기 그지 없어 한번 웃고 흘려 넘기지만 언젠가는 크게 한 번 할 거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품음이 '위대한 여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 2년, 3년도 계획하고 있다.

## 당신의 행복지수는 몇점입니까?

당신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보다 행복한 사람들로 보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마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문장들은 누가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알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각의 문장을 자세히 읽고 1에서 4 중에 알맞은 답을 골라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절대로 아니다/ 2-그렇지 않은 것 같다/ 3-아마 그럴 것이다/ 4-꼭 맞는 말이다) 오늘 하루동안의 당신 기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평소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잘 생각해보시고 점수를 매기십시오. 자, 그럼 출발합니다.

1. 하루 동안의 나의 기분 변화 상황을 꼭 적어본다면,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쪽이 훨씬 많을 것이다. \_\_\_\_\_
2. 나는 비참한 기억보다 행복한 기억이 훨씬 더 많다. \_\_\_\_\_
3. 위기가 닥치면 나는 상황에 압도당해 무력한 느낌이 들기보다 도전을 받아들여 이겨내려 한다. \_\_\_\_\_
4. 나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며 그 과정을 즐기고 있다. \_\_\_\_\_
5. 나는 내 자신이 흠뻑 빠질 수 있고 거기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몇가지 갖고 있다. \_\_\_\_\_
6. 나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여러명 가지고 있다. \_\_\_\_\_
7.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이라고 평한다. \_\_\_\_\_
8. 나는 대체적으로 사교적이고, 낙천적이며, 그리고 정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_\_\_\_\_
9.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_\_\_\_\_
10. 승진이나 청혼 같은 커다란 사건들뿐 아니라 오랜 친구로부터의 전화나 멋진 주차 장소를 발견하는 것 같은 사소한 일상의 사건들에도 나는 충분히 기뻐한다. \_\_\_\_\_
11. 내가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수년 동안 대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_\_\_\_\_
12. 나는 대체적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_\_\_\_\_
13. 나는 늘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느낀다. \_\_\_\_\_
14.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_\_\_\_\_ 15. 대체적으로 나는 나의 일 \_\_\_\_\_ 16. 나의 대인관계 \_\_\_\_\_
17. 나의 인생 \_\_\_\_\_ 에 만족한다 (각각의 항목에 점수를 매길 것).

\* 총합: \_\_\_\_\_ 점

# Happiness



### 당신의 전체 점수

**40에서 68 사이:** 당신은 행복한 사람. 여기 속하는 사람들은 사교적이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0에서 39사이:** 지금 당신은 생활이 매우 유쾌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아니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행복하지 않는 거야"라고 무덜대는 상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바심칠 필요는 없다. 다음에 제시하는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을 익히면 되기 때문이다.

**20 이하:** 지금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이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한다.

### 당신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비밀통로 두가지

#### 첫째 열중하라!

당신은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흙장난을 하고 놀면서 해가 진 줄도 모르고 열중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기온이 떨어져 입술이 파랗게 변해도 추운 줄도, 어두워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당신은 놀이에 몰두해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행위에 아주 열중해 있을 때는, 집중도가 높아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당신 자신과 시간조차 잊어버린다. 사실,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

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조차 잊게 만드는, 즉 무아의 상태로 만드는 비밀은 무엇일까.

1. 당신에게 꼭 맞는 활동을 찾아라. 이것이 열쇠이다. 우선 지루해지지 않을 도전적인 무언가를 찾아라.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임을 확신하셔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것이 좋으며,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당장 적당한 일이 생각나지 않으면 평소 흥미를 느껴온 무용교습이나 노래교실의 문을 두드려보자.

3. 마음을 열라. 에이, 이까짓 것 하며 외면하지 말고 가장 평범한 것이나 사소한 것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오래된 가구를 다시 손질하는 것이나 당신 자신만의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의외의 행복을 선사할 수도 있다.

4. 기록하라. 한달 동안 일기를 쓰고, 작지만 유쾌했던 모든 순간을 메모해보자. 당신이 쓴 것을 다시 읽어보면 자신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쓴다는 행위 자체가 목표가 되어 몰두하게 된다.

5. TV를 끄자. TV 앞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이런 수동적인 행위에 빠지면 자신을 잃고 몰두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이미 빈둥거린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면 더 기분이 저질 것이다. 인생

의 여러가지 골치 아픈 문제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함으로써 당신의 기분을 전환하고 고양시키는 '열중하기'와 달리, TV에 빠지는 것은 사람을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다.

6. 직업을 행복의 조건에서 제외시키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일을 하면서 열중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해 보면 당신의 관심과 능력 발휘를 요구하는 작은 도전들이 언제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일을 완성시켜 작은 목표들을 달성할 때마다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가!

7. 두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 무언가에 열중해 있을 때 당신 자신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과제를 끝마치고 난 뒤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언제나 사후의 일인 것이다. '열중하기'의 가장 좋은 점은 자신이 바로 그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데 있다. 어떤 외부의 조건이 자신에게 행복을 선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다면 그것만큼 큰 행복의 선물은 없을 것이다.

#### 둘째 연극놀이: 다른 존재가 되기

아주 행복한 사람들은 네가지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부심, 낙천주의, 외향적 성격, 그리고 자제심이다. 그러나 사실 행복이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용한 숲을 산책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큰 즐거움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일 수 있다. 당신이 조용하고 내

향적인 사람이라면, 그대로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어린시절 했던 연극 놀이처럼 다른 존재가 되어 보는 것이다. 아마 당신의 기분이 확 바뀌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해보라. 친구에게서 감정가죽 미니스커트를 빌려 입고 다른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을 기억해 보라. 이번엔 치마 대신 개성을 빌려 보자. 당신이 동경하고 흉내내고 싶은 태도를 가진 친구를 한명 골라, 어느 날 이제와는 다른 행복한 사람의 역할을 해 보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 친구를 동경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 특징들을 따라해 본다. 거리를 휘어잡는 그녀의 걸음걸이가 마음에 든다면, 하루종일 그녀처럼 걸어보는 것이다. 단지 자신 있게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다. 처음에는 약간 바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되고 싶은 행복한 사람처럼 연기해 본다는 것은 최소한 기분전환은 시켜 준다.

아니면 당신 자신에 대해 새로운 면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습관적인 행동에 사로잡혀 우리를 행복하게 하던 것들을 잊고 지낸다. 친구들과의 외출을 즐겨워하던 당신이 이제는 집에 있을 핑계나 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자신에게 생각보다 더 많은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것은 단지 재미삼아 해보는 놀이이며,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단지 자신의 성격을 잠시 쉬게 하고 새로운 태도를 시험해 본다고 생각하

라. 행동이 새로운 감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

신은 그 결과에 놀랄 것이다. **IF**

#### 행복은 육체의 경험이다!

행복은 마약과도 같이 강력한 약이다. 몇 달 못 만났던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당신은 거의 돌아 버릴 만큼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편안하면서도 생동감있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는 기분과 같은 것이다. 마치 온몸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다. 실제로 행복은 우리의 기분이나 마음이 경험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사실상 육체의 경험이다. 우리의 두뇌를 신체와 각 부분과 연결시키는 신경과 호르몬의 복잡한 네트워크는 이중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것은 심장 박동 같은 중요한 신체의 활동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감정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놓는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아직도 행복감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그러나 최근 과학자들은 우리가 기쁘거나 슬플 때 즉 감정적인 경험에 대해 두뇌의 특정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즐거웠던 순간을 회상할 때 우리 눈 바로 위에 위치한 전두엽 대뇌피질 부분(계획이나 걱정을 관장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되는 반면 슬펐던 순간을 회

상할 때는 대뇌의 변연계(두뇌에서 감정과 쾌락과 관련된 부분)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런 대뇌 중추들은 마약에 취한 상태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행복한 느낌을 가질 때는 운동할 때와 같은 절정감을 느낀다. 이유는 도파민, 엔타넨돌린과 같은 자연마취제가 뇌에서 분비되기 때문이다. 호흡도 달라진다. 우리가 웃을 때는 진지할 때보다 숨을 내쉬는 기간이 길어지고 기분이 좋고 안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싸우고 싶은 욕구나 도망가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고 근육과 신체가 모두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쉬게 된다.

그리고 성적인 흥분을 느낄 때와 같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동공이 팽창된다. 웃음은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신나게 웃으면 우리의 면역체계가 자극을 받아 질병에 걸릴 확률조차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팔팔거리고 신나게 웃는 것이 좋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래서 IF 스피릿도 웃자 아냐. 자 독자 여러분 웃으세요.

## 그 여자의 첫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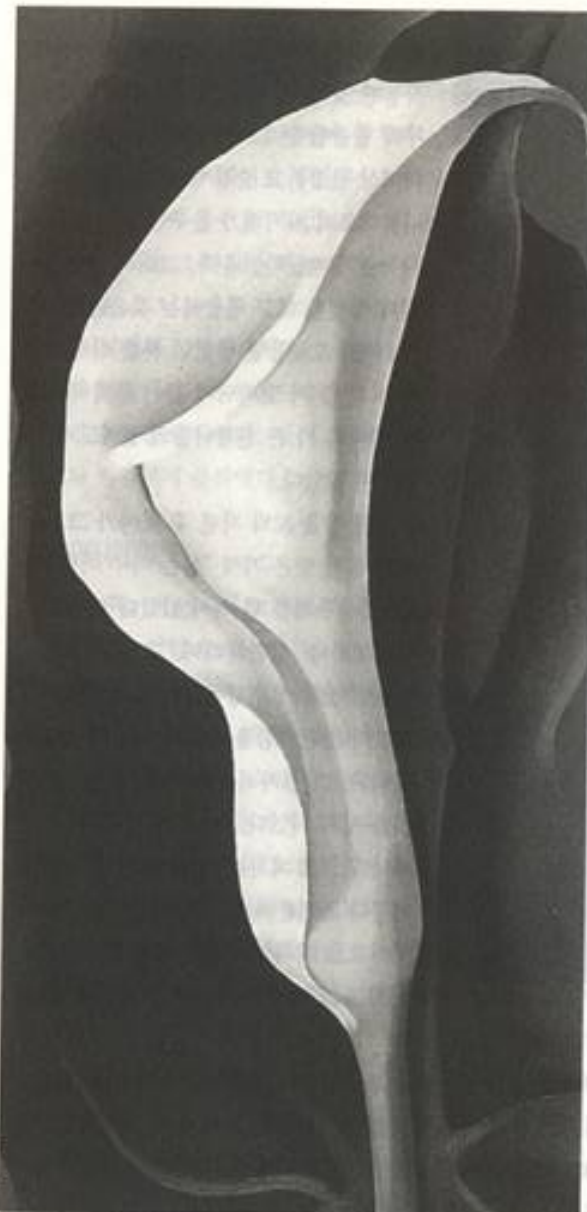
처음으로 남편 이외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던 날

그 여자는 옛날 자신의 남자가 자신에게 했던 대로 그 남자에게 하면서 복수심 같은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게 다였다. 그 여자가 만난 남편 이외의 남자는 한두번의 만남으로 관계를 끝장내 버렸다. 그 여자도 맞장구를 쳤다. "좋아 좋아, 그렇게 해."

그 여자, 이웃집 아저씨 손에 매달린 사탕 나무렁이에 눈멀어 집도 없이 그 아저씨 이끄는 대로 순히 따라간 것은 막 7살이 될 때거나 아니면 6살이 될 즈음이다. 나이란 묘한 것! 아니, 기억이란 참으로 묘한 것! 잊자마자 해도 전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고, 엉뚱한 사건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려 실재의 것을 변형시키는 마술을 부리기도 한다.

### 그 여자의 7살 경험

그 여자는 여자들만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여자들과 자신은 다른 부류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그 여자에게는 20대 이후의 삶이 존재하지 않았다. 부모가 시켜주는 과외를 감지덕지할 여력도 없이 다니던 어느 해겨름날 자전거를 탄 도래 남학생이 젓가슴을 확 낚아채며 저만치 도망갈 때 그 여자, 누가 봐도 한눈에 자신이 다른 부류에 속하는 인종이라는 표시가 나나보다고 생각되어 또 한번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럴 바에야 아예 딱 까놓고 막 나가는 게 정직하다는 생각은 있었으나 정작 그럴만한 '용기'와 '정직'은 없었다. 그것이 만용이었든 아님 정적이었든 어쨌든, 있어야 할 것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수다스런 도래들 틈바구니에 우두커니 있어도 늘 암전하고 말이 없는 암전행이가 되어갔다. 무슨 말이든 한마디 입만 뻗긋 하면 '미안해, 난 너희와는 다른 족속이야'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들의 수다에 같이 풍덩 뛰어들 수 없는 것은 마치 입장권도 없이 들어오게 된 값비싼 무대 위 연극에 시선을 박고 있지만 뒤통수가 간지러우면서 새기슴으로 앉아있는 듯한 심정이 되곤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성적인 주제의 얘기가 오갈 때면 자신의 첫 사건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길라도 할 듯 열심히 무관심해하면서도 낮빛에 신경증이 팽팽해졌다. 성에 대해서는 뭘 모르는 인간으로 비취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무성적인



표지화 2008

인간됨이 최상이자 유일한 목표였다.

그 여자,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때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한 방법으로 자위를 선택했다. 자위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었지만 타락한 자로서 획득한 비밀스런 안식으로서의 쾌감은 그 여자로 하여금 더 중한 죄인이 되게 하였다. 어쩌다 그 여자를 아끼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그 여자가 아끼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자를 친구로 여기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그 여자가 친구라 부를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 여자에게 외로움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그 여자는 외롭다는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지도 못했다. 외로움이라 이름붙이는 것조차 분에 넘치게 호사스러웠으므로. 다만 그 여자는 늘 도망갈 궁리를 하고 몸을 숨길 조그만한 은신처를 찾을 뿐이었다.

### 그 여자의 고백, 그리고 입맞춤

그 여자가 처음 경험한 연애—연애라 할만한—감정은 4살 연상의 운동권 남자에게서였다. 섬세한 감성의 결을 가지면서도 단호한 태도가 얼굴의 열선에서도 풍겨왔던 그 남자는 그 여자

의 어떤 아픔이나 미혹도 이해하고 수용할 것처럼 넓어보였다. 또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아픔과 고통의 그늘만큼이나 수척한 흔적이 역력했으므로 동질감이 진하게 전달되었다.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무슨 과거이든 다 용해될 것 같은 그 비합리적인 확신은 그 여자에게 이 남자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무럭무럭 키우는 양분 구실을 하였다.

몇번 그랬던 것처럼 무심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로 작정한 것이다. 혼자 버티기에 세상이 무척 쓸쓸함을. 그 억척스런 쓸쓸함을 더이상 관망하고 즐길 수 없게 만드는 나름대로의 자기가 몸부림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작정하는 것과 작정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법! 오랫동안 닫혔던 문은 심하게 녹슨 채 땅 저 밑바닥에 깊이 불박혀 있을 뿐 아니라 키 큰 잔쟁이들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다.

여러 밤을 꼬박 지낸 후 찾아가 그 여자가 한 말은 기껏 "실은 아주 어릴 적 난 첫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다"였다. 성관계라니. 성관계라니. 그 여자가 당했던 것은 성추행이었으나 그 여자는 그것이 성관계를 추호도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그 남자의 한마디로 그녀는 큰 빛을 지게 되었다. "그건 성관계가 아니다." 그 여자는 이 말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흥분하게 그 남자를 자신의 중심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하든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

그 남자와의 첫 입맞춤은 황홀하였으며, 그 남자에게 처음 들었던 '사랑하는 내 여자'라는 말은 적어도 그 순간 그 여자로서 하여금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왜 그랬을까. 그 남자와의 첫 성행위는 아무 감동이 없었다. 성행위를 한 것은 물론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성행위를 하자, 말자로 분분한 이야기를 나눈 이후였다. 함께 자고 싶다는 말을 들은 그 남자는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서 하는 성행위가 부도덕하지는 않은가를 고민하였고 그 여자는 그런 욕구가 있으면서도 세상의 윤리로 갈등하는 그 남자의 신중함에 감탄하면서 결단코 성행위를 고집하였다.

#### 그 여자의 성관계

그 여자가 성행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였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낌없이 나를 던지고자 하는데...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이해를 베풀 사람이 또 누가 있을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원하는데...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한 사람이 나를 염려하여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인데...' 까짓것 자신은 어찌되어도 좋았다. 그 여자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랑받고 이해받는다는 그 감촉 좋은 선물에 흠뻑 젖어 있었으므로 오직 그 남자의 욕구가 자신의 욕구가 되었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가치는 그 남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눈길과 손길 하나하나에 좌지우지되어도 좋았다.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전부를 거는 심정으로 첫 성행위를 감당하였을 뿐이다.

이후 몇번의 성행위에서도 그 여자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의식을 치르듯 틀에 박혀버린 순서와 행위에서 그 여자는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이 남자와 하나가 되려니 하는 헛된 기대를 부풀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직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아직 그 여자는 자신의 문고리를 쥔 만한 힘조차 키워두지 못하였다.

#### 그 여자의 이혼

그 여자는 그 남자와 그렇게 3년을 연애했던 후 결혼하였다. 그 남자도 그 여자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이전과 이후가 사실은 달은꼴이었던 것이다. 그 남자 역시 그 여자에게 새로 태어나도록 끝까지 요구할 의욕도, 필요도, 그 지난한 시간을 인내할 의지도 가지지 않았다. 그 남자는 사회제도의 부당함과 정치적 부패에 분개하고 분노했지 한 여자가 왜,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골깊은 어둠의 삶에서 헤매었으며 지금도 그러한가를 함께 아파하거나 분노할 애정이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과연 어떤 남자가 그럴 수 있겠는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였으나 그 여자와 그 남자는 만난 지 6년 되던 해 여러번 이별을 반복한 이후 아무 느낌없이 헤어졌다. 그 여자 30세 때의 일이다.

그 남자만큼 자신을 사랑하거나 그 남자만큼 자신이 사랑할 사람이 없으리란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 남자만큼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했던 것 역시 그 남자가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지독하게 왜곡된 자기연민에 매달려 자신의 중심을 바깥에서만 찾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자 드디어 사랑의 실체가 보이게 된 것이다.

어쨌거나 그 여자, 결혼이라는 문 하나를 통과한 이후 자신의 첫 성적 사건에서 한결 벗어나기가 수월하였으므로 세상 사는 다른 여자와 자신을 구분짓지 않아도 되는 자신이 좋았다. 결혼에서 얻은 것은 그들의 사는 모습을 주의깊게 보는 눈이었다.

사실 그 여자의 스승은 세상 사는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는 다시 첫 성적 사건으로 되돌아가 보았다. 그 성적 사건의 절진 율가미는 그 여자의 독창적 작품이 아니었다. 그 율가미의 씨실과 날실에 들어 있는 세상의 비열함을 보게 된 그 여자는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시퍼런 날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 여자는 자신이 살아온 나날을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빨이 딱딱 부딪히고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흥분하고 분노하면서 털어놓았다. 그 여자는 모든 것이 부당하고 모든 것이 억울하였다. 옛날 그 여자를 알던 사람들은 그런 그 여자의 변신에 입이 썩 벌어졌다. '사람이 저렇게도 (이상하게) 변할 수 있구나!' 라고.

그 여자에게 고개 숙인 성행위는 굴욕의 것이자 수치스런 과거로의 회귀였다. 그 여자는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성행위만 추구하였다. 살기를 욕구하게 되면서 그 여자는 강한 성욕을 품에 끌어안았다. 이제 그 여자는 무성의 탈을 벗는 대신 섹시함의 가면을 뒤집어썼다. 처음으로 남편 이외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던 날 그 여자는 옛날 자신의 남자가 자신에게 했던 대로 그 남자에게 하면서 복수심 같은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게 다였다. 그 여자가 만난 남편 이외의 남자는 한두번의 만남으로 관계를 끝장내 버렸다. 그 여자도 맞장구를 쳤다. "좋아 좋아, 그렇게 해."

그 여자에게 사랑은 자기왜곡이며 임시대피소일 뿐 자신을 개방하고 상대를 인정해도 좋은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혼자여야 한다는, 벌거벗은 자아를 미끼로 삼는 강태공들의 나즈막한 속삭임 따위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박증적인 증세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한참후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식으로 그 여자도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 여자의 외로움이 점점 깊어가면서 다른 여자들의 삶을 조금씩 넘나들게 되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외로움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무엇으로 외로움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내가 세상을 뒤집고 싶어한 방법이 아닌데...' 그 여자는 새로워져야만 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이미 엄청난 삶의 파고를 감당한 이후이므로, 무엇보다 그 여자는 남아 있는 나날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 중 그 여자가 진정으로 원해서 했던 것들, 그리하여 살아 있음에 온몸으로 전율하게 했던 것들,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 빛이 바래지지 않을 것들을 손에 꼽아보았다.

먼저 그 여자는 자기로부터의 벗어남을 위해 처음으로 필요로 했던 그 남자의 사랑한다는 말과 첫 입맞춤을 떠올렸다. 곧 그 사랑으로 인해 들이닥친 엄청난 시련에 몸서리가 쳐지긴 하였으나 그 순간에 실존했던 존재의 고양은 부정할 수 없었다. 찬란했던 만큼 저 아래로 처박힌 그 세월의 비장함이며, 대가가 비싼 것은 사실이었으나 우연히 일어난 것도 실수로 그리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 여자 7살의 첫 성적 사건, 아니 그냥 '사건'으로 인해 깨진 자신의 거울이 관성처럼 그 여자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 그 여자의 변신

두번째 그 여자가 떠올린 것은 그 여자의 스승들인 다른 여자들과의 교감이 있던 어느날 밤이다. 서로 통곡하고 부둥켜안고 마시고 토하고 쓰다듬고 노래부르고 소리치르면서 나누었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쟁쟁하였다. 그 안에서 그 여자는 그들을 스승이라 이름하였으리니 다시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세상이 원통하거나 억울하지 않았다. 어려운 경험들로 가슴 한가운데가 멍들어갔던 것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은 살아갈 이유, 살아내야 할 이유를 탐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다시 가다듬고 말끔하게 닦아내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 거울은 늘 자신을 한가운데로 오롯이 비추게 되었다. 때로 다른 여자들이나 남자들의 얼룩진 모습이 반영될 때도 있었으나 그 거울은 자신의 것임에 분명했다.

그 여자는 다시 성행위를 시작할 수 있었다. 성은 그 여자에게 더이상 불행이나 고통의 전조가 아니었다. 또한 성은 피해야 하거나 유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 여자는 복수의 화신이 되거나 알파한 관계를 얻기 위한 미끼가 되지도 않았다. 그 여자는 성행위를 할 때마다 그것이 첫 경험인 양 관계에 집중하고 배려하면서 쾌감을 느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무엇을 욕구하는지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오늘도 쉽없이 찾아내고자 하며, 스승인 다른 여자들과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 여자는 아직 남은 자폐증적인 행동으로 우울해질 때도 있으나 수다의 바다에 청병 몸을 담글 줄도 안다. 지금 그 여자에게는 내일, 또는 10년후, 20년후 어떻게 살아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II**



이경미

세상의 모든 첫 경험은 소중하다. 그 첫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독 상에 있어서의 첫 경험은 자칫 고착되어 사람을 괴롭히기가 쉽다. 더구나 여자에게 있어서 성적 첫 경험은 세상이 쳐놓은 밧줄에 걸리기 쉬운 성체가 된다. 그렇다면? 자꾸 타놓고 나눌 일이다. 자꾸 즐겁고 유쾌한 현재와 자신이 중심이 된 미래를 설계하고 도모할 일이다. 성은 현재 내 가치와 생황과 비전이 담긴 예리한 한 단면이기 때문에



## if에게



끊임없는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  
더 많은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 if에 중독된 나

몇번의 헛걸음 끝에 드디어 겨울호를 서점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런 걸 중독이라고 하던가?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남성의 세상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내 막혀 있는 숨통을 터주는 if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자신의 욕망을 가슴에 담아두고 꺼내는 방법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특집-성공은 없다」는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미시적 예찬 때문에 숨조차 죽어야 했던 대다수 독파진(?) 여성들에게 용기가 됐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김길영

### 용감한 30대들에게 감사!

「삼십대의 자화상」을 읽으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멀지만 한 삼십대의 이야기들이 왜 스물두살 지금의 나의 마음을 후벼내는지요. 불안하기만 한 미래에 대해 부딪쳐보지도 않은 재철망부터 가득 안고 헤매이는 지금의 제 모습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그녀들, 제 인생의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용감하고 씩씩한 그녀들처럼 저도 좀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일어서기를 꿈꾸어봅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박주은

### 만화 「색녀열전」 읽으면서 깔깔깔!

특집 「여성의 성공담에는 성공이 없다」와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엄마의 음식」이 좋았습니다. 만화 「색녀열전」은 친구와 같이 보다가 얼마나 깔깔댔는지 모릅니다. 다만 표지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좀더 친근한 사진으로 여성을 대변하면 좋지 않을까요?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임지현

### 3호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창간호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겨울호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10년 후면 내가 겪게 될 일들이지만 특집(가장 기대하고 있었다)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없어서 안타까웠고 다음호부터는 그 다음호가 언제 발행되는지 뒷장에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고유진

### if 4호 꿈에서 봤대요

if 겨울호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우선 '성'에 대한 내용이 줄어들었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if가 아닌가 합니다. 「특집-성공은 없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동생이 꿈을 봤는데 if 4호는 꿈에서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나고 물으니 내용은 모르겠고 표지가 빨강 + 주황색이었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if 4호가 기다려지네요. 무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이선미

### 겨울호 기다리다가 목 빠졌어요~

if 겨울호를 기다리느라 목이 빠진 일성 독자입니다(가을이 왜 이리도 긴지...).

겨울호는 가을호보다 내용이 더욱 충실해진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뿌듯하답니다.

그중에서 특집 「성공은 없다」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이 성공하기 힘든 사회인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f를 보면 제 자신이 너무 솔직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성에 대해 터부시하는 풍조 속에서 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 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 했던 일거든요.

아무튼 힘 내시구요. if를 통해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태어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시대는 조금씩 앞당겨지리라 봅니다. if 화이팅! 대한민국 여성 화이팅!

충천시 한림대 의학과 김세영

###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요

if와 만난 지 벌써 세번째가 되었네요. 서점에 가서 if가 있는 걸 볼 때마다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요. 이번엔 30대의 색깔이 물씬 풍기더군요. 전 20대인데 앞으로 나의 30대를 생각하며 특집을 꼼꼼히 읽었어요. 30대인 언니에게도 보여주구요. if는 여러가지 가능성, 뒤집기 등을 의미하는 만큼 98년에는 전복, 회망, 가상적인 글도 편함을 것 같아요.

도봉구 창1동 장수정

### 언니 같은 if

에인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결혼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몹시 망설여집니다. 「삼십대의 자화상」과 특집을 보니, 30대까지는 아직 좀 남았으니까 하는 맘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은 고민을 던져준 if는 참 정 많은 언니같은 느낌이에요.

대구 북구 관음동 이선희

### if 덕에 <고마> 카페도 알고

학교 숙제가 if를 꼼꼼히 읽고 레포트를 써내는 것이라 처음으로 if를 접합니다. if라는 잡지가 있었다는 것. 또, if를 사기 위해 수소문하다가 학교 앞에 페미니스트 카페(<고마>)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광고도 거의 없고 내용도 알차고 지루하지 않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읽다가 보니 글씨체가 썩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띄더군요. 더불어 독자참여 공간을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유승민

### if 광고 패러디에 대한 제안 하나

if 광고 패러디를 재미있고 통쾌하게 본다. 입사철, 취업시즌이 되면 각 기업마다 채용광고를 붙이는데(대부분은 광고가 재미없지만) 신세기통신의 광고는 재미없다 못해 짜증이 나게했다. 넥타이(아버지,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는)로 회사 로고를 나타냈는데 암묵적으로 여성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드러내고 '절고 패기에 찬 신임사원=남자'라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나타냈다고 본다. 이 광고의 '넥타이'를 흔히

여성용품이라고 여겨지는 '스타킹'으로 바꿔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동대문구 회기동 이이선민

### 잘 나갈 것 같은 예감이 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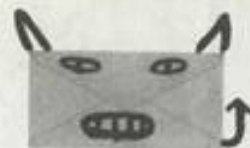
지하철을 타다가 머리 위의 여성잡지 광고를 보며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는 나만의 김장김치 비법", "우리 아들 영국 명문대 보낸 00의 수기" 등의 여성잡지와, 대권과 경제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대체로 남성들이 접하는 잡지들을 보며 똑똑한 여성잡지를 갈망해오던 터에 뒤늦게 if를 샀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if는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예감이 팍! 옵니다.

### if는요

페미니스트저널 if는 기간지이므로 매 계절이 시작하는 달에 나옵니다. 월간지가 아니라서 혼란을 느끼는 독자분들이 많으신 것을 보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월호이므로 3월 초에 발행되고 다음호는 여름호로 6월초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if는 매 3월(봄호), 6월(여름호), 9월(가을호), 12월(겨울호) 초에 발행됩니다.

따라서 if가 나올 때쯤이면 서점에 가서서 열심히 if를 찾아주세요. if 없어요? 왜 if 안 갖다 놓으세요?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다음호의 주제는 '엄마의 화장'입니다. 화장에 얽힌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써서 보내주세요.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음~재미있군요... 그 안에 숨겨진??

공지사항에서 보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재미있네요. 자주 둘러보도록 하지요.  
재미 안에는 분노가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일그러진 페미니즘만은 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석(aw511)

저의 편견을 일깨워 준 if

안녕하세요. 방학동안에 성의 사회학 과목을 수강했었는데, 그 때 교수님께서 내주신 레포트 중에 if란 잡지를 읽고 서평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 그 중 2호를 읽었는데, 파격적인 표지모델과 내용으로 인해 제가 어느 정도로 편견에 싸여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이런 방식이 생겼다니 좋군요. 어쨌든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손잡고 잘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뿔 뿔려 쓰는 민정~

꼭 막힌 남자와 얘기하느냐...

if를 찾아와서 글을 읽으며 또는 생각하게 되며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반갑습니다. 꼭 막힌 남자와 얘기하느니 차라리 여기 와 엔터하며 글이나 보겠습니다. 임준영(minuete)

부서져야 할 것은 부술 일이다

요즘 여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 할 수 있었다. 주위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자로서 주체성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느꼈다. 신입생들의 모습은 여자 대 남자가 아닌 서로 잘 보여야 하는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물

론 시간이 흐르면 이런 분위기는 없어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여자에게 잘 해줘야 한다', '힘은 일 시키지 말자' 하는 남자애들이나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여자애들이나 똑같이 나를 화나게 한다.

인간으로, 여자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당당히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 참 좋다. 부서져야 할 것은 부술 일이다! 정한경(jhk43)

오늘 처음 왔는데...

오늘 처음 왔는데 이것저것 좋은 읽을거리도 많고 해서 무척 기분이 좋아요.

오늘 아르바이트를 다녀왔어요.

모 회사의 영업부에서 사무보조를 했는데 그 많은 (한 오십여명) 직원 중에 여자는 딱 둘이었답니다. 안테스크에 한명, 전화받는 한명, 남자들은 다 외근 도는데 여자들은 할 일이 없어 책을 보더군요. 기혼은 임신 때문에 안 되고 미혼은 여자라서 안 되고...

일의 능률 때문에 임신 가능한 여자는 안 된다면, 남자들은 왜 결혼한대요? 애 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었나? 정말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그맛 몇푼이 아니라 '여자의 임신으로 인한 인적 자원'이 아니었던가요? 왜 그렇게 편협하고 이기적인지. '중요한' 일은 다 남자 주고 '하찮은' 일은 여자 주면서 여자들 일 안 한다고 난리치고, 정말 짜증나는 하루였어요. 김민혜(clfwind)

## if 벼룩시장

책 좀 보내주세요

if 독자 여러분, 추운 겨울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방에 사는 독자입니다. 그 덕에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의 절반조차도 향유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가끔 계간지나 학술지를 접하려 인근 대도시나 서울로 올라가보긴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쓸데없이 신경질만 늘었습니다. 『텐진공』이나 『니아까』, 그외 거리잡지도 관심합니다. 인문서적은 물론이구요. 읽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게 도움이 되어주신다면 꼭 사려하겠습니다. 편집부 여러분,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을 연락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경북 상주시 무양동 67-23 표상옥

세미나 같이 하실 분!

• 어남평등에 제 모든 열정을 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정만 앞서고 이론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이를 함께 채워 줄 친구를 찾습니다. 정기적인 세미나 원하시는 분!!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십시오. 저와 같은 답답함을 안고 있는 if 독자 여러분, 연락주세요!!

• 연락처: 015-933-6831

• 이름: 강수진 • 직업: 영어강사

영어 배우실 분

• TOEFL / TOEIC / 기초회화  
• 미국 인디애나대학 산문학 줄 현재 신문기자

• if 정기구독자, 미남(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외모)

• 3~4명 모집, 주2회

• 연락처: 015-460-9030

여성의 '성공'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이 갔지만 아쉬운 것은 사례의 대부분이 산후우울증등 대학을 나온 엘리트여성의 어려움만을 다룬 것 같았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의 사례들이 없는 것 같아 아쉽더라고요.

강남구 역삼1동 변계희

보통사람들의 이야기였으면

if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if는 지식인을 위한 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여성학 이론이 참 세분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적 호기심에서 그리고 싸워갈 무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저처럼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글을 쓸 재간조차 없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if에 글을 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식층입니다. 좀더 다양한 보통여성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남자의 성경험」 코너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월곡4동 김보영

힘냅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여!

저는 선배언니가 장간호 읽는 것을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호는 제가 사서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우선은 책 표지부터가 파격적이어서 좋고 내용 또한

당당하고 웅은 소리만 하는 듯해서 속이 후련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자로 산다는 게 조심해야 할 것도 숨겨야 할 것도 많다는 사실을 커가면서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여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세상도 달라지겠죠. 힘냅시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여! 특히 if여러분들은 더더욱!

경남 진주시 신안동 박명순

두달만에 찾아낸 겨울호

페미니즘이 무언지도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if 창간호가 빨리 나오길 기다렸던 작년이 생각나는군요. 제가 사는 곳에서 if를 만나려면 적어도 서너군데의 서점에서 뽕(?)을 맞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호는 거의 두달만에 찾아냈어요. 아휴. 혹시 판매부수가 극히 저조해서 자금부족으로 폐간된 것이 아닌가 걱정도 했습니다. 무사히 일년을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로도 계속 성장, 발전하셨으면. 저도 계속 성장, 발전하여 언젠가 if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령2동 이은주

남자의 성경험은 좀더 확실하게!

정권 바뀔 때마다 변하는 게 뭐 있나요? IMF시대,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인 우리 여성들이 힘내야 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구할 건 확실히 요구합니다. 겨울호 중 구두이야기는 좋았지만, 남자의 성경험은 좀 모호한 느낌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신오영

## if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필자와 연애했듯 글을 읽어보세요. if는 단지 몇 사람의 기자가 지면을 메꾸는 잡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유명·무명의 필자들이 참가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필자들에게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글을 쓰라"고 권한합니다. "당신 안의 욕망을 끌어내서 표현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부추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글을 마음껏 솔직하게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요. 자신의 구차한 과거, 자신의 성적 욕망, 숨겨둔 콤플렉스 같은 걸 글로 옮긴다는 건 사실 상처를 헤집어내는 것 같은 아픔이지요. 그런 글을 if에 보내준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글에는 필자의 개성이 담겨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난스럽게 비꼬길 잘하죠. 누구는 지적인 말투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와는 달리 강성의 직설적인 어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론을 길게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필자는 능수능란하게 첫머리를 아한 내용으로 시작해 독자의 시선을 모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잘못됐어,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 걸기 위해 어떤 문체를 사용하는 걸까.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필자소개글과 비교도 해보세요. 꽤 다른 맛을 풍기지 않습니까? 어떤 글이 더 해방된 것 같나요? 그러다보면 당신은 어느새 필자들과 가슴 설레며 연애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몽아

## 목하 고민중

요즘 나는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나의 두뇌구조에 대해 고민중이다.

어찌된 인간인지 기사를 써야할 때는 수다떨 이야기가 떠오르고, 마음껏 수다를 풀어내고 속내를 드러내야 할 때는 기사

체로 딱딱하고 건조하기만 한 것이다. 문제가 이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한다.

사무실에서 진지하게 일해야 할 때는 온갖 풍수적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말을 던져서 '카피맨(역시 영어라는 말에 화가난다. 나는 그냥 인간 일뿐인데 뭘 '넌' 이람)'이라 불리우는 나건만 재기발랄, 촌철살인의 카피가 나와야 할 제목뽑기, 광고패러디에서는 그 능력이 흔적도 없으니 말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꼼꼼히 생각해본 후에 잡히는 실마리. 세 해들어 마음잡고 술자리를 멀리했기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착란상태가 아닐까? 다음호가 나올 때 쯤이면 '터질 때 터지고 안 터질 때 조용한', 내 본성의 자연스런 흐름을 찾을 수 있을까. 음했하.—멜마

##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할 수 있을까? 구조조정 대상이냐구? 그건 아니길 바라고 오로지 우리 잡지의 시각적 풍격을 우월시킨 하자고 독한 마음 먹은 터에 굴러온 눈먼 호박(?) 김재희씨를 만나 디자인의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근성있고 욕심 많으며 착하기도 하다. 조절해내느라 서로 많은 부분 꺾어내기도 했지만 몇날 며칠 볼기 없는 사무실에서 한기도 잊으며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제 이 일 끝나면 애들 불부비며 자고 싶기도 하고 유주열 씨스펙트 같은 스타일러에 혼을 빼보고도 싶다. 그렇게 놀다 근절근절 해지면 날밤새고 통통부어 퍼런 새벽길에 집으로 향하던 그 시간의 고단함을 훌쩍 잊어버리고 if가 또 언제 나오나 목을 빼려나?—갈마

## 속지말자 사진첩

잡지를 펼쳐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얼굴이 있다. 짐짓 우아하고 고상한 얼굴로 if의 문을 여는 박미라 편집장이 그 주인공이다. 평상시의 그는 늘 부은 눈, 결혼식 이후에 미장원 구경을 못한 것 같은 헤어스타일, 화장기 없는 얼굴로 외모에 관한 한 남들의 기를 살려주는 '인간성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잡지가 나오면 주변에서는 '현대 사진기술의 눈부신

발전'이라거나 "어, 여권씨 사진 많이 늘었네"라는 말로 칭찬의 말을 건넨다. 이런 주위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정작 본인은 자신의 미모를 시기하는 불평분자의 목소리라고 일축해 그를 아는 사람들을 경악시키고 있다.—멜마

## 아이 업은 풀방엔 성북동에 등장

이번호부터는 편집위원 명단에서 새로운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if의 유일한 '남성' 편집위원이 될 이호인씨(그의 본명은 따로 있는데 죽어도 '이호인'이라는 필명을 쓰겠노라고 선언했다)는 세상을 보는 날카로운 눈, 결혼한 언니 같은 따뜻함을 품은 '튀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최근 잘나가던 직장(조선일보사 기자)을 때려치고 국악공부를 시작하는 늙다리 대학원생이기도 하다.

직장일을 하는 아내 대신에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기로 한 그는 수시로 예를 들쳐업고 사무실을 방문한다. 오후가 돼 온근히 배고 출출하고 입도 심심하다고 생각될 즈음이면 어김없이 예를 안고 한 손엔 기저귀가방을 들고 다른 손엔 검은 '봉다리'를 든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예를 내려놓고 추억하니 봉지를 팔러 김이 모락거리는 봉어빵을 펼쳐놓아 편집부 식구들을 감격케 한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있지, 지난번에 조기 아래 (봉어빵) 아줌마네서 샀을 땐 천원이지 사도 하나밖에 더 안줬는데, 조 위에서 파는 아저씨는 두개나 더 준 거 있지~."

아, 이호인씨는 피곤하고 배고픈 우리들을 위해 봉어빵을 들고 나타나 교정볼 원고 몇복지를 순식간에 처리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바깥처럼 사라지곤 한다.—도, 멜마

## 2·28 머리사태

이번엔 무슨 얘기를 쓸까 앞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쳐라 응시하고 있었다.

'편집장님 말대로 내가 곧 아줌마 상투를 틀게 될 거란 얘기를 할까. 아니면 수화기를 들자마자 다짜고짜 if 폐간 안됐지

예?' 하고 물어서 듣던 나도 멍했던 김해의 독자 얘기를 할까. 그도 아니면 내가 사고뭉치여서 땀날 머리를 쥐어 막힌다는 얘기를 할까(호호호).'

그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들어 부쩍 빵을 좋아하게 된(각주: 댁끼 사이사이 빵을 무지 많이 드심) 설패가 살며시 다가와 '힘들지' 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내 머리칼을 다정히 쓰다듬어주는 설패.

"설패, 나 뭐 쓰지? 안 쓰면 안 될까"

"인간아~"라는 말과 함께 팔로 내 목을 꼭 조여오는 설패.

—잠시후(불과 몇초 안됐음).

"아! 너 머리 언제 감았어어어~"

"왜요? 어를밖에 안됐는데요"

"어제 감았어? 확실하?"

"네. 아, 아니다. 삼일뿐데요."

"으으으~ 손으로도 만졌잖아! 너 일 열심히 하는 척 하느라고 일부러 머리 안 감은 거지?"

출지에 지저분한 인간이 되버린 나. 1시간 빨라진 출근이 변명이라면 변명이 될까?—호마

## 아, 독자카드!

8년 동안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출퇴근이 꼭 찍여진 직장은 못 다닐 것 같았는데 요즘 난 7시 30분(이 시간이 이른 것은 아니지만)에 집에서 나온다. 살림을 도맡아주시는 시어머니의 뒷받침 덕택이다. 정말 죄송하고 고맙다. 책 구독료를 내지 않은 독자들에게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2월 한달을 독자카드와 씨름을 하고 나니 아! 독자카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럽다. 늦게라도 전화주고 입금해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정기구독 신청이 들어오는데 전화로 정기구독을 신청(오늘은 6명이나) 해주시는 분들에도! 경영위기로 사무실 분위기가 한동안 경색되었는데, 다행히 다시 웃음을 찾고 있다. 우리가 웃을 수 있어야 함께 웃자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공마

## 정기구독 안내

###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화 743-6715/6, 팩스 765-9059).
- 책속의 엽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34,000원

### 정기구독혜택

- 본사의 자료해택과 (사)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회원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독기간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 배달사고·주소변경

- 미착·분실·반송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번호는 743-6715입니다.

### 구독료 내시는 법

- 지로 - 5088166(성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온라인 입금(예금주: 도서출판 이프)  
우체국 010892-0071882 국민 031-01-0415-280 농협 029-01-171261  
한일 375-036328-02-001 제일 458-20-031036
- 구독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후 반드시 전화해 주십시오.

### 이프(if) 전국 거래처 한국출판유통(02-867-8240)

### 그밖에

- if 지번호는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364-5950)나 본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로 직접 연락주십시오.

## if를 만든사람들

- 발행 도서출판 이프 • 발행인 윤석남 • 편집장 박미라 • 아트디렉터 제미란 • 포토디렉터 조여권 • 기자 김영선 이진화
- 편집위원 김숙진 김진명숙 김재희 김혜경 박혜숙 손자희 오한숙의 유숙렐 유지나 이호인 이혜경 • 광고기획부장 윤숙경
- 사진편집자문 박영숙 • 디자인 김재희 최희정 • 인쇄소 고려서적 • 배본처 도서출판 푸른숲 02) 364-7871~4
- 등록번호: 바-02699 •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가 65번지 2층 도서출판 이프
- 전화: 743-6715~6 팩스: 765-9059 • Hite ID: parachut • 천리안 ID: feminif
- 하이텔에서도 if를 보실 수 있습니다(go feif).

여성의 욕망을 아는 집,  
페미니스트저널 **if**

**if**는 정직하다!

**if**는 용감하다!

**if**는 자유롭다!

**if**는 재미있다!

**if**를 보고 싶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부

1 3 6 - 0 1 1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자에게> 담당자 앞

1 3 6 - 0 1 1

